www.ggcf.kr

경기그레이트북스 14

건국의 주역, 경기 인물

고혜령
이재범
이달호
정진각
강병수
김혜완
박한남

경기문화재단

집필자

고혜령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이재범 전) 경기대 사학과 교수
이달호 전) 수원박물관장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강병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장
김혜완 전) 아주대 강사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경기그레이트북스(GyeongGi Great Books)는 경기문화예술의 정수를 소개하고자 경기문화재단에서 간행하는 문화예술총서입니다.

세계속의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건국의 주역, 경기 인물

경기그레이트북스 ⓮

경기그레이트북스 ⓮

www.ggcf.kr

건국의 주역, 경기 인물

경기문화재단

이 책은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이

경기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발간하였습니다.

경기학연구센터가 기획하였고 관련전문가가 집필하였습니다.

| 책머리에 |

2018년은 경기京畿라는 이름이 쓰인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918년 고려의 건국으로 경기지역은 한반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에 고려 이후부터의 역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국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경기도만이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사는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 이후부터의 역사는 경기도의 역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기인물이 활약했음은 당연합니다.

이 책은 고려의 개국에 앞장선 경기지역의 호족과 인물, 조선개국을 이끈 경기도의 개국공신,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개국 활동에 치열하게 참여했던 대표적 경기인물을 소개하고 그들의 업적을 선양하고자 기획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건국의 주역이 경기인물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선정 인물은 현재 경기도 지역과 관련이 있는 인물로 한정하였다. 역사적으로 경기도에 속했지만 인천, 강화, 서울 등지의 인물은 배제했다. 다만 개성은 현재 북한지역에 있지만 경기도와 역사적 연고가 깊은 까닭에 포함하였습니다. 한편, 여기에 속한 경기 인물들의 출생지는 지금의 행정구역보다는 그들의 생존 당시 행정구역을 일반적으로 따랐습니다. 예컨대 현재의 파주시 교하읍 출신일 경우, 교하의 인물로 삼았습니다.

참고로 개성은 1467년(세조 13)경기에 예속되어 부윤 · 판관이 배치된 이래 한국 전쟁까지 경기도 관하管下였습니다. 또 서울은 1910년 10월 1일 시행된 〈조선총독부지방관관제〉에 따라 한성부가 경성부京城府로 개칭되어 경기도에 편입된 이래 일제강점기 동안 경기도에 소속되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인물 선정에 있어서 고려 개국공신은 박천식朴天植의 논문 「高麗士族의 形成 · 發展과 階層構造(하)」(國史館論叢 第29輯, 국사편찬위원회)에 부록으로 실린 '太祖功臣 名號表記 諸事例와 出身地 分布 一覽表'를 참고하였습니다. 또 조선개국공신은 원종공신을 제외한 1~3등 공신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공신의 사당이나 비석, 그리고 무덤이 경기도에 있는지 여부를 선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건국 인물은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 중에서 그 출생지가 경기도이거나 경기도를 거점으로 활동한 인물을 뽑아서 소개했습니다. 모두 다 소개할 수 없기에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수훈자만 수록했습니다.

한편, 이 책은 경기지역학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들을 위한 자료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공개된 여러 자료들을 발췌하거나 재구성하여 사전식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차 례 |

6 책머리에

1부 경기도 지역의 국가와 건국인물

경기도의 역사지리적 위치 _12

경기도 지역의 국가와 그 주역들 _17

경기도 지역 건국 인물들의 성향과 특징 _35

2부 고려 건국과 경기 호족

개경 왕씨 _44

정주 유씨 _54

양근 함씨 _57

장단 한씨 _60

남양 홍씨 _62

남양 방씨 _64

수원 김씨 _65

수주 최씨 _67

용인 이씨 _70

죽주지역 _73

이천 서씨 _77

파평 윤씨 _79

파주 염씨 _82

시흥 강씨 _88

안성 이씨 _91

평택 임씨 _94

풍양 조씨 _97

천녕 견씨 _101

영평 마씨 _104

포천지역 _106

인천지역 _109

서울지역 _113

불교계의 인물 _115

3부 조선의 개국 공신

조선개국 1등공신 _128

조선개국 2등공신 _182

3등공신 _193

4부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

가평의 인물 _228

고양의 인물 _237

광주의 인물 _251

통진, 김포의 인물 _268

시흥의 인물 _272

안성의 인물 _277

양주의 인물 _281

양평, 지평의 인물 _294

여주의 인물 _305

연천, 삭녕의 인물 _312

용인의 인물 _320

이천의 인물 _330

진위, 평택의 인물 _337

파주, 적성, 교하, 장단의 인물 _342

포천의 인물 _362

화성, 수원의 인물 _370

색인 _391

1부

경기도 지역의 국가와 건국인물

경기도의 역사지리적 위치

경기도의 명칭은 경기에서 유래한다. 경기는 한정된 공간에 대한 호칭이며 동시에 개념이기도 하다. 원래 '경'은 '천자天子가 도읍한 경사京師'를 뜻하고, '기'는 '천자의 거주지인 왕성王城을 중심으로 사방 500리 이내의 땅'을 의미했다. 그 뒤 '왕도의 외곽지역'이라는 일반적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경기'라는 말은 당나라시대에 왕도의 주변지역을 경현京縣(赤縣)과 기현畿縣으로 나누어 통치했던 데서 기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통일신라시대에 왕도의 외곽지역을 특별구역으로 설정해 왕도의 보위를 도모했는데 대략 8세기경의 일이다. 그 영역은 대체로 고려 초의 경주대도독부 관내와 일치하였다. 이곳에는 육정六停의 군사집단과 각종의 성城 · 별궁別宮 · 문역門驛 등이 설치되었으며, 일부 향鄕 · 성成도 있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는 왕도의 외곽지역을 '경기'라고 부르지는 않았고 왕기王畿라는 기록은 확인된다.

지금의 경기도는 한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갖는 지역이다. 자연지리적으로는 농업에 필요한 평야 지대가 넓게 펼쳐져 있고, 한국 최대의 포장수력을 자랑하는 한강과 임진강 및 예성강 등에서 제공하는 풍부한 수량이 농업을 지원하였다. 뿐만 아니라 근현대에 들어서도 에너지의 가장 중요한 자원의 하나인 수력이 가장 풍부한 지역이자 교통의 중심지이다. 그러므로 경기도의 주인공이 그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다는 한국사의 역사적 명제는 타당

성을 갖는다.

그 역사적 증거로 삼국시대 각국은 이 지역을 얻기 위하여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다. 백제는 이 일대를 점유하고 있을 때였던 한성백제시기가 가장 강성하였고,[1] 475년 이후로 고구려가 경기도 일대를 점령한 다음에는 패자적 위치에 있을 수 있었다. 아차산과 용마산의 고구려 보루, 호로고루 등 임진강 유역의 고구려 성곽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경기도 지역에 한주(漢州)를 설치하였는데, 특히 군사적으로 이 지역을 중시하여 9주에 1정停씩 두었던 군사 거점을 한주에만 2정을 두었을 정도였다. 당시 한주는 한강을 아우른 광역으로 넓은 평야와 많은 인구를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비록 도읍지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 역사지리적 중요성은 컸다.

경기 지역이 다시 도읍지로 등장한 시기는 후삼국시대였다. 후삼국시대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사람인 궁예가 세력이 강성해지자, 868년에 송악개성에 발어참성[2]을 쌓고, 901년에 고려 건국을 선포하였던 것이다. 송악은 904년 궁예가 국호를 마진摩震으로 바꾸고 905년에 철원경鐵圓京으로 도읍을 옮길 때까지 국도였다. 마진은 그 뒤, 태봉泰封으로 국호를 바꾸고 철원경을 국도로 삼았으나, 송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일대의 한반도 중심지 기능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후삼국시대는 지방의 여러 호족 세력들이 성장하였던 시기로 경기도 지역에서는 많은 호족들이 성장하여 한 시대를 이끌고 가는 동력이 되었다. 후삼국시대의 대표적인 경기도 지역의 호족 세력은 개성 왕씨, 정주 유씨, 광주 함(왕)

1) 지금의 서울특별시 풍납동 일대.

2) 왕건의 아버지인 왕륭의 건의로 궁예가 왕건에게 명하여 축조하였다. 그 뒤 왕건은 발어참성을 중심으로 개경을 확대해 나갔다. 고려의 황성이 이것이다.

씨, 이천 서씨, 수주 최씨, 봉성 염씨, 파평 윤씨 등으로 왕건의 고려 건국에 대거 참여하였다. 이와 함께 이 시기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강했던 일부 사원세력들도 있었다.

특히 경기도 지역은 왕건의 고려 건국과 함께 한반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역으로 등장했다. 왕건은 한때 개혁적 행동으로 많은 기대를 모았던 궁예의 정치가 장기화 되면서 점차 모순을 드러내자 여러 호족 세력들과 연합하여 역성혁명에 성공하였다.[3] 왕건은 국호를 고려로 바꾸고 태봉의 추종세력들을 포섭하려고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여러 반왕건세력들이 도전하였으며, 왕건은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자신의 근거지에서 웅비하고자 송악으로 도읍을 옮겼다.[4]

왕건은 송악을 개주라 하였다가 개경으로 승격을 시켰다. 그 뒤로 고려에서는 개경을 황도라고 하면서 당당한 천자국의 면모를 과시하기도 하였다. 경기도 지역은 이로부터 조선을 거쳐 현재에 이르기까지 국도가 있는 지역으로서의 중심지대라는 역사지리적 위치를 점하였다.

경기도 지역이 공간, 시간적으로 한반도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시기는 고려시대였다. 역사상 공식적으로 '경기'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 시기는 1018년(현종 9)이다.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경기라는 개념과 용어는 중국에서 빌려왔지만, 고려에서는 일정한 변화를 거치면서 독자적이 변화 과정을 거쳤다.

1018(현종 9)에 고려는 개성현에 예속된 3현과 장단현에 예속된 7현을 상서도성에 소속시키고 '경기'라 하였다. 그 모체는 995년(성종 14)에 적현赤縣 6개와 기현畿縣 7개를 개성부로 삼았던 데에 있다. 이 개성부는 919년(태조 2)에 철원경

3) 918년 6월(음력)
4) 919년 1월(음력)

에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개주開州를 개편한 것이었다.

현종은 개성부에 포함되어 있던 왕경을 경기와 분리하였는데, 경기는 주현主縣인 개성현령과 장단현령에 의해 분할 통치되면서 중앙의 상서도성 직할로 되었다. 1062년(문종 16)에는 다시 개성부를 두어 지개성부사知開城府使 1인이 통치하였고, 1069년(문종 23)에는 경기의 영역이 52개 군현으로 확장되었다.

그 뒤에 경기는 다시 현종대의 규모로 환원되었다가, 원종대에 녹과전제祿科田制가 실시되면서 녹과전이 경기 8현의 토지로 국한되면서 축소되었던 것이다. 충렬왕 34년(1308)에는 개성부사가 개성부윤으로 승격되면서 경기와 중앙정부 직할인 왕경 5부까지를 관할 구역으로 하였다.

공양왕 2년(1390)에는 경기를 확장하여 좌도 25현과 우도 19현으로 나누고,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좌도와 우도에 도관찰출척사都觀察黜陟使를 두어 일반적인 도제道制를 적용하였다. 그 영역은 개성을 중심으로 남으로는 남경南京·당성唐城(화성군 남양)·금주衿州(서울 금천구)·과주果州(과천), 서로는 안주安州(황해도 재령)·연안延安, 동으로는 철원과 포주抱州(포천), 북으로는 곡주谷州(황해도 곡산)·수안에 이르는 지역이었다. 관할 현縣의 수는 문종 때보다 적어졌으나, 실제 영역은 확대되었다.

조선 건국 이후 한때 경기는 좌도와 우도로 나누어졌지만, 태조·태종·세종대를 거치면서 다시 '경기'로 되었다. 수안·곡주·연안 등지는 풍해도豐海道(황해도), 광주廣州·수원·여주·안성 등지는 경기로 이속되는 등 한양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임진왜란·병자호란과 이괄李适의 난 등을 겪은 인조대 이후에 개성·광주·수원·강화에는 유수부와 함께 관리영管理營·수어청守禦廳·총리영摠理

營 · 진무영鎭撫營 등의 군영이 설치되었다. 그 밖에 남 · 북한산성 등 많은 관방 시설이 들어섰다.

근대에 들어서 경기도는 많은 시련을 겪었다. 서구 열강의 침략으로 병인 · 신미양요, 운요오호 사건, 강화도 조약 등 굵직한 서양 세력들과의 충돌이 있었다. 그리고 한일합병에 의하여 국권이 상실된 뒤에는 식민지 지배를 가장 혹심하게 당했던 지역이었다. 일제는 조선총독부를 경성에 설치하였으니, 그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던 경기도는 당연히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혹독한 대우를 받았던 것이다.

경기도민들은 일제 식민지 통치에 대하여 격렬하게 저항하였다. 3 · 1민족운동 때에는 조선인들에게 발포를 한 일본인 순사들을 타살하기도 했다. 많은 민족운동가를 배출하였다. 많은 독립운동가도 태어났다. 일제에 저항하여 언론활동, 교육사업 등으로 미래의 한국인을 양성한 인물도 있었다. 이들 일제에 저항하는 경기도민들은 대한민국 수립의 초석으로 대한민국의 수립에 공헌하였다. 그 뒤 경기도는 수도를 에워싼 국가의 중심부였기에 많은 영욕을 필연적으로 겪게 된다.

경기도민은 그 지리적 필연성을 자신들의 역사적 운명으로 발전시켰던 사람들이었다. 경기도는 경기도민의 삶의 터전이었다. 경기도의 역사지리적 위치는 바로 현재의 경기도민들에게서 찾을 수 있다.

경기도 지역의 국가와 그 주역들

경기도의 국가

우리나라에서 국호를 선포하고 국가를 창업한 경우는 현재의 행정구역상 경기도가 가장 많다. 따라서 국가의 수도로서 가장 오랫 동안 중심 지역의 역할을 하였던 지역도 경기도이다.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국가로서의 체제를 갖춘 경우는 백제이다. 백제의 건국주체는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미추홀[5]과 위례성[6]을 도읍으로 정착한 이주민 집단이었다. 이들은 온조와 비류, 그리고 이들의 어머니인 소서노였다. 처음 백제의 국호는 십제로서 마한의 지배층의 묵인 아래 일정 지역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그 뒤로 세력이 강성해져 마한을 축출하고 고대국가로 성장하였다.

백제의 점령 지역 대부분은 경기도 지역이며, 웅진으로 도읍을 옮기기 전까지 위례성을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일반적으로 백제를 공주 · 부여와 연결하여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자면 백제는 경기도 국가라고 불

5) 인천 추정.

6) 서울 풍납동 일대.

러야 마땅하다. 그 까닭은 백제는 가장 오랫동안 한강과 관련된 나라였기 때문이다. 당시에 '경기'라는 개념이나 제도가 있었다는 기록은 없으나, 그와 유사한 제도적 조처는 있었을 것이다.

백제가 존재하던 시기는 삼국시대로 각 나라는 나름대로의 왕경과 경기에 해당하는 지역들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한강 유역의 백제, 대동강 유역의 고구려, 형산강 유역의 신라는 경기에 해당하는 개념의 지역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신라와 관련된 기록에 왕기王畿라는 용어가 나오기 때문이다.

경기라는 개념이 지역과 부합된 시점은 고려시대부터이다. 그 이전까지 한반도의 중심 도시로서의 도읍은 경주(동경)였다. 삼국을 통합한 신라의 도읍이 경주였으므로 당연한 현상이었다. 신라는 경주가 한반도의 동남쪽에 치우쳐 있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5소경 제도를 실시하여 균형적 발전을 꾀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후고려의 궁예가 송악을 도읍으로 하면서 한반도의 중심도시가 이전하였으며, 다시 철원경을 거쳐 개경 시대를 중심으로 하는 고려 왕조가 475년간 계속되면서 경기 지역은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중심지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였다. 또 조선왕조 500년 동안 국가근본의 땅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하게 하였으며, 현재에도 우리나라의 중핵中核이라는 위치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아니,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살아가는 곳이기에 '대한민국의 고갱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고려 이후부터의 역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도 국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경기도만이 국가는 아니지만 한국사에서 수도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신라 이후부터의 역사

는 경기도의 역사라고 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경기도 국가 개국의 주역

고려

왕건에 의하여 건국된 고려는 호족 세력들의 연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그러므로 고려 건국의 주체 세력은 호족세력들이었다. 호족이란 신라말부터 성장하기 시작한 지방에 근거를 둔 신진 세력들이었다. 이들은 골품제에서 소외된 인물이나 집단들로 탈신라를 꾀하며 성주 · 장군 등으로 불리면서 자주적으로 행동하였다. 왕건은 이러한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호족들을 연합하여 하나의 통일 국가로 만들었다. 이들이 고려 국가가 점차 기반을 강화해가는 과정에서 중앙 귀족으로 성장하였고, 더 나아가 그 세력과 특권이 세습됨으로서 문벌화 되어 갔다. 그러므로 고려 건국 세력을 확인하는 것은 곧 신라말에서부터 성장하였던 호족들의 실체를 파악하는 것과 같다.

신라말 고려초의 호족들은 전국적으로 분포하였다. 그러므로 고려의 통일은 후삼국으로 분리되었던 한반도를 다시 통합한 결과였다. 여기에 더하여 발해 유민들을 전격적으로 포섭하여 명실상부한 남북 통일도 이루었다. 그리하여 고려 건국 주체세력을 알기 위해서는 발해 유민 집단과 왕건과 혼인을 하였던 호족들까지 광범위한 집단을 살펴보아야 한다.

고려의 태조가 된 왕건은 자신을 도운 호족들에게 그들의 점유 지역을 관장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를 주었다. 그 징표가 본관제였다. 태조는 호족들의 거주 지역을 지방제도화 하면서 그들의 징표로 지역명을 사용하도록 하였다. 예컨대 '○○이씨, ○○김씨' 등과 같은 예이다. 그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호족세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7]

:: 〈표 1〉 고려 건국 세력으로서의 경기도 지역 호족

연번	본관성씨	호 족	비 고 (관련인물)
1	개성 왕씨	왕륭(王隆)	왕건, 왕식렴, 고려 역대 왕
2	양근 함씨	왕규(王規)	
3	남양 홍씨	홍은열(洪殷悅)	홍관
4	파주 염씨	염상(廉相)	염신약, 염경애, 염흥방
5	수원 김씨	김칠(金七)	
6	수원 최씨	최승규(崔承珪)	최사위, 최루백
7	시흥 강씨	강여청(姜餘淸)	강감찬
8	안성 이씨	이중선(李中宣)	혜소국사
9	양천 허씨	허선문(許宣文)	
10	이천 서씨	서신일(徐神逸)	서필, 서희, 서눌 등
11	인주 이씨	이허겸(李許謙)	이자연, 이자겸, 이자현 등
12	용인 이씨	이길권(李吉卷)	
13	죽산 박씨	박적오(朴赤烏)	박수문 등
14	부평 이씨	이희목(李希穆)	
15	파평 윤씨	윤신달(尹莘達)	윤관
16	평택 임씨	임팔급(林八及)	

〈표 1〉의 내용은 고려의 경기도 지역 호족으로 그 후손들이 문벌 귀족으로 성장한 예이다. 이른바 문벌귀족화 한 호족 세력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물론 여

7) '한국역대인물종합시스템'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경기도 지역의 본관을 선정하였다.

기에 기록된 호족 세력 이외에도 많은 호족들이 있었을 것이지만, 그들은 전투 중에 사망하였거나 능달能達, 긍준兢俊 등 호칭은 있으나 그 후손들을 알 수 없고, 어디가 이름이고 성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또한 『고려사』나 『삼국사기』와 같은 관찬사서나 국가적 사업인 비문 등에서는 확인이 되지 않지만 가승으로만 전달되어 오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학계에서는 가승家乘에 대하여 사료로서의 신뢰도를 박약하게 여기지만, 때로는 가승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지나치게 현재적 사고인지는 모르겠으나 역사란 믿고 싶은 것을 기록한다는 견지에 선다면 관찬사서는 관에서 믿고 싶은 것만을 기록한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믿고 싶은 것을 기록한 서적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어떻든 경기도 지역의 고려 건국 세력들은 그 뒤로 고려의 문벌 귀족으로 성장하였다. 그리고 고려 왕조를 수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서희, 강감찬, 윤관 등 고려의 대외항쟁에서 국난을 극복한 인물들 가운데 개국 공신 계열의 문벌 귀족화 된 인물들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일반적으로 문벌 귀족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좋지 않은 편이다. 그들의 사치와 국왕권을 넘보는 오만함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고려의 문벌 귀족들은 외적의 침입에 대항하여 꿋꿋이 항쟁을 한 본보기였다. 이들은 자신들이 본관으로 삼는 지역을 침입하는 외적을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던 것이다.

한편 고려에서는 태봉을 역성혁명으로 무너뜨릴 때 공헌한 인물들에게 공신 포상을 하였다. 이들을 삼한공신이라고도 한다. 『고려사』 태조세가에 따르면 그 내용이 다음 〈표 2〉와 같다.

:: 〈표 2〉 삼 한 공 신(고려 개국 공신)

등급	이 름	포 상 내 용	비고
1등	홍유(洪儒), 배현경(裵玄慶), 신숭겸(申崇謙), 복지겸(卜智謙)	금은 그릇[金銀器], 수 놓은 비단[錦繡綺], 침구[被褥], 비단[綾羅], 베[布], 비단[帛] 등	
2등	견권(堅權), 능식(能寔), 권신(權愼), 염상(廉湘), 김락(金樂), 연주(連珠), 마난(麻煖)	금은 그릇[金銀器], 수 놓은 비단[錦繡綺], 침구[被褥], 비단[綾], 비단[帛] 등	
3등	2천여 명	비단[綾], 비단[帛], 곡식과 쌀[穀米] 등	

위의 내용을 보면 1등 공신 4인 이외에는 호칭은 있으나 성과 이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1등 공신은 뒤에 성과 이름이 바뀐 경우이다. 이들이 태조의 개국과 삼한통일전쟁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경기도 지역 인물로 밝혀진 경우는 없다. 2등으로 봉해진 공신들 가운데는 공신으로 책봉되었다는 사실 이외에는 알려진 내용이 없는 경우 조차 있다. 개국공신들이 많았던 이유는 많은 사람들을 포섭하여 자신의 혁명을 인정 받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다. 어떻든 이러한 고려 태조의 처사는 고려를 여러 집단과 인물들을 포용해 간다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준 처사라고 할 것이다.

한편 고려시대에는 호족세력 이외에도 사원세력이 정치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나말여초 불교계는 경주 중심의 교학불교와 지방에 기반을 둔 선종이 주류를 이루었다. 선종은 불립문자不立文字·견성오도見性悟道를 내세우며 진리의 체험적 직관을 중시하였다. 선종 사원들은 지방호족들의 후원을 받으면서 지역들의 민심을 회유하여 후원 세력을 지지하기도 하는 등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하면서 상부상조하였다. 이들 가운데에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크게 기여한 예가 적지 않다. 요오화상了悟和尙 순지順之·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871~921)·혜거惠居국사 지회智回 등이 대표적 예이다.

「서운사 요오화상 진원탑비瑞雲寺 了悟和尙 眞原塔碑」[8]에 따르면 순지는 속성은 박씨朴氏로 예성강 부근의 패강浿江 사람이었다. 순지는 왕건의 할머니 원창왕후元昌王后(龍女)와 아버지인 위무대왕威武大王(왕륭)의 요청으로 오관산 용암사龍巖寺(뒤의 서운사)에 머무르다가 65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고 한다. 순지는 일찍부터 왕건의 집안과 연관이 있었던 종교계 인물이었다.

경유의 속성은 장씨張氏로 남양南陽(화성)사람이다. 「오룡사 법경대사비」[9]에 의하면, 형미迥微 · 여엄麗嚴 · 이엄利嚴과 함께 해동의 4무외대사無畏大士로 불리며 도의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경유는 궁예의 포악함을 미워하여 왕건을 도와 건국한 뒤 왕사王師의 예우를 받았다고 한다. 개경 오룡사는 고려 왕실사원으로 왕건에게 종교만이 아닌 정치적 자문에 임하는 등 많은 고려 건국에 도움을 주었다.

「갈양사 혜거국사비葛陽寺 惠居國師碑」[10]에 따르면 혜거국사는 명주溟洲 박씨朴氏로 천령군川寧郡(黃驪縣, 여주) 사람이라고 한다. 혜거국사도 정치적 영향력으로 고려의 건국과 수립에 많은 영향력을 발휘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혜거국사는 970년(광종 21) 수원 갈양사를 중수하였고, 971년(광종 22) 가을에 불교사에 최초로 수륙도량水陸道場을 열어 고려초의 정신문화 진작에 기여하였다.

그 밖에도 혜목산慧目山 고달사高達寺에 입적한 찬유璨幽[11], 그 밖에도 하남시에 있는 동사桐寺나 천왕사天王寺 등과 같은 거찰이면서도 관련 인물을 알 수 없는 사원세력들도 고려의 개국에 많은 공헌을 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예들이다.

---

8) 개성 오관산五冠山 서운사瑞雲寺에 있는 937년(태조 20)에 건립된 비.

9) 개성 오룡사지五龍寺址에 있는, 944년(혜종 1)에 세워진 최언위崔彦撝가 찬한 비.

10) 수원 용주사龍珠寺의 전신인 갈양사葛陽寺에 있는 994년(成宗 13)에 최량崔亮 찬한 비.

11) 「고달사원종대사혜진탑비高達寺元宗大師慧眞塔碑」는 975년에 장단열이 찬한 비.

조선

조선은 1392년 개성에서 개국하였다. 조선의 개국은 신흥 무장인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반고려 성향의 고려 관료들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조선의 개국은 공양왕이 이성계에게 선양한 평화로운 절차를 밟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성계를 중심으로 한 신진사대부 세력들에 의하여 조선의 정치 권력이 장악된 뒤에 이루어진 형식적인 의례였다. 당시 신진사대부들 가운데에서도 조선 개국파는 혁명파 사대부로 부르기도 한다.

조선 개국의 주축인 조선 개국공신들은 고려의 개국공신들과는 달리 개경 중심의 관료들이었다. 여기에 이성계와 그의 가족 및 향족鄕族들이 가세하였다. 그러므로 조선 개국 공신들의 본관은 전국 각지에 설정되어 있으나, 이들의 거주지나 세거지는 개경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본관별로 살펴 본 조선의 개국공신들의 성격은 별로 큰 의미가 없다.

고려 전기와 달리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원간섭기를 지나면서 고려 전기의 문벌귀족과는 다른 신진사대부들과 관련이 있다. 원간섭기에 원의 세력을 배경으로 권문세족이 형성되었으나 공민왕의 반원개혁때 세력이 약해졌고, 신진사대부가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과 함께 개경 중심의 새로운 세력집단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또한 고려말의 홍건적이나 왜구의 침입으로 새롭게 형성된 무장 세력이 등장하여 수도 방위를 하면서 그들의 세거지가 개경 중심이 되면서 대거 조선 개국 세력에 포함이 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문벌 귀족 세력들이 포함되기도 했으나, 지역적으로 개경 중심 세력들간의 쟁패 과정에서 조선이 개국되었던 것이다.

조선 개국 공신은 55명이다. 이성계는 1392년 8월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3등급으로 나누어 1등공신 16명, 2등공신 11명, 3등공신 16명, 합계 43명을 봉하였다. 그리고 개국 직후에 사망한 김인찬(金仁贊)을 추봉하고, 9월말에는 한상경(韓尙敬)등 7명, 11월에 황희석(黃希碩)을 추가하여 52명이 되었다. 그리고 1398년 12월, 제1차 왕자의 난으로 정도전(鄭道傳) 일파를 제거한 이방원(李芳遠)과 방의(芳毅)·방간(芳幹) 등을 추가하여 모두 55명이 되었다. 조선시대의 개국공신은 다음의 〈표 3〉과 같다.

:: 〈표 3〉 조선의 개국공신

연번	등급	인물	본관	포상	비고
1	1등	배극렴(裵克廉, 1325~1392)	경산	150~220결의 공신전, 15~30명의 노비	
2		조 준(趙浚, 1346~1405)	평양		
3		김사형(金士衡, 1341~1407)	안동		
4		정도전(鄭道傳, 1342~1398)	봉화		
5		이 제(李濟? 1398)	성주		
6		이 화(李和, 1348~1408)	전주		
7		정희계(鄭熙啟, 1348~1396)	경주		
8		이지란(李之蘭, 1331~1402)	청해		
9		남 은(南誾, 1354~1398)	의령		
10		장사길(張思吉?~1418)	안동		
11		정 총(鄭摠, 1358~1397)	청주		
12		조인옥(趙仁沃, 1347~1396)	한양		
13		남 재(南在, 1351년~1419)	의령		
14		조 박(趙璞, 1356~1408)	평양		
15		오몽을(吳蒙乙, ?~1398)	보성		
16		정 탁(鄭擢, 1363~1423)	청주		
17		김인찬(金仁贊, ? ~1392)	양근		
18		이방원(李芳遠, 1367~1422)	전주		태종
19		이방의(李芳毅, ? ~1404)	전주		익안대군
20		이방간(李芳幹, ?~1421)	전주		

연번	등급	인물	본관	포상	비고
21		윤 호(尹虎, ?∼1393)	파평		
22		이민도(李敏道, 1336∼1395)	상산		
23		박 포(朴苞, ?∼1400)	죽산		
24		조영규(趙英珪, ?∼1395)	신창		
25		조 반(趙胖, 1341∼1401)	배천		
26		조 온(趙溫, 1347∼1417)	한양		
27	2등	조 기(趙琦, ?∼?)	배천	100결의 공신전, 10명의 노비	
28		홍길민(洪吉旼, 1353∼1407)	남양		
29		유 창(劉敞, ?∼1421)	강릉		
30		정용수(鄭龍壽, ?∼1412)	?		
31		장 담(張湛, ?∼1400)	결성		
32		조 견(趙狷, 1351∼1425)	평양		
33		황희석(黃希碩, ?∼1394)	평해		
34		안경공(安景恭, 1347∼1421)	순흥		
35		김 균(金稛?∼1398)	경주		
36		유원정(柳爰廷, ?∼1399)	문화		
37		이 근(李懃, ?∼1398)	고성		
38		오사충(吳思忠, 1327∼1406)	영원		
39		이 서(李舒, 1332∼1410)	홍주		
40		조영무(趙英茂, ?∼1414)	한양		
41		이백유(李伯由, 1352∼1399)	전주		
42		이 부(李敷, ?∼1422)	공주		
43		김 로(金輅, 1355∼1416)	연안		
44	3등	손흥종(孫興宗, ?∼?)	?	70결의 공신전, 7명의 노비	
45		심효생(沈孝生, 1349∼1398)	부유		
46		고 여(高呂, ?∼1402)	제주		
47		장지화(張至和, ?∼1398)	?		
48		함부림(咸傅霖, 1360∼1410)	강릉		
49		한상경(韓尙敬, 1360∼1423)	청주		
50		임언충(林彦忠, ?∼?)	?		
51		황거정(黃居正, ?∼?)	창원		
52		장사정(張思靖, ?∼?)	안동		
53		한 충(韓忠, 1486∼1521)	청주		
54		민여익(閔汝翼, 1360∼1431)	여흥		
55		이 직(李稷, 1362∼1431)	성주		

조선의 개국공신은 일등공신 20인, 이등공신 13인, 삼등공신 12인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선의 개국공신이라는 사실과 개경과 한양을 비롯하여 그 일대에 거주하였다는 점이다. 이들의 본관은 전국에 분포되어 있으나, 고려시대와 같이 지방에 호족적 기반을 두고 있지는 않았다. 극히 일부가 지역적 연고가 지방이었으나, 한미한 가문의 출신들이었다.

신라말 고려초의 호족들은 고려시대를 거치면서 크게 두 유형으로 계층분화 하였다. 하나의 유형은 중앙 귀족이 되어 왕경과 경기 일대에 세거하였다. 다른 유형은 자신의 본관이 있는 지역의 호족으로 향리화하여 지방의 실세로 존재하였다. 그 가운데 고려의 멸망을 재촉하고 혁명에 가담하였던 계층은 상경 세력의 후손들이었으므로 경기도 지역 거주 인물들이었다. 개경에서 혁명을 일으켰고 한양 천도 이후에는 거주지 변동이 있었으나 이들의 거주지는 경기도였다.

조선 개국공신 가운데 문신 · 무신으로 나누어보면 문신 31명, 무신 12명, 불명이 9명이다. 문신 가운데 문과 급제자는 27명이며, 신진사대부 층으로 역성혁명을 지지하였다. 고려말에 번성함을 누렸던 권문세족은 공민왕의 반원개혁 때 실세를 상실하였다. 무신은 함경도 · 강원도 지역의 토호 출신이 많으며, 이지란 등 3명은 여진족 귀화인이다. 이성계의 친인척도 적지 않았다. 이제는 이성계의 사위, 이직은 이제의 종제이다. 심효생 등은 이성계의 인척, 조인옥 등 한양 조씨는 이성계 집안과 중혼관계였다. 처음 공신에 봉해졌던 정도전 · 남은 · 이제 등 12명은 건국 이후 왕자의 난때 피살되었다.

조선의 개국공신의 후손들은 조선 왕조에서 현달하였으며, 그들의 묘소나 후손들의 거주지가 경기도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개국공신의 특성은 고려와는 달리 혈연적인 경우보다 지연적인 연고가 더 깊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개경이라는 왕도를 중심으로 관직과 전시과의 지급에 따른 지역적 연고를 무시할 수 없었던 고려 귀족들은 왕실이나 문벌간의 통혼을 통하여 중앙권력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했다. 고려의 귀족사회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귀향歸鄕은 형벌로 간주될 정도였다.

그에 비하여 조선의 개국공신들은 한양천도와 함께 주요 관직을 보유하면서 경기도에 거주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 뒤로도 정치적 정변에서 밀려나지만 않으면 대대로 경기도 일대에서 토지를 보유하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출신지인 본관지와는 무관하게 수도의 중심지인 경기도 일대에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경기인들이라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었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었다. 여기에는 동조하지 않는 견해도 있지만, 그것은 어떻든 대한민국은 36년간의 식민지 지배를 끝내고 헌법을 갖춘 독립국가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미국의 군정이 일시적으로 행해졌으나 1945년 8월 15일에 삼권을 갖춘 국가로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주권을 갖춘 국가로 태어난 대한민국은 국권 회복을 위하여 헌신하였던 인물들에 대한 숭모 및 보훈을 하였다. 지금도 매년 심사를 거쳐 국가 건립에 헌신한 선열들을 찾아서 그분들에게 합당한 처우를 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건국훈장의 등급은 5단계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다. 건국훈장은 1949년 4월 27일에 대통령령으

로 '건국공로훈장령'이 공포되면서 제정되었다.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49년 8월 15일에 중앙청에서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 이시영에게 수여되었다. 외국인에게 수여된 최초의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1953년 1월 28일에 경무대에서 미국 육군 대장 제임스 밴 플리트에게 수여되었다.

1963년 12월 14일에 각종 상훈 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이 제정되면서 '건국공로훈장령'은 폐지되었다. 어쨌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7년 1월까지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은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애국장 3,886명, 애족장 5,016명 등 9,831명이고, 건국포장 1,037명, 대통령표창 2,445명 등 총 13,313명이다.

이들을 분류하면 무장독립운가, 애국계몽가, 언론인, 정치인 등 활동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이들 가운데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지 않다. 독립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기도 관련 인물을 정리하면 다음의 〈표 4〉와 같다.[12)]

:: 〈표 4〉 독립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경기도 인물

연번	이름	출신지역	상 훈	비 고
1	조병세(趙秉世, 1827~1905)	가평	대한민국장	을사조약 자결, 묘 시흥
2	신익희(申翼熙, 1894~1956)	광주		임시정부
3	조소앙(趙素昻, 1887~1958)	파주		독립운동, 납북
4	최익현(崔益鉉, 1833~1906)	포천		의병
5	강기동(姜基東, 1884~1911)	양주	대통령장	의병
6	김익상(金益相, 1895~1943)	고양		독립운동가
7	김경운(金敬云), 1879~?)	용인		의병
8	박동완(朴東完, 1885~1941)	포천		민족대표 33인

12) 기준 설정은 현재의 경기도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필자의 부주의로 누락이 되거나 오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연번	이름	출신지역	상 훈	비 고
9	연기우(延基羽, ?~ 1914)	삭녕	대통령장	의병
10	이인영(李麟榮, 1868~1909)	여주		의병
11	이종훈(李鍾勳, 1856~1931)	광주		민족대표 33인
12	안재홍(安在鴻, 1891~1965)	진위		납북, 건국 활동
13	윤기섭(尹琦燮, 1887~1959)	장단		납북, 민족혁명당
14	여운형(呂運亨, 1886~1947)	양평		건국준비위원회
15	이필주(李弼柱, 1869~1932)	고양		민족대표 33인
16	강윤희(姜允熙, 1868~1909)	가평	독립장	이인영 의병
17	김교헌(金敎獻, 1868~1923)	수원		북로군정성
18	구연영(具然英, 1864~1907)	광주		정미의병
19	권 준(權俊, 1895~1959)	적성		정미의병
20	김경운(金景云, 1861~1908)	통진		정미의병
21	김규식(金圭植, 1882~1931)	양주		고려혁명당
22	김범이(金範伊, 1884~ ?)	광주		정미의병
23	김석진(金奭鎭, 1843~1910)	고양		한일합방 자결
24	김세환(金世煥, 1889~1945)	화성		3 · 1운동
25	김수민(金秀敏, 1867 1909)	고양		정미의병
26	김원조(金遠祚, 1885~1923)	이천		3 · 1운동
27	김 혁(金赫, 1875~1939)	화성		독립운동
28	나중소(羅仲昭, 1867~1928)	고양		독립운동
29	문상익(文相翊, 1893~1960)	화성		3 · 1운동
30	박시창(朴始昌, 1903~1986)	시흥		임시정부, 광복회
31	박영준(朴英俊, 1915~2000)	파주		광복군
32	박찬익(朴贊翊, 1884~1949)	파주		임시정부요원
33	반하경(潘夏慶, ? ~1910)	파주		내시, 의병?
34	신 숙(申肅, 1885~1967)	가평		한국독립군
35	신창룡(申昌龍, 1879~1909)	양주		정미의병
36	안승우(安承禹, 1865~1896)	지평		의병
37	안원규(安元奎, 1878~1947)	파주		하와이 대한인 교민단
38	엄항섭(嚴恒燮, 1898~1962)	여주		독립운동가
39	여 준(呂準, 1862~1932)	용인		애국계몽운동
40	오광선(吳光鮮, 1896~1967)	용인		독립군, 준장예편
41	오영선(吳永善, 1886~1939)	고양		임시정부 국무위원

연번	이름	출신지역	상 훈	비 고
42	오의선(吳義善, ? ~1907)	용인		독립운동가
43	왕광연(王光演, ? ~1951)	화성		3 · 1운동
44	왕회종(王會鍾, 1879~1925)	연천		의병
45	원심창(元心昌, 1906~1971)	진위		무정부주의자 흑우연맹
46	유명규(劉明奎, ? ~1907)	통진		강화 진위대 봉기
47	유택수(柳澤秀, 1900~1929)	이천		군자금 모집
48	윤병구(尹炳球, 1877~1949)	양주		재미 독립운동
49	윤인순(尹仁淳, 1880~1909)	양주		정미의병
50	이규선(李奎善, 1885~1941)	화성		3 · 1운동
51	이규채(李圭彩, 1884~1947)	포천		한국독립당
52	이명하(李命夏, 1878~1921)	광주		중국 독립운동
53	이수흥(李壽興, 1905~1929)	이천		유택수와 군자금 모집
54	이순모(李順模, 1893~1975)	화성		3 · 1운동
55	이양섭(李陽燮, 1894~1925)	안성		3.1운동
56	이은영(李殷榮, 1868~1921)	여주		의병, 이인영 동생
57	이재윤(李載允, 1849~1911)	양주		한일합방 자결
58	이재현(李在賢, 1917~1997)	시흥	독립장	OSS 국내침투조직
59	이춘영(李春永, 1869~1896)	지평		의병
60	이충응(李忠應, 1856~1896)	가평		을미의병
61	이한응(李漢應, 1874~1905)	용인		1905년, 자결
62	이희룡(李熙龍, 1872~1948)	안성		3 · 1운동(4 · 1운동)
63	이희승(李熙昇, 1896~1989)	광주		조선어학회
64	장소진(張韶鎭, 1886~1920)	화성		3 · 1운동
65	전덕기(全德基, 1875~1914)	이천		신민회사건
66	정서송(鄭庶松, 1897~1966)	화성		3 · 1운동
67	정용대(鄭用大, 1882~1910)	적성		의병
68	정철화(鄭哲和, 1878~1943)	용인		독립운동가
69	정태진(丁泰鎭, 1904~1952)	파주		조선어학회 사건
70	조시원(趙時元, 1904~1982)	연천		광복군, 조소앙 동생
71	조용하(趙鏞夏, 1882~1937)	연천		독립운동, 조소앙 형
72	조인제(趙仁濟, 1918~1997)	연천		광복군, 조소앙 3남
73	조인환(曺仁煥, ? ~ ?)	양평		의병
74	차병혁(車炳赫, 1889~1967)	화성		3 · 1운동

연번	이름	출신지역	상 훈	비 고
75	차희식(車喜植, 1884~1938)	화성	독립장	3 · 1운동
76	추삼만(秋三萬, 1880~1910)	양주		의병
77	한봉철(韓奉喆, 1898~1936)	양평		항일무장투쟁
78	홍원식(洪元植, 1877~1919)	화성		3 · 1운동
79	홍준옥(洪埈玉, 1888~1945)	화성		3 · 1운동

경기도 출신의 독립장 이상의 상훈을 받은 인물들을 정리한 결과를 보면 그 상황은 몇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물론 위의 〈표〉에 수록된 인물들이 필자의 자의적인 것은 아니지만 수록된 내용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만은 없는 것은 상훈 대상자들의 후손에 의하여 정리된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그것은 어떻든 〈표〉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경기도 전지역에서 상훈 수상자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경기도에서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전 지역에서 조국을 되찾겠다는 국민이자 도민의 열망이 강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지적할 수 있는 점이 시기적으로 을미의병에서부터 OSS[13]에까지 가담했다는 사실이다. 경기도민의 독립운동은 처음 외세의 강점에서 식민지 정책이 고조를 더 해갈수록 궤를 같이 하여 더욱 강렬하게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경기도민의 독립운동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활발히 전개되었다. 국내에서는 경찰서 폭파 작전 등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제의 수사가 심하게 압박을 하게 되면 중국 등지는 물론이고 하와이 등지로 독립운동 장소를 이동하여 치열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

13) 2차대전 중 미국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가 한인을 대일전에 활용하기 위해 광복군과 합작으로 정보요원을 양성한 계획을 말한다.

독립운동의 유형도 다양하여 애국계몽에서부터 폭력을 수반한 무장독립투쟁까지 전개하였다는 점도 특징이다. 이희승은 조선학회사건과 관련이 있고, 이재현은 OSS에 들어가 한반도 침투작전에 참여하고자 했다.

이러한 독립운동의 전개는 학력의 높낮이와 상관이 없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이 배운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독립을 원했던 것이다. 안재홍과 같이 정치적 역할을 함으로써 독립운동을 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사제폭탄을 만들어 저항한 경우도 있다.

많은 경우가 가족과 친구, 학맥 등 소규모의 공동체와 함께 연대되어 있었다. 가족들이 상훈을 받은 대표적인 경우는 조소앙의 집안이다. 조소앙은 그 자신이 삼균주의라고 하는 근대적 평등 개념을 갖고 있었던 정치인이기도 하였지만, 임시정부를 통하여 독립운동을 하였던 인물로 납북되었다. 그의 동생과 형, 그리고 아들까지도 독립운동에 참가하여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독립운동 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조소앙보다 앞선 시대에 이인영과 이은영 형제도 있다. 이들은 의병으로 참여하여 국권이 쓰러져 갈 때 이를 일으켜 세우고자 헌신하였다.

한편 지역민들간에 끈끈한 연대로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있었다. 유택수와 이수흥 등은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를 거부한 인물들을 살해한 경우도 있다. 폭력을 수반했다는 점에서 인도적으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일제강점기 아래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해할 근거가 된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화성의 3·1운동이다. 이 거사에서도 화성의 주민들이 일본의 순사를 타살한 경우가 있다. 당시 일본 경찰은 화성 제암리나 수촌리 등과 같이 마을을 불사르고 조선인을 사살한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조선인들의

반발이 심했는데, 화성에서도 마찬가지였다. 화성의 주민들 가운데 일부는 권총을 발사하는 일본 경찰의 처사에 격분하여 타살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당시의 격앙된 분위기에서 돌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이었다.

이와같이 경기도 지역의 대한민국 건국인물은 의병, 을사조약, 군대해산 등에서 무장독립항쟁에 이르기까지 일제강점기 전 기간에 걸쳐 독립운동에 공헌하였다.

경기도 지역 건국 인물들의 성향과 특징

경기도의 역사지리적 위치는 어느 시기에도 한반도의 중심부라는 특징을 갖는다.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을 점유하는 세력이 한반도의 중심세력이 되었다. 그러므로 이 지역민들은 자신들의 세거지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아끼면서 지키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삼국시대에는 신라, 고구려, 백제의 삼국이 이 지역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하여 격렬한 전투를 마다하지 않았다.

경기도 지역은 후삼국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되었다. 궁예는 송악에 발어참성을 축조하고 도읍으로 삼았으며, 철원을 '경'으로 삼아 황제국의 수도를 상징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를 본받은 왕건은 철원경에서 송악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개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개경으로 삼았다. 수도를 '경'이라고 한 국가는 철원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신라때에도 동경, 5소경 등의 용례가 나타난다. 단지 후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 들어서면서 한반도의 중심부로 경의 위치가 옮겨졌다는 의미가 크다.

경기라는 명칭은 고려 현종대(1018년)에 제도적으로 운영되면서 확실한 관제상의 중심지역으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그러한 역사지리적 위치를 잃은 적이 없었다. 경기도는 거란의 침입과 홍건적의 침입때에 일시적으로 피난을 한 시기를 제외하고서는 굳건한 수도로서의 위치를 지키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지역민들의 성향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고려의 건국의 주역들은 경기호족들이었다. 고려 태조 왕건은 자신을 열세를 만회하기 위하여 많은 호족들과 연합하였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많은 공헌을 했던 호족들이 경기 호족들이었다. 본관을 파평, 양천, 정주, 이천, 수주 등 경기도 지역으로 했던 이들 호족들은 고려 건국 이후에는 중앙으로 진출하여 문벌귀족으로 성장을 한다. 이들이 중앙으로 진출한 뒤에는 점차 본관과는 크게 멀어지게 되어 개경을 중심으로 하는 지연적 연고와 관련된 집단들로 변모하게 되었다.

한편 개경에는 새로운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신진사대부 계층이나 신흥무장 세력들이 성장하여 고려의 권문세족들과 대립하게 되었다. 결국 고려는 새로운 세력에 의하여 대치되었는데, 서로 대립했던 세력들은 모두 경기도와 지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고려의 개국공신은 경기도의 지역민들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리고 조선 개국공신들의 후손들은 정치적인 몰락이 아닌 경우에는 경기도 일대를 세거지로 하였다.

그리고 경기도민들은 근대에 들어와 다시 대한민국의 독립과 건국의 중심에 있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큰 외란인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남쪽과 북쪽에서 침략하여 전국을 유린하였다면 근대에 들어 서구열강의 서세동점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었다. 그리하여 왜란과 호란에 저항한 많은 의병들이 전국에서 일어났다면, 근대에 있어서 의병은 경기도권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다. 대표적인 의병인 을미의병과 정미의병의 중심에 경기도민이 있었다. 그리고 이 의병들은 개국공신들의 후손만이 아닌 경기 전 지역민들이었다. 그 뒤의 3 · 1운동, 독립운동 등도 마찬가지 양상이었다. 신분의 고하도 없고, 특정 지역에만 몰려 있지도 않은 전 지역에서 일어나 대한민국 항일투쟁과 활동에 건국운동을 활발히 전개

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기 지역의 개국인물을 통해 본 경기인들은 건국의 주역으로 활동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송악을 도읍으로 한 이래로 경기도 지역의 호족들이 왕권과 연합하여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그리고 호족들은 중앙 문벌 귀족화하여 고려의 중심세력으로 성장하였고, 외적을 물리치는 주역으로 성장하였다.

조선시대에는 선위의 형태였지만, 역성혁명에 많은 경기도 지역의 인물들이 참가하였다. 개국 공신들은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다소 변화가 있지만, 새로운 왕조를 굳건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지역의 근현대 인물들은 일제에 대한 독립운동과 대한민국의 개국 활동을 동시에 치열하게 참여하였다. 이들은 국내에서의 독립운동이 마땅치 않게 되자 해외로 거점을 옮겨 세계를 상대로 대한민국의 독립을 요청하였다.

경기도 지역의 개국 인물들은 시대를 막론하고 국가의 건국 세력으로 크게 기여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국정 운영에 참여하여 왕조와 국가의 굳건한 기반이 되었다.

이재범 전 경기대 사학과 교수

| 참고문헌 |

『삼국사기三國史記』

『삼국유사三國遺事』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DB』

『한국역대문집총서 DB』

『高麗墓誌銘集成』(金龍善편, 2001.)

『한국고전종합DB』(한국고전번역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http://encykorea.aks.ac.kr/)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http://e-gonghun.mpva.go.kr/ 공훈전자사료관)

『신편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1993.

『경기천년의 문화사』 경기문화재단, 2018,

『건국공신연구』(박천식,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朝鮮獨立運動』(金正明) 第1卷 分册 한국공산주의운동사(金俊燁 · 金昌順, 198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 1996).

『의병과 독립군』(윤병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7)

『의병전』(윤병석, 한국근대사료론, 일조각, 1979)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2부

고려 건국과 경기 호족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한반도의 중앙에 위치한다. 우리 역사에서 보면 현재의 경기지역은 마한馬韓이후 각 왕조에서 확보해야 할 중요한 대상이 되었는데 이는 경기도가 한반도의 중앙이라는 점보다 비옥한 토지, 한강을 이용한 풍부한 물산 이동과 서해안을 통한 중국과의 교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는 남북국시대를 지나 고려가 건국되고 개경이 왕도王都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역사에서 정치세력의 중심지가 되었고, 조선왕조가 현재의 서울인 한양에 도읍한 이후 현재까지 서울을 둘러싸고 모든 정치, 경제적 기반이 중심되었다.

경기京畿의 본래의 뜻은 수도를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이라는 뜻이다. 고려가 개경에 도읍한 이후 개경 주변에 '경기'라는 행정구역을 본격적으로 설정한 것은 고려 1018년(현종 9)으로 이후 조선이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경기라는 지역이 개경주변에서 한양 즉 서울 주변으로 이전되었고, 오늘날과 비슷하게 경기도의 영역이 형성된 것은 조선 태종 때인 1414년이다. 즉 경기도는 고려 현종 이후 개경(송악), 한양(서울)을 둘러싸면서 기본적으로 '경기'라는 지방행정단위로 존재하게 되었고 항상 역사의 중심부에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 한 시기인 소위 나말여초羅末麗初는 우리 역사상 가장 분권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신라의 수도 경주가 아닌 지방 각지에서 유력한 호족들이 발호했고 이들이 시대를 이끌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경주중심의 신라왕실은 진골귀족들의 수적 증가와 함께 이들에 의해 계속된 중앙에서의 왕위쟁탈전과 경제력의 독점으로 신라사회를 이끌던 골품제가 그 기능을 다하고 회복 불가능의 상태가 되어 지방통제력이 약화되었고, 지방에서는 중앙에서의 세금독촉에 불복종하는 봉기가 전국에서 일어났다.

이러한 배경으로 지방에서 새로이 등장하는 세력이 지방호족이다. 이들의 성분은 다양하다. 즉 신라에서 지방관으로 파견되었거나 왕위쟁탈전에서 패한 귀족들이 낙향하여 지방에 기반을 두고 호족화된 무리가 있고, 신라에서 변경수비를 위해 해상에 설치한 군진軍鎭세력들이 신라의 통제망을 벗어나 독립하게 되고 이들중에는 청해진의 장보고과 같이 해상무역까지 독점하여 막강한 경제력을 소유하여 신라중앙 왕위쟁탈전까지 관여한 경우도 있다. 또한 촌주村主, 성주城主 등으로 불리우는 재지세력在地勢力도 있는데 이들은 촌락의 정무를 담당하여 국가로부터 촌주위답村主位畓을 받는 등 정치적 지위를 인정받는 존재로 경제적으로도 일반 촌민보다 우월한 기반을 지니고 있었다. 이들도 신라의 통제력이 약화되자 언제든지 자신의 거취를 독립적으로 결정하며 새로운 시대로의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지방호족들은 당시 새로이 부각되는 선종禪宗이나 풍수지리를 신봉하여 이념적 자신의 당위성을 강조하면서 신라 중앙과는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자신의 몸집을 불리면서 역사의 중심부에 등장하게 되었다. 이들은 상호간에 무력적 우열에 인한 통합이나 반대급부가 동반된 귀부라는 평화적 방법으로 세력을 불려나가 우리의 역사는 지방분권적 추세에서 호족연합을 이룬 국가권력 밑으로 다시 통일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후삼국은 궁예의 후고려(태봉), 견훤의 후백제, 신라에서 왕건의 고려, 견훤의 후백제, 신라의 삼국으로 옮겨가게 되었고 고려의 삼한통일로 결말이 되었다.[14)]

고려 건국은 918년 6월 태조 왕건이 궁예 정권에 대해 정변(쿠데타)을 일으

14) 이재범은 후삼국시기를 기간이 짧지만 왕건의 등장을 전후로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이재범, 2016, 「후삼국시대사론」『신라사학보』 37.

켜 철원 포정전布政殿에서 왕위에 올라 국호를 고려高麗, 연호年號를 천수天授라 함에서 시작되었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자 수도를 궁예 태봉泰封의 철원에서 자신의 본거지인 개성으로 천도하고 통일 전쟁을 수행하면서 각 지역에서 발호하던 지방호족들을 회유, 포섭하면서 민심을 수습하여 국내의 안정을 꾀하였다.

그러나 고려가 건국되었다고 하지만 왕건에게는 태봉내에서의 궁예에 협조했던 세력들을 제어하여 협조하게 만드는 일, 후백제와의 외교적, 또는 군사적 대결, 신라의 전통을 계승받는 일 등 무수한 난제가 남아 있었다. 이러한 난제는 918년 고려를 건국하고 936년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도 다양한 성향의 지방호족세력들을 포용하고 고려의 지배체제 속에 편제시켜야 되는 숙제가 되었다.

이글은 고려의 건국자인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성장시키는데 기여한 경기출신 인물을 찾아 이들의 역할을 알아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고려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고려사』나 『고려사절요』 등은 어쩌면 고려왕실의 역사라 할 수 있어 여기에 나오는 단편적인 기록으로 경기 출신인물을 찾아내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려에 오면 대호족정책의 하나라 하지만 유력한 호족에게 토성土姓이 부여되면서 그들의 출신지를 알 수 있고, 또한 고려사회에서 출신지를 밝히는 것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고려 건국에 기여한 경기출신인물을 논할 수 있다.

사료에서 살펴보면 왕건의 고려건국을 도운 경기출신 인물들은 당시 여건상 개인적인 역할을 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태조가 건국하면서 책봉한 삼한공신三韓功臣들이 가장 확실한 구국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들 중에는 고려에 일찍이 귀부하여 왕씨 사성賜姓을 받았다든가, 왕건과 혼인관계를 맺은 호족출신 인물이 대표적일 것이고, 선대로부터 각자의 지방에서 토착하여 고려에서 토성을

받은 호족들 중에도 일찍이 왕건의 일통삼한一統三韓의 과업에 협조한 인물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외에 고려의 국가적 이념이나 왕실신앙을 실현해준 승려도 고려 개국에 도움을 준 인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개경 왕씨開京 王氏

왕륭王隆(龍建)

왕건집안도 송악지방의 토착 촌주출신으로 외가가 해상세력으로서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강화도의 군진인 혈구진穴口鎭과도 연관되어 전형적인 지방호족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

『고려사』 세계世系에 의하면 고려 왕실의 선조는 김관의金寬毅의 『편년통록編年通錄』에 이르기를, "송악지방에 이름이 호경虎景이라는 사람이 있어 스스로 성골장군聖骨將軍이라고 불렀다"고 하였다. 이후 강충康忠, 보육寶育, 작제건作帝建 등 설화상의 인물이 나오나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첫 번째 경기인물은 왕건의 아버지 왕륭王隆이 되어야 할 것으로 편의상 개경왕씨, 즉 왕건집안의 성씨로 부르기로 한다.

왕륭(?~897)의 초명은 용건龍建으로 어머니는 원창왕후元昌王后 한씨韓氏이다. 877년(헌강왕 3) 풍수지리에 능한 선승 도선道詵의 예언으로 왕건을 낳았으며 도선의 말을 듣고 이름을 왕륭王隆으로 바꾸었다.

개경왕씨는 『고려사』나 『제왕운기帝王韻紀』, 『개성왕씨계보』 등에 의하면

고구려유민으로 추정되는데 왕건의 할아버지 격인 작제건作帝建이 당나라 상선을 탔다는 설화로 보아 개경을 중심으로 해상활동을 주로 하면서 재부를 축적하여 송악지방의 토호로서 세력을 형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왕륭은 신라에서는 북단 외곽인 송악군松嶽郡의 사찬沙粲으로 있었다고 한다. 이후 왕륭은 신라가 지방통제력을 잃고 궁예가 세력을 확대해 가자 896년(진성여왕 10)에 자신의 군郡을 들어 궁예에게 귀부하여 금성태수金城太守가 되었다. 이 때 왕륭은 궁예에게 "대왕께서 만일 조선朝鮮 · 숙신肅愼 · 변한卞韓 땅의 왕이 되고자 하신다면 송악에 성을 쌓고, 먼저 나의 아들 왕건을 성주로 삼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라고 하였고 궁예는 그 말을 따라 왕건으로 하여금 개성 송악동에 있는 발어참성勃禦塹城을[15] 쌓게 하고 성주로 임명하였다. 그때 태조의 나이는 20세였는데 궁예가 왕륭의 말을 받아들인 것은 그 만큼 왕륭이 송악지방에서 이미 막강한 경제적 부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영토확장의 꿈을 같이 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2년 후 898년 궁예는 수도를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고 왕건을 정기대감精騎大監에 제수하였다. 궁예는 905년 철원으로 수도를 옮길 때 까지 송악을 수도로 900년에는 남한강유역까지 출하여 신라북부지역을 거의 장악하였다. 궁예는 901년에 '고려'를 건국하고 904년에는 국호를 마진摩震, 연호를 무태武泰라고 하였다. 905년 궁예는 수도를 철원으로 환도하여 패서나 송악지방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세력형성을 기도하였고 911년 국호를 태봉, 연호를 수덕만세水德萬歲로 하고 전제화의 길을 걸으면서 미륵관심법을 쓰는 등 포악해지기 시작하였다.

---

15) 발어참성은 개성 송악동에 있는데 왕건은 고려를 건국하고 개성으로 천도하면서 이 발어참성을 중심으로 도시로서의 개성이 발전하게 되었다. 그 뒤 1029년(현종 20)에 나성羅城을 쌓은 때로부터 1392년 고려가 멸망할 때까지 이 발어참성이 외성 안의 궁성을 보위하는 황성皇城의 구실을 하였다.

궁예는 왕건집안의 귀부로 송악지방을 자신의 세력권 안에 포함시켜 왕건의 선대로부터 쌓아온 토착적 기반까지 바탕으로 '고려'라는 나라를 세울 수 있었지만 궁예에게 왕건은 우대해 주어야하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을 것이다. 한편 왕건은 겉으로는 독자적 세력성장을 포기하여 궁예의 세력 확보에 기여하였지만 그와 동시에 자신의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폭정을 하던 궁예정권을 무너뜨리고 고려를 건국할 수 있었다.

즉, 개경왕씨는 선대에 부터 개경지방을 중심으로 해상무역을 통하여 경제력을 갖고 이를 바탕으로 송악에서의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다가 왕건의 아버지 왕륭대에 와서 궁예 정권에 참여하여 정치 세력화하였다. 이렇게 보면 고려 건국은 이미 아버지 왕륭에 의해 의도되어지고 아들 왕건에 의해 실천에 옮겨진 결과라 할 것이다.

왕건王建

고려를 건국한 인물이다.

왕건은 즉위년에 곧바로 공신을 3개로 분류하여 공신호를 수여하는데 1등 공신은 홍유洪儒 · 신숭겸申崇謙 · 복지겸卜智謙 · 배현경裵玄慶으로 왕건이 고려를 세우는데 직접 기여한 개국 1등 공신이다. 2등 공신은 견권堅權 · 능식能寔 · 권신權愼 · 염상廉湘 · 김낙金樂 · 연주連珠 · 마난麻煖 7명이고 나머지는 3등으

로 2,000여명이다. 개국공신들은[16] 고려의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물들로 고려건국의 주역으로 왕건은 공신들에게 관직을 수여하거나 상응한 포상을 하여 자신의 지지기반으로 삼았다.

그러나 고려를 건국할 당시 고려 왕실은 다른 호족에 비해 월등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송악지방의 일개 지방호족의 수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은 궁예 지지세력을 제어하여야 하였고, 발해유민까지 포섭하는 일통삼한의 후삼국 통일 전쟁을 수행하면서도 민심을 수습하여 국내정치의 안정을 꾀하여야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독자적 호족세력들을 회유, 포섭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하였다.

왕건은 건국하자 본격적으로 호족 규합을 통하여 호족연합정권을 이루고 일통삼한의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그의 정책은 중폐비사重幣卑辭와 취민유도取民有度의 말로 축약되는데 취민유도는 백성에게 조세를 수취할 때에 일정한 법도가 있어야 한다는 뜻으로 신라 말기 이래 문란해진 토지제도와 조세를 바로잡고, 궁예 이래의 가혹한 조세를 경감하는 조치로 민심안정책이었다. 중폐비사는 고려에 귀부해 오는 호족들에 대해 상대방은 높이고 자신은 낮춘다는 뜻으로 자신의 정략적인 결혼과 왕씨사성王氏賜姓을 통하여 가족같은 의미를 부여하여 세력을 규합하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또한 왕건은 귀부해 온 호족들에게 그들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고려 중앙관직을 준다든가 지방 토호들에게는 토성土姓을 부여한다든가 하는 방식

16) 고려에는 개국공신인 삼한공신 외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 있다. 제정된 시기는 936년에서 940년 사이에 제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936년(태조 19)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뒤 940년 신흥사新興寺(神興寺)를 중수하면서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다고 한다. 그 수는 삼한공신이 3,200명 정도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대략 이에 버금갈 만큼 많은 숫자였을 것으로 짐작된다. 벽상공신들은 통일전쟁에 직접 참여한 태조의 막료뿐만 아니라, 태조에게 협력한 각 지방의 대소 호족 및 그의 막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삼한공신과 삼한벽상공신사이에는 위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삼한벽상공신조 참조

으로 그 지방에서의 자치권을 인정해주면서 아직은 중앙집권화가 되지 못한 고려에 대한 적대감을 갖지 않게 하는 지방 분권적인 형태를 유지하였다.

이러한 대호족정책과 민심수습책을 통하여 왕건은 신라, 후백제부터 발해 유민까지 통합하는 일통삼한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다. 이러한 위업 속에는 신라 골품제같은 폐쇄된 신분제 폐지, 백성의 조세부담 축소 등 사회발전의 모습도 들어있고 아울러 해상세력의 출신성향을 가진 왕건의 속성은 고려가 해외 해상무역을 중시하는 무역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왕건은 즉위 2년인 919년 봄에 자신의 토착적 기반이 있는 송악 남쪽에 도읍을 정하고 군을 개주開州 즉 개성으로 승격시켜 본격적으로 수도 개성의 지위를 정착시켰다. 이는 우리 역사에서 중심축이 한반도 동남에 치우친 경주에서 한반도 중심부로 옮겨졌다는 뜻으로 한반도의 균형있는 발전의 계기가 된 점도 평가해야 될 것이다.

왕식렴王式廉

왕건의 아버지 왕륭은 4형제 중 장남으로 왕륭의 동생 삼중대광三重大匡 왕평달王平達의 아들에는 왕식렴王式廉 · 왕신王信 · 왕육王育 · 왕만세王萬歲가 있다. 이들은 고려 건국과정에서 정치 · 군사적으로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왕식렴은 태조의 사촌 동생이다. 처음에 군부서사軍部書史가 된 뒤에 여러 벼슬을 거쳤다. 918년(태조 1)에 태조가 황폐한 평양에 사람들을 이주시켜 대도호부로 삼고 담당관원을 파견할 때 그 책임자로 등용되어 평양을 지키면서 안

수진安水鎭 · 흥덕진興德鎭 등에 성을 쌓아, 그 공으로 여러 차례 승진하여 좌승佐丞이 되었다. 왕식렴의 평양개척은 왕건의 북방정책의 일환으로 평양은 그 전진기지가 되었다.

태조가 죽고 혜종이 왕위에 오르자 태조의 제15비, 제16비妃의 아버지인 왕규王規가 제16비가 낳은 광주원군廣州院君을 임금 자리에 앉히려 하였는데 혜종이 2년 만에 죽고 정종定宗이 왕위에 오르자 반란을 일으켰다.(945년) 이에 왕식렴은 평양으로부터 군대를 이끌고 개성에 들어와 왕규의 반란을 진정시켜 정종의 즉위에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왕식렴은 광국익찬공신匡國翊贊功臣으로 대승大丞이 되어 정종의 후견인으로서 극진한 예우를 받았다.

왕식렴의 역할은 왕건의 호족연합정책의 하나인 혼인정책의 문제점이 표출된 것으로 왕건은 귀부해온 유력한 호족으로부터 29명의 부인을 맞이하였고 왕실인물은 족내혼을 통하여 이탈을 방지하기도 하였다. 특히 훈요십조訓要十條에서 보이 듯 형제상속을 인정한 점은 왕위계승에 있어 외가의 세력정도가 왕위계승에 중요한 관건이 될 수밖에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왕식렴의 왕규의 란 제압은 왕건 이후 왕위계승의 혼란을 마무리시키는데 일정한 역할을 하였다.

왕신王信

왕신은 왕식렴의 동생으로 왕건과는 사촌관계이다. 특히 925년(태조 8) 왕건은 후백제와 조물군曹物郡(지금 경북 안동시)전투 이후 후백제에 인질로 보내졌다가 견

훤이 고려에 보낸 인질 즉 견훤의 외생질 진호眞虎가 죽자 926년(태조 9) 4월 견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고려는 후백제에 대해 건국이후 화친관계를 맺고자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시도해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절 등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였다. 그러나 920년 견훤이 신라의 대야성(경남 합천)과 진례성(전북 무주)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려의 구원을 받은 후 신라와 고려가 동맹을 맺고 적대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후백제가 고려에 보냈던 인질 진호가 병들어 죽자 견훤은 고려가 일부러 죽였다하여 고려에서 보낸 인질 왕신을 죽였다. 이후 고려와 후백제는 적대관계로 전환되었고 결국 왕건은 후백제와는 전투적인 방법으로 대항하게 되었다.

왕건은 질자외교質子外交도 전개하여 신라뿐 아니라 후당後唐, 후진後晋에게도 질자를 보내 외교의 수단으로 삼았는데 왕신은 왕실인물로 질자외교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왕건은 왕신을 위해 안화선원安和禪院을 창건하여 그의 원당願堂으로 삼았다. 왕신은 개경 오룡사五龍寺 법경法鏡 경유慶猷의 재학제자在學弟子이기도 하다.

왕만세王萬歲

왕식렴의 동생 왕만세는 932년(태조 15) 견훤과 해군장군海軍將軍 상애尙哀가 대우도大牛島를 공략하였을 때 왕명을 받아 구원하였고 936년(태조 19) 6월 아들 신검에 의해 유폐되었던 견훤이 나주로 나와 고려에 입조를 청할 때 유금필庾黔弼과 함께 군함 40여척을 거느리고 가서 견훤을 맞이하였다.

왕함윤王含允

왕식렴의 아들에는 왕함윤王含允과 왕함순王含順이 있다. 특히 왕함윤은 936년(태조 19) 9월에는 일리천一利川(지금 경북 선산)전투에 참전하여 대상大相 강공훤康公萱 및 원윤元尹 능필能弼과 함께 삼군 원병을 지휘하는 등 군사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일리천 전투는 견훤이 아들 신검에게 유폐되어 있다가 왕건에게 귀부한 다음, 왕건의 힘을 빌려 신검에게 복수하려는 전투로 왕건과 견훤은 10만 대군으로 일리천에서 결전을 벌였고 신검은 패주하다가 황산黃山에서 왕건에게 항복하여 후백제는 건국 45년 만에 멸망하였다.

왕희순王希順

왕희순王希順은 고려사 권99 왕세경전에 의하면 그는 태조太祖를 도와 삼한三韓을 평정하여 공신功臣이 되었다. 그의 후손으로는 8대손 왕세경王世慶이 유명하다. 왕세경은 의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경산부사京山府使를 지냈는데, 학문만 좋아할 뿐 재물에 욕심이 없어 임기가 끝난 후에는 궁핍하게 살았다. 뒤에 재상 이지무李之茂의 장수를 비는 소疏를 지어달라는 이웃사람의 부탁을 받고 문장을 지어주었는데, 이 문장을 보고 감탄한 이지수가 추천하여 국학학유國學學諭에 임명되었고 이어 동문원녹사同文院錄事를 지냈다. 1170년 무신의 난으로 의종이 폐위되고 명종이 즉위하자, 금나라에서 이를 트집잡아 외교분쟁이 일어났다. 이로부터 두 나라 사이에 사신의 왕래가 빈번해졌는데, 이때 그가 지은 사명詞命(사신이 명령을 받

들어 외교문서 등을 작성하거나, 외교무대에서 응대하면서 쓰는 말이나 문장)이 왕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으므로 감문위녹사監門衛錄事에 제수되었다. 이어 좌정언 · 기거주 · 중서사인 · 간의 · 이부시랑 등을 거쳐 사재경에 이르렀다.[17)]

개경왕씨[18)]

개성 왕씨開成王氏의 시조는 왕건의 증조부인 국조國祖 왕보육王寶育이다. 왕건의 집안은 본래 송악[개성] 집안의 호족이었다는 사실 외에 그 가계에 대한 자세한 내력은 전해지지 않는다. 왕건의 아버지는 왕용건王龍建, 조부는 작제건作帝建, 증조부는 왕보육으로 왕건이 왕위에 오른 뒤에 추존한 3대까지 확인이 가능하고 그 이전의 내력은 알 수 없다.

고려 태조로 즉위한 왕건은 당시 각 지방에 할거해 있던 호족들의 포섭책으로 그들과 혼연을 맺거나 혹은 왕성을 사성하는 등 정책적인 배려에 상당한 신경을 썼으며, 사성 제도賜姓制度를 활용하였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李成桂(1335~1408)는 고려 왕실의 후예에 의한 구세력의 반발을 유화하는 뜻에서 왕씨 일족을 강화도와 거제도에 수용했다가 고려 왕실의 후예이자 유신들을 풀어 주는 등 비교적 온건책을 썼다. 그러다가 개국 공신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두 섬에 있는 왕씨 일족을 몰살시키고, 육지에 숨어 있는 왕씨를 색출하여 바다에 던져 죽이는 등 고려 왕손을 멸족하다시피 했다.

---

17)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왕세경'

18) 부산역사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개성왕씨'

한편 사성賜姓으로 왕씨가 된 사람은 모두 본성을 되찾게 하였다. 이처럼 박해가 심해지자 요행히 살아남은 왕씨들도 대부분 다른 성으로 변성하여 명맥을 유지하다가 정조 때에야 비로소 옛 문헌을 고증하고 지리멸렬된 혈족의 다자를 받아 비로소 세보를 간행하고, 태조 왕건이 수도로 정한 개성을 본관으로 삼았다.

개성 왕씨는, 제왕을 조상으로 칭할 수 없기 때문에 태조의 열다섯째 아들 왕원을 1세조로 하는 동양군파東陽君派, 신종의 둘째 아들 왕서王恕를 파조로 하는 양양공파襄陽公派, 고종의 둘째 아들 왕창王淐을 파조로 하는 안경공파安慶公派, 충정왕자 왕제王濟를 파조로 하는 시중공파侍中公派, 현종의 넷째 아들 왕기王基를 파조로 하는 평양공파平壤公派 등으로 나누어 세계를 잇고 있다.

정주 유씨貞州 柳氏

유천궁柳天弓

왕건이 가장 먼저 후비로 맞아들인 그의 첫 번째 부인 신혜왕후神惠王后는 유천궁의 딸이다. 유천궁은 읍인邑人이 장자長者라고 불렀을 만큼 정주지방의 부유한 호족이었는데 왕건이 군사를 거느리고 정주를 지날 때 왕건을 융숭히 대접하고 그의 딸로 시침侍寢케 하였다. 이후 왕건과의 소식이 끊기자 유천궁의 딸은 정조를 지키려 중이 되었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왕건이 부인으로 삼아 왕건의 첫째 부인이 되었다. 유천궁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의 작호를 받았다.

정주지방은 개성에서 서해로 나가는 요충지로 해풍海豊이라고도 한다. 정주 유씨는 일찍이 해상무역을 바탕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을 것으로, 수전水戰에 능한 왕건이 후백제를 치러 나주로 출정할 때도 이곳을 통해 장정을 나섰을 것으로 보인다. 즉 정주는 이전부터 왕건의 수군기지라 할 수 있다.

『고려사』 후비后妃열전에 의하면 신혜왕후는 왕건이 궁예정권 아래서 홍유, 배현경, 복지겸 등과 정변을 일으킬 때 손수 갑옷을 가져다 입히고 장수들이 태조를 옹위해 집을 나서게 하여 결국 정변이 성공하여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 개국을 내조로 도운 예가 된다.

또한 태조 6비 정덕왕후貞德王后 유씨도 유덕영柳德英의 딸이라 하는데 아마도 같은 정주유씨로 보인다.

정주 류씨貞州 柳氏

황해북도 개풍군을 관향으로 하는 한국의 성씨이다. 고려 태조 1번째 부인 신혜왕후, 6번째 부인 정덕왕후 유씨, 고려 숙종의 부인 명의왕후 유씨 등이 있다. 왕건은 궁예의 부장으로 있을 때 경기도 정주貞州 지방을 지나다가 신혜왕후를 만났다. 왕건을 따르는 부장들이 궁예에 대한 반란을 건의 할 때, 갈등하던 왕건을 신혜왕후 유씨가 적극적으로 설득하여 반란을 종용하였다.정주 류씨의 중시조 류소柳韶는 1011년(현종 2) 전중시어사殿中侍御史, 1016년에 어사잡단御史雜端, 1019년 사헌중승司憲中丞, 1022년 간의대부諫議大夫가 되고, 이어 태자빈객太子賓客이 되었다. 1029년 왕명으로 흥화진興化鎭 서북쪽 40리에 있던 석성石城을 수리하여 위원진威遠鎭을 두고, 흥화진 북쪽에 있던 석보石堡를 수축하여 정융진定戎鎭을 두어 백성을 옮겨 살게 하였다. 이 때 거란의 동경장군東京將軍 대연림大延琳이 난을 일으켜 흥료국興遼國을 세우고 고려에 구원을 청하였으나 현종이 응하지 않았다. 이 때 서북면판병마사西北面判兵馬事로 상중喪中에 있었으나 한漢의 승상 책방진翟方進의 고사를 들어 흥료의 방어에 임하도록 하였다. 1030년 중추사中樞使, 1031년 이부상서 참지정사吏部尙書參知政事가 되었고, 그 해 덕종이 즉위하자 중군병마사를 거쳐 문하시랑 동내사문하평장사門下侍郎同內史門下平章事가

되었다. 1033년(덕종 2) 왕명으로 북경관성北境關城(千里長城)을 쌓았는데, 그것은 서해안의 압록강 하구에서 동으로 위원 등 13성을 거쳐 화주和州에 이르는 1,000 여리에 걸치는 것이었다. 1034년 장성축조의 공으로 추충척경공신推忠拓境功臣에 봉하여졌으며, 은청광록대부 상주국 대위 문하시랑평장사銀青光祿大夫上柱國大尉門下侍郎平章事가 되었다. 덕종의 묘정廟廷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양의襄懿이다.

양근 함씨陽根 咸氏

왕규王規

왕규(함규)는 본래 양근의 토성 함씨咸氏로 보이는데 양근陽根 함씨 함유일咸有一(1106~1185)의 묘표墓表를 보면 "대위 광평시랑大尉 廣評侍郎 규規는 대조大祖(太祖)가 삼한三韓을 평정할 때 수종하여 공신으로 봉해졌으니, 공에게 현조玄祖가 된다"고 하였고 함유일은 함규의 5세손이라 하였다.

경기도 광주지역은 900년에 궁예 휘하의 왕건이 광주, 충주, 청주, 당성(남양), 괴산을 평정하여 궁예의 세력권으로 들어온 곳이다. 899년 북원의 양길과의 대결(비뇌성 전투)에서 승리한 궁예는 900년 왕건에 의해 광주. 충주 등 남한강일대가 장악되자 901년 송악에서 '고려'를 건국하였다.

교통의 요지로 물산이 풍부한 광주지역은 이미 궁예의 세력권 안으로 들어왔으나 양근의 유력한 호족이었던 함규(왕규)는 궁예에는 참여하지 않고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주변세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자신이 제압하였던 광주 산하 양근까지 진출하였을 때 귀부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후 함규는 왕건을 도와 후삼국 통일에 앞장서 고려의 개국에 공을 세워 익찬개국공신翊贊開國功臣등의 작

위를 받아 대광大匡에 이르렀고, 두 딸을 태조와 결혼시켜[19] 고려 왕실과 인척이 되었다. 아마도 왕규라는 이름도 사성을 받아 함규에서 왕규로 개명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왕규는 염상廉相 · 박수문朴守文과 함께 태조의 임종을 곁에서 지킨 3명 재신 중의 한 사람으로서, 태조가 죽자 유명遺命을 내외에 선포하는 중책을 맡기도 하였다.

혜종이 죽고 정종이 즉위하자 자신의 손자를 왕위에 오르게 하려고 난을 일으켰으나 왕식렴에 의해 실패하고 참살 당하였다.

양근 함씨咸氏

양근 함씨咸氏는 중국계 귀화 성씨로 본관은 강릉江陵 외에 60여 본이 전하는데, 세거지를 뜻할 뿐 모두가 같은 뿌리에서 갈라졌다. 시조는 중국에서 귀화한 함혁咸赫으로, 당나라 무종武宗 때 대사마대장군으로 조서를 받들고 신라에 들어오자 문성왕이 익화자사益和刺使(익화는 지금의 양평)로 임명했다고 한다. 그 무렵 조양현兆陽縣과 복홀현伏忽縣을 합하여 양근군楊根郡(지금의 양평)이라 하였으므로 양근을 본관으로 삼았다.

이후 원성왕 초기에 함신咸信이 김주원金周元을 따라 명주 땅에 들어온 뒤로 후손들이 강릉에 살게 되었다고 한다. 함씨는 시조 이하 약 20대의 세계世系가 확실하지 않아 고려 개국공신으로 광평시랑 평장사廣評侍郎平章事를 지낸 함규咸

19) 왕규의 두 딸은 태조의 제15비 廣州院夫人과 廣州院君을 낳은 제16비 小廣州院夫人이다.

規를 1세조로 하며, 함규의 15세손 함부림咸傅霖이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동원군東原君(동원은 강릉의 옛 이름)에 봉해짐에 따라 본관을 양근에서 강릉으로 바꾸었다.

조선시대 들어 강릉 함씨와 양근 함씨에서 배출한 문과 급제자로는 함헌咸軒이 있다. 중종 때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가서 공자의 초상화를 가지고 돌아와 강릉에 오봉서원五峰書院을 세워 봉안했다.[20)]

---

20)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양근함씨'

장단 한씨長湍 韓氏

위숙왕후威肅王后 한씨韓氏

장단군은 경기도 서북부에 위치한다. 이 지역의 토성으로 장단 한씨가 있는데 왕륭의 처가이자 왕건의 외가가 된다. 왕건의 어머니 위숙왕후威肅王后 한씨는 김관의의 『편년통록』에 따르면, 태조의 아버지 왕륭이 송악에서 영안성永安城으로 가던 중 꿈에서 결혼을 약속한 여인을 만나 마침내 혼인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그 여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였으므로 몽부인夢夫人이라 불렀다. 나중에 삼한三韓의 어머니라 하여 '한씨'라고 하였다고 한다.

왕륭과 한씨는 송악의 남쪽에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러던 876년(헌강왕 2) 어느 날, 풍수지리에 능한 선승 도선道詵이 그들의 집을 보고는 "기장을 심어야 할 곳에 어찌하여 삼을 심었는가?"하고 말하였다. 이 말을 들은 몽부인이 이상하게 생각하여 왕륭에게 그대로 전하였다. 왕륭이 도선을 찾아가 가르침을 청하니, 도선은 풍수에 따라 새로이 집을 지으면 삼한을 통일할 사람을 낳으리라고 예언하였다. 이에 두 사람은 도선이 알려준 대로 집을 고쳐 짓고 살다가 왕건을 낳았다고 한다. 태조가 고려를 건국한 뒤인 919년 위숙왕후로 추존되었다.

설화에서 보면 장단 한씨들은 왕건의 친가보다도 더 오래된 송악지방의 토착호족들이었을 것으로 왕륭과 혼인으로 통하여 정치세력화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성에 있는 「오룡사 법경경유비」에는 경유의 재학제자로 왕건을 비롯하여 왕건의 사촌 왕신王信, 한계봉韓桂逢 · 원보元甫 한헌윤韓憲閏, 원윤元尹 한평시랑韓平侍郎이 있어 장단지방의 한씨들이 지역사회를 이끌어 가는 토착세력으로서 이전부터 왕건집안과 연계되어 고려 왕실의 안녕을 위하여 오룡사를 원찰로 삼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남양 홍씨南陽 洪氏(唐城 洪氏)

홍은열洪殷悅

홍은열은 남양 홍씨의 시조로 고구려 영류왕 때 당唐에서 귀한 홍천하洪天河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다. 남양지방은 본래 당성唐城이라 하였는데 지금 수원과 화성 일원이다. 이색李穡이 지은 남양부망해후기南陽府望海樓記에 의하면 홍은열은 태조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익대공翼戴功이 있었고 대대로 거족을 이루었다고 하였다.[21] 이로 보아 홍은열은 남양지방의 호족으로 고려가 처음 일어날 때부터 협조하여 개국공신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홍은열은 정1품 삼중대광三重大匡과 태사太師의 자리에 올랐다고 한다.

남양 홍씨南陽 洪氏

남양 홍씨는 시조를 달리하는 당홍唐洪과 토홍土洪이 있다. 당홍은 고구려 때

21) 『동문선』 권76, 李穡, 「南陽府望海樓記」, 같은 내용이 『남양홍씨세보』에도 전한다.

당唐나라에서 귀화한 홍학사의 후예인 홍은열洪殷悅이다. 토홍은 고려 고종高宗 때 금오위 별장을 지낸 홍선행洪先幸의 후손이다. 당홍과 토홍이라는 호칭은 귀화파와 토착파의 구분에서 연유한다. 두 계보의 근원이 같은지는 알 수 없다. 다만 토착파인 토홍의 역사보다 귀화파인 당홍의 역사가 300년 이상 길다.

당홍의 시조 선대는 고구려 제27대 왕인 영류왕榮留王 때 중국 당나라에서 8학사의 한 사람인 홍천하洪天河가 고구려에 들어와 유학을 가르치는 등 문화 활동을 펼치다가 연개소문淵蓋蘇文의 난 때 신라로 피신하였다. 신라 제27대 왕인 선덕 여왕善德女王 때 유학의 발전에 공을 세워 당성(남양의 옛 이름)백에 봉하여졌고 태자태사가 되었다. 그리하여 후손들이 본관을 당성으로 하였다. 당성이 후에 남양으로 바뀌어 본관을 남양으로 하였으나, 그 이후의 계대가 확실치 않아 고려 개국 공신으로 삼중대광 태사三重大匡太師를 지낸 홍은열을 기세조起世祖로 하여 세계를 잇고 있다. 홍은열은 원래 이름이 홍유洪儒였는데 고려 개국에 공을 세워 태조太祖가 "은殷나라 부열傅說(중국 은나라 고종 때의 명재상)과 같다."며 '은열'이란 이름을 하사하였다고 한다.

당홍의 세계는 시조의 12세손에서 13파와, 그 밖의 2파, 도합 15파로 대별되는데, 그중 벼슬을 지낸 내력과 후손의 수가 많은 것은 남양군파南陽君派·문정공파文正公派·판중추공파判中樞公派·익산군파益山君派·예사공파禮史公派·중랑공파中郎公派 등 6파이다. 이 중에서도 남양군파와 문정공파의 후손이 특히 많아 당홍의 70%를 차지하고, 익산군파가 15%로 다음 간다고 한다. 당홍은 조선시대에 상신 8명, 대제학 2명을 비롯하여 왕비 1명, 청백리 3명, 부마 4명, 공신 10여 명을 배출하였다.[22)]

---

22) 디지털순창문화대전(http://sunchang.grandculture.ne), '남양홍씨'

남양 방씨南陽 房氏

방계홍房季弘

방계홍은 남양 방씨의 시조로 고려 개국에 공을 세워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삼중대광보국三重大匡輔國에 올랐다. 방계홍은 당나라 8학사 중 한 사람인 방준房俊의 9세손이라 알려져 있다. 방준이 우리나라에 온 뒤 지금의 남양에 정착하였기 때문에 이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世系를 이어 왔다. 현재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청원리의 당성 숭령사에서 방계홍을 향사하고 있다.

방계홍의 아들 방의강房儀康은 금자광록대부金紫光祿大夫로서 중서문하평장사中書門下平章事를 지냈으며, 손자 방진유房珍儒는 추밀원부사樞密院府使로 예부상서禮部尚書를 겸하였고, 다른 손자 방정유房貞儒는 대광大匡을 역임하며 수원 방씨水原房氏로 분파되었다.

수원 김씨水州 金氏

김칠金七

수주水州는 지금의 수원 화성 오산 등지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으로 940년(태조 23)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할 때 군민 김칠金七 · 최승규崔承珪 등 200명이 귀순하여 공을 세웠으므로 수주로 승격시켰고[23] 안산현安山縣을 비롯한 7개 현이 소속되었다.

당시 왕건은 이 지역을 확보하기 위해 상당히 고전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광교산은 본래 광악산이었는데, 왕건이 이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아 전승하여 광교로 바꾸었다고 한다. 부처님의 힘佛力으로 전승을 거두었다는 점은 당시의 상황을 말해준다 할 것이다. 왕건은 이러한 힘든 전투 속에서 이들 수주의 호족들이 귀부해 옴에 따라 좀 더 수월하게 수주지역을 확보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포상으로 수주로 승격된 것으로 보인다.

---

23) 고려의 지방 통제방식은 중앙의 파견관리가 행정을 맡은 主縣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못하고 주현을 통하여 간접 통치하는 屬縣이 있는 주현 · 속현 체제를 이루고 있었다. 이러한 체제 속에서 지방행정 단위인 州, 郡, 縣. 승격과 하강은 포상과 징벌의 의미가 있는 것으로 여러 租稅부담의 차이가 있다.

수원 김씨

수원 김씨는 신라 경순왕敬順王의 넷째 아들 대안군大安君 김은열金殷說의 손자 김품언金稟言을 시조로 모신다. 김품언은 고려 현종조에 거란군의 침입 때 도원수都元帥 강민첨姜民瞻과 함께 토평하는데 공을 세워 충순적덕정난공신忠順積德靖難功臣에 책록되어 은자광록대부銀紫光祿大夫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 태자소보太子少保에 올라 수성군隋城君('隋城'은 水原의 옛 지명)에 봉해졌고, 수원을 식읍食邑으로 하사받았다. 그 후 후손들이 수원을 본관으로 하여 세계世系를 이어오고 있다. 수원김씨 이외에도 인동仁同, 용성龍城, 용담龍潭, 서흥瑞興, 한남漢南, 용궁龍宮, 풍산豐山, 김녕金寧, 평해平海에 본관을 둔 김씨들도 품언의 후손으로 전해진다.

수주 최씨水州 崔氏

최승규崔承珪

김칠과 함께 활약한 최승규崔承珪는 수주최씨이다. 수주 최씨는 한남漢南 최씨라고도 하는데 그 유래는 낭천군(강원도)에서 이주해 온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어떤 경로로 수원 일대에 정착하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힐 수는 없다.

최사위崔士威

수주 최씨는 수원에 정착한 이래로 최승규가 개국에 공을 세우면서 더욱 중앙으로 진출하기로 하여 재지세력과 중앙귀족으로 분화되었는데 수주 최씨가 고려의 명문거족으로 성장한 시기는 최사위崔士威(961~1041)가 중앙귀족으로 커나가면서 부터로 자신들을 삼한의 대족大族, 해동의 저족著族이라 표현하였다.[24)]

---

24) 「崔繼芳墓誌銘」, "其先出於水州 三韓之大族也 曾祖崔士威」, 『韓國金石文追補』 94쪽.
「崔孝思墓誌銘」, "漢南崔氏 名孝思 改名坦亦 海東著族也" 金龍善편, 2001, 『高麗墓誌銘集成』 198쪽.
수주최씨에 대한 것은 박용운, 1982, 「고려시대 수주최씨 가문 분석」 『사총』 26 참고

특히 최사위는 그의 묘지명廟誌銘에 그의 행적이 자세히 나와 있다. 최사위는 현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리 만큼 현종의 측근으로 활약하였다, 먼저 그는 현종의 즉위 전 목종의 어머니 천추태후가 김치양과 사이에 낳은 자식을 왕위로 올리려는 음모에서 태조의 손자격인 대량원군大良院君 순詢(991~1031) 즉 현종을 보호하여 왕위에 올리는데 큰 공을 세웠고, 당시 거란의 2차 침입에 대하여 출정하였을 뿐 만 아니라, 성종대 이후 완전히 정비되지 못하고 더욱 거란의 침입으로 혼란해졌던 각종 제도를 시정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현종 당시의 정책은 거의 최사위의 입안立案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시행되었는데 최사위는 잘못된 공물의 사용을 시정케 하였고 지방제도와 향리제도에도 관심을 두어 임금에게 주청하였고 그의 주청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거란의 침입으로 소각되었던 공장工匠의 호적을 다시 작성하여 공장들의 관리에 정확을 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현종 당시 최사위는 현종을 왕위에 올린 공신으로서 왕권의 안정과 국가 기강을 확립시키는데 있어 여러 방면에서 정책을 올리고 실현시켰다.

특히 최사위는 현종의 원찰인 개경의 현화사를 건설하는데 지대한 역할을 하였고 거란과의 전쟁으로 파괴된 건축물을 복구하는데 노력하였다.

조선시대의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 '오륜행실도五倫行實圖' 등에도 실려 있는 효행으로 유명한 최루백崔婁伯(?~1205) 도 같은 수주 최씨 가문이다.

수원 최씨

수원 최씨는 동성동본이면서 시조를 달리하는 두 계통이 있다. 한 계통은 고려시대 산원동정散員同正을 지낸 최정崔靖을 시조로 하며 그의 선대에 대해서는 문헌이 없어 알 수 없다. 또 다른 계통은 고려 제15대 예종 때 수주水州(수원의 옛 이름)의 호장戶長 최상저崔尙翥를 시조로 한다. 수원水原의 옛 이름이 수성隋城이라 수원 최씨水原 崔氏와 수성 최씨隋城 崔氏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수원 최씨水原 崔氏는 원최原崔라 하고 수성 최씨隋城 崔氏는 내최來崔라고 부른다. 수원 최씨 분파로는 최정崔靖계는 서초파西初派 · 명천파明川派 · 서인파西仁派 · 정파貞派로 분파되었고, 최상저崔尙翥계는 참판공파 · 천민공파天民公派 · 진사공파進士公派로 분파되었다. 인물로는 최루백(고려 의종 때의 인물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효자), 최사위(고려 현종 때 현량), 최자성(성품이 강직하고 민첩하며 고려 때 여러 벼슬을 훌륭히 역임), 최원(고려 때 신호위보승별장을 역임 중 조선이 개국되자 금부도사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을 거부), 최유정(조선 중종 때 정국공신이 되고 길성군에 봉해짐), 최명원(조선 통훈대부로 장악원정을 역임), 최덕량(조선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공을 세움) 등이 있다.[25]

---

25) 나무위키(https://namu.wiki) '수원최씨'

용인 이씨龍仁 李氏

이길권李吉卷

이길권은 용인 이씨의 시조이다. 『용인이씨세보龍仁李氏世譜』에 의하면 이길권은 신라 말에 용구龍駒(현재 용인)에서 태어난 토호土豪였는데, 어려서부터 성품이 강직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남달리 학식과 재능이 뛰어났는데 특히 천문 지리에 밝았다고 한다. 왕건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하여 고려왕실의 첫 부마附馬가 되어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개국공신으로서 예우하려 식읍食邑 500호를 하사하고 산성군山城君에 봉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길권은 "지나치게 후한 봉록은 오히려 짐이 된다"고 하며 굳이 사양하였다. 그 뒤 왕건은 '구성백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 숭록대부 태사駒城伯 三韓壁上功臣 三重大匡 崇祿大夫 太師'의 품계를 하사하였다고 한다.

성씨닷컴(http://www.sungssi.com)에 기록된 이길권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용인 이씨 시조 이길권은 신라 말 용인에서 탄생하였으며 구성백 삼한벽상공신 삼중태광 태사이며 도승(道僧)인 도선대사가 공을 보고 장차 왕을 도와 큰

일을 할 재목이라고 하며 감탄해 마지않았다 한다. 그후 서로 친교하는 사이가 되었고 공이 많이 배우는 바가 있었다 한다.

때는 신라의 국운이 쇠하여 혼미를 거듭하는 난세에 견원은 완산에 웅거하여 후백제라 칭하고 궁예는 고구려 옛터에서 반叛하다가 신라 진성여왕 6년 철원에 도읍하고 국호를 바꾸어 태봉이라 하였다. 그후 궁예가 포악 교만하고 폭정으로 민심이 멀어지자 왕건이 혁명으로 고려를 개국할 때 이길권은 용인지방의 토호로서 왕건을 도와 궁예와 견훤을 평정하고 동예의 고부이, 오환 등을 격하하여 삼한을 통합하는 데 크게 공을 세웠다.

태조가 즉위한 후 말하기를 주나라의 대업을 일으킨 여상이나 한나라의 개국을 도운 장자방의 공에 견주어 어찌 이모의 공이 가볍다 하랴 하시면 5백호의 식읍과 산상군에 봉군하였다. 그러나 청렴 겸양한 그는 이를 굳이 사양하면서 신은 본시 산골엣 나무나 하고 신이나 삼으면서 궁하게 살려는 터이온데 어찌 이같은 후한 녹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그러나 태조는 그의 뜻과는 달리 또다시 구성백 삼한벽상공신 삼중대광숭록대부 태사의 벼슬을 내리고 사후에는 안의의 시호를 내렸다.”

용인 이씨龍仁 李氏

용인 이씨의 뿌리는 이러하다. 9세기 말 10세기 초에 이르러 신라조정의 통치권이 쇠약해지고 행정력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게 되자 각 지방에 세력을 가진 토호들이 할거하게 된다. 당시 용인지역에는 이길권李吉卷이 유력한 세력을 형성

하고 있었는데, 왕건을 도와 삼한을 통일 한 후 고려가 건국되자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책봉되고 구성백駒城伯에 봉해 지면서 용인을 관향으로 하는 용인이씨의 시조가 되었다.

특히 용인 이씨는 고려개국 후 후손들이 요직에 진출 하면서 용인이씨의 명성을 더하게 되는데, 덕종 때 문하시랑을 지낸 이효공李孝恭과 인종 때 평장사를 역임한 이현후李鉉候가 있고, 충렬왕이 몽골복장을 장려하자 마땅하지 않음을 여러 차례 극간하다 귀양을 갔던 판도판서 이광시李光時가 유명하다. 특히 광시의 동생 광봉의 후손들은 주로 함흥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함흥파라고 하는데 후손으로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역임한 이한빈李漢彬(1926-2004)이 있다.

광시의 아들로 이중인李中仁이 있는데 고려 8현, 두문동 72인의 한분으로 추앙받고 있으며, 가문이 번성함에 후손들은 이중인(駒城府院君, 시호: 忠肅公)을 중시조로 받들며 묘소가 있는 기흥구 영덕동 잔다리 마을에서 매년 음력 10월1일 이면 후손들이 모여 향사를 올리고 있다.

특히 이중인이 관직에 있을 때 고려가 망하자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키면서 후손들에게 "조선조에서는 출사出仕하지 말라"는 유언을 남겨 형조전서刑曹典書를 지낸 아들 이사영李士潁, 손자 이백찬李伯撰은 3대에 걸쳐 고려에 대한 절의를 지켰다.

또 이중인은 세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 이사영李士潁의 후손들은 주로 수지일대에, 그리고 둘째 이사위李士渭후손들은 주로 포곡 일대에 뿌리를 내려 600년을 이어오고 있으며, 셋째 이사의李士彛의 후손들은 김포일대로 이거하였다.[26]

---

26) 용인시민신문(http://www.yongin21.co.kr), '용인을 본관으로 하는 유일성씨, 용인이씨'

죽주지역竹州地域

죽주지역은 현재 안성시 죽산면 일대로 지리적으로 기호지방과 삼남을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로, 신라가 한강유역에 진출한 6세기 이후 전략적으로 중요하게 되었고, 후삼국시기 세력들이 각자 남과 북으로 진출할 때 거쳐야 되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한다.

죽산 박씨竹山 朴氏

박기오朴奇悟

죽산 박씨는 죽주를 본관으로 하는 가장 오래된 성씨이다. 12세기 전 · 중기에 제작된 죽산박씨의 후예 「朴景仁 묘지명」과 「朴景山 묘지명」에 따르면[27] 죽산 박씨는 본래 신라시조인 혁거세의 후예이자 계림인으로 북경도위를 지낸 박적오朴赤烏(朴積古)가 대략 8세기 중엽 신라 개산군(죽산)으로 들어와 찰산후察山侯가 되어 죽산 박씨가 시작이 되었다고 한다. 박적오의 아들로 알려진 박직윤朴直胤(朴智胤)은 이곳에서 고구려의 장군 명칭 중에 하나였던 대모달大毛達로 불리웠

27) 金龍善편, 2001, 『高麗墓誌銘集成』「朴景仁 墓誌銘」(1121), 「朴景山 墓誌銘」(1158) 참조

는데 황해도 평산平山으로 옮겨가 이후 평산 박씨의 시조가 되었다.[28] 한편 죽산에 토착한 죽산 박씨 중에는 삼한벽상공신이 된 박기오朴奇悟라는 인물이 있다.

이들 죽주 박씨들은 죽주지방의 실질적 지배세력으로 존재하고 있었으면서 기훤이나 양길, 궁예 등의 세력에는 참여하지 않았고[29] 박기오는 태조의 창업을 도와 삼한벽상공신이 되어 삼중대광三重大匡 태보太保 죽산백竹州伯 계림군鷄林君으로 봉해졌다고 한다.

박기오는 공신이 되었으나 중앙에 진출하지 않고 계속 죽주에서 머물렀는데 혜종 1년(994년)에 세워진 영월 흥녕사興寧寺의 징효대사 탑비澄曉大師 塔碑에 의하면 박기오는 원윤元尹이라는 관직을 가지고 죽주에 있으면서 후에 왕이 된 정종 · 광종과 역시 원윤이었던 기달奇達, 죽주에서 사간沙干의 관직을 가진 덕영德榮 제종弟宗 등과 함께 승속僧俗제자로 비碑를 조성하는데 참여하고 있다. 이후 죽산 박씨들은 중앙으로 진출하여 고려 전기에 박충숙朴忠淑(?~1037) 후기에 박인석朴仁碩(1144~1212), 박전지朴全之(1250~1325) 같은 인물을 배출하였다.

기훤箕萱

기훤은 집안이나 출생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신라 말 889년(진성여왕 3) 왕이 관리를 보내어 공부貢賦를 독촉하자 전국에 도둑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원

28) 평산박씨 중 박수문朴守文 · 박수경朴守卿 등은 왕건의 통일전쟁에 많은 곳을 세워 정치적으로 크게 진출하였고 박지윤의 딸은 왕건과 혼인하여 성무부인聖茂夫人이 되었고 수문과 수경도 각각 딸 1인을 납비하였다. 박수문은 왕규와 함께 태조의 임종을 지킨 측근이었다.

29) 김성환, 2017, 「죽주의 역사적 변천과 죽주산성」『문화사학』47 10쪽. 죽산박씨들은 자신들의 기원을 신라 시조 혁거세의 후예라 하고 그 기원을 계림으로 정하고 있는 한, 기훤, 궁예와는 협력하지 않았을 것이라 한다.

종元宗과 애노哀奴가 사벌주沙伐州(상주)에 웅거하여 반란을 일으킨 것을 계기로 초적草賊의 무리들이 신라 조정에 대해 봉기하였는데, 이때 기훤도 죽주에서 봉기하였다.

궁예도 세력을 규합하던 중 891(진성여왕5)년 기훤에게 몸을 의탁하여 왔는데, 기훤이 오만하여 그를 예로써 대하지 않자 궁예는 기훤의 부하인 원회元會·신훤申煊 등과 결탁하여 다음해인 892년 북원北原(원주)의 양길梁吉에게 의탁하였다. 궁예는 곧바로 명주, 철원을 지나 세력을 규합하고 896년 송악의 왕건이 귀부하자 898년 송악에 도읍하고 901년 고려를 건국하게 된다.

『삼국사기』에서는 기훤을 죽주적괴竹州賊魁 즉 '죽주의 도적의 우두머리'라 표현하였다. 이는 기훤이 죽주에서 이미 세력기반을 마련한 유력 토착세력으로 존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궁예도[30] 기훤세력에 안에서 자신의 포부를 펼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탁하였을 것이다. 죽주지역은 궁예가 양길에 의탁하게 되고 양길이 비뇌성전투에서 궁예에게 패배하는 과정에서 그 지배세력이 기훤 → 양길 → 궁예 → 왕건으로 변화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죽주의 전략적 위치때문일 것이다.

능달能達

능달은 본래 청주출신으로 죽산의 토착세력은 아니나 925년(태조 8) 왕건의 지원

30) 이재범은 궁예도 경기호족이라 한다. 그의 출신이 신라왕실이고 그가 세운 나라의 중심지가 철원이지만 궁예의 세력형성은 경기도에서 이루어졌고, 안성 칠장사에 궁예관련 설화들이 많은 점을 이유로 들었다.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천년의 문화사』 22쪽.

에 의하여 죽주의 봉업사奉業寺를 중창할 때 참여하여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청주는 본래 친궁예적 성향이 강한 지역으로 왕건은 항상 경계해 왔고 본래 능달도 친궁예적 인물로 보인다.

봉업사는 본래 신라 때부터 화차사華次寺가 있었던 곳으로 중창이후 태조 왕건의 초상화를 모신 진전眞殿사원이기도 하다. 925년은 왕건이 경북지방에서 후백제와의 결판을 앞 둔 시기이다. 왕건이 후방기지 같은 죽주에 봉업사를 중건공사를 일으켜 대대적 지원하고 능달을 참여시킨 것은 봉업사를 중건하는 불사를 일으켜 이 지역 토착세력의 민심무마를 위한 목적이 있었다. 나아가 특별히 친궁예적 성향의 능달에게 중건 공사를 맡기고 청주출신 장인들을 동원한 것은 여러 번 지배세력이 바뀌면서 생긴 복잡한 죽주의 민심을 위무하고 아울러 청주세력까지도 안심시키려 했던 것으로 이해된다.[31]

31) 정성권, 2013, 「태조왕건의 봉업사 중창과 능달 –봉업사 석불입상과 관련하여–」『한국사학보』 51.

이천 서씨利川 徐氏

서목徐穆

서목은 이천利川 사람으로 태조왕건王建이 남쪽으로 정벌을 하기 위하여 당시 한주漢州 소속의 황무군黃武郡이었던 이 지역을 통과할 때 왕건을 인도하여 강을 쉽게 건널 수 있게 하였다. 그리하여 이천이라는 지명은 '이섭대천利涉大川'에서 유래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그는 이천 서씨의 시조 서신일徐神逸의 아우인 서신통의 아들이다. {고려사} 서눌徐訥 열전에 따르면 통일신라 말 서신일徐神逸이 교외에 살 때 사슴이 집으로 들어오자 화살을 뽑고 숨겨주었더니, 사냥꾼이 추격해 왔으나 잡지 못하고 돌아갔다.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 감사하며 "그 사슴은 바로 내 아들인데 그대 덕분에 죽지 않았으니 공의 자손으로 하여금 대대로 재상宰相이 되게 하리다."라고 말하였다. 서신일이 나이 80세에 서필徐弼을 낳았고, 서필, 서희徐熙, 서눌徐訥 3대가 재상宰相이 되어 내의령內議令 · 내사령內史令 · 문하시중門下侍中을 역임하였으며, 배향공신이 되었다.

이천 서씨利川 徐氏

이천 서씨는 서필徐弼이 중앙정계에 진출할 무렵까지 이천利川(지금의 경기도 이천시)에서 큰 세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는 견해가 있으나, 고려 태조를 도와 공신이 된 서목徐穆의 후손으로 이천지역에서 상당한 세력을 지니고 있던 지방세력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후 서필 — 서희徐熙(徐曦) — 서눌徐訥 3대가 내의령內議令·내사령이라는 고위관직을 각각 역임하고 모두 배향공신이 되었으며, 그들의 후손인 서정徐靖·서공徐恭 등도 평장사를 역임하는 등 고려 전기에 문벌로 성장하였다. 그 후손들은 과거와 음서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으며, 행정과 국방·외교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였다. 또한 판장작감사判將作監事를 지낸 서균徐鈞이 불교를 믿었고, 그의 맏아들 서원徐元이 성불도감판관成佛都監判官을 역임하였으며, 둘째 아들 서영관徐穎觀도 출가하여 대사大師의 승직을 지내면서 현화사玄化寺에 머무는 등 불교계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이 집안에서는 서눌의 딸이 현종의 제6비인 원목왕후元穆王后가 되었고, 서정이 당대 문벌출신으로 평장사를 지낸 경주김씨慶州金氏 김원정金元鼎의 딸과, 복양공濮陽公 서균이 급사중給事中을 지낸 견주이씨見州李氏 이당감李唐鑑의 딸 창화군대부인昌化郡大夫人과, 서공이 선경부첨사善慶府詹事 배경성裴景誠의 딸 협계 배씨俠溪裴氏와 각각 결혼하였으며, 서균의 둘째 딸은 춘천 왕씨春川王氏 왕자지王字之의 아들 왕의王毅와, 셋째 딸이 시상의직장試常衣直長 이숙신李淑晨(李叔晨)과, 넷째 딸이 서적점녹사書籍店錄事 고양견高陽堅과 각각 혼인하는 등 당대 고위관료 집안이나 명문들과도 혼인관계를 맺었다. 한편 12공도公徒의 서시랑도徐侍郎徒를 설립한 서석徐碩과 진봉사進封使 서방徐昉 및 상서좌복야 서보徐甫, 소경少卿 서추徐諏 등도 이천 서씨였다.

파평 윤씨坡平 尹氏

윤신달

윤신달尹莘達은 태조太祖를 도와 삼한공신三韓功臣이 된 인물로, 파평윤씨 시조이다. 윤관尹瓘이 그의 고손이다.[32] 참고로 파평 윤씨의 시조 윤신달尹莘達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파평 윤씨가 본관을 가지게 된 것은 고려 예종 때의 명장 윤관尹瓘(?~1111)이 여진 정벌의 공으로 영평현鈴平縣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지게 되면서부터이다. 여기서 영평은 파평坡平의 별호이므로 후손들이 파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잇게 되었다.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눌노리에 파평윤씨의 시조 윤신달이 발견된 용연龍淵이 있다. 그 내용은 "용연에는 용인龍人이 살았는데, 신라 진성왕 7년(서기 893년)에 용연 위로 구름과 안개가 자욱하게 끼고 요란한 천둥과 번개가 치면서 옥함이 떠올랐다. 날이 저물 때 용연가에 살던 노파가 옥함을 건져서 열어보니 어린 아기가 누워 있었다. 옥함에 윤尹자가 새겨져 있어서 아기는 윤씨의 성을 갖게 되었다. 이로서 이 아기는 파평 윤씨의 시조가 되었고 그의 이름이 윤신달尹莘

32) 『고려사』권96, 열전 9, 윤관

達이다.”는 것이다. 여기서 부모가 누구인지 전혀 밝혀지지 않았지만, 아기가 버려진 장소가 용연이라고 하는 대목에서 심상치 않은 출신임을 알 수 있다. 용이란 왕족을 의미한다. 왕족이 이곳에서 머물다가 여인과 사랑을 했고 아이를 낳았으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옥함에 아기를 넣어버리고는 천둥과 비바람이 치는 날에 떠났다는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윤신달은 신숭겸과 홍유와 함께 고려개국공신으로 삼중태광태사를 역임했다. 왕건을 도와 궁예를 축출했으며. 견훤을 토벌하고 신검을 제압하여 삼국통일의 선봉이었다. 태조 왕건이 죽고 혜종이 즉위하자, 동경대도독으로 왕명을 받았다. 그는 아들을 인질로 개경에 두고, 경주로 내려와 30동안 신라유민들을 다스렸지만, 동경대도독으로 부임한 후로 아들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으며, 죽어서도 포항 기계면에 묻혔다.

고려개국공신이면서 적지와도 같은 험지에 부임하여 죽을 때 까지 30년을 살았으며, 그 동안 장자를 한 번도 만나지 못하였다. 그가 다스리는 동안 경주에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았으니 신라유민들을 잘 보살핀 탓이리라. 그의 충성심과 인내심은 후일 파평 윤씨 후손이 1000년을 이어 고려와 조선의 대들보가 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이다.[33]

파평 윤씨坡平 尹氏

파평 윤씨坡平尹氏의 시조 윤신달尹莘達은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을 도와 개국

33) 불교닷컴(http://www.bulkyo21.com) ‘파평윤씨 윤신달과 용연’

공신 2등에 책록되고 영평현鈴平縣 개국백開國伯에 봉해졌다. 영평은 파평坡平의 이칭으로 이후 후손들이 파평을 본관으로 하였다. 윤신달은 그 출신이나 근원을 명확히 알 수 없는데,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파주의 파평산 서쪽 기슭에 있는 용연龍淵에서 옥함玉函이 물위에 떠올라 그 안에서 윤신달이 나왔다고 한다. 이는 아마도 파평을 중심으로 윤신달의 후손들이 자리 잡으면서 상징화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파평 윤씨는 고려 시대 주요 문벌 귀족 성씨 중 하나로 자리 잡았으며, 조선 시대에 와서도 명문의 지위를 유지하고 수차례 왕후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주요 파로는 함안파 · 남원파 · 덕산군파德山君派 · 문정공파文定公派 · 신영공파新寧公派 · 대언공파代言公派 · 봉록군파奉祿君派 · 판서공파判書公派 · 야성파野城派 · 전의공파典儀公派 · 소정공파昭靖公派 · 원평군파原平君派 · 소도공파昭度公派 · 판도공파版圖公派 · 소부공파小府公派 · 대위공파大尉公派 등이 있다.[34]

---

34) 디지털도봉문화대전(http://dobong.grandculture.net), ‘파평윤씨’

파주 염씨坡州 廉氏

염형명廉邢明(생몰년 미상)[35]

파주 염씨의 시조이며, 고려 태조 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한 공로로 삼한공신에 책봉되었다. 후삼국 통일 4년 뒤인 940년 고려왕조는 신흥사新興寺를 중수하여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29명의 주요한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는데, 염형명의 화상도 이곳에 그려졌다고 한다. 공신들의 대부분은 당시 협력한 각 지방의 대소 호족豪族 및 그의 막료들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염형명 역시 파주 지역의 유력한 호족으로 보인다.

염씨의 본관이 파주가 된 것은 염형명이 살던 곳이 봉선현峯城縣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봉성이라 하였다. 그러나 후에 중시조 염제신이 곡성부원군에 봉해지자 '곡성'으로 하였다가, 다시 지명 이름을 따서 '서원'으로 삼았으나, 서원이 '파주'로 개칭됨에 따라, 본관도 파주로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고려사』 문종 세가에 의하면, 그의 아들은 군기승 염위廉位이고, 손자는 염

35) 『고려사』 권2, 세가 2, 태조 23년.
『고려사』 권7, 세가 7, 문종 10년 2월 경오일.
『고려사』 권56, 지10, 양광도 남경유수관 양주 봉성현조 참조.

가칭廉可偁이다. 그런데 손자인 가칭에 대해서는 『고려사』에 매우 의미있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문종 10년(1056) 2월 갑오일에 염가칭은 46년 만에 포로로 끌려갔던 거란에서 탈출한 사람이다. 그가 귀국하자 해당 관청은 중앙에 아뢰어 그 선대로부터 내려오던 영업전과 가택을 되돌려 받게 하였다. 즉 가칭은 현종 원년(1010)에 환위공자군環衛公子軍으로 충원되었다가 마침 거란군의 침입으로 개경이 위기에 처하자 부모를 모시고 고향인 봉성현으로 피난 가던 도중에 적을 만나 포로로 끌려갔다가 46년 만에 아들 한 명을 데리고 도망쳐 왔다. 그의 귀국 소식을 보고받은 문종은 "공신의 후예로서 한창 젊은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오랑캐 땅에 있는 처자를 버려둔 채 아들 하나만 데리고 백발이 되어 돌아왔으니 참으로 가엾고 불쌍하다. 상속받아 소유했던 전려田廬를 돌려주도록 하라."고 했다. 거란 침입 당시 백성들이 겪었을 애환과 삼한공신의 후예로 영업전과 사택이 그 후손들에게 상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삼한공신들에게는 직첩職牒이 내려지고 식읍이나 녹읍 또는 역분전役分田의 형태로 경제적 기반이 보장되었다. 특히, 고려 왕실에 대한 충성도에 따라 토지를 지급하는 역분전의 설치시기는 940년인데, 이때가 바로 신흥사의 공신당에 삼한공신이 벽상된 시기와 일치한다. 그러므로 역분전의 설치가 삼한공신에 대한 경제적 우대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파주 염씨의 득성조得姓祖는 염사치廉斯鑡는 인데, 그는 마한馬韓의 소국小國으로 추정되는 염사廉斯의 수장首長이다. 후한서를 상고하면 건무 중(서기 25~55년)에 염사 사람 소마시가 내헌하니 광무제(서기24년)가 염사읍의 군에 봉하였고 염사는 본래 읍명이었는데 이로 성을 삼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삼국지三國志』 위서 동이전 한전 마한조魏書 東夷傳 韓傳 馬韓條에 인용된 『위

략魏略』에는 우거수右渠帥 염사치廉斯鑡가 왕망王莽 지황 연간地皇年間(서기 20~23)에 낙랑군樂浪郡에 귀화하였다고 한다. 그는 낙랑의 토지가 기름지고 백성이 잘 산다는 말을 듣고 그 곳에 귀화하려고 가던 도중 호래戶來라고 하는 한 한인漢人을 만났다. 호래는 그보다 3년 전에 재목을 채벌하기 위해 진한辰韓 지방에 왔다가 붙잡혀 노예가 된 1,500명의 한인 중 한 사람이었다. 그는 호래를 데리고 낙랑군 함자현含資縣에 이르러 한인 나포사실을 보고하였다. 이 후 한군현 당국에서는 그에게 포로 쇄환刷還의 임무를 맡겼다. 이에 그는 잠중岑中에서 큰 배를 타고 진한에 돌아와 이 문제를 놓고 진한 당국과 협상하였다. 그리하여 생존자 1,000명과 이미 죽은 500명에 대한 배상으로 진한인 1만 5,000명과 모한포牟韓布 1만 5,000필을 얻어 낙랑군에 돌아갔다. 그는 이 공로로 관책冠幘과 전택田宅을 받았으며, 자손 대대로 부역賦役과 조세租稅 면제의 특권을 받았다고 한다.

한편, 조선 선조 때 기인奇人 조여적趙汝籍이 쓴 {청학집靑鶴集}에 "염씨 출우 대방국야廉氏 出于 帶方國也"라고 기록되어 있다. 청학집은 조여적이 여러 도인들과 담화한 내용을 적은 책으로, 성씨 유래에 대한 기록은 청학상인靑鶴上人이란 사람이 녹두처사가 쓴 삼한습유기三韓拾遺紀에 적혀있는 내용을 보고 하는 얘기를 적은 것이라 한다. 대방국은 황해도와 경기도 서북부 장단長湍 풍덕豊德 지역에 위치하였고, 뒤에 고구려가 멸망하면서 신라 등에 투항한 것으로 전한다. 염형명과 같은 시기에 염상廉湘이 918년(고려 태조 원년) 고려 개국 2등공신이 되었고, 934년(태조 26)에 재상에 올랐다.[36)]

---

36) 이상에서 파주염씨 득성조 염상치廉斯鑡 관련 내용은 〈위키백과〉 '파주염씨'항목에서 인용하였다.

염상廉湘(생몰년불명)

고려高麗를 건국하는 데 큰 공로를 세워 태조太祖 원년(918년) 견권堅權, 능식能寔, 권신權愼, 연주連珠, 김락金樂, 마난麻煖 등과 함께 개국 이등공신에 녹훈되어 왕건王建에게 금은 그릇과 비단 등을 하사받았다.[1]

염상에 대한 기록은 {고려사} 권127 열전40 반역 환선길에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선길桓宣吉은 그 동생 환향식桓香寔과 함께 태조太祖를 갖추어 섬겨 임금으로 추대하는 공을 세웠다. 태조太祖는 환선길을 마군장군馬軍將軍에 제배하여 심복으로 삼은 다음 항상 정예군을 거느리고 숙위宿衛하게 하였다. 그 처가 일러 말하길, "당신은 재주와 용력이 남보다 뛰어나 사졸들이 복종하며 큰 공도 또한 세웠는데, 권력은 다른 사람에 있으니, 어찌 분하지 않을 있습니까?"라고 하였다. 환선길도 마음으로 그렇다고 여기고, 드디어 병사들을 몰래 집결해 두었다가 틈을 엿보아 변란을 일으키려 하였다. 마군장군 복지겸卜智謙이 이를 알고 은밀히 보고하였으나 태조는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태조가 궁전에서 학사學士 몇 사람들과 국정을 논의하고 있는데, 환선길이 부하 50여 인과 함께 무장하고는 동쪽 곁채에서 안뜰로 돌입하여 곧장 (태조를) 해치려 하였다. 태조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큰 소리로 질책하며 말하기를, "짐이 비록 너희들의 힘으로 왕이 되었지만 어찌 천명이 아니겠는가? 천명天命이 이미 정하여졌거늘 네가 감히 이럴 수 있느냐?"라고 하였다. 환선길이 태조의 말과 얼굴빛이 태연한 것을 보고 매복한 군사가 있다고 여겨 부하들과 함께 달아나니, (태조의) 호위병들이 구정毬庭까지 추격하여 모두 사로잡아 죽였다. 환향식이 뒤에 이르러 일이 실패했음을 알고 역시 도망하였으나

병사들이 추적하여 죽였다.

또 순군리徇軍吏 임춘길林春吉이란 자는 청주青州 사람으로, 청주 사람 배총규裴悤規, 계천季川 사람인 강길康吉 · 아차阿次, 매곡昧谷 사람인 경종景琮과 함께 반란을 모의하고 청주로 도망치려 하였다. 복지겸이 이 사실을 알리니, 태조가 그들을 체포해 국문케 하였다. 모두 자복하여 아울러 수감하였으나, 배총규만은 모반이 누설되었음을 알고 도망하였다. 이에 그 일당을 모두 처형하려 하니, 청주인 현율玄律이 말하기를, "경종의 누이는 매곡성주昧谷城主 공직龔直의 처입니다. 매곡성은 매우 견고하여 공격하여 함락시키기 어렵고 또한 적의 땅과 가까우니 만약 경종을 처형하면 공직이 반드시 반란을 일으킬 것이니 용서하여 회유하는 것만 하지 못합니다."라고 하였다. 태조가 그 말을 따르려고 하였다. 마군대장군馬軍大將軍 염상廉湘이 나아가 말하기를, "신이 듣기에 경종은 일찍이 마군馬軍 기달箕達에게 말하기를, '누이의 어린 아들이 지금 개경에 있으니,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을 생각하면 아픔을 견디지 못하겠소. 하물며 시국이 어지러워 아직 서로 만날 기약도 없으니 마땅히 기회를 엿보아 함께 청주로 도망하여 돌아갈 것이요.'라고 하였으니 경종의 음모가 지금 과연 증명된 것입니다."라고 하니, 태조가 크게 깨닫고 곧바로 그들의 처형을 명하였다.

파주 염씨坡州 廉氏

파주 염씨坡州廉氏는 삼한공신三韓功臣 염형명廉邢明을 시조로 하고, 공민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얻은 곡성부원군谷城府院君 염제신廉悌臣(1304년~1382년)을 중시조

로 한다. 달리 서원 염씨瑞原廉氏라고도 하는데, 파주의 옛 지명이 서원이기 때문이다. 문헌에는 파주 이외에 개성開城, 광주廣州, 양주楊州, 충주忠州를 본관으로 하지만 모두 파주 염씨에서 갈라졌다. 파주 염씨는 염제신 대에 크게 부흥하였으나 아들 염흥방廉興邦이 이인임李仁任과 임견미林堅味 등과 정권을 전횡하다 최영崔瑩과 이성계李成桂에게 죽음을 당하면서 크게 몰락하였다. 염제신에게 염국보廉國寶·염정수廉廷秀·염흥방 세 아들이 있었는데, 광명에 세거한 염공거廉公擧·염백거廉白擧 형제는 염국보의 후손들이다.[37]

37) 디지털광명문화대전(http://gwangmyeong.grandculture.net), '파주염씨'

시흥 강씨始興 姜氏

강궁진姜弓珍(생몰년 불명)[38]

시흥 강씨(또는 금천)의 시조이다. 신라 때 시흥군始興郡으로 옮겨와서 금주衿州의 호족이 되었다. 4세손인 강궁진姜弓珍은 고려를 건국할 때 왕건을 도와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 되었다. 『고려사高麗史』 열전列傳 강감찬전에 강감찬의 5대조 강여청이 신라로부터 와서 시흥군에서 살았다고 되어 있어 그의 4세손 강궁진이 금주 일대의 토호였으며 고려 태조를 도와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이 되었다. 후삼국 통일 4년 뒤인 940년 고려왕조는 신흥사新興寺(神興寺)를 중수하여 이곳에 공신당功臣堂을 두고 동쪽과 서쪽 벽에 29명의 주요한 삼한공신을 그려 넣었는데, 강궁진의 화상도 이곳에 그려졌다. 그러나 이외의 행적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강궁진의 아들 강감찬姜邯贊은 983년(성종 3) 과거 갑과에 장원으로 급제한 뒤 거란의 침입을 막은 공으로 추충협모안국공신推忠協謀安國功臣의 호를 받고, 1030년(현종 21) 문하시중門下侍中에 이르렀다.

---

38) 『고려사』권94, 열전7, 강감찬

성씨닷컴(http://www.sungssi.com)에는 다음과 같은 시흥 강씨의 연원이 기록되어 있다. "강여청姜餘淸이 금천(지금 시흥)을 관향으로 하사받게 된 배경은 집사성執事省 시랑侍郎 강여청께서 신라 왕족들이 왕권을 탈취하려는 살육적인 정쟁에 염증을 느껴 서기 840년 신라로부터 선조의 목민지인 검주黔州로 이거하여 살게 된 데에서 비롯되었다. 강여청의 후손들은 대대로 금주지방의 호족으로 살면서 그 명성을 이어왔고, 궁예가 태봉국을 세우고 그 영역을 넓히는 과정에 그들의 영역에 흡수되었다. 궁예가 교만하고 잔학하여 군왕으로서 덕을 갖추지 못함을 자각하여 창의倡義 공신功臣들이 반정을 주도하여 궁예를 추방하고 왕건을 새로운 군왕으로 추대하여 고려를 건국할 때 강군진께서 약관의 나이로 왕건에 출사하여 고려의 개국과 삼한일통에 많은 공을 세워 관직은 병마원수 판문하사에 이르렀다. 고려 태조 23년(941) 12월에 강궁진姜弓珍께서 삼한벽상공신 여후로 봉작되었고 시호는 장렬壯烈이며 금천을 관향으로 하사받아 명법에 따라 삼한벽상공신공의 고조이신 신라 집사성 시랑 시 충익공 강여청을 시조로 모셔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금천 강씨衿川姜氏

금천 강씨衿川姜氏 곧 시흥 강씨는 본관을 금천衿川(시흥의 옛 지명) 둔 진주 강씨의 한 분파로, 진주 강씨 가운데 인헌공仁憲公 강감찬姜邯贊의 후손인 인헌공파를 지칭한다. 고려 초기에 문벌 귀족으로 성장했다가 고려 중기부터 쇠퇴하였고, 조선 전기 12대손 강양姜揚 때 이르러 가세가 다시 번성하였다. 『조선씨족통보』에 따

르면 대표적인 후손으로는 시중侍中을 지낸 강극충姜克忠, 첨의정승을 지낸 강영년姜永年, 사간원사간을 지내고 청백리에 뽑힌 강숙돌姜叔突 등이 있다.

경기권의 군현 토성土姓들은 삼남 지방과는 달리 본관에 잔류하는 성씨가 적었다. 금천강씨도 15세기부터 다른 사족들과 마찬가지로 상경종사上京從事, 낙향, 처향妻鄕, 외향外鄕, 농장農場, 임지任地 등에 따라 본관인 금천 지역을 떠나 기호 지방과 황해도 등지로 흩어졌다.[39]

39) 디지털광명문화대전(http://gwangmyeong.grandculture.net), '금천강씨'

안성 이씨安城 李氏

이중선李仲宣(생몰년 미상)[40]

시조 이중선李仲宣은 안성군호장安城郡戶長으로 경군京軍에 뽑혀 공을 세우고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랐다. 이에 후손들이 시조의 발신지인 안성安城을 본관으로 삼았다.

문헌에 이중선에 관한 기록은 그의 아들 이영李永의 열전에서 보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영李永은 자가 대년大年이고 안성군安城郡 사람이다. 아버지 이중선李仲宣은 안성군의 호장戶長으로 경군京軍에 선발되었다. 이영은 어려서부터 스승을 따라 공부하였고, 아버지가 죽자 영업전永業田을 물려받아 서리胥吏가 되려고 정조주사政曹主事에게 문서를 주었는데, (이영이) 읍揖만 하고 절하지 않으니 주사主事가 노여워하며 욕하였다. 이영이 즉시 그 문서를 찢어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과거에 급제하여 조정에서 벼슬할 것인데 어찌 너희 같은 무리에게 예를 차리겠는가?"라고 하였다. 숙종肅宗 때에 을과乙科로 뽑혀 직사관直史館이 되었다.

40) 『고려사』 권97, 열전 10, 이영

내시內侍 임언林彦이 동여진東女眞을 토벌할 것을 청하니 이영이 말하기를, "무기는 흉한 도구이고 전쟁은 위험한 일이니 함부로 움직일 수 없습니다. 임언이 아무 일도 없는 때에 군사를 일으켜 분쟁을 만들려고 하니 매우 옳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고 평장사平章事 임간林幹에게 동여진을 토벌하라고 명령하였다. 이영도 역시 종군하였으나 군대가 패하니 연좌되어 관직에서 해임되었다가 나중에 지경산부知京山府가 되어서는 청렴하고 부지런하다고 알려졌다. 여러 차례 승진하여 예부시랑 우간의대부禮部侍郎 右諫議大夫가 되었다.

인종仁宗 초에 지어사대사 보문각학사知御史臺事 寶文閣學士가 되었는데, 이자겸李資謙이 한안인韓安仁을 살해하자 이영도 한안인의 매부妹壻라 하여 연좌되어 진도珍島로 유배되었다. 어떤 사람이 이영에게 말하기를, "공의 어머니와 자식들이 적몰되어 노비가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영이 말하기를, "내가 내심 반성해보아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서 죽음을 참으며 기다렸는데, 만약 연로하신 어머니께서 나 때문에 적몰되어 천예賤隷가 된다면 내가 구차하게 살아 무엇 하겠는가?"라 하며, 술 한 두斗를 마시고 분이 치밀어 죽으니 당시 사람들이 애석하게 여겼다. 이자겸이 술사術士를 보내 길 가에 묻었는데, 우마牛馬가 감히 〈무덤을〉 밟지 않았고 혹은 학질을 앓는 사람이 와서 빌면 병이 나았다. 이자겸이 패하자 이영의 아들이 개장改葬을 청하여 무덤을 파냈는데, 시신이 변하지 않았다. 첨서추밀원사簽書樞密院事를 추증하고 이부吏部에 명하여 죄안罪案에서 삭제하였다.

이영은 타고난 자질이 바르고 올곧아 권귀權貴에게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친구를 사귀는 데는 바르지 못하여 척준경拓俊京 등이 이여림李汝霖과 지녹연智祿延 등을 비방하려고 모의한 일이나 박경승朴景升 등을 비방하고 배척한 일에 이영이 모두 참여하였다.

안성 이씨安城李氏

안성 이씨安城李氏의 시조 이중선李中宣은 고려 때 안성군호장安城郡戶長으로 경군京軍에 뽑혀 공을 세우고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에 올랐다. 이에 후손들이 시조의 발신지인 안성安城을 본관으로 삼았다.

이중선의 손자 이원장李元長 이후 세계世系가 실전되어 합문부사閤門副使 이구李玖, 이부시랑吏部侍郎 이희李禧, 병부상서兵部尚書 이유李裕, 좌사낭중左司郎中 이극엄李克儼, 밀직부사密直副使 이유인李惟仁 등 5파로 갈라져 이들을 각기 1대조로 하고 있다.

안성이씨는 고려시대에 많은 인물을 내어 성세를 누렸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문과 급제자 6명, 공신 1명을 배출하였다. 대표 인물로는 이영李永 · 이희李禧 · 이숙번李叔蕃 등이 있다.[41]

---

41) 디지털진천문화대전(http://jincheon.grandculture.net), '안성이씨'

평택 임씨平澤 林氏

임팔급林八及(생몰년 미상)[42]

임팔급은 경기도 평택을 본관으로 하는 평택임씨의 시조 또는 도시조로 불리운다. 그는 임문林門의 세보世譜에 따르면 당唐나라 용도각 한림학사龍圖閣翰林學士 행병부상서行兵部尙書를 역임하다가 당나라 문종文宗(826~840) 대에 참소를 당하여 동료 7학사七學士, 즉 유전劉筌, 설인경薛仁敬, 허동許董, 송규宋奎, 최호崔冱, 권지기權之奇, 공덕수(부)(孔德狩)(符) 등과 함께 신라로 망명하여(흥덕왕대) 평택현 용포리에 정착하였다. 적병이 침범하자 의병을 일으켜 이를 격파하였으며 그 공으로 평택군平澤君에 봉해졌다.[43]

평택 임씨 족보에는 그 평택 임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평택 임씨는 우리나라 모든 임씨의 도시조이신 팔급八及공이 서기 870년경 중국 복건성 동령, 팽성膨城에서 7학사와 함께 당나라 말기의 혼란을 피해 지금의

42) 『태조실록』권1, 태조 4년 12월 5일조
김용선 편,『역주 고려 묘지명 집성 (하)』(개정증판), 한림대학교출판부, 2012.
『봉선본말사지奉先本末寺誌』
권상로,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上, 동국대학교출판부, 1979.

43) 두산백과(http://www.doopedia.co.kr) '임팔급'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농성農城에 정착하면서 시작한다. 팔급공은 당나라에서 학림원사이시고 신라국에서는 이부상서의 높은 벼슬과 변방의 적 침입을 막는 데 큰 공을 세워 시호는 충절공이며 서기 1100년경 1차 분관 전에는 팽성 임씨로 사용되었다.”

현재 경기도 평택시 팽성 안정리에는 있는 토성인 농성(경기도 기념문 74호)이 있는데 토성축조 기술로 볼 때 후삼국 고려 초에 이곳 토호인 임팔급 등이 정치적으로 어지러운 당나라에서 이곳으로 와서 쌓은 토성으로 보는 것이 유력하다. 유적에 대한 문화재청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안정리 마을의 북쪽 논 가운데 있는 성으로, 흙으로 쌓았다. 전체 모습은 타원형으로 둘레는 약 300m이고 높이는 4m 내 · 외이며, 동쪽과 서쪽에 문터가 있다. 무너진 곳의 단면을 보면 붉은색의 고운 찰흙을 층층이 다져 쌓은 흔적이 있다. 성을 쌓은 이유는 삼국시대에 도적 때문에 쌓았다는 이야기를 비롯하여 신라 말기 중국에서 건너온 평택 임씨의 시조인 임팔급이 축조하여 생활 근거지로 삼았다는 설이 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서해안으로 침입하는 왜구를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과 임진왜란 때 왜적을 막기 위해 쌓았다는 설이 전한다. 성 바로 옆에는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이, 여름철에는 찬물이 나오는 우물이 있었다고 한다. 이 성은 평지에 만든 소규모의 성으로 이런 흙으로 쌓은 성곽들은 대부분 초기 국가의 형성단계에서 나타나는 형태인데, 이 지역의 토착 세력 집단들이 그들의 근거지로 축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1981년 7월 16일 경기도기념물 제74호로 지정되었다.”

평택 임씨平澤 林氏

임씨林氏 성은 중국 은나라 마지막 왕인 주왕紂王의 폭정을 삼촌인 비간比干이 죽음을 무릅쓰고 직간하다가 도리어 참형을 당하자 그의 아들 견堅이 장림산에 은거하면서 성을 '임林'으로 변성한 데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임씨의 본관은 문헌에 216본으로 전해지나 1985년도 인구 조사에 의하면 나주 · 평택 그리고 평택에서 분적한 조양 · 진천 · 울진 · 예천 · 부안 · 순창 · 장흥 · 밀양 · 은진 · 옥구 · 경주 · 익산 등 90여 본으로 파악되었다. 나주 임씨는 고려 대장군 임비를 원조遠祖로 하고 있고, 그 나머지 임씨는 당나라 문종 때 신라에 와서 정착한 임팔급林八及을 도시조都始祖로 하고 있다.

평택 임씨는 우리나라 성씨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씨족의 하나로, 범임씨汎林氏의 도시조는 학사공學士公 임팔급이다. 그는 중국 당나라 말엽 문종 때 한림학사翰林學士로 간신들의 참소를 받아 동료 일곱 학사와 함께 신라로 건너와 국가의 위난을 평정하고 팽성彭城(평택의 별호)의 용주방龍珠坊으로 옮겨 와 정착하였다. 그래서 본관은 평택으로 삼게 되었다.

평택 임씨는 후대에 와서 선산 · 진천 · 예천 · 부안 · 울진 · 은진 · 순창 · 경주 · 옥야 등 25개 관향으로 분관된다. 그러나 관향만 다를 뿐 임팔급을 유일조로 하는 동일 혈손이라는 것이 평택 임씨를 중심으로 한 대다수 문중의 공통된 견해이다.[44]

---

44) 디지털부산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평택임씨'

풍양 조씨豐壤 趙氏

조맹趙孟(생몰년 미상)

조맹은 풍양 조씨의 시조이다. 풍양豐壤은 경기도 양주, 즉 오늘날의 남양주시의 옛 지명이다. 조맹은 고려의 개국 공신이고 문하시중평장사를 지냈다.

『풍양조씨세보豐壤趙氏世譜』에 따르면 원래 이름이 조암趙巖인데, 후삼국 시대에 한양부 풍양현 사람으로 천마산 아래에서 은거하다가 왕건王建을 만나 고려 건국에 공을 세웠고, 삼한벽상개국공신에 오르고 동시에 '맹孟'이라는 이름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오늘날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송릉리경 천마산天磨山에 있는 견성암見性庵은 조계종 봉선사奉先寺의 말사인데, 조맹이 은거하며 도를 닦다가 약사여래를 친견하였다고 하여, 고려 중기에 후손들이 창건한 암자이다. 창건 후 조선 후기까지의 연혁은 전하지 않았으나, 1860년(철종 11) 조맹의 후손 혜소慧昭가 법당과 화양루花兩樓를 중수하였으며, 1882년(고종 19) 서린瑞麟이 중수하였다.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과 약사전 · 화양루 · 산신각 · 요사 등이 있다. 화양루에는 《견성암중수기》와 《견성암중수각부탱화신성기》가 남아 있고, 대웅

전에는 아미타불을 그린 탱화와 영산회상도 · 신중탱화 · 독성탱화 · 지장시왕탱화 · 현왕탱화가 걸려 있다. 모두 1882년 서린이 중수할 때 제작된 유물들이다

이 밖에도 조맹이 홀로 수도할 때 마셨다 하여 독정獨井이라고 불리는 우물이 있는데, 아무리 가물어도 샘이 마르지 않는다고 하며 이 우물로 인해 독쟁이절 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절 부근에는 조맹이 기거했던 수양굴修養窟이 있고, 조씨 문중에서 이름 있는 사람이 죽으면 가지가 하나씩 말라 죽는다는 기념송이 있다.

그의 묘와 신도비가 사찰과 같은 곳에 있다. 신도비는 본래 1632년에 세웠다가 1905년에 이르러 다시 세운 것으로 조병필趙秉弼이 짓고, 조정구가 글씨를 썼다. 직사각형의 받침돌과 대리석으로 만든 비신碑身, 팔작지붕 형태의 뚜껑돌을 갖추었다.

문헌상 조맹의 존재는 {고려사} 권112 열전25 제신 조운흘 조에서 확인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창辛昌 원년(1389)에 다시 불러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에 임명하였고 곧이어 동지同知로 승진하였다. 공양왕恭讓王 2년(1390)에 계림부윤鷄林府尹이 되어 나갔다가 본조本朝에 들어와 강릉대도호부사江陵大都護府使에 임명되었으나 곧 병으로 사직하고 광주廣州의 별서別墅로 돌아갔다. 또 검교정당문학檢校政堂文學에 임명되었는데, 검교는 전례상 녹봉을 받았으나 조운흘趙云仡은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그는〉 사람됨이 기이하고 예스러운 뜻을 세웠으며 호탕하고 도량이 넓어 곧이곧대로 행하면서 시세에 따라 굽히거나 의지하려고 하지 않았다. 임종 때에 스스로 묘지명墓誌銘을 짓기를, "조운흘은 본래 풍양豊壤 사람이고 고려高麗 태조太祖의 신하였던 평장사平章事 조맹趙孟의 30

대 손자이다. 공민왕恭愍王 때 흥안군興安君 이인복李仁復의 문하에서 과거에 급제하여 내 · 외직을 역임하였으며, 5주州의 수령이 되었고 4도道의 관찰사가 되었는데 비록 큰 명성과 공적은 없었으나 또한 비루하지 않았다. 73세에 병으로 광주廣州의 고원성高垣城에서 죽었고 후사는 없다. 해와 달을 구슬로 삼고 청풍명월淸風明月을 제물祭物로 삼아 옛 양주楊州의 아차산峨嵯山 남쪽 마하야摩訶耶에 장사지냈다. 공자孔子는 행단杏壇 위에 있고 석가釋迦는 쌍수雙樹 아래에 있으니, 고금古今의 성현이 어찌 홀로 살아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아! 인생의 일을 마쳤도다."라고 하였다.

풍양 조씨豐壤 趙氏

조씨趙氏는 원래 전욱顓頊의 후예로서 주나라 목왕穆往이 서언왕徐堰王을 칠 때 공을 세운 조부造父란 사람을 조성趙城에 봉하자 그가 나라 이름을 따서 성으로 삼았다고 한다. 조씨의 본관은 문헌에 200여 본으로 전하고 있으나 그중 몇 본이 현존하고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풍양 · 한양 · 양주 · 평양 · 김제 · 임천 · 배천 · 함안 · 옥천 · 횡성 등 10여 본이 대본으로서, 이들이 조씨 전체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씨의 상계는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다른 성씨들과는 달리 동성이라고 해서 반드시 한 할아버지의 자손임을 내세우지는 않는다. 그러면서도 조씨끼리는 전통적으로 본이 달라도 서로 통혼하지 않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조씨가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풍양 조

씨豊壤趙氏는 고려 태조로부터 사성賜姓받았다 하고, 양주 · 평양 · 임천 · 배천 등은 송대의 귀화족으로 알려져 있다. 풍양 조씨 외에도 동래부에 입향한 조씨는 평양 조씨가 있다.

풍양 조씨의 시조 조맹趙孟은 초명이 '암巖'으로서 풍양현豊壤縣의 천마산 아래에 살고 있었다. 조맹은 만년에야 고려 태조 왕건王建을 만나 후삼국 통합에 공을 세워 개국 공신이 되고 이름을 '맹孟'으로 하사받았으며, 벼슬이 문하시중 평장사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 후 중간 6세가 실전되어 조지린趙之藺을 1세조로 하는 전직공파殿直公派와 몇 세가 실전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조신혁趙臣赫을 1세로 하는 평장공파平章公派로 나누어졌다. 이 양파는 서로 촌수를 가릴 수 없어 족보도 따로따로 편찬하고 있다. 풍양 조씨의 파계는 전직공파에서 다시 호군공파護軍公派 · 회양공파淮陽公派 · 금주공파錦州公派로 나뉘고, 평장공파는 조신혁의 증손대에서 남원공파南原公派를 이루어 오늘날 풍양 조씨는 이 4파 아래 총망라되어 있다.[45]

---

45) 디지털부산문화대전(http://busan.grandculture.net), '풍양조씨'

천녕 견씨川寧 堅氏

견권

천녕 견씨의 시조 견권堅權은 고려 태조 왕건王建의 휘하 장군으로서 왕건이 후백제 신검神劍과 마지막 결전을 할 때 좌익장左翼將을 맡아 후백제를 멸망하게 하는 전공을 세우고, 고려 개국 이등공신二等功臣에 책록되었으며 대상大相 벼슬에 올랐는데, 그 때 연주連珠 · 능식能寔 · 권신權愼 · 염상廉湘 · 김락金樂 · 마난麻煖과 함께 이등공신二等功臣이 되어 금, 은, 그릇과 비단을 받았다.

921년(태조 4) 달고은達姑狀(말갈)이 신라를 침공하러 가는 길에 고려 장군 견권堅權이 가로막고 격파하였다. 936년(태조 19) 신검神劍 등이 천안에서 대항하자 견훤甄萱을 위시하여 대상大相 견권堅權, 희술希述, 황보금산皇甫金山과 원윤元尹 강유영康柔英 등은 마군馬軍 일만 명을 거느리게 하는 등 군사를 정비하니 신검이 두려워 항복하였다.

정사正史에서 그에 대한 기록은 두곳에서 확인되는데 하나는 『고려사』 세가 권1 태조 4년 2월 조이다. "임신 달고적達姑狄 171명이 신라新羅를 공격하러 가는데, 길이 등주登州를 통과하니 장군 견권堅權이 맞아 싸워 크게 패배시켜 말 한 필

도 돌아가지 못하였다. 왕이 명하여 공이 있는 사람에게 1인당 곡식 50섬씩을 하사하니, 신라왕이 이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사신을 보내 사례하였다.”

다른 하나는 『고려사』 세가 권1 태조 19년 9월조이다. “갑오 일리천一利川을 사이에 두고 진陣을 친 뒤 왕이 견훤甄萱과 더불어 군대를 사열査閱하였다. 견훤과 대상大相 견권堅權·박술희朴述希·황보금산皇甫金山 및 원윤元尹 강유영康柔英 등이 마군馬軍 10,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지천군대장군支天軍大將軍 원윤 능달能達·기언奇言·한순명韓順明·흔악昕岳과 정조正朝 영직英直·광세廣世 등에게 보군步軍 10,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좌강左綱으로 삼았다. 대상 김철金鐵·홍유洪儒·박수경朴守卿과 원보元甫 연주連珠, 원윤 훤량萱良 등에게 마군 10,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보천군대장군補天軍大將軍 원윤 삼순三順·준량俊良, 정조 영유英儒·길강충吉康忠·흔계昕繼 등에게 보군 10,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우강右綱으로 삼았다. 명주溟州의 대광大匡 왕순식王順式과 대상 긍준兢俊·왕렴王廉·왕예王乂 및 원보 인일仁一 등에게 마군 20,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대상 유금필庾黔弼과 원윤 관무官茂·관헌官憲 등에게 흑수黑水·달고達姑·철륵鐵勒 등 여러 번蕃의 정예 기병 9,500명을 거느리게 하며, 우천군대장군祐天軍大將軍인 원윤 정순貞順과 정조 애진哀珍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고, 천무군대장군天武軍大將軍인 원윤 종희宗熙와 정조 견훤見萱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며, 간천군대장군杆天軍大將軍 김극종金克宗과 원보 조간助杆 등에게 보군 1,000명을 거느리게 하여 중군中軍으로 삼았다. 또 대장군인 대상 공훤公萱과 원윤 능필能弼 및 장군將軍 왕함윤王含允 등에게 기병 300명과 여러 성의 군사 14,700명을 거느리게 해 삼군三軍의 원병援兵으로 삼았다. 〈모두〉 북을 울리며 앞으로 전진하자 갑자기 흰 구름이 생겼는데, 그 모양이 창검 형상으로 우리 진영 상공에서 일어나 적진敵

陣을 향하여 날아갔다."

중국 성인 천녕 견씨川寧 堅氏의 시조는 견권堅權으로 고려 태조 왕건이 후백제를 칠 때 공을 세워 개국이등공신에 책록되었다고 한다. 역대 주요인물로는 영군장군領軍將軍 견금堅金, 장군將軍 견일堅一, 견수堅守, 사과司果 견성실堅成實 등이 있다. 경북 경주와 황해도 장연長淵 등에 거주한다. 『조선씨족통보』(1924년)에 의하면 시조가 견희복堅希福이며 개국공신 견권의 후손이라고 하였다.

영평 마씨永平 麻氏

마난麻煖

『고려사』 세가1 태조 원년 8월 조에 영평 마씨의 시조인 마난에 대한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다. 참고로 이 기사는 고려 개국공신에 대한 기본자료이다.

"이에 (노비로 전락한) 1천여 구를 확보하여 내고內庫의 포백布帛으로 몸값을 치러 원래 신분으로 환원시켰다. 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신하들 가운데 제왕의 창업을 도울 때 빼어난 책략策略으로 세상을 뒤덮는 높은 공훈을 세운 자에게 봉토茅土를 나누어 주고 또한 높은 품계와 관직을 내려 포상하는 것, 이는 백대百代의 상전常典이자 천고千古의 큰 규정이다. 짐은 미천한 출신으로 재주와 식견이 용렬하고 낮은데도 진실로 여러 사람의 바람에 힘입어 왕위에 올랐으니[克踐洪基], 폭군을 폐위시킬 때 충신으로서의 절개를 다한 사람에게는 마땅히 상을 주어 그 공로를 기려야 한다. 홍유洪儒 · 배현경裵玄慶 · 신숭겸申崇謙 · 복지겸卜智謙을 1등으로 삼고 금은의 그릇, 수놓은 비단옷, 화려한 이부자리, 능라綾羅와 포백布帛을 차등 있게 내린다. 견권堅權 · 능식能寔 · 권신權愼 · 염상廉湘 · 김락金樂 · 연주連珠 · 마난麻煖을 2등으로 삼고 금은의 그릇, 수놓은 비단옷, 화려한 이

부자리, 능라와 포백을 차등 있게 내린다. 그리고 3등 공신 2,000여 인에게는 각각 능라 · 포백과 미곡米穀을 차등 있게 내린다. 짐이 그대들과 함께 백성을 구제하려고 결국 신하의 절개를 지키지 못하고 이것을 공으로 삼게 되니 어찌 나의 덕에 부끄러움이 없겠는가? 그러나 공적이 있는데 상을 내리지 않으면 장래 사람을 권장할 수 없으므로 오늘의 상이 있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짐의 뜻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포천의 옛 이름이 마홀馬忽은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인 마난과의 관련을 전혀 배제할 수 없겠다. 한편, 그의 관향인 영평에는 영송리 선사유적이 자리하고 그 배후에는 성동리 산성이 입지해 있다. 이들 유적도 영평 마씨와 무관하지 않는 유적으로 생각된다.

포천지역

성달成達 · 이달伊達 · 단림端林

『고려사』에 의하면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이후 923년(태조 6)에 명지성命旨城(현재 포천) 장군 성달과 그의 동생 이달 · 단림이 고려에 내부하였다고 한다.

포천은 이미 신라의 북방방어 기지로 주목을 받은 곳으로 특히 포천의 반월성은 지방호족들에게 전략적 가치로 주목을 받게 되었다. 포천은 궁예가 철원에 도읍하고 태봉을 세우자 태봉의 지배를 받았을 것으로 성달이 고려에 귀부할 때 이미 장군이었던 점은 포천의 토착 호족으로서 궁예에 협조하다가 고려건국 후 귀부하여 왕건에게 도움을 준 세력임을 말해준다.

이런 포천 토호세력이 거점은 반월산성半月山城이었다. 아마도 이들 세력들은 포천 반월성을 근거지로 그들의 정치적, 군사적 힘을 펼쳤으리라 생각된다. 이에 유적이 개략적인 설명을 더하면 다음과 같다.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弓裔가 쌓았다고 전해져 왔으나 수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백제에 의해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 사이에 처음 축성되었고 이후 고구려와 신라에 의해 주로 활용되었음이 밝혀졌다. 포천은 예성강 중 · 상류나

원산만 일대로 연결되는 교통의 요지이며 아차산과도 직접 연결되는 지리적 요지이다. 따라서 반월산성은 고대 삼국의 세력 판도에 따라 조영주체가 여러 차례 변화를 맞이하는 등 당시 고대사연구에 있어 중요한 학술적 가치를 지닌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반월산성은 산 정상부에 축조된 테뫼식 석축산성으로 둘레는 1,112m이며 평면 형태는 동서로 긴 반달 모양을 취하고 있다. 문지門址 3개소와 치성雉城 5개소, 장대지將臺址, 제사유적을 비롯하여 다수의 건물지가 성내에 분포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1994년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2001년까지 총 6차에 걸친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성벽은 시대와 사용주체에 따라 여러 차례 수개축修改築이 이루어졌는데, 지형 여건에 맞추어 편축片築과 협축夾築의 두 가지 방식이 모두 사용되었다. 후대에 개축된 성벽 구간에서는 신라 석성에서 주로 보이는 외벽보강구조물外壁補强構造物의 흔적이 잘 남아있다. 완만한 주 능선에 조성한 남문 및 서문의 경우, 통행의 편리를 도모하고 취약한 방어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성문 옆에 치성을 유기적으로 설치한 것이 특징적이다. 한편 고구려 유구는 주로 남벽에서 조사된 치성시설과 일부 주거의 흔적에서 확인된다. 일종의 적대敵臺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서치성西雉城은 고구려가 출입시설로 사용한 남문을 보호하기 위해 축조했던 것으로, 기저부에 장대석을 두고 상부로 갈수록 작은 석재를 들여쌓은 전형적인 고구려의 치성 축조방식을 따르고 있다. 고대의 전략적 요충지였던 반월산성은 처음 백제가 고구려를 방어하고 북방진출의 교도부로 삼기 위해 축조하였으나 이후 삼국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한때 고구려에 의해 일정 기간 동안 점유되었음을 관련 유구와 유물을 통해 짐작해 볼수 있다. 고구려가 반월산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점은 6세기 후반, 고구려의 대신라 방어체계 속에서 비롯되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고구려는 백제가 축

조한 반월산성의 전체를 사용하지 않고, 서치성 주변만 보수하고 소규모 주거지를 설치한 후 일종의 보루처럼 활용했을 것으로 조사단은 추정하였다 출토 유물은 초축 성벽의 기저부에서 수습된 백제 토기로부터 조선시대의 자기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물이 확인되었다. 특히 성 안에서 수습된 「마홀수해공구단馬忽受解空口單」명銘 기와는 『삼국사기三國史記』에 기록된 고구려의 마홀군馬忽郡이 포천일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고구려 유물은 주로 동이와 파수 등 생활용 토기와 연질의 적갈색 기와 등이 수습되었고, 6세기 중반을 중심연대로 하고 있으며 출토수량은 많지 않다. 또한 일부 장대지 부근에서도 수습되었으나 주로 서치성과 헬기장 주변 건물지를 중심으로 출토범위가 편중된 것이 특징이다.

인천지역

강화 위씨江華 韋氏

위수여韋壽餘

강화는 심주沁州라고도 하는데 신라 하대 혈구진지역이다. 혈구진이 군진으로서 서해 해상세력의 근거지가 되었음으로 볼 때 같은 해상세력을 바탕으로 한 왕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여진다. 위수여(?~1012)는 광종때 향직인 원보元甫로 오랫동안 궁중의 음식을 관장하던 상선원尙膳院의 사선司膳으로 왕을 측근에서 모시는 근신이었다. 1009년(현종 즉위년)에 문하시랑 평장사로 재상으로 나가고 1011년(현종 3) 치사한 것으로 보아 강화출신 위수여는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강화 위씨江華 韋氏의 시조 위수여葦壽餘(~ 1012년)는 960년(광종 11) 중원中原에서 고려로 동래하여 사선관司膳官이 되었고, 고려 목종穆宗 때 문하시랑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현종顯宗 초에는 치사致仕를 상소했으나 허락許諾되지 않고 1011년(현종 2) 궤장几杖을 하사下賜 받았다. 1012년(현종 3) 문하시중門下

侍中 상주국上柱國으로 강화백江華伯에 봉해졌다. 사후 내사령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안공이다. 묘소는 강화군 강화읍에 있으며 10월 9일 향사한다.

조선조에 의령현감宜寧縣監과 인동 현감仁同縣監을 거쳐 인천 부사仁川府事를 역임한 위조韋組가 간신奸臣들의 모략으로 평안도 영유永柔에 유배되었다가 그곳에 정착하여 살면서 후손들이 번성하자 그를 낙향시조落鄉始祖로 삼고 기일세起一世하고 있다.[46)]

강화 이씨江華 李氏

이대평李大平

이대평은 하음河陰(현재 강화)에서 세거한 호족으로 삼한벽상공신이고 그의 아들 이개李价는 호부시랑에 이르렀다고 한다.

수안 윤씨守安 尹氏

윤봉尹逢

수안은 부평의 속현으로 수안 출신 윤봉은 궁예의 휘하에 있다가 고려가 건국된

46) 위키백과(https://ko.wikipedia.org), '강화위씨'

후 광평시랑廣評侍郞이 되어 문신으로 활약하였고 그 공로로 삼한공신 내사령이 되었다. 윤봉은 915년 궁예 휘하에 있던 왕건이 궁예의 미륵관심법에 의해 모반의 누명을 쓰자 왕건에게 잠시 물러서 있을 것을 귀뜸하여 위기를 모면케 해준 최응崔凝(898~932)의 동료이다. 왕건은 최응을 내봉경內奉卿로 했다가 광평시랑으로 바꾸려 하였는데 최응이 말하기를 "동료 윤봉이 나이도 10살 많고 먼저 임명하라"고 하였다. 최응이 윤봉에게 광평시랑의 요직을 양보한 것으로 보아 윤봉도 최응과 함께 왕건에 협조한 인물로 보인다.

성종 때 급제하여 중추원사를 역임하고 현종대 활약한 윤징고尹徵古(?~1021)가 그의 후손이다.

부평 이씨

이희목李希穆(생몰년 미상)

이희목은 부평 이씨의 시조로, 고려 태조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워 삼한 벽상 공신三韓壁上功臣으로 책봉되었으며 관계官階(관리나 벼슬의 등급)가 삼중대광三重大匡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러나 『고려사高麗史』에 이희목의 이름이 보이지 않고 있어 확실하지 않다.

부평 이씨가 두각을 나타낸 것은 4세손 이정공李靖恭 대의 일이다. 이정공은 문과에 급제한 뒤 1062년(문종 16) 시예부 외랑侍禮部外郎으로 지남원부사知南原府事를 지낼 때 「삼례도三禮圖」와 「손경자서孫卿子書」를 새로 새겨[新彫] 바쳐 포상을

받았다. 그 후 여러 관직을 두루 거쳐 1086년(선종 3) 문하시중門下侍中 · 판상서이부사判上書吏部事로 치사致仕(나이가 많아 벼슬을 사양하고 물러남)하여 부평백富平伯에 봉해졌다. 이를 연유로 후손들이 부평을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오게 되었다.

서울지역

양천 허씨

허선문許宣文(생몰년 미상)[47]

신라 말 고려 초 부천 지역 출신의 호족. 양천 허씨陽川許氏의 시조이다. 허선문은 가락국駕洛國 김수로왕비金首露王妃의 30세손으로 전해진다.

허선문은 공암현孔巖縣에 대부호大富豪로써 살았으며, 이 때는 후삼국이 대립을 하던 시기로 고려의 태조 왕건이 견훤군을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향하던 중 군량미가 떨어지고 병마兵馬가 매우 피로하여 절대적인 위기에 처했는데 이때에 공께서 마필과 식량을 내어 줌으로써 왕건은 전쟁에 승리하여 고려건국에 지대한 힘을 보태게 되었다.

이 공으로 왕건은 공의 충의에 감동하여 의부義父로 모시고 공암촌주로 봉하여 고려 건국에 대한 공으로 삼한공신이 되었다. 이로써 공암현을 식향食鄕으로 하사하니 이로 말미암아 관적을 공암 허씨公巖許氏로 한 것이며 후에 공암이

---

47) 강서문화원, 『강서의 역사 · 문화 · 문화재』, 1996.
강서구청, 『우리 고장의 역사와 민담』, 1994.

양천으로 고쳐짐에 따라 양천 허씨陽川許氏로 불리어지게 되었다.

후손 중에 예종과 인종 시대에 각각 평장사平章事를 지낸 허경許慶과 허재許載가 있다. 오늘날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서울시기념물 제11호인 바위동굴을 일명 '공암바위'라고도 불리는데, 이 바위는 위에서 보면 그리 높지 않지만 아래서 보면 수직 절벽의 꽤 높은 바위산으로 보인다. 색깔은 자색을 띤 바위이다. '허가바위굴'이라고도 부르며, 양천 허씨의 시조인 허선문許宣文이 이곳에서 태어났다는 설화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이곳을 양천 허씨의 발상지라고 말한다.

허선문은 고려 태조가 견훤을 징벌하러 가면서 이 곳을 지나게 되었는데 도강의 편의와 군량미 제공 등의 공을 세워 '공암촌주孔巖村主'라는 벼슬을 받았는데 그는 나이가 90이 지났는데도 태조에 충성을 했다. 양천 허씨는 고려 말에는 재상을 두명이나 배출하고, 당대 명문가와 혼인을 맺어 귀족가문을 이루었다.

불교계의 인물

나말여초 지방호족의 등장과 함께 불교계에서도 경주 중심의 교학불교에서 지방에 기반을 둔 선종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들은 불립문자不立文字 · 견성오도見性悟道를 부르짖으면서 기존의 언어나 문자를 매개로 하는 이론의 교학불교보다 진리의 체험적 직관을 중시하였다. 이들은 독자적으로 연고가 있는 지방사원에 있으면서 선수행을 하는 반면 수행하는 사원 부근의 지방호족들과 연관을 맺어 후원을 받고, 자신들의 교화력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을 회유하기도 하였다. 호족들은 선사들에게 미래에 대한 부처님의 가호를 빌고, 정치적 자문까지 받는 등 재학在學제자로 또는 경제적 도움을 주는 단월로서 후원하기도 하였다. 특히 태조 왕건은 이러한 선사들을 개경 가까운 곳으로 초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훈요십조 제 1조에는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禪 · 교敎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에도 각기 사원의 경영에 간섭하지 말고 쟁탈하지 말라 하였고 제 6조에서는 연등 · 팔관회를 쉬지 못하게 하여 부처에 제사하고 하늘과 5악岳 · 명산 · 대천 · 용신龍神 등을 봉사팔관하는 일을 계속하도록 하였다.

왕건은 건국하고 송악으로 옮기자마자 궁궐과 함께 법왕사 왕륜사 등 10개 사원을 창건하였고 후삼국을 통일한 936년까지 개경에 더 많은 절을 창건하였

다.[48] 여기에는 선종사원뿐 아니라 신라 기존의 화엄종과 유가종瑜伽宗 신인종神印宗 등이 포함되어 신라이후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던 다양한 종파들을 수용하려 하였음을 보여준다.

고려는 불교가 종교로서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생활화 된 나라이다. 팔관회, 연등회, 무차대회 등 국가적 불교행사는 호국신앙을 유포하면서 민중들의 토착신앙까지 수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렇게 보면 승려와 사원도 왕건이 일통삼한의 과업을 수행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태조 왕건과 연관되어 고려 건국에 일익을 담당했던 승려 중에는 경기출신도 있었다. 이들 중에는 왕건이 태어나기 전부터 왕건집안과 인연을 맺고 왕건의 개국을 기원한 승려도 있다. 건국 후에도 왕건은 지속적으로 이들과 관련을 맺고 이들을 우대하여 왕사王師, 국사國師의 직함을 주기도 하였다. 사료 상 확인되는 경기출신으로 승려를 찾아 활약을 살펴본다.

요오화상了悟和尙 순지順之

개성 오관산五冠山 서운사瑞雲寺에 있는 937년(태조 20)에 세워진 「서운사 요오화상 진원탑비瑞雲寺 了悟和尙 眞原塔碑」에 순지의 업적이 나와 있다. 요오화상은 휘諱가 순지順之(?~?)이고 속성은 박씨朴氏로 예상강 부근 패강浿江 사람이다. 순지의 가계는 웅호雄豪하여 대대로 변방의 장수가 되어 향리鄕里에 칭찬이 퍼져

48) 당시 개경에 창건된 사원을 보면 대흥사(921년), 광명사 · 일월사(922년), 외제석원 · 구요당 · 신중원 · 흥국사(924년), 묘지사(927년), 구산사(929년), 안화선원(930년), 개국사(935년), 광흥사 · 내천왕사 · 현성사 · 미륵사(936년) 등이 있다.

있었다고 한다.

순지는 20세경에 오관산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었고, 속리산에서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다. 859년(헌안왕 3)에 당나라에 들어가서 앙산仰山 혜적慧寂의 제자가 되어 앙산의 법맥을 이은 뒤 헌강왕 초년에 귀국하였는데 건부乾符 연간(874~879)에 왕건의 할머니 원창왕후元昌王后(龍女)와 그의 아들 위무대왕威武大王(태조의 아버지, 왕륭)의 요청으로 오관산 용암사龍巖寺에 머무르면서 교화하다가 65세의 나이로 입적하였다. 뒤에 용암사는 서운사로 이름이 바뀌었다.

비문에 의하면 위무대왕 왕륭은 '세상을 다스릴 만한 웅재雄材이자 구름을 뛰어넘을 만한 호기로 나라를 걱정하고 집안을 잊는 뜻을 품고, 백성을 위로하고 죄인을 치는 생각을 지니고 이 용암사(서운사)에 베풀었다'고 하였다. 서운사는 송악지방에서 왕건의 선대부터 원찰로, 왕륭이 아들 왕건을 통하여 정치적 야망을 이루기 위해 왕건집안의 서원을 빌었던 곳이다. 패강 호족집안 출신 순지는 왕건 탄생과 위업 달성을 위하여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법경대사法鏡大師 경유慶猷

법경대사 경유慶猷(871~921)는 속성은 장씨張氏로 남양南陽(화성)사람이다 그의 집안이 남양의 관족冠族이었다는 점은 남양의 호족이었음을 알려준다.

개성 오룡사지五龍寺址에 있는 최언위崔彦撝가 찬하고 944년(혜종 1)에 세워진 「오룡사 법경대사비」에 의하면, 경유는 15세에 출가하여 18세에 통도사 영종율사靈宗律師에게서 구족계를 받고 당나라로 유학하여 운거雲居 도응道膺의 법을

전하였는데 당시 사람들이 경유와 형미逈微, 여엄麗嚴, 이엄利嚴을 해동의 4무외대사無畏大士라 일컬었다. 즉 이들은 일체의 법을 깨달아 모든 번뇌를 없애 두려움이 없다는 승려들로 도의 높은 경지를 이루었다는 뜻이다.

비문에 의하면 당나라에서 귀국하여 경유는 포악한 궁예를 한스럽게 여기고 몰래 왕건을 염원하였다고 한다. 왕건이 정권을 잡은 후에는 왕사王師의 예우를 받았다. 특히 후백제에 인질로 갔다가 살해당한 왕건의 사촌동생 왕신王信은 마납가사와 놋쇠발우를 왕건이 왕위에 오를 때 대사에 받쳤다고 한다. 이는 왕건집안이 고려를 개국하면서 왕실의 안녕을 불교의 힘으로 염원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경유의 단월에는 재학제자在學弟子로 신성대왕神聖大王 즉 왕건이 첫 번째로 나오고 고려 건국에 큰 공을 세운 풍기출신 강공훤康公萱, 평산의 유금필庾黔弼, 충주출신 유권열劉權說 등 유력한 호족출신 공신들이 참여하였다.

개경 오룡사는 고려개국과 왕실의 안녕을 기원하는 왕실사원이었고 경유는 왕건의 건국을 불교의 가호에 의지하려는 마음을 기원해주고, 자신이 머문 사원을 중심으로 지방에서 많은 민심을 수습한다든가 정치적 자문에 임한다든가 하여 고려 건국에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혜거惠居국사 지회智回

수원 용주사龍珠寺의 전신인 갈양사葛陽寺에는 혜거국사惠居國師 지회智回의[49] 탑비가 있다. 그에 의하면 지□는 속성은 명주溟洲 박씨朴氏이나 천령군川寧郡 황려현黃驪縣 즉 여주사람이라 한다.

994년(成宗 13)에 최량崔亮이 찬술한 「갈양사 혜거국사비」에 의하면 지회는 19세에 금산사金山寺 의정율사義靜律師에게서 구족계 받았다. 고려가 건국되고 난 이후인 929년 경순왕의 초청으로 경주 영묘사靈廟寺에 머물며 계단戒壇을 세우고 7일 간 법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939년(태조 22) 태조가 국사의 도道와 덕德을 높이 받들어 3차례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고, 특히 광종대에 두드러진 활약을 하였다.

947년(정종2)에 정종이 왕사로 책봉하여 맞이하였고, 다음해 948년(정종 3) 왕명으로 홍화사弘化寺에서 전장법회轉藏法席을 주관하였다. 962년(광종 12) 왕건이 살던 집에 세운 개성 광명사廣明寺에 있으면서 7일 간 인왕반야회仁王般若會를 개최하였고, 968년(광종 19)에 국사로 책봉되었다. 그 해 6월에 큰 가뭄이 들자 왕명으로 기우祈雨하였는데 『대운륜경大雲輪經』을 설하자 곧 비가 내려 모두가 경탄하였다고 한다. 혜거국사는 970년(광종 21) 수원 갈양사로 하산하면서 갈양사를 중수하였고 이듬해인 971년(광종 22) 가을에 준공하면서 수륙도량水陸道場을 열었고 광종은 당시 태자(뒤의 景宗)에게 명하여 가서 낙성하게 하였다.

수륙도량은 물과 육지에서 헤매는 외로운 영혼과 아귀餓鬼를 달래며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음식을 베푸는 의례로 갈양사 수륙재는 우리 역

---

49) 지회智回는 비문이 마멸되어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없다. 韓國佛敎大辭典編纂委員會 編, 1982, 『韓國佛敎大辭典』, 寶蓮閣, p.198에는 惠居의 俗姓이 朴氏이고, 처음 이름이 智回라고 하였으나 전거가 없어 확인할 수 없다.

사상 최초의 예이다. 아마도 대대적으로 왕권강화를 위해 개혁정치를 펼친 광종은 자신의 정책에 반대한 사람들을 무수히 제거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의 원혼을 달래는 수륙재를 베풀어 자신의 참회뿐 아니라 민심수습의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법인국사法印國師 탄문坦文

법인法印국사 탄문坦文(900~975)은 광종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승려라 할 수 있다. 978년(경종3)에 세워진 충남 서산시에 있는 「보원사 법인국사 탑비普願寺 法印國師 塔碑」를 보면 탄문은 속성이 고씨高氏이고 광주廣州 고봉高峰사람이다. 고봉은 지금의 고양을 말한다. 탄문의 집안은 고을의 이름난 가문이었다. 탄문은 당시 주류를 이루었던 선종이 아닌 화엄종승려로 특히 광종과 관계가 깊었다.

탄문의 생애를 보면 15세에(914년) 서울 장의사莊義寺에서 구족계를 받았다. 탄문은 처음부터 화엄종에 귀의하였는데 태조의 불교정책에 관여하여 일찌기 태조에 의해 별화상別和尙이라 칭해졌다.[50] 26세에는 926년(태조 9) 신명왕후神明王后 충주 유씨劉氏가 임신하자 태조의 요청으로 아들을 낳을 것과 순산을 기도하였고 광종이 탄생하게 되었다.

934(태조 17) 별대덕別大德이 되었고, 청태淸泰(934~936)초 태조의 청으로 서

50) 왕건은 화엄종에 대해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논산 개태사는 태조 19년(936년) 후백제를 정벌한 기념으로 창건한 사찰이다. 그해 후백제 왕 신검을 상대로 이긴 940년 개태사가 완공되자 화엄법회를 열고 소문疏文을 지었다. 이 소문에서 왕건은 "부처님 도움에 보답하고 산신령의 음조에 부응하기 위해 관청에 명하여 연궁蓮宮(사찰)을 건립하게 했는데 산 이름을 천호天護라 하고 절 이름을 개태사라 했다"고 했다.

백산西伯山 신랑태대덕神朗太大德을 만나 화엄을 논하여 신랑에게서 인정을 받았고, 942년(태조 25) 7월 황해도 염주鹽州와 백주白州에 메뚜기 피해를 입자 『대반야경大般若經』을 강설하여 물리쳤다.

탄문은 혜종 정종대에도 왕실의 안녕을 위해서 불사를 하였지만 자신이 탄생을 기원한 광종이 즉위하자(949년) 왕이 즉위한 현묘한 공을 널리 알리고, 나라를 교화하는 묘법을 강설하고, 왕을 위해 석가삼존 금상을 조성하였다. 953년(광종 4) 봄에는 불사리佛舍利 3알을 얻어 탑을 만들어 임금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의 교화를 도왔다. 2년 후인 955년(광종 6)에는 왕의 만수萬壽를 축원하기 위해 삼존금상을 조성하였다.

968년(광종 19)에는 69세로 대궐에서 대장경법회大藏經法會를 베풀고, 광종의 원찰인 귀법사歸法寺가 중창되자 왕의 청으로 가서 머물다가 왕사가 되었다. 이후에도 972년 광종의 태자 경종을 위해서 천불도량千佛道場에 들어가 기도하고 꿈에 감응한 것을 왕에게 청해 오백나한五百羅漢을 그려 안선보국원安禪報國院에 안치하였다. 975년(광종 26) 국사로 책봉되고 가야산에 들어가 입적하였다.

탄문은 화엄종승려로 특히 광종과 밀착되었는데 태조이후 지방호족 정권을 극복하고 왕권강화를 통해 중앙집권체제의 기반을 마련한 광종의 정신적 후견인으로서 또한 광종의 과단하게 시행된 개혁정치에 따른 정신적 위안(참회)의 길을 마련해 주고 왕실의 안녕을 위한 왕실 불사를 담당하였다.

사실 광종은 즉위하자 '광덕光德' · '준풍峻豐' 등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수도인 개경을 '황도皇都'라고 명명하여 고려가 황제국가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고려왕실의 급선무는 건국이후 왕건에 의해 연합을 이루었던 개국공신들을 포함한 지방호족출신들을 고려의 관계체제 안으로 끌어들여 왕권강화

와 중앙집권체제의 마련하는 것이었다. 광종의 노비안검법(956년)이라든가 후주後周의 귀화인 쌍기의 제안에 따른 과거제의 시행(958년), 공복제도의 시행은(960년) 모두 호족들을 탄압하여 집권체제 안으로 끌어들이고 왕권강화의 목적이 있는 개혁이었다.

이후 광종은 왕권강화책에 반발하거나 장애가 되는 호족세력에 대해 과감한 숙청을 단행하였다. 광종의 대숙청은 960년에서 975년 광종이 죽기 직전까지 이어졌는데 감옥이 항상 가득차서 따로 가옥假獄을 설치하게 될 정도였고 죄없이 살육당하는 자가 줄을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호족세력 등 정치적 적대세력들의 반발도 더욱 세어지게 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광범위한 세력기반의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광종은 963년(광종 14)에 귀법사歸法寺를 창건하고 이곳에 제위보濟危寶를 설치해 각종 법회와 재회齋會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을 펴나게 되었다.[51)]

이러한 광종의 불교정책에 귀법사歸法寺의 균여均如와 보원사의 탄문坦文 등의 화엄종승려들은 민중들을 포섭하고, 광종의 개혁을 지지해주는 사회적 세력을 모으는 역할을 하였는데 특히 탄문은 광종이 태어나기 전부터 광종을 위하여 불교적 지원세력이 되어 모든 재회齋會를 개최해주고 광종의 정신적 신앙적 참회의 위안처까지 마련해 주었다.[52)]

하여튼 광종의 노력으로 고려의 국가체제가 어느 정도 정비되었지만 왕권의 한계도 많아 중앙정부의 행정력이 지방에까지는 침투하지 못하였다. 이후 성

51) 성종대 최승로崔承老의 시무책에는 광종대의 지나친 불사를 한편 광종은 많은 佛事를 행하였는데 이렇게 빈번한 齋會를 베풀자 무리배들이 거짓으로 중이 되어 배불리 먹기를 구하고 구걸하는 자가 몰려 와 먹을 것을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즉 광종은 불교를 혹신하여 많은 錢穀을 탕진하였다고 비판하고 있다.

52) 극단적인 숙청을 한 광종은 자신의 자행한 보복에 대한 정신적 보상을 원혼을 달래기 위한 수륙재를 연다든가 여러 가지 불교적 재회 등 불사를 통하여 정신적 안정을 취하고자 한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종 현종대로 이어지는 정치, 조세, 지방제도 개편 등을 통하여 어느 정도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체제가 정비되고 문종대 고려적인 통치구조와 정치질서를 완성할 수 있었다.

김혜완 전 성균관대, 아주대 강사

박한남 국사편찬위원회 편사연구관

| 참고문헌 |

인터넷정보

국사편찬위원회 http://www.history.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한국금석문 종합영상정보시스템 http://gsm.nricp.go.kr/_third/user/main.jsp/

문화콘텐츠닷컴 https://www.culturecontent.com/

성씨닷컴 http://www.sungssi.com/

고문헌

『고려사』

『고려사절요』

『동문선』

『신증동국여지승람』

도서와 논문

경기도청, 2004, 『경기도사』 고려편 ebook.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 천년의 문화사』 고려전기.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이수건, 1984,『韓國中世社會史硏究』일조각.
문경현, 1987,『高麗太祖의 後三國統一硏究』형설출판사.
정청주, 1996,『新羅末高麗初豪族硏究』일조각.
이재범, 2007,『後三國時代弓裔政權硏究』혜안.

김광수, 1973,「고려태조의 삼한공신」『史學志』7.
박천식, 1988,「삼한벽상공신의 연구 (1) ; 벽상공신의 형성과 태조정권의 일단면 – 고려시대의 공신유형과 태조공신」『全羅文化論叢』2.
정청주, 1988,「新羅末 · 高麗初 豪族의 形成과 變化에 대한 一考察– 平山朴氏의 一家門의 實例 檢討」『역사학보』118.
이종서, 1997,「羅末麗初姓氏사용의 擴大와 그 背景」『韓國史論』37.
윤경진, 2016,「고려의 三韓一統意識과 '開國' 인식」『韓國文化』74.

3부

조선의 개국 공신

조선 개국의 주역은 이성계의 동북세력과 신진사대부들이다. 이는 군사력과 신진유학세력의 만남이기도 하다. 그리고 군사력의 중핵에는 이성계, 이지란, 김인찬이 있고, 신진사대부의 중심에는 정도전과 조준이 있다. 이들 5인 중에서 김인찬은 생소한 인물인데, 그는 지금의 양평의 전신인 양근을 본관으로 하는 인물로 태조로부터 익화군益和君(익화는 고려시대의 양평)에 봉해진 인물로, 북청 일대로 유망한 고려유민들을 규합하여 이성계 군사력의 한 축을 이루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어쨌든 상기 조선건국의 주역 5인은 모두 그 무덤과 사당이 경기도에 있다. 태조 이성계의 능이 동구릉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안다. 그러나 이지란의 사당이 오산, 남양주, 포천에 있다는 사실과, 김인찬의 사당과 무덤이 화성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일반인은 모른다. 또 정도전의 사당과 그의 문집『삼봉집』목판이 평택에 있는 사실과, 조준의 사당과 무덤이 고양에 있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지 않다. 또 개국 1등공신 이지란, 김사형, 이화, 정희계, 남은, 장사길, 남재, 정탁, 김인찬의 사당과 무덤이 경기도에 있다. 이렇듯 개국 1등 공신 17명 중 11명이 경기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고려시대 중앙관료는 개성과 그 주변에 거주하였고 죽어서도 그들의 무덤을 개성 주변에 두었다. 이는 조선전기까지 이어져 조선개국의 주역들도 그들의 무덤을 경기도에 조성하였다. 한편, 조선개국 공신들의 공신전도 경기도에 한정되었고, 그런 까닭에 경기도에 그들의 세거지가 조선전기에는 집중되었다. 개국 2등공신 황희석의 종가와 세거지가 동두천에 있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경기도는 조선 건국의 주역들이 영면하고 있는 땅이자 조선개국 후 그와 그의 후손들이 세거했던 곳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당과 무덤이 자리하고 있

어서 그들의 삶을 되새기고 그들의 정신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아래에 소개된 조선개국공신들은 현재 경기도에 무덤이나 사당이 있는 경우이다. 등급과 위차를 중심으로 순서대로 편집하였으며, 소개는 사전식으로 정리하였다.

조선개국 1등공신

조준趙浚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내유동 산79 에는 조준 사당이 있다. 그리고 사당 앞에는 신도비로서 새로 세운 조준사적비가 있다. 조준 묘는 원래 개성에 있었으나 임진왜란 때 유실되었고, 지금은 북한에 있어 가 볼 수 없게 되자 후손들이 이곳에 사당을 세우고 신도비를 복원한 것이다. 인근에는 태종의 둘째딸이자 조준의 며느리, 즉 조대림의 부인인 경정공주의 묘도 있다

조준(1346년 ~ 1405년)은 고려말기부터 조선 초기에 살았던 문신으로서 본관은 평양平壤, 자는 명중明仲, 호는 우재吁齋 또는 송당松堂이다. 고려말 사회개혁론자의 대표적 인물의 하나인 조준은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와 의기투합하여 국사를 같이 의논하게 되었다. 그리고 전제 개혁을 비롯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개혁의 기치를 들고 이성계의 조선개국을 도와 1등공신이 되었다. 조선에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 좌정승, 영의정부사 에 올랐으며, 작위는 충의군忠義君, 평양부원군平壤府院君, 시호는 문충文忠 이다.

가계家系[53]

조준의 가문은 13세기 원 간섭기에 증조부인 조인규趙仁規 대부터 문벌로 성장하였다. 조인규는 평양사람으로 고려와 몽고의 정치가 긴밀하던 시대에 몽골어를 잘하여 역관譯官으로 출세하였고, 그의 딸이 충선왕의 비妃가 되자 시중侍中에 올라 최고 권세가가 되었다. 조인규의 아들 5남중 차남 조련趙璉이 조준의 조부이며, 찬성사贊成事에 올랐고 그의 아들 조덕유趙德裕가 조준의 부친이 된다. 조덕유는 판도판서版圖判書와 원나라 관직인 왕부단사관王府斷事官을 지냈으며 예빈경禮賓卿 오의吳懿(吳誼)의 딸과 혼인하여 6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조준은 다섯번째 아들이었다.

조준의 형제들은 조후趙煦, 조정趙靖, 조순趙恂 등이 모두 관직에 나아가지 못하였으며 2남 조린趙璘은 홍건적과 왜구를 무찌른 공으로 상장군上將軍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조준이 20세가 되던 1365년(공민왕14) 조린이 오인택吳仁澤, 윤승순尹承順 등과 함께 국정의 주도권을 잡고 있던 신돈辛旽을 제거하려다가 실패하여 이 사건으로 조린은 유배되어 죽음을 당하였다. 이 사건으로 다른 형제들도 신돈이 주살誅殺될 때까지 관직에 나가기는 어려움을 당했을 것을 짐작할 수 있다. 6남 조견趙狷은 처음 승려였으나 30세를 지나면서 머리를 기르고 환속하였다. 조견은 처음에 승직僧職으로 좌윤佐尹이 되었다.

고려 말의 권문으로 오른 조인규를 배경으로 가진 가문으로, 부친 조덕유가 판도판서 왕부단사관이라는 실질적 권세를 가진 관리의 자손으로서 조준 형제들의 부진不進은 그 어머니 오씨부인에게는 한이 되었을 것이다. 어머니는 아

53) 민현구, 「조인규와 그의 가문」 중, 『진단학보』, 제43집, 1977.

들들이 아무도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여 항상 개탄했으므로 조준은 어려서부터 힘써 공부하였다. 어느 날 조준이 책을 끼고 수덕궁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마침 그곳에 있던 공민왕이 멀리서 불러 보고는 기특하게 여겨 그 집안 내력을 묻고 바로 보마배지유寶馬陪指諭에 소속시키도록 명령하였다 한다. 바로 조준이 음서로 관직에 들어간 내력인데, 어머니의 뜻을 받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였음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하다. 이 때가 1371년(공민왕 20년), 26세로서 음서로 관직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곧이어 1374년 4월 정당문학 이무방李茂芳과 밀직부사 염흥방廉興邦이 주관한 과거에 급제하였다. 따라서 조준은 형제들 중 유일하게 과거에 급제한 사람이었다.

관직생활

26세에 관직에 나간 조준의 관료생활은 60세에 별세할때까지 35년간 지속되었다. 이를 3 시기로 나누어 그의 생애를 조명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1371년 공민왕에 의해 보마배지유寶馬陪指諭에 예속된 26세부터 43세 되던 1388년(우왕14) 이성계가 위화도회군을 하기 이전까지이고, 두번째 시기는 이성계와 인연을 맺게 되면서 중앙 요직에 진출하고 이후 47세 되던 1392년 7월 이성계의 즉위때까지, 이 시기는 조준의 전체 생애 중 불과 5년의 짧은 시기였지만, 그의 정치적 역량이 최고로 발휘된 시기였으며, 그가 가장 능동적으로 활동했던 시기였다. 그리고 마지막 시기는 조선 개국 시기부터 그가 사망하는 1405년까지로서 10여년 간 정도전과 함께 권력을 다투며 갈등하던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엄격하고 민생을 위한 행정

1376년 통례문부사通禮門副使로 강원도 안렴사按廉使로 나가 엄격하고도 자애로운 행정을 펴서 백성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이후 사헌장령司憲掌令으로 임명되고 다시 감문위監門衛 대호군大護軍 · 지제교知製敎로 전임되었다. 그 후 거듭 승진해 전법판서典法判書가 되었는데 1382년 도통사都統使 최영崔瑩의 천거로 체복사體覆使가 되어 경상도에 내려갔다. 당시 왜구의 노략질은 날로 심해져 백성들은 산골로 도망하고 고을은 피폐해져 있었다. 조준은 도순문사都巡問使 이거인李居仁을 불러 제대로 싸우지 않은 죄를 추궁한 다음 병마사兵馬使 유익환兪益桓을 참수하여 기강을 바로잡았다. 이에 장수들이 벌벌 떨면서, "차라리 적에게 죽을지언정 조공趙公의 위세를 거슬려서는 안 된다." 하고는 모두 힘껏 싸워 승전보를 올리니 비로소 안정을 찾게 되었다.

1383년에 밀직제학密直提學 · 상의회의도감사商議會議都監事으로 발탁되었고, 도검찰사都檢察使가 된 뒤에는 강원도에 쳐들어온 왜구를 토벌하여 선위좌명공신宣威佐命功臣에 올랐다. 그러나 이인임李仁任, 임견미林堅美, 지윤池奫, 염흥방廉興邦 등으로 이어지는 시기인 우왕 말년까지 4년 동안 조준은 관직에서 멀어져 있었다. 이 무렵 윤소종尹紹宗 · 허금許錦 · 조인옥趙仁沃 · 유원정柳爰廷 · 정지鄭地 · 백군녕白君寧 등과 교우를 맺으며 우왕을 폐하고 왕씨 왕족 중 유망한 인물을 왕으로 옹립하려 하였다고 『고려사』에 기록되었다. 그러나 이는 고려사 찬자撰者의 지나친 서술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아직 우왕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설이 제기되기 전이었기 때문이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이 성공한 후 조준은 지밀직사사 겸 대사헌으로 발탁된다. 이성계는 일이 크든 작든 모두 그에게 자문을 구했다. 조준 역시 나라를 다스리고 민을 구하는 것을[經濟] 자신이 맡은 바로 생각하여 아는 것은 말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위화도회군의 성공으로 실권을 장악한 이성계는 정도전 · 조준 · 윤소종 · 조인옥 등 신진사대부들의 도움을 받아 정치 · 경제 · 군사제도 등에 대한 일련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특히 원간섭기 이래 사전과 농장의 전국적인 확대는 민생에 대한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군수軍需 및 관리에게 지급할 녹봉祿俸조차 제대로 줄 수 없을 정도로 국가체제를 파탄으로 몰고 갔다. 따라서 과전科田은 물론 녹봉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던 중소지주출신 신진사대부들에게 있어 전제개혁의 문제는 한층 절실한 것이었다.

1388년(우왕 14년) 7월에 제출된 제1차 상서上書에서 조준은 전제문란과 토지겸병에 따른 폐해로 백성들의 원망이 하늘에 닿아 각종 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부국강병과 인륜회복을 위한 방도로 전제개혁을 제시하였다.

조준의 상서에 이어 간관 이행, 판도판서 황순상, 전법판서 조인옥 등이 연이어 상서하여 사전 혁파를 청하므로서 전제 개혁의 논의는 불일듯 일어났다. 이에 당시 집권자이던 조민수가 사전개혁을 반대하고 나서자 조준은 탄핵상서를 올려 그를 창녕현으로 유배보내고, 이어 관제 법제 등 시무에 대한 상서를 올렸다. 1389년 4월에 도평의사사에서 전제田制를 논의하는데 이성계와 함께 조준이 사전 혁파를 주장하니 이색李穡은 "옛 법을 가볍게 고칠 수 없다"고 하여 반대

하였고 이림李琳 · 우현보禹玄寶 · 변안열邊安烈 · 권근權近 · 유백유柳伯濡 등이 이색의 주장을 따랐고, 정도전 · 윤소종은 조준의 의견을 따랐다. 이 때 정몽주鄭夢周는 어느 쪽도 따르지 않았다. 그러자 다시 백관에게 논의하게 하였더니, 의논한 자 53인 중에서 혁파하고자 하는 자는 10에 8~9명이었으며, 반대하는 자는 모두 거실자제巨室子弟들이었다.

대사헌 조준은 잇달아 사전의 폐해를 주장하며 전제개혁 상소를 올렸다. 조준은 전제 개혁 뿐 아니라 나아가서 『주례』에 근거해 관직제를 개혁할 것, 예법을 확립할 것, 인재 등용, 관직 운영, 국방 등 국정 전반에 걸친 개혁을 주장하였고, 우왕때 책봉된 후비들의 인장을 거두고 원래의 신분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등, 실로 정치 각 방면의 전반적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런데 1389년 11월 강화도에 유배되어 있는 우왕을 만나러 간 김저金佇 등이 우왕을 복위시키려는 모의를 했다는 사건을 빌미로[54] 이성계를 비롯한 9공신(심덕부 정몽주 지용기 설장수 성석린 조준 박위 정도전)이 모여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으로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즉위시켰다. 이로서 조준은 중흥공신으로서 포상을 받아 문하평리門下評理로서 조선군충의군朝鮮郡忠義君에 봉해졌다. 1390년(공양왕 2) 이성계는 조준의 건의대로 결국 사전을 혁파하여 조선 개국의 경제적인 기반을 닦았다. 이어 1391년 성절사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충근여절좌명정조공신忠勤勵節佐命定祚功臣의 칭호를 덧붙여 받고 삼사좌사三司佐使로 옮겼다. 그러나 이성계 중심의 급진개혁론자들은 정몽주 등 온건개혁논자들의 반격을 받게 되었다. 1392년 정몽주 김진양 등 반대파의 탄핵을 받아 정도전 등과 함께 유배 · 체포되었다. 정황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자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하므로

54) 김당택, 「고려 창왕 원년(1389)의 김저사건」 『전남사학』 12, 1998.

서 반대 세력은 와해되고, 조준 등은 풀려나와 찬성사 · 판삼사사가 되었다. 이해 7월에 이성계를 추대하여 조선이 개국되니 동덕분의좌명개국공신同德奮義佐命開國功臣의 호號를 받고, 평양백平壤伯에 봉해지고 문하우시중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식읍食邑 1천 호戶, 식실봉食實封 3백 호 및 전지 · 노비를 하사받았다. 이 시기는 그의 생애에서 숨막히고 드라마틱하며, 그의 사상적 논리적 능력을 최대로 발휘했던 시기였다고 하겠다.

이방원과 손을 잡다

조선 개국 과정에서 태조 이성계를 둘러싸고 협력하던 정도전과 조준은 실권이 점차 정도전에게 집중되자, 그와 정치적 의견을 달리하게 되었다. 세자책봉에 대해 정도전은 이방석李芳碩을 지지했으나, 조준은 이를 반대하여 개국에 공이 많은 이방원李芳遠을 지지하였다. 조준은 문하좌시중 · 오도도통사五道都統使가 되면서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로서 병권을 장악하였다. 요동공벌에서도 정도전은 공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으나, 조준은 이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 개국 이후 점차 정도전과 소원해졌고, 조준의 정치적 입장은 자연히 이방원과 가까워져서 그와 친교가 두터워졌다. 조준은 평소 방원에게 『대학연의大學衍義』를 주고 읽기를 권하기도 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戊寅靖社, 혹은 鄭道傳亂) 때 조준은 백관을 이끌고 적장자嫡長子를 후사로 정할 것을 건의한 후,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것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방간의 난) 이후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로 있으면서 민무구閔無咎 · 민무질閔無疾에게 무고되어 한때 투옥되기도 했으나, 이방원에 의해 석방되어 11월 이방원을 왕으로 옹립하고 좌정승 · 영의정부사에

승진, 평양부원군에 진봉되었다.

태종이 왕위에 오르자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가 되었으며, 태종 4년(1404) 6월에 다시 좌정승左政丞을 제수받았다가 1405년 1월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가 되었다. 1405년 6월 27일에 향년 60세로 운명하였다. 이 시기는 조준의 정치적 황금기였으며, 그의 60 평생에서 13년이나 차지하는 긴 시간이었다.

태종은 직접 조제弔祭하고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내렸으며,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되었다. 아들 조대림趙大臨이 태종의 둘째 딸 경정궁주慶貞宮主와 혼인하여 평녕군平寧君에 봉해졌으니, 태종과는 사돈이 된다.

한편 조준은 『고려사高麗史』를 편수했으며, 국조의 헌장조례憲章條例를 모아 『경제육전經濟六典』을 간행하는 등 조선의 기틀을 확립하였다.

사전개혁과 개혁 사상

공민왕 때부터 신진사대부라 불리워지는 정치세력들은 우왕대에 와서 한때 좌절을 겪으면서도 더욱 성장하며 왔다. 위화도회군 이후 전개된 우왕의 폐위와 창왕 옹립, 공양왕 옹립, 윤이 · 이초사건 등의 정치과정을 겪으면서 그들은 정치적 지향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위화도회군이후 이성계 중심의 개혁론자들은 사전의 폐단을 내세우고 전제개혁을 주장하였다. 우왕의 폐위이후 조민수 이색을 중심으로 창왕을 옹립한 세력은 전제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사대부들은 크게 나뉘었다. 사전 개혁과 함께 국정 전반의 개혁을 주장하는 조준 정도전 등은 "우창비왕禑昌非王" 즉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설을 내세워 "폐가입진廢假立眞" 즉 왕씨를 왕으로 세워야

한다는 명분으로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이 논쟁의 맨 앞에 선 것이 조준 정도전 등이다. 이들은 고려 사전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통해 새로운 토지분급제도를 수립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준 등은 전국의 문서를 모두 소각한 후 양전量田을 거쳐 토지에 정丁을 매겨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수조지를 분급함으로써 사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개혁안은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와 급진개혁파들이 집권하자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조준의 전제개혁안은 부국강병과 민생안정에 목표를 둔 것이었다. 첫번째의 상소에서는 녹과전祿科田을 비롯하여 공공적인 성격의 토지를 정비하여 관리와 군인 그리고 국역담당자의 생계를 안정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제2 · 3차의 전제개혁상소에서는 세신거실世臣居室이 경기 이외의 외방에까지 사전私田을 확대해가는 것을 저지하고, 사전은 경기 이내의 지역에 두는 원칙을 고수하므로서, 전제개혁의 지역적 안배를 설정하였다. 그의 개혁안은 1391년 5월에 정해진 과전법의 토대가 된 것이다.

그는 국정 개혁을 『주례周禮』에 바탕을 두었다. 그의 국정개혁의 내용은 국왕 중심의 정치체제가 아니라 재상의 권한을 강화하고, 대간臺諫과 수령守令의 권한을 강화하여 유교적인 이상국가를 수립하려는 것이었다. 신분에 있어서는 양천제良賤制를 확립하여 국역체제를 강화하고, 왕의 자질을 제고하고 덕치를 권장하기 위하여 경연과 서연제도를 실시하며, 유교적 교육을 강화하며 사장詞章보다는 사서오경을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또 『주자가례朱子家禮』의 시행, 의창義倉과 상평창常平倉 · 사창社倉제의 시행을 통해 유교적 위민정치의 실현을 꾀하였다. 그러면서도 신분체계는 강화하여 향리의 관료진출을 억제할 것, 환자宦者의 정치 참여를 막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과거시험에 복시제覆試制를 시행할 것 등

을 제시하였다.

조준이 건의한 모든 시무책은 당시 고려의 국정, 재정, 국방, 법률, 관제, 예제 등에 이르는 것으로 기강을 바로잡고 진작시키는 법률이자 백성을 교화해 올바른 풍속을 이루게 하는 방책이었으며, 국고를 풍족하게 하고 병력을 확충하는 정책이었다. 조준은 이러한 개혁을 통해 인심을 결속시키고 민생을 안정시켜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수립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조준의 개혁안은 정도전의 그것과 상통하는 점이 많으며, 이는 조선건국에 참여한 신진사대부의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의 전형이라 할 수 있다. 조준은 마지막으로 정권 쟁탈의 경쟁자였던 정도전과 함께 이성계를 도와 조선 文治의 기반을 다진 인물로 평가할 수 있다.

조준은 역사와 경학經學에도 능했다. 전제 개혁을 비롯한 광범한 국정 개혁의 상소는 그의 학문적 농축의 소산이었다. 대부분의 상소가 『고려사』에 기록되어 있어 이를 통해 그의 정치사상을 엿볼 수 있다. 뿐만아니라 시문에도 능하여, 문집으로 『송당집松堂集』을 남겼다. 그가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게 국조의 헌장조례憲章條例를 모아 편찬하게 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은 뒤에 『속육전續六典』·『육전등록六典謄錄』 등으로 보완되어 『경국대전經國大典』 편찬의 토대가 되었다.

김사형金士衡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에는 조선 개국공신인 김사형의 묘가 있다. 2001년 9월 17일 경기도문화재자료 제107호로 지정되었다. 안동김씨 익원공파종중

에서 소유, 관리한다.

김사형의 묘는 부인 죽산 박씨와의 합장묘이다. 봉분은 길고 납작한 화강암으로 3단의 둘레돌[護石]을 둘렀다. 묘역에는 묘표 · 상석 · 향로석 · 장명등 각 1기, 문인석文人石 1쌍이 있고 묘역에서 약간 떨어진 마을 입구에 김사형의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묘표는 다시 세웠으며, 장명등은 앞뒤에 창이 넓게 뚫려 있고 양옆이 막혀 있어 조선 전기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묘의 양옆에 있는 문인석도 조선 전기의 양식이다.

김사형(1333~1407)의 자는 평보平甫, 호는 낙포洛圃이고, 본관은 안동安東, 시호는 익원翼元이다. 고조부는 김방경金方慶이고, 할아버지는 김영후金永煦이며, 아버지는 부지밀직사사 김천金蕆이다. 김방경은 몽골침입때 활약한 장군으로서 삼별초의 난을 진압하는데 큰 공을 세웠고, 고려 몽골연합군의 일본 원정에 참여하는 등 활약하였으며 고려 후기 대대로 권세를 누린 가문이다.

김사형金士衡은 처음 음보蔭補로 앵계관직鶯溪館直이 된 후,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하여 거듭 승진해 감찰규정監察糾正이 되었다. 공민왕 때 고공산랑考功散郎으로 있으면서 직랑直郎 유경원劉慶元과 함께 안렴사按廉使와 수령守令이 공물貢物과 조세의 수납을 기한내에 제대로 납부하도록 건의하기도 하였다.

1377년(우왕 3년)에 사헌부 집의執義가 되어 조준趙浚 등과 함께 대간직에 이르러 명관의 칭송을 받았다. 거듭 승진해 개성윤開城尹이 되고 단성보리공신端誠輔理功臣의 호를 하사받았다.

위화도회군 이후 사전私田 개혁 논의에 참여하고 개혁파 관료들과 함께 하였다. 이듬해에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가 되었다.

공양왕이 즉위한 후 경연經筵에 나가 무일편無逸篇을 강론하였다. 뒤에 지문

하부사知門下府事 겸 사헌부대사헌兼司憲府大司憲으로 있으면서 왕이 도읍을 한양으로 옮기려 하자 동료들과 함께 반대상소를 올렸다.

1390년 윤이尹彝 · 이초李初의 옥이 있은 뒤 그 당을 둘러싸고 찬성사 정몽주와 대결하고 서로 탄핵하였다. 윤이 이초 일당이 처벌된 후에도 우현보禹玄寶 · 권중화權仲和 등에게도 죄줄 것을 요청하고 강력하게 반발하였다. 정몽주는 이 일을 다시 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김사형 등의 강력한 반발로 결국 우현보 · 권중화 · 장하 등을 유배보내게 되었다. 김사형 등은 정몽주가 오히려 윤이와 이초의 일당을 비호해 주무 관청을 해치려 한다는 이유로 그를 탄핵하게 했다.

1392년 7월 배극렴, 조준, 정도전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문하시랑찬성사 겸 판상서사사 겸 병조전서응양상장군門下侍郎贊成事兼判尙瑞司事兼兵曹典書鷹揚上將軍에 올랐다. 개국공신의 위차는 배극렴裵克廉 · 조준趙浚 다음에 김사형 그리고 다음이 정도전이다.

1396년(태조 5)에 문하우정승으로서 오도五道 병마兵馬 도통처치사都統處置使가 되어 5도의 병선兵船을 모아서 일기도一岐島와 대마도對馬島를 치게 하였다.

태조 시기 모든 정사가 조준 , 김사형, 정도전 3인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김사형이 조준과 더불어 8년 동안 함께 정승의 지위에 있었는데, 조준은 강직하고 과감하여 거리낌 없이 국정을 전단專斷하고, 김사형은 관대하고 간요한 것으로 이를 보충하였다 한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백관을 거느리고 대궐에 가 적장嫡長을 후사로 세울 것을 요청해 정종의 즉위를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록되었다. 이어 문하우시중에 제수되고, 1399년(정종 1) 등극사로 명나라에 다녀

와서 판문하부사判門下府事에 올랐다. 태종 원년 상락부원에 봉해진 뒤 1402년(태종 2년) 중국의 내정이 혼란하자, 이 기회를 이용하여 서북면에 성을 쌓아야한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영사평부사를 지낸 다음 관직에서 물러났다.

김사형은 생각이 깊고 침착하여 지혜가 있었고, 조용하고 중후하여 말이 적었으며, 속으로 남에게 숨기는 것이 없고, 밖으로 남에게 모나는 것이 없었다. 또 재산을 경영하지 않고 한번도 탄핵을 당하지 않았던 인물이었다.(12장)

정도전鄭道傳[55)]

정도전의 사당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에는 정도전사당鄭道傳祠堂이 있다. 조선 전기의 학자이자 문신이며, 조선개국공신인 삼봉 정도전鄭道傳을 모신 사당이다.

정도전은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에 살았던 성리학자로서, 정치가로서 활동하던 중, 제1차 왕자의 난(1398년) 때에 이방원에 의해 죽임을 당한 뒤 모든 훈작이 삭훈되었다. 후세에 와서 고종 때 대원군이 경복궁을 중건하면서, 정도전의 위업이 높이 평가됨으로써 한양의 설계자인 정도전의 공훈과 지위를 회복시키고 1870년 문헌文憲이라는 시호와 함께 유종공종儒宗功宗이라는 편액을 하사하였다. 그러나 시신을 찾지 못하여 무덤을 만들지는 못했다.

55) 『삼봉집三峰集』
한영우, 『정도전鄭道傳사상의 연구』, (한국문화연구총서 15), 1973
한영우, 『왕조의 설계자 정도전』, 지식산업사, 1999.
이상백,「삼봉인물고三峰人物考」, 『진단학보』 2 · 3, 1935

1872년 봄에 정도전의 후손과 죽산부사竹山府使 이현경의 주도하에 양성현 양성원면(현재의 안성시 원곡면)에 사당을 지은 후, 같은 해 4월 2일 죽산부사와 인근 고을 수령과 함께 사당에서 제사를 올렸다. 그 후 1912년에 봉화정씨문중奉化鄭氏門中에서 옛 양성현 성은면 산하리 287번지(현재의 진위면 은산리 287번지)로 사우를 옮겨 증축하였고, 1986년 3월 5일 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되었다. 사당은 정도전의 시호를 따서 지은 문헌사와 『삼봉집三峰集』 목판을 보관하는 판각고로 구성되어 있다.

가계家系와 출세

정도전(1342~1398)의 본관은 봉화奉化(경상북도 봉화), 자는 종지宗之·증오曾吾, 호는 삼봉三峰이다. 봉화정씨의 시조 정공미鄭公美는 봉화의 호장을 지낸 토착세력의 하나이다. 조부 정균鄭均은 호장직을 세습하고 검교군기감檢校軍器監 직을 받았고, 부 정운경鄭云敬은 충숙왕대 진사에 급제하여 형부상서刑部尙書를 지냈다. 어머니는 단양우씨丹陽禹氏이다. 고려말의 지방의 향리 또는 중소지주 출신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신진 관인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정운경은 이곡李穀과 교우관계가 있었고, 그 인연으로 정도전이 이곡의 아들 이색의 문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정도전은 공민왕 9년(1360) 성균시成均試에 급제하고, 같은 왕 11년 10월 지공거 홍언박洪彦博과 동지공거 유숙柳淑이 주관한 과거에 박의중朴宜中·박실朴實·김도金濤 등과 함께 급제했다. 이듬해 충주사록忠州司錄으로 부임하였고, 전교시주부典敎寺主簿·통례문지후通禮門祗候를 지냈으나 부모상을 잇달아 당하여

여묘廬墓살이 하며 상을 마쳤다. 이 때 노비 가운데 건장하고 힘이 센 자는 모두 형제와 자매에게 주고 자신은 늙고 약한 자만 가졌으니 효성스럽고 우애 있는 성품을 가졌다고 알려졌다.

1370년 성균박사가 되고 이어 태상박사太常博士를 거쳐 예조정랑 겸 성균태상박사禮曹正郞兼成均太常博士가 되었다. 당시 성균관대사성이던 이색의 지휘하에 정몽주鄭夢周 · 박상충朴尙衷 · 박의중朴宜中 · 이숭인李崇仁 · 이존오李存吾 · 김구용金九容 · 윤소종尹紹宗 등과 교유하면서 경사經史를 강론하였는데, 정도전은 특히 문장과 성리학에 능하였다.

1375년(우왕 원년) 성균사예成均司藝 · 지제교知製敎 등을 역임하였다. 이 해에 당시 정권을 쥔 이인임李仁任 · 경복흥慶復興 등이 북원北元의 사신을 맞아들이려 하자 정도전 · 김구용 · 이숭인 · 권근등 신진사대부들이 도당都堂에 글을 올려 맹렬히 반대하였다. 공민왕대부터 친명 외교노선을 유지해 왔던 신진사대부들은 우왕 즉위 후에 구세력이 친원親元정책으로 전환하려는 것에 우려하였고 북원 사신의 입국 문제는 신 구세력 간의 대립을 표면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때 정도전에게 사신 영접의 임무를 맡기니 그 이해득실을 따져 반대하다가 회진현會津縣(전라남도 나주)으로 유배되었다.

정도전은 이 사건을 계기로 우왕 9년까지 참담한 시련기를 겪으면서 유배와 유랑의 시간을 보내게 된다. 나주의 거평부곡居平部曲에서 약 2년을 보내면서 이곳의 부곡민部曲民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당시 농민들의 생활상을 직접 목격하고는 위민의식爲民意識을 키웠다. 이는 후일 전제田制개혁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 유배가 끝난 후에도 유랑은 계속되었다. 고향인 영주榮州(경상북도 영주)와 생가인 삼봉三峰(충청북도 단양)을 왕래하면서 4년을 보내고 후에 삼각산三角

山(서울 북한산) 아래에 초려를 짓고 경서를 강의했다. 그는 다시 부평으로, 김포로 이사를 반복했다. 이 기간은 학문연구와 후진교육에 종사하며, 주자학적 입장에서 불교배척론을 체계화하고, 웅대한 사회개혁 사상을 완성시키는 시기가 되었을 것이다.

더구나 그가 청·장년의 시기를 보낸 고려 말기는 밖으로 왜구·홍건적의 침구로 국내가 어수선했고, 안으로는 권문세족의 횡포로 정치기강이 무너지고 민생이 곤핍하였다. 이러한 시기에 9년간의 시련에 찬 유배·유랑 생활은 그로 하여금 애국적이며 애민적인 의식을 깊게 만들었다.

이성계의 '장자방'이 되다

1383년 9년간에 걸친 간고한 유배·유랑 생활을 청산하고, 당시 동북면도지휘사로 있던 이성계李成桂를 함주 막사로 찾아가서 그와 인연을 맺기 시작하였다. 다음 해 오랜만에 다시 벼슬길에 올라 전의부령典儀副令으로 임명되어 성절사聖節使 정몽주의 서장관이 되어 명明나라에 다녀오고 성균관좨주를 거쳐 남양부사南陽府使(지금의 경기도 화성군)로 나갔다. 이성계를 만나고 돌아 온 뒤 정도전의 생애는 혁명가로서의 도전과 굴곡의 연속이었다. 1388년 위화도 회군으로 이성계가 정권을 잡은 후 그의 추천으로 성균관 대사성에 올랐다.

이성계의 우익으로 여러 번 계책을 올려 밀직제학密直提學으로 오르고 조준趙浚과 함께 전제개혁론을 주장하였으며, 1389년(창왕 원년)에는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승진하였다. 이 해 11월 김저金佇의 옥獄을 계기로, 이성계·조준·지용기池湧奇 등과 함께 흥국사興國寺에 모여 이른바 '폐가입진廢假立眞'의 명분을 내세

워 공양왕을 옹립하였다. 공양왕은 신종神宗의 7대손으로 정원부원군定原府院君 왕균王鈞의 아들이다. 공양왕은 이성계와 인척관계에 있었고, 나약한 성격의 소유자로 이후 이성계의 집권에 방해가 되지 않을 인물이므로 추대된 것으로 보인다. 창왕을 폐위시킨뒤 정도전은 봉화현 충의군에 봉해지고 추충논도좌명공신推忠論道佐命功臣의 호를 받고 삼사우사三司右使에 올랐다. 1390년에 정당문학政堂文學에 승진되고, 윤이 · 이초의 옥사獄事가 일어나자, 정도전은 그 일당을 죄줄 것을 극력 주장하였으나, 정몽주의 반대로 중지되었다. 곧이어 1390년(공양왕 2년) 조민수曺敏修 등 구세력을 몰아내고 1391년 5월 전제개혁을 단행하여 과전법科田法을 실시하게 함으로써 조선 개국의 정치 ·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이던 이색과 정도전의 사이도 적대관계가 되었다. 이색은 정도전 등의 "폐가입진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창왕 폐위가 부당하다고 반대하였다. 이후 이색은 정도전의 정적제거 대상으로 철저하게 배척된다.

1391년 이성계가 군사권을 장악하여 삼군도총제부三軍都摠制府를 설치하자 우군총제사右軍摠制使가 되었다. 이는 조선건국 주도세력들이 고려의 군사지휘권을 장악하게 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정도전은 개혁 반대세력을 몰아내는 운동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게 된다. 반대세력의 선두에 있던 이색 우현보 등의 처벌을 요구하고 이색 부자를 귀양보냈다.

그러나, 개혁세력 안에서 정몽주를 중심으로 이성계 세력에 대한 견제 움직임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공양왕은 정몽주의 손을 들어주고 이색 우현보 등도 정몽주 세력에 동조하면서 이성계의 역성혁명을 저지하려 하였다. 1392년 4월 정몽주 세력의 역습이 시작되었다. 이성계가 해주에서 사냥중에 낙마한 사건을 계기로 고려 왕조를 옹호하던 정몽주를 중심으로 김진양金震陽 · 서견徐甄 등이

정도전을 탄핵하여 보주甫州(지금의 예천)의 감옥에 투옥하였다. 정몽주 세력은 특히 정도전의 신분적 약점을 거론하며 공격하였다.[56] 그리하여 정도전은 다시 위기에 빠졌다. 평양부윤으로 좌천되었다가 봉화현으로 유배되었다.

이방원李芳遠은 이성계에게 사세事勢의 위급함을 알려 정몽주 제거라는 비상수단을 동원, 실천에 옮겼다. 정몽주는 이방원의 지시로 조영규 · 조영무趙英茂 · 고여高呂 · 이부李敷 등에 의해 선죽교에서 격살되고 그의 당류黨類마저 모두 유배되었다. 고려왕조를 지키려는 마지막 세력인 정몽주가 제거되면서 온건세력은 궤멸되었고, 정도전은 풀려나와 조준 · 남은南誾 등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 조선 건국의 주역이 되었다.

정도전은 평소 취중에 "한나라 고조가 장자방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한고조를 이용하였다."라고 말하였다 한다. 한고조를 이성계에 대비한 것인데, 실질적인 개국의 주역은 자신이라고 믿었다는 말이 된다. 사실상 이성계의 개국과정에서 대부분의 일이 정도전의 모의에 따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수도 서울을 설계하다

1392년 7월에 조준 · 남은 등 50여 명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 조선 개창의 주역을 담당하였다. 조선이 개국된 후 정도전의 활약은 눈부셨다.

조선개국 공신으로 분의좌명개국공신奮義佐命開國功臣 1등에 녹훈되고, 문

56) 정도전의 부친 정운경은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어 이모가에서 자랐다.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여 관리로서 출세의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정운경의 부인 우씨는 우연禹延(禹淵)의 딸이었다. 그런데 정도전의 외조모 즉 우연의 부인 되는 김씨는 우현보 집안의 인족姻族 김진이 자기 노비의 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딸이었다는 것이다. 이 점은 그의 생애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힌트가 될수 있다. 또 정도전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단양 우씨 우현보의 아들들이 당시 그의 관직진출에 제동을 걸고 있었다고 생각했었다는 것이다.

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 · 동판도평의사사사 · 판호조사判戶曹事 · 겸판상서사사兼判尙瑞司事 · 보문각대학사寶文閣大學士 · 지경연예문춘추관사知經筵藝文春秋館事 · 겸의흥친군위절제사兼義興親軍衛節制使 등의 요직을 겸임해 정권과 병권을 한 몸에 안았다.

개경에서 한양으로 천도하는 과정을 비롯해 현재의 경복궁 및 도성 자리를 정하였고, 수도 건설 공사의 총책임자로 임무를 수행하였다. 태조3년(1394) 한양의 궁궐과 종묘의 위치 및 도성의 기지를 결정하고 경복궁을 비롯한 성문의 이름과 한성부의 5부 52방 이름도 지었다. 서울을 구성하던 각종 상징물에 의미를 부여하였는데, 대부분 유교의 덕목이나 가치가 담긴 표현이었다. 서울이 수도로서의 의미만이 아닌 유교적 이상을 담은 곳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었다.

그는 또한 『조선경국전』을 지어 태조에게 올렸다. 이 책은 조선의 통치 규범을 제시한 것으로 후일 조선의 최고 법전인『경국대전』이 나오게 되는 출발이었다. 이 책을 다시 보완하여 『경제문감』을 왕께 바쳤는데, 이 책에서 재상의 직책과 대간臺諫 위병衛兵 감사監司 수령守令의 직책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정도전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요소인 재상중심의 권력구조에 대한 의견이 피력되어 있다. 즉 요순시대처럼 임금과 신하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왕도정치를 전면적으로 표방한 것이었다. 또 1395년 정총鄭摠 등과 『고려국사高麗國史』37권을 찬진하였다.

표전表箋문제와 요동 진출

정도전은 이성계 즉위 다음 해부터 군사력 강화에 관심을 기울였다. 1393년(태조2년) 명에 사신갔다가 돌아온 직후 〈강무도講武圖〉를 제작해 올리고, 다시 병서인

〈사시수수도四時蒐狩圖〉를 찬진하였으며, 11월에는 군사 중 무략武略이 있는 자들을 뽑아 〈진도陳圖〉에 따라 훈련시킬 것을 건의하고 구정毬庭에 군사들을 모아 〈진도〉를 펴놓고 고각, 기휘, 좌작, 진퇴의 방법을 훈련시켰다.

1394년(태조 3년)에 이른바 '표전문表箋文사건'이 일어났다. 표전문이란 표문과 전문의 합칭으로, 조선이 중국의 황제와 황태자에게 보내는 공식 문서를 말한다. 당시 명나라에서는 조선에서 가지고 간 표문을 문제 삼고 그 작성자로 정도전을 지목하였다. 명에서는 당장 정도전의 소환을 요구하였다. 조선 조정에서 논의 결과 표문을 작성한 사람은 정총鄭摠이고, 전문을 작성한 사람은 김약항金若恒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들을 보냈다. 명에서는 이들을 억류하고 계속 정도전을 보낼 것을 요구하였다. 명은 조선의 요동 진출문제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정도전은 명나라에서 보면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들은 정도전을 '화禍의 근원'으로 지칭하여 표전문을 빌미로 책임자인 정도전을 불러 문책하려 하였던 것이다.

정도전은 명에 가지 않고 오히려 진법陣法 훈련을 강화하며 요동정벌을 위한 제반 준비를 진행하였다. 5군에게 〈진도〉를 강습할 것을 지시하고 절제사로서 훈련에 불참하거나 명령을 어긴자는 처벌하겠다는 교지를 내리게 하고 1396년에는 의흥삼군부에서 〈수수강무도〉에 의해 정기적으로 군사훈련 할 것을 왕에게 상소하였다. 왕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정도전이 병권을 장악하고 진도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심지어 왕에게 출병을 요구하자 조준 김사형 등은 이에 반대하였고, 남은은 정도전을 지지하여 조준과 사이가 벌어졌다. 1397년 정도전에게는 동북면 도선무순찰사都宣撫巡察使의 임무가 맡겨졌다. 정도전은 성을 수축하고 역참驛站을 신설하였다. 함길도의 주

군을 구획하고 성보를 수리하며 호구와 군관을 점검하도록 하였으니 이 역시 군사적 목적이 큰 것이었다. 1398년(태조7년) 봄에 한양으로 돌아온 정도전은 다시 왕이 친히 군권을 장악할 것을 건의하고 적극적인 군사 훈련을 추진하였다. 절제사와 군사들에게 〈진도陳圖〉 훈련을 계속 시키고 사졸들에게 매질을 가하면서 독려하였다. 심지어 경상도 전라도에 사람을 보내 진도 강습의 실태를 조사하게 하고, 왕이 헌사로 하여금 〈진도〉를 익히지 않는 여러 왕자와 남은, 이무 등을 문책하고 삼군절제사와 상대장군 군관 등 292인을 탄핵하게 하기도 했다. 진법陣法 훈련이 강화되자 왕자 · 종친, 기타 훈신 및 무장들이 가지고 있던 사병私兵에 대한 통수권이 해체될 단계에 이르러 훈신勳臣과 왕실세력 및 무장세력은 이에 반발하였는데, 그 중 이방원과 정도전의 대립은 가장 첨예하였다. 한편 이 모든 군사력 강화의 목적이 요동정벌에 목표를 둔 것이라고 해석되고 있지만, 어쩌면 건국초기의 정치적 안정과 태조의 왕권 강화과정에서 사병을 혁파하고 국왕에게로 군사력을 집중시키기 위한 명분으로 요동정벌이라는 명분을 이용한 측면이 있었을 것임을 짐작해 볼 수도 있다.

이방원李芳遠과의 대립

정도전은 개국 후 세자 책봉 문제에 관여하였다. 개국과정에서 큰 공을 세운 방원芳遠은 첫 번째 부인 신의왕후 한씨의 5번째 아들이다. 그런데 태조는 두 번째 부인인 신덕왕후 강씨康氏 소생의 8번째 아들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고 정도전이 세자 보도輔導의 책임을 지게 하였다. 이방원은 개국공신에도 책록되지 못하였다. 이방원의 불만은 컸다. 더구나 정도전의 군사 개혁 즉 사병 혁파 문제로

서로 갈등을 보이던 중 1398년(태조 7년) 정도전은 이방원이 이끄는 세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었다. 방원은 정도전 · 남은 · 심효생 등이 밀모해서 한씨 소생의 왕자들을 살육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트집을 잡아, 이것을 미연에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사병을 동원해 반대파를 제거하였다. 그는 이숙번李叔蕃 등의 사병을 동원하여 정도전과 남은 · 심효생 · 박위朴葳 · 유만수柳蔓殊 · 장지화張至和 · 이근李懃 등을 갑자기 습격하여 살해했다. 그리고 세자 방석을 폐위하여 귀양 보내는 도중에 살해하고, 방석의 동복형同腹兄 방번도 함께 죽였다. 이렇게 방원의 정적은 거의 제거되었고, 정치 정세도 크게 바뀌었다. 이것이 제1차 왕자의 난이다.

제1차 왕자의 난 발생 원인은 방원의 왕권욕이 표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이방원과 정도전이 가지고 있던 정치적 입장의 차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도전은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상적인 왕도정치를 표방하였는데 대해서 이방원은 강력한 왕권에 바탕을 둔 왕조국가를 지향했다고 볼 수 있다. 이 후 조선 왕조의 운영은 사림들이 집권하게 되면서 왕권과 신권의 조화를 꾀하는 이상을 구현하려 하였으나, 전체적으로 볼 때 왕권과 신권 두 세력의 대립 갈등의 역사가 조선 왕조를 이끌어 갔다 하겠다.

사상과 학문

조선 개국에 있어서 구질서의 청산과 신질서의 수립을 위해서는 새로운 통치이념이 요구되었다. 고려후기 이후 수용된 성리학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학문 이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되었다. 정도전은 성리학의 입장에서 배불론

을 강화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가의 통치이념이 불교로부터 유교로 전환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심기리편』(1394) ·『불씨잡변』(1398) 등의 저술을 통해 불교의 사회적 폐단과 철학이론을 비판하고 성리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정치국가의 사상적 기초를 다졌다.

정도전은 통치의 이념을 민본국가 건설에 두고 덕치 내지 예치에 바탕을 둔 인정을 펼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민본국가의 궁극적 목표는 위민정치에 있으므로 백성의 생업을 안정시키고 재산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보고, 여러 반대세력을 제압하고 토지개혁을 단행하여 백성들에게 토지를 제공했다.

그가 이상으로 생각한 정치제도는 재상을 최고 실권자로 하여 권력과 직분이 분화된 합리적 관료 지배 체제이며, 통치자가 민심을 잃었을 때에는 물리적 힘에 의해 교체될 수 있다는 역성혁명易姓革命을 긍정하였으며, 실제로 혁명이론에 입각하여 왕조교체를 수행하였다.

그는 사회적 안녕을 위해서는 덕치 외에도 때로는 형벌이나 법치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군주의 자의적 통치보다는 법제도를 통한 제도적 통치와 군주 대신 재상의 통치를 제시했다. 정도전은 이러한 제도적 통치를 구현하려 하였다.

신분에 있어서는 사 · 농 · 공 · 상의 직업분화를 긍정하고, 사를 지배층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사의 직업은 도덕가 · 철학자 · 기술학자 · 교육자 · 무인 등의 역할을 겸비해야 하고 사에서 능력위주로 관리가 충원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또한, 적서嫡庶나 양천良賤과 같이 혈통에 의한 신분차별을 주장하지 않은 것이 주목된다.

한편, 여말에 나라가 가난하고 민생이 피폐하였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농

업생산력의 증대와 토지균분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책으로서 민구수民口數에 따른 토지재분배와 공전제公田制 및 10분의 1세의 확립, 공工 · 상商 · 염鹽 · 광鑛 · 산장山場 · 수량水梁의 국가 경영을 실현시키고자 하였다.

정도전은 사상가로서 학문적 업적을 남기고 있지만, 그는 기본적으로 고려 말의 모순을 개혁하고 새로운 국가의 기초를 확립하는 데 일생을 바친 정치가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의 사상이나 저술은 순수 이론체계의 건설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현실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실천적 방안의 모색 과정에서 산출된 측면이 강하다. 그의 개혁운동이나 그에 수반된 왕조 건국사업은 단순한 정치적 실천운동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제도로서 정착시켜 사상 · 제도상으로 조선의 기초를 놓았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정도전의 사상과 학문, 경륜은 다수의 저서로 남겨져 있다. 앞에서 언급한 『조선경국전』, 『경제문감』, 『경제문감별집』 등을 지어 통치이념을 제도화하고 유교이념의 이상을 구현하려고 하였고, 『학자지남도學者指南圖』 · 『심문천답心問天答』(1375) · 『심기리편』(1394) · 『불씨잡변』(1398) 등의 철학서를 차례로 저술해 고려 귀족사회의 정신적 지주였던 불교의 사회적 폐단과 철학적 비합리성을 비판, 공격하고, 성리학만이 실학實學이요 정학正學임을 이론적으로 정립해 유교 입국의 사상적 기초를 다졌다.

이 밖에 병법에 관한 것으로 『팔진36변도보八陣三十六變圖譜』 · 『오행진출기도五行陣出奇圖』 · 『강무도講武圖』 · 『진법陣法』 등이 있고, 의서로는 『진맥도결胗脈

圖訣』, 역산서曆算書로서 『태을72국도太乙七十二局圖』와 『상명태을제산법詳明太乙諸算法』 등이 있다.

그는 또 많은 악사樂詞를 지어 〈문덕곡〉·〈몽금척〉·〈수보록〉·〈납씨곡納氏曲〉·〈정동방곡靖東方曲〉 등을 남겼으며, 회진현의 유배시절과 삼각산·부평·김포·영주 등지에서의 방랑시절에 쓴 수많은 시문들이 지금 『삼봉집』에 전해지고 있다.

『금남잡영錦南雜詠』과 『금남잡제錦南雜題』는 특히 유배시절의 시문을 모은 것으로 그의 시련기의 사상을 살펴보는 데 좋은 자료이다. 동시에, 당시의 부곡部曲의 실상을 이해하는 연구 자료로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삼봉집』은 1397년(태조 6)에 처음 간행되고, 1487년(성종 18)에 중간되었다. 그 후 1791년(정조 15) 누락된 것을 수습해 재간했으며, 이것이 오늘날 전해지고 있다.

의안대군義安大君 이화李和

의안대군 이화는 태조 이성계의 이복동생이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에 참여하여 공신으로 책봉되었다. 그의 사당이 남양주시 평내동 151번지에 있으며, 남양주시 향토유적 제4호로 지정되었다. 의안대군을 비롯하여 그의 아들인 좌명1등공신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과 손자 좌명2등공신 하령군河寧君 이양李穰이 불천지위不遷之位(큰 공훈이 있어 영원히 사당에 모시기를 나라에서 허락한 신위(神位))로 모

셔져 있다.

사당은 조선 태종의 명으로 건립되었으며, 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던 것을 숙종대에 다시 건립하였다. 또 6.25전쟁 때 건물이 많이 파괴되어 1956년과 1977년에 두 차례에 걸쳐 보수하였다.

이화李和(1348~1408)의 호는 이요정二樂亭, 시호는 양소襄昭이다. 이자춘의 아들이자 태조 이성계의 이복 동생이다. 어머니는 정안옹주定安翁主 김씨이고, 첫째 부인은 삼한국대부인 순흥 안씨로서 안기의 딸이고, 둘째 부인은 삼한국대부인 교하 노씨交河 盧氏로서 노은의 딸이다.

아들은 7남으로 이지숭李之崇 · 완천군完川君 이숙李淑 · 학천군鶴川君 이징李澄 · 영천군寧川君 이담李湛 · 이교李皎 · 이회李淮 · 이점李漸이고, 1녀는 고려 종실 왕씨에게 시집갔다가 다시 최주崔宙에게 시집갔다.

이화는 고려 공민왕 때인 1370년 무관으로 천거되었다. 1388년(우왕 14)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회군공신에 봉해졌다. 이성계의 5살 아래 이복동생으로서 이성계와 절친한 관계로 항상 그의 편에서 전장을 누비며 생사고락을 함께했기 때문에 이성계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다.

1392년(공양왕 4) 이방원이 정몽주를 격살하는 데 가담하였으며 그 해 이성계를 추대하는 데 참여하여 개국공신 1등에 서훈되고 의안백義安伯에 봉해졌다.

개국초에 그는 왕의 지친으로서 이성계를 도와 활동하였고, 태종의 측근으로서도 공을 세웠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에 정도전을 제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운 공으로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서훈되어 판문하부사 겸 영의흥삼군부사判門下府事兼領義興三軍府事 의안공義安公으로,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에 다시 공을 세워 좌명공신 2등에 서훈되었다.

그는 전후 4차에 걸쳐 공신에 피봉되고, 도합 570결(結)의 공신전을 받아 조선 초기 공신 중에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였다.

의정부찬성사를 거쳐 1407년 7월 영의정부사에 임명되고 의안대군으로 봉해졌다. 조선에서는 원칙적으로 왕의 지친이 관직 활동을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태종 이방원이 이성계의 직계가 아닌 왕족은 왕위 계승의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대신, 일반 문무관처럼 벼슬길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기 때문이다.

태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외척세력의 제거에 적극 호응하여 원경왕후의 민씨의 척족 민무구, 민무질 형제에 대하여 죄줄 것을 청하는 상소를 하여 민무구 형제가 처형되는 데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죽은 뒤에는 태조의 사당에 함께 모셔졌다. 시호는 양소襄昭이다.

:: 의안백 이화 개국공신녹권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卷(국보 제232호)[57]

1392년(태조 1) 8월 왕지王旨에 의하여 공신도감功臣都監이 의안백 이화李和에게 발행한 공신녹권이 현재 남아 있다. 1축으로서 전체 길이 604.9㎝, 세로 35.3㎝, 국보 제232호이다.

이 녹권에는 1등에 배극렴裵克廉 등 17명, 2등에 윤호尹虎 등 11명, 3등에 안경공安景恭 등 16명 총 44명이 책록되었는데, 이화는 1등공신 제6인에 기록되어 있다. 태조는 건국한 다음 달인 1392년 8월 2일에 공신도감을 설치하고 개국공신에 대한 위차를 1 · 2 · 3등으로 세분하였다.

57) 천혜봉 · 이정섭, 『의안백이화개국공신녹권조사보고서義安伯李和開國功臣錄券調査報告書』, 문화재관리국, 1985.
朴盛鍾 , 「李和 開國功臣錄券의 吏讀와 그 解讀」『古文書硏究』4, 한국고문서학회, 1993.

이 공신녹권은 조선 왕조에서는 처음으로 발급된 것으로 개국공신녹권으로는 최초로 발견된 유일한 실물이다. 이는 조선 태조의 건국 동기 및 개국 주역의 공적 실상을 연구하는 데에 귀중한 사료이다. 뿐만 아니라, 건국 초에 설치, 운영된 공신도감의 연구와 이두의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이화개국공신 녹권

정희계[58]

그의 사당은 안성 송산리 송정마을 내에 있다.[59] 유적과 인물에 대한 소개는 다음과 같다. 사당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 건물이다. 정희계의 본관은

58) 염태호 편저, 『良景公 鄭熙啓의 生涯와 行蹟』, 경주정씨양경공파종약원 편, 2004.

59) 무덤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자리한다.

경주이며, 호는 양성헌養性軒이다. 문하평리 월성군 휘月城君 暉의 아들이며, 부인은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질녀이다. 공민왕 때 총애를 받았으며, 대호군에 이르렀고, 우왕 때 최영의 막하에 들어가서 서북면도순문사를 거쳐 밀직사에 이르렀다. 이성계가 실권을 잡은 뒤 가까운 친척임을 고려하여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에 등용하였다. 그러나 1390년(공양왕 2년) 이성계를 해치려는 이른바 이초李初의 옥에 연루되어 안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392년 이성계의 도움으로 판개성부사에 이어 문하평리로서 응양위상호군을 겸임하였다. 1392년 이성계를 추대하는 데 참여하여 개국공신 1등으로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팔위상장군八衛上將軍에 올라 계림군鷄林君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양경良景이다.

다음은 태조실록에 실린 그의 졸기이다.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 계림군雞林君 정희계鄭熙啓가 졸卒하였다. 희계는 계림雞林(경주) 사람으로 문하 평리門下評理 정휘鄭暉의 아들이다. 처음 고려 조정에 벼슬하여, 공민왕이 그의 용모를 보고 근시近侍로 뽑아서, 여러 번 벼슬이 올라서 대호군大護軍에 이르렀고, 공민왕이 훙薨한 뒤에 최영崔瑩의 막하幕下에 소속되어 벼슬이 밀직 사密直使에 이르렀다. 최영이 패하자 임금이 인친姻親이라 하여 우대해서 문하 평리門下評理 겸 응양군 상호군鷹揚軍上護軍에 올랐다가, 개국 초기에 이르러 추대하는 데에 참예하여 좌명 개국 공신佐命開國功臣의 호를 주었다. 그러나 배우지 못하여 행신하는 것이 조심이 없어서 남에게 경멸을 받았다. 이에 이르러 등창이 나서 졸卒하니, 임금이 조회를 정지하고 유사有司에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고, 시호諡號를 주게 하매, 봉상시奉常寺에서 안황安荒으로 시호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고치라고 명령하여 양경良景이라 시호하였다. 아들은 정길상鄭吉祥이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의 위키백과의 '정희계' 항목 중에서 소개할 만한 대목을 차례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자의 내용이다. "…1390년(공양왕 2) 이성계를 해치려는 이른바 이초李初의 옥獄에 연루되어 안변에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풀려났다. 1392년 이성계의 도움으로 판개성부사에 이어 문하평리로서 응양위상호군鷹揚衛上護軍을 겸임하였다.…개국 당시 세 정씨鄭氏가 삼한三韓을 멸한다는 도참설이 널리 퍼졌는데, 사람들은 그들이 정도전鄭道傳 · 정총鄭摠 · 정희계를 가리킨다고 믿었다 한다. 시호는 양경良景이다."

다음은 후자 즉 위키백과의 내용이다. 구체적 역사 사실이 잘 정리되어 있다. "공민왕이 시해된 후 최영崔瑩의 막하로 예속되었고, 1383년(우왕 9) 밀직상의密直商議로 있을 때 전 정당문학상의政堂文學商議 남좌시南佐時 등과 함께 왜구와 싸웠으나 패했다. 이듬해 우왕禑王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판밀직사사判密直司事로 승진했고, 이후 서북면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로 나갔다.1388년(우왕 14) 정월 무진피화戊辰被禍로 임견미林堅味 · 염흥방廉興邦과 그 일당이 숙청될 때 역시 우왕의 친척이라는 이유로 화를 면했다. 6월 최영의 일파로 지목되어 음죽陰竹으로 유배되었으나[2], 8월 창왕昌王의 생일을 맞아 풀려났다. 이후 판자혜부사判慈惠府事로 복직되었으나, 1390년(공양왕 2) 김종연金宗衍의 옥사에 연루되어 다시 안변安邊으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국대비國大妃의 생일을 맞아 경외종편京外從便이 허락되었다. 이성계李成桂의 일파로서 1392년(공양왕 4) 4월 판개성부사判開城府事, 6월 문하평리門下評理 · 응양군상호군鷹揚軍上護軍를 차례로 거쳤으며[7], 7월 공양왕恭讓王의 폐위와 조선 개국에 동참했다.… 이듬해 좌도수군도절제사左道水軍都節制使 박자안朴子安과 우도수군도절제사右道水軍都節制使 김을귀金乙貴가 병선을 거느리고 왜구를 토벌하러 갈 때, 고만량만호高灣梁萬戶 신용무申用茂의 죽음

을 면하고 박자안과 함께 종군시킬 것을 청해 관철시켰다. 정희계의 사후 봉상시奉常寺에서 그의 시호를 안양安煬 · 안황安荒 · 안혹安惑 등으로 의논해 예조禮曹에 올렸는데, 다시 예조에서 이를 보고받은 문하부門下府가 문안文案을 만들어 태조太祖에게 결재를 청했다. 이에 태조는 정희계에게 악시를 올린 최견崔蠲 등 5명을 장형에 처한 후 유배보냈고, 예조의 관리인 전백영全伯英 · 이황李滉, 문하부의 관리인 맹사성孟思誠 · 조사수趙士秀는 파직했다.

이지란李之蘭[60)]

이지란의 사당은 현재 경기도 오산, 남양주, 포천에 자리하고 있다. 그중 대표는 오산사당으로 그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이지란에 대한 기본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이 사당은 조선 개국 공신인 이지란李之蘭(1331~1402)의 사당이다. 이지란은 본성은 퉁, 본명은 쿠룬투란티무르古倫豆蘭帖木兒로 부父는 여진의 금패천호金牌千戶 아라부카阿羅不花이다. 부인은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 姜氏의 조카딸인 혜안택주 윤씨惠安宅主 尹氏이다. 1392년 명나라를 도와 여진족을 정벌한 공으로 청해백에 봉해졌다.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묘소는 함경남도 북청군 신북청읍 안곡리에 있다. 시호는 양렬襄烈이다.

사당은 오산초등학교 바로 뒤편인데 가수동 주공아파트에서 출입이 가능하다. 본래 오산시 누읍동에 위치하였으나 6 · 25때 소실되었고, 후손들이 현재

60) 王永一, 『李之蘭에 대한 硏究』(고려대 대학원 박사논문), 2003.
왕영일[1964-]

의 위치에 다시 건축하여 제향을 올리고 있다. 사당 내부에는 총 5점의 치제문致祭文이 보관되어 있는데 정조 14년(1790), 정조 19년(1795), 순조 4년(1804), 순조 10년(1810), 순조 12년(1812)에 각각 지방관을 보내 치제한 제문이다.[61)]

이지란은 드라마를 통하여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그의 행적은 그의 신도비 '북청北靑 이지란신도비李之蘭神道碑(1774년 건립)'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 신도비를 전문를 실음으로써 그에 대한 소개를 대신하고자 한다.

홍무洪武 25년(태조 1, 1392년) 태조太祖가 즉위한 후 양렬襄烈 이공李公을 수충분의익찬경운공개국공신輸忠奮義翊贊景運開國功臣에 책봉하고 청해백靑海伯으로 삼고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문하시랑 찬성사판형조사門下侍郎贊成事判刑曹事로 자급資級을 더해 주었으나 공은 굳이 사양하고 북청北靑으로 돌아와 머물면서 한양漢陽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건문建文 2년(정종 2, 1400년)에 태종太宗이 특별히 우시중右侍中에 제배除拜하고 승지를 보내어 불렀으나 가지 않았다. 태종은 오히려 공이 세상을 뜰 때까지 공신록功臣祿을 하사하였다.

건무 4년(태종 2, 1402년) 여름 4월 계해일癸亥日에 북청에서 숨을 거두자 조정에서 조제弔祭를 내려주고 3일 동안 조회를 하지 않고 조의를 표했다. 영락永樂 8년(태종 10, 1410년)에 태조의 묘정廟庭에 배향配享할 것을 명하였다.

공의 휘諱는 지란之蘭이고 자字는 식형式馨이니 북청 사람이다. 혹자는 공의 초성初姓이 동씨佟氏로, 휘 두란豆蘭이 공민왕恭愍王 때에 고려高麗에 투항하여 이씨李氏 성姓을 하사받았다고 한다. 그 선조는 원元나라에 들어가 전공戰功을 세

---

61) 烏山市,『烏山市史 · 下』, 1998
世宗大學校博物館 · 烏山市,『烏山市의 歷史와 文化遺蹟』, 2005.

워 오천호五千戶에 봉해졌으니, 세상에서 이른바 부해浮海라는 사람으로 공에게는 증조부가 된다. 공의 황고皇考(돌아가신 부친의 별칭)인 휘 아원雅遠은 여진女眞에서 벼슬하였는데 관직이 정서대장군征西大將軍에 이르렀다. 아원공이 신분이 귀해진 뒤에 보조공신補祚功臣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에 증직되었다. 애초 여진에 있으면서 서쪽을 정벌할 때 큰 별이 우물 지붕에 드리웠다. 천기天氣를 관장하는 자가 이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계명성啓明星이니 그 아래에서 반드시 위인이 태어날 것이다."고 하였는데 공이 태어났다. 공이 장성하여서는 사람됨이 용감하고 말을 타고 활을 잘 쏘았다.

원元나라 지정至正(원나라 순제의 연호 1341~1367년) 연간에 태조가 고광성古匡城을 정벌하였다. 어느 날 의비懿妃 최씨崔氏의 꿈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는 말하기를, "개강价江에 활을 잘 쏘는 자 패왕覇王을 보필할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마침 공이 개강价江 가에서 활을 쏘아 사슴을 잡았는데 태조가 한번 보고는 크게 기이하게 여겨 형제의 의를 맺고 신덕왕비神德王妃 강씨康氏의 종녀從女와 혼인을 맺어 주었다. 출병할 때마다 반드시 공과 상의하고 공을 대동하였으므로 이때부터 비로소 공이 북청으로 왔다.

신우辛禑(고려 우왕(禑王)을 말함)가 서쪽으로 사냥을 나와 대령大寧에 이르렀을 때 무신武臣들에게 백금白金 2촌寸을 과녁으로 삼아 활을 쏘게 하였다. 태조가 화살을 쏘아 곧바로 과녁을 맞히니 우禑가 매우 기뻐하였다. 이에 공이 태조를 풍자하여 말하기를, "재주의 아름다움을 어찌하여 남에게 많이 보이십니까."하니 태조가 뉘우치고 더욱 공의 지혜에 탄복하였다.

몽고蒙古의 승상丞相 납합출納哈出이 수만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홍긍洪肯으로 쳐들어왔다. 공은 병사를 이끌고서 함관령咸關嶺을 넘어가 큰 전투를 벌이며

오래 끌다가 병사를 거두었는데 그 이튿날 몽고의 군사들과 합란대야哈蘭大野에서 격전을 벌이게 되었다. 이때 납합출納哈出이 긴 창을 든 별기別騎를 지휘하며 곧바로 태조와 양북陽北 앞으로 돌진해왔다. 납합출은 부하들에게 죽기를 각오하고 태조를 추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이 태조를 거의 따라잡으려 할 때 태조가 몸을 말의 배 아래로 넣어 말에서 떨어진 듯이 하며 위로 올려다보면서 겨드랑이에 활을 끼고 화살을 쏘았다. 이때 공이 태조를 호위하며 공격을 하니 납합출이 태조를 향해 화살을 비 오듯이 퍼부었다. 태조는 말안장 위에 서서 화살을 쏘기도 하고 가랑이 아래로도 화살을 쏘았으며, 공은 앞으로 돌진하여 태조를 적의 공격으로부터 막고 보위하니 납합출이 대적하지 못할 것을 알고서 마침내 군사를 이끌고서 도망갔다.

왜노倭奴가 밤에 강화江華를 습격하여 강화부사江華府使 김인귀金仁貴를 죽이고 또 곡식을 노략질하여 승천부昇天府로 들어가니 중외中外가 크게 놀랐다. 우왕禑王이 비빈妃嬪을 거느리고 달아나려 함에 호위병들이 궐문 밖을 에워쌌다. 공은 태조를 좇아서 해풍海豊에서부터 승천부로 속히 달려갔는데 날랜 장수가 백마산白馬山을 넘어서 공의 진영을 공격하려 하였다. 공이 이에 화살을 뽑아 쏘아 죽이니 왜노가 도망갔다. 얼마 안 있어 누선樓船 500척이 진포鎭浦에 들어와서는 군현郡縣을 도륙하고 불태웠으며, 또 호남湖南에 쳐들어가 운성둔雲城屯과 인월역引月驛을 함락시켰다.

태조가 공에게 유시諭示하기를, "호남의 천리 길이 죽은 자로 뒤덮였으니 그대가 힘을 다해 싸워 이 수치를 씻어 내라."하였다. 이에 공이 병사를 정비하여 말을 달려 정산鼎山에 이르렀다. 왜노의 장군이 긴 창을 든 기병을 이끌고 곧바로 태조의 뒤를 공격하려는데 공이 말에서 몸을 솟구쳐 빨리 달려가, 태조에게 뒤

를 보라고 크게 외쳤다. 태조가 미처 돌아보지 못한 사이 공이 이미 화살을 뽑아 그 장수를 맞추어 그 자리에서 죽였다.

아지발도阿只拔都는 나이가 겨우 15세였는데 여러 장수들 가운데 가장 용맹하여 왜노가 상장군上將軍으로 추대하였다. 태조는 공에게 아지발도를 죽이지 말고 생포하라고 명령하였다. 공은 말하기를, "죽이지 않고 생포하려면 반드시 사람을 다치게 될 것입니다."하였다. 곧 전투가 벌어졌는데 아지발도는 무거운 갑옷과 구리로 만든 복면으로 무장하고서 출전하였다. 태조가 공에게 이르기를, "나는 저 갑옷을 맞힐 테니 그대는 그 얼굴을 맞히라. 그러면 아지발도를 죽일 수 있다."하였다. 얼마 후 태조가 그 갑옷을 맞혀 말에서 떨어뜨리고 공이 이어서 맞히니 아지발도가 드디어 죽었다. 이에 왜노가 모두 크게 통곡하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갔다.

여진女眞의 장군 호발도胡拔都가 기병騎兵 4만 명을 거느리고 단주端州로 쳐들어왔는데 그때 공은 모부인상母夫人喪을 당해 상중喪中에 있었다. 태조가 사람을 보내 공에게 말하기를, "사직이 위태로우니 그대가 비록 상중에 있다고는 하나 나를 위해 기복起復(상중에 벼슬에 나가는 것)하여 발도拔都를 격파하는 것이 좋겠다."하였다. 공은 곡哭을 하고 절한 후에 마침내 좇아 나섰다. 태조는 공을 선봉先鋒으로 삼아 웅성雄城에서 전투를 벌여 크게 물리치니 발도가 도망하였다. 태조가 말하기를, "이李 아무개가 적과 맞서 가장 용감하였으니 참된 명장名將이다." 하였다. 단주端州가 평정되자 공은 갑옷을 벗고 집으로 가서 모친상을 마쳤다.

청송백靑松伯 심공沈公 덕부德符가 왜노倭奴를 중문령中門嶺에서 방어하다가 패하자 왜노가 결국 토아동兎兒洞에 주둔하게 되었다. 태조가 군사를 이끌고 합란부서哈蘭部署에 이르렀다. 여러 장수가 정병精兵을 선발하여 산중에 매복시키

고 공은 조영규趙英珪 등 100여 기병과 함께 말고삐를 어루만지며 천천히 행진하였다. 태조가 급히 전투를 시작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공은 곧 맨 먼저 나서서 군사를 이끌고 도망가는 척하였다. 왜노가 태조를 곧장 공격해 옴에 태조는 짐짓 매복한 곳으로 후퇴하는 척하다가 돌아서서 왜노를 활을 쏘아 죽였다. 공도 말을 달려 적을 격파하고 복병도 일어나서 공격하자 왜노가 쓰러지지 않는 자가 없어서 함관咸關부터 우두산牛頭山까지 30리 들판이 온통 적의 시체로 뒤덮였다.

이때에 공의 용맹함이 사방에 으뜸으로 알려졌다. 이에 몽고의 여러 부족도 모두 두려워서 굴복하고 왜노도 도망가서 50년간 감히 변방을 엿보지 않았다. 이에 태조를 보좌하는 신하로서 공의 명성이 가장 높았다.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이자 도병마사都兵馬使로 삭방朔方에 머물면서 여진女眞을 풍문으로 교화하여 귀화를 유도함에 여진이 모두 우리나라를 위해 부역을 하고 조세를 납부하기를 원하였고, 감히 다른 뜻을 품지 못하매 수백년간 행해져 온 머리카락을 풀어헤치는 풍습이 종식되고 관을 쓰고 띠를 매게 되었다. 이로써 장백산長白山에서 훈춘강訓春江에 이르는 천여 리里가 우리 판도版圖로 편입되었으니 모두가 공의 덕택이다.

신우辛禑가 사자使者를 파견해 요동遼東을 정벌할 뜻을 알려오며 태조를 도통사都統使에 임명하고 공을 원수元帥로 임명하였다. 평양平壤을 출발해 위화도威化島에 주둔하던 중 우禑가 김완金完을 파견해 새서璽書를 하사하고 명령을 좇아 병사를 진군시키도록 하였다. 태조는 반사班師(출정했던 군대를 철수시킴)할 것을 건의하고자 하였으니 우禑가 의심할까 두려워하여 논의가 결정되지 못하였다. 이때 공이 비분강개하여 태조에게 아뢰기를, "자제子弟를 이끌고서 부모父母를 공격하는 것은 패의悖義입니다. 천하에 죄인이 되기보다는 군대를 철수시켜 한 나

라의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낫습니다."하였다.

이에 태조는 마침내 회군回軍을 하니 천자가 조서詔書를 내려 대의大義를 기리고 나랏사람은 비로소 안정을 찾았다. 익양백益陽伯 정몽주鄭夢周 선생이 왕씨王氏의 사직社稷을 보고서 장차 내우內憂로 인해 망할 것이라고 걱정하며 김진양金震陽과 더불어 힘을 다해 왕씨 조정을 부지하고자 하였다. 태종이 술자리를 마련하자 익양백은 비감하게 단심가丹心歌를 읊조렸다. 여러 장수들이 공에게 익양백을 격살擊殺할 것을 권하자 공은 정색을 하고 말하기를, "익양백은 충신이다. 내 어찌 충신을 해쳐서 스스로 불의不義의 구렁텅이에 떨어지겠는가."하였다. 그 후에 고려의 조영규趙英珪 등이 익양백을 살해하였으나 공은 그 일에 간여하지 않았다.

태조가 개국하여 공신을 책봉하고 공에게 철권鐵券(공신녹권)을 하사하였다. 공은 병을 핑계 대고 문을 닫고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다. 이에 여러 공경公卿들이 그를 위해 탄식하고 애석해하자 태조가 밤에 경복궁景福宮에서 잔치를 베풀고 공신을 초대한 다음 술을 마시며 악사에게 문덕곡文德曲을 부르도록 명하였다. 태조가 공에게 넌지시 말하기를, "과인이 오늘날 여기 있게 된 것은 경들의 공 덕택이다."하자 공이 사양하여 말하기를, "대의大義를 드날리고 천명天命의 기초를 닦았으니 전하의 덕입니다. 신이 무슨 힘이 되었겠습니까."하였다.

태조가 일찍이 근신近臣을 보내어 공을 궁으로 불러들이고서 격의 없이 여러 신하와 여러 장수의 장단점에 대해 물었다. 이에 공이 말하기를, "정도전鄭道傳은 간사하여 반드시 편안히 죽지 못할 것입니다."하였는데 후에 정도전이 주살誅殺되었으니, 태조가 비로소 공에게 선견지명이 있음을 알았다. 태종이 왕위를 물려받고서, 공이 능히 정도전의 간사함을 알아차린 것을 알고서 추충병의

익대공신推忠秉義翊戴定社功臣 청해군青海君에 책봉하였다. 공이 세상을 뜨자 또 분충효절동덕좌명공신奮忠效節同德佐命功臣에 책봉하고 시호諡號를 양렬襄烈이라 하였다.

공은 용모가 단정하고 아름다워 마치 여인네와 같았는데 장수가 되어서는 위세가 사방을 진동시키고 큰 절개는 그 무엇으로도 빼앗을 수 없었다. 북청으로 돌아와 10년 만에 세상을 떴으니 향년이 72세였다. 그가 세상을 뜬 해 모년 모월에 부府의 동쪽 안대晏臺의 언덕에 장사 지냈다. 아내는 상산군부인象山郡夫人 곡산 강씨谷山康氏인데 예의판서禮儀判書 보대普戴의 따님이다. 아들 넷을 두었는데 화상和尙는 판형조사判刑曹事이고, 화영和英는 판형조사이고, 화미和美는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이고, 화수和秀는 예조참판禮曹叅判이다. 현손玄孫 정호挺豪는 수찬修撰으로서 김안로金安老에게 연루되어 좌천되었다가 죽었다. 7세손인 첨절제사僉節制使 희당希唐은 국경인鞠景仁을 추적하여 공격하다가 백탑白塔에서 전사하였고, 정사공신靖社功臣 충장공忠壯公 중로重老는 이괄李适을 토벌하다가 저탄猪灘에서 전사하였고, 희당希唐의 아들인 출신出身 삼립三立은 적을 막다가 학포鶴浦에서 목숨을 바쳤으니, 공이 남긴 유풍遺風이어서인가.

공은 삭방朔方에 있을 때부터 태조를 좇아 여러 장수의 우두머리가 되어 100여 차례 전투를 치르고 북쪽으로 몽고를 쫓아내고, 남으로는 왜노를 꺾고, 여진을 회유하여 천 리에 이르는 땅을 개척하였다. 또 바르고 어진 덕을 지녀서 천자에게 반역하지도 않았고 충신을 죽이지도 않았다. 으뜸가는 작위를 받고서 공신의 반열에 섰으나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나는 데 있어 그 뜻이 은미하여 공의 뜻을 아는 자가 없었다. 승지가 임금의 유지를 갖고 찾아왔을 때에 공은 승지가 올 것을 미리 알고서 스님을 초대하고 칼을 지니고서 기다렸다. 승지가 들어와

서 임금의 유서諭書를 반포하자 공은 관을 쓰고 허리띠를 묶은 조복朝服 차림으로 유서를 받고서 즉시 조복을 불태우고 그 길로 머리를 깎고 오직 수염만 남겨 두었으니, 오호라, 사람이 이름에서 과연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 그 머리를 깎지 않으면 이름에서 달아날 수 없었던 것인가. 백세 아래 후대에는 반드시 공의 뜻을 알아주는 자가 있을 것이다. 공의 먼 후손은 너무 많아 다 기록하지 못한다.

남은南誾

그의 무덤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화동에 있다. 제1차 왕자의 난 때 패하여 죽음을 당하였으며, 이곳에 묻힌 후 신원되어 그 일대를 사패지로 받았다. 또 용인에 세거한 의령남씨 문중에서 조선 개국공신 남은南誾의 유서(분재기)와 1415년(태종 15년)에 남재南在에게 내린 사령왕지辭令王旨 등을 보관하고 있다.

1354년(1354년(공민왕 3))에 태어나 1398년(태조 7)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의령宜寧이다. 할아버지는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남천로南天老이고, 아버지는 검교시중檢校侍中 남을번南乙蕃이며, 어머니는 참의 최강崔茳의 딸이다. 형이 영의정 남재南在이고, 아우는 우상절도사右廂節度使 남지南贄이다. 성격이 호방하여 사소한 일에는 구애되지 않았다고 한다.

1374년(공민왕 23) 성균시에 급제, 1380년(우왕 6) 사직단직社稷壇直이 되고, 고려 말 우왕 때 왜구가 여러 차례 강원도 삼척군에 와서 약탈을 자행하자, 삼척지군사三陟知郡事가 되어 자청하여 그곳에 가서 그들을 크게 격퇴한 뒤 사복시정에 올랐다. 그는 정도전鄭道傳 등과 함께 조정의 신진사류로서 이성계李成桂 일파

의 중심인물이 되어 구 세력과 대립하였다.

1388년(우왕 14) 요동遼東 정벌에 나섰는데, 이성계李成桂는 대군의 장수로서 진격하여 압록강 중류의 위화도威化島에 주둔하였다. 이때 그는 이성계를 따랐다. 그 뒤 1391년(공양왕 4)에 정몽주鄭夢周 등은 대간臺諫을 부추겨서 이성계를 보좌하는 인물들인 조준趙浚 · 정도전鄭道傳 등을 탄핵하였다. 그는 정몽주 등에 의해 조준趙浚 · 정도전鄭道傳 · 윤소종尹紹宗 · 조박趙璞 · 정도전 등과 함께 탄핵을 받고 관작을 삭탈당한 뒤 먼 곳으로 유배되었다. 이듬해 선죽교에서, 정몽주가 횡사함으로써 풀려나 다시 도성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같은 해 그는 조인옥 · 정도전 등과 이성계를 추대하여 즉위하도록 권유하였다. 그가 정도전 · 조준 · 조인옥 등 52인과 함께 이성계를 왕위에 추대, 조선의 개국에 공을 세움에 따라 개국 일등공신에 올라 판중추원사 의흥친군위 동지절제사判中樞院事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에 제수되었다.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고, 의령군宜寧君에 봉해졌으며, 전田 200결과 노비 25구를 하사받았다. 당시 개국공신이 모두 개국의 주역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그는 정도전 · 조인옥 · 조준 등과 일찍부터 개국을 모의하고 개혁운동을 추진한 핵심 인물 중 한 사람이다.

정도전은 1383년에 이성계와 만나 처음으로 혁명을 모의하였고, 그는 조인옥과 위화도회군 당시 이성계 추대를 선창하였다. 태조는 일찍이 "만약 남은 · 조인옥이 없었다면 어찌 대업을 이룰 수 있었겠는가."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다.

그는 요동정벌의 명을 받고 압록강 중류의 위화도威化島에 주둔하였다. 이때 그는 이성계를 따라 종군했으며, 조인옥趙仁沃 등과 모의한 뒤 이성계에게 요동 공격은 불가하다고 진언하였다. 이성계는 이에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 마침내 군대를 회군하였다. 이때부터 이성계를 돕는 자들과 이성계를 제거하려는 자

들로 나뉘어졌다.

그는 은밀히 이성계를 추대하려고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뒤에 조선 태종)에게 그 뜻을 알렸다. 이에 이방원은 "이것은 대사大事입니다. 입 밖으로 가볍게 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강력히 당부하였다. 1389년(공양왕 1) 응양군상호군 겸 군부판서鷹揚軍上護軍兼軍簿判書가 되고, 이듬해 밀직부사로 승진하였다.

1393년(태조 2) 경상도에 파견되어 왜구를 방비하고 군적軍籍을 새로이 작성했으며,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었다. 이듬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를 거쳐 삼사좌복야三司左僕射가 되어 새 도읍지인 한양의 종묘와 궁궐 터 등을 정했다.

1395년 부친상을 당하였으나, 형인 남재와 함께 기복起復되어 이듬해 참찬문하부사 겸 판상서사사參贊門下府事兼判尙瑞司事가 되었다. 이때 정조사正朝使의 표문表文이 명나라 태조의 비위를 거슬려 사신 정총鄭摠이 살해되고, 글의 초안자인 정도전을 명나라에 압송하라는 압력이 가해져 왔다. 이에 정도전과 은밀히 의논, 군량을 비축하고 진도陣圖를 작성하는 등 요동정벌을 다시 계획하기도 했다.

그 뒤 1398년(태조 7)에 태조를 도와 방석芳碩을 세자로 책봉하는 데 적극 간여, 정도전 등과 모의하여 여러 왕자들을 제거하려 하였지만, 그 사실이 누설되어 정도전 · 심효생沈孝生 및 아우 남지南贄와 함께 이방원에게 오히려 죽임을 당하였다. 1421년(세종 3) 개국에 큰 공을 세운 것이 참작되어 그 죄가 용서되고,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강무剛武이다.(그의 묘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에 소재하고 있다: 중복되므로 삭제 요망)

한편, 「남은유서분재기부남재왕지南誾遺書分財記附南在王旨」가 남아있는데, 남은의 유서와 남재의 왕지 등 2점이다. 총 11행으로 4~5자의 초서체로 기록되

었다. 이 왕지는 조선 전기 관제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62] 경기도 용인시의 의령남씨 문중에서 소장하고 있다. 또한,1841년(헌종 7년)에 건립된 그의 숙부 남을진南乙珍(1331~1393)의 신도비(南乙珍神道碑)가 경기도 양주군에 있다.

숙부 남을진은 부친 남을번南乙蕃과는 달리 역성혁명에 반대하여 고려에 절조를 지킨 충절파로 알려져 있다. 고려 공민왕 때 참지문하부사로 성격이 강직하고 학문을 좋아하여 정몽주 길재 등과 교유하였다고 한다. 이 신도비는 조인영趙寅永이 비문을 지었고, 송상래宋祥來가 글씨를 썼다. 탁본은 2018년 현재 양주문화원에 소장되어 있으며, 탁본된 연대는 1980년대로 추정된다.

장사길張思吉

장사길張思吉(？~1418)의 묘는 파주 금촌에 있다.(파주시 금촌읍 맥금리 661-1)

경상북도 안동安東을 본관으로 하는 안동 장씨의 시조는 장정필張貞弼이다. 그는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견훤甄萱을 정벌할 때 고창군古昌郡(지금의 안동)에서 김선평金宣平(新安東金氏의 시조) · 권행權幸(安東權氏의 시조)과 함께 전공을 세운 삼태사三太師 중의 한 사람이었다.

장사길張思吉 장사정張思靖의 아버지 장렬張烈(고려사에는 張侶)은 본래 안동에서 살았으나 북방으로 이주해 의주의 참리站吏가 되었으며, 사어射御에 능했다 한다. 그 뒤 만호가 되어 의주지방의 토호土豪로 자리잡았다. 장사길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만호에 올랐는데, 이들은 고려 정권으로부터 독립적인 세력을 형

62) 安承俊, 「南閭 遺書의 古文書學的 檢討」『 古文書硏究』 제9.10집, 한국고문서학회, 1996.

성하고 있었다. 이성계가 동북면을 장악하고 있을 때 이성계의 휘하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장사길은 무재가 뛰어나 동생 장사정張思靖과 함께 발탁되어 심복이 되었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에 가담하여 회군공신이 되었으며, 1390년(공양왕 2) 밀직부사를 거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가 되었다.

1392년(태조 1) 이성계 추대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로서 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를 겸해 이성계의 친병親兵을 통솔하였다. 화녕군和寧君에 봉작되었다.

이후에 황해도의 문화 · 영녕永寧에 침입한 왜구를 격퇴하는데 공을 세웠다.

1398년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 영가군永嘉君으로 봉해지고,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 판공조사判工曹事 · 의흥삼군부우군절제사義興三軍府右軍節制使를 지내고, 이어 화산군花山君으로 봉해졌다.

1400년(정종 2) 제2차 왕자의 난 때 사헌부로부터 동생 사정과 함께 반역을 모의했다는 탄핵을 받았으나 왕의 비호로 무사하였다. 태종4년 우군 도총제右軍都摠制를, 1409년 3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등을 지낸 뒤, 화산부원군花山府院君에 진봉되어 공직에서 물러났다. 용맹이 뛰어나고 병략兵略에 익숙했으며, 수염이 배까지 닿았다 한다. 시호는 희양僖襄이다.

장사길에 대한 태종의 총애와 비호가 대단했던 것은 장사길의 기첩妓妾 복덕의 딸이 태종의 후궁이 되었던, 또 장사길의 아들인 장주張住의 고신에 서명할 것을 왕이 강요하였던 점 등으로 알 수 있다.

남재南在

남재의 묘소와 신도비, 그리고 그를 배향하는 충경사忠景祠가 남양주에 소재한다.

그는 1351년(충정왕 3)에 태어나 1419년(세종 1) 졸하였다. 본관은 의령宜寧이고, 처음 이름은 남겸南謙이었으나, 뒤에 남재로 개명하였다. 자는 경지敬之이고, 호는 구정龜亭이다. 할아버지는 지영광군사知靈光郡事 남천로南天老이고, 아버지는 검교시중檢校侍中 남을번南乙蕃이며, 어머니는 최강崔茳의 딸이다. 같은 개국공신 남은南誾의 형이다. 남이 장군의 할아버지이기도 하다.시호는 충경忠景이다.

1371년(공민왕 20) 진사시에 제5등으로 합격하였다. 아우 남은과 함께 이성계李成桂의 세력에 가담해 고려 조정의 신진사류로서 구세력과 대립하였다. 1389년(공양왕 즉위년) 우사의右司議가 되었다. 1390년 판전교시사 겸 집의判典校寺事兼執義가 되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자 윤소종尹紹宗과 함께 비록 행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사직社稷의 대계大計를 의논하고 계책을 도왔다. 그 공으로 회군공신回軍功臣에 봉해지고, 곧 철원부사로 나갔다가 염문계정사廉問計定使로서 양광도楊廣道로 파견되어 민정을 살폈다.

1392년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공신 1등에 녹훈되고 전지田地 170결結과 노비 20구를 하사받았다. 같은 해 중추원학사로 대사헌을 겸하였고, 의성군義城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명나라에 주문사奏聞使로 파견되어 사이가 좋지 않던 조선과 명나라와의 관계를 개선해 명나라 태조로부터 3년에 한 차례씩 조공할 것을 허락받는 외교성과를 거두었다. 그 공로로 판중추원사判中樞院事가 되고, 다음해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가 되었다. 같은 해에 다시 진주사의 부사로 명나라에 다시 다녀왔다.

1395년 아버지의 상을 당하여 은거하다가, 동생 남은과 함께 기복起復되어 삼사좌복야三司左僕射에 임용되고, 노비변정도감奴婢辨正都監의 판사를 역임하였다. 이듬해 예문관춘추관태학사藝文館春秋館太學士로서 도병마사가 되어 도통처치사都統處置使 김사형金士衡을 따라 이키도壹岐島·대마도를 정벌하는 데 참여하였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 때 동생 남은이 정도전 등과 함께 방석의 세자책봉에 가담하였다가 이방원 세력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러자 그도 잠시 유배되었다가 무혐의로 풀려나와 정당문학政堂文學이 되어 하륜河崙과 함께 정안군(뒤에 정종)이 왕위에 오르는 데 큰 공을 세웠다.

태종이 즉위하자 세자의 서연관書筵官에 빈객賓客을 역임하였다. 1400년(정종 2) 세자사부, 1403년(태종 3) 경상도도관찰사가 되어 시무를 조정에 보고하니 그대로 시행되었고, 1404년 찬성사贊成事를 역임하였다. 1408년 대사헌이 되었다가, 1414년 우의정·의령부원군宜寧府院君에 제배除拜되고, 감춘추관사監春秋館事로서 과거를 관장해 권도權蹈·성개成槩 등을 시취試取하였다. 또 하륜河崙과 함께 『고려사高麗史』를 개수하였다. 같은 해 좌의정에 임명되었다가 1415년 좌의정에서 물러나 수문전대제학 겸 세자부修文殿大提學兼世子傅가 되었다.

이듬해 영의정에 임명되었다가 사면하였다. 1419년 12월 14일에 졸하자 조정에서는 조회朝會와 저자를 정지하고 부의를 내리고 세종이 직접 조문하였다.

성품이 활달하고 도량이 넓었으며, 마음가짐을 지극히 삼가면서도 바깥 형식에 거리낌이 없었다고 한다. 문장이 평정平正하고 아름다웠으며,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약천집藥泉集』 등에 의하면 산술에 능하였으므로 '남산南算'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한다. 조선 태조의 묘정廟庭에 추가 배향되었다.

저술로는 『구정선생유고龜停先生遺藁』가 있다. 그의 시문은 11대손 남학명南

鶴鳴이 1675년 여러 문헌과 문집 중에서 수집하기 시작하여, 세계世系 및 현달한 자손의 기사를 첨부하여 1편編으로 만들었다. 그 뒤 남반南磐이 삼대기문三代記聞을 수집하여 저자의 시詩 · 세계사실世系事實 및 자손 기사와 저자 손자의 사적事蹟을 붙여 1권을 만들었고, 이것을 1689년 남학명이 교정하고 11대손 남용익南龍翼에게서 발跋을 붙였다.

그 뒤 20대손 남일우南一祐가 후손가에서 구본舊本을 구해서 교정하고, 시문 약간과 연보 · 비장碑狀을 추가하여 1869년에 처음 간행하였다. 이 문집은 상 · 하 2권 합 1책으로 되어 있다. 상권의 시는 모두 10제題인데, 이 중 2제는 결시缺詩이다. 시 작품이 몇 편 안 되지만, 저자가 교유했던 인물들을 알 수 있는 자료이다. 문文은 2편으로, 이숭인李崇仁을 탄핵하는 소疏와, 1392년 대사헌 재임 시 올린 시무時務에 관한 소가 실려 있다. 이어 세계 · 연보, 그리고 가보家譜 · 『동국여지승람』 · 『추강냉화秋江冷話』 등에서 채록한 유사遺事가 실려 있다. 또 부록으로 공신축功臣軸을 비롯하여 사제문賜祭文 · 행장 · 비지碑誌 등이 실려 있다. 하권은 부록으로 여러 사람이 보낸 시, 차운한 시를 비롯하여, 저자의 이름이 들어 있는 건원릉健元陵의 비음기碑陰記, 저자가 세운 사祠와 누樓의 기문記文 등이 실려 있다.

그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282-7번지에 있는데,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14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 지역 도시개발에도 불구하고 근린공원 형태로 남아 있다. 그의 신도비神道碑는 후손인 남구만南九萬이 비문을 지었고, 남공철南公轍이 글씨를 썼으며, 좌참찬 남이익南履翼이 전을 했다. 문중에서는 1998년 신도비 옆에 새로운 신도비를 세웠는데 비문은 한글로 번역한 것이며, 21대손 남기심이 감수하였다.

정탁鄭擢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그의 묘역(경기도 기념물 제173호)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1363년(공민왕 12)에 태어나서 1423년(세종 5)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여괴汝魁 · 축은築隱이며, 호는 춘곡春谷이다. 고려 의종 때 중랑장을 지낸 시조 정극경의 9세손이며, 판사 책의 증손이다. 아버지는 정당문학 정공권鄭公權이며, 어머니는 좌리공신 청주한씨 대순의 딸이고, 부인은 삼중대광 전의이씨 사안思安의 딸이다. 서원군西原君 정총鄭摠의 동생이다

1382년(우왕 8)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고, 이후 고려시대에 걸쳐서 춘추관 수찬관 · 사헌규정司憲糾正 · 좌정언 · 호조좌랑 · 병조좌랑 · 광흥창사廣興倉使 등을 역임하였다. 조선 개국 후인 1392년(태조 1)에는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과 성균관사예成均館司藝를 거쳐 대장군大將軍이 되었고, 이성계李成桂의 추대를 제일 먼저 발의한 공로로 개국공신 1등에 책록되었다.

이듬해에는 문하부직문하門下府直門下를 거쳐, 1396년 성균관대사성成均館大司成을 역임하였다. 같은 해 1396년 중추원우승지中樞院右承旨로 있을 때 전년부터 조선과 명나라의 현안문제로 대두된 표전문제表箋問題(중국 황제와 황후, 황태자 등에 올리는 글인 표전의 글귀가 예의에 어긋난다고 트집을 잡아 벌어진 사건)의 찬표인撰表人으로 명나라에 압송되었고, 귀환한 뒤에 좌승지에 서용되었으며, 다음해 중추원부사에 승진하면서 청성군淸城君에 봉하여졌다.

1398년(정종 즉위년) 10월 방간芳幹의 난(제2차 왕자의 난이라고도 함) 평정에 대한 공로로 정사공신定社功臣 2등에 책록되었으며, 곧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었다. 1399년에는 예문관禮文館 · 춘추관春秋館의 태학사太學士가 되었으며, 정당문학을 역임한 뒤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를 거쳐, 삼사우사三司右使가 되었다. 한때 귀양을 갔으나 풀려나면서 풍해도도관찰출척사豐海道都觀察黜陟使로 나갔다.

그 뒤 1403년(태종 3)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으며, 1405년 살인죄로 직첩을 몰수당하고 영해로 유배되었다.

개성유후사유후開城留後司留後를 거쳐, 1408년 태조가 죽자 고부청시사告訃請諡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는 세자시강원의 자리가 비워져서 세자의 교육이 진행되지 않아 그는 한상경과 함께 서연書筵에 나아가 세자를 가르칠 것을 태종으로부터 직접 명을 받았다. 1410년에는 세자시강원世子侍講院의 좌빈객左賓客이 되어 세자를 지근에서 보필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지난 날 사헌부에서 살인죄를 들추어 세자 빈객의 직무가 맞지 않다는 탄핵을 받고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 뒤 탄핵을 받아 물러나 있는 개국공신들을 직사職司에 나오라는 왕의 명으로 1411년에는 다시 조정에 들어와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었다. 이해 하정사賀正使의 정사로 명나라에 갔으며, 이듬해 돌아와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가 되었다. 1414년에는 정인지鄭麟趾 등을 뽑은 친시親試에서 태종을 시권試券을 직접 읽으라는 친애를 받기도 하였다.

1415년 청성부원군清城府院君에 진봉되었는데, 전일에 '공신功臣은 일을 맡기지 않는다.'는 교지敎旨가 이로부터 고쳐졌다. 1418년 6월에는 세자 이제李禔를 폐하고 충녕대군忠寧大君(뒤에 세종)을 세우는 데 함께 참여하였다. 1419년 세종이 등극하자 무과武科의 회시會試를 관장하여 박호문朴好問 등 28명을 뽑았다.

1418년 8월 태종이 원단圓壇 보사제報祀祭를 행하였다. 정탁이 "신 등이 행하

는 원단제圓壇祭는 이것이 하늘에 제사지내는 것이니 그 예禮가 작지 않습니다. 단壇에는 난장欄檣과 문門이 없으며, 또 돼지가 살찌지 않으니 거의 하늘을 섬기는 뜻이 없습니다."고 아뢰니, 태종이 예조에 명하여 이를 수리하게 하였다. 같은 해 8월 23일 남재南在·유창劉敞 등과 함께 "부왕父王께서 병환이 있어서 세자께서 임시로 국사를 맡아 보시게 되었다 하고, 세자께서 출영出迎하시고, 부왕께서는 나가시지 않으심이 좋을까 하나이다."하였다.

1420년 5월 그에게 명하여 재계하고 환구단圜丘壇에 비를 비는 기우하게 하였다. 1421년 12월 우의정으로 도성수축도감도제조都城 修築都監 都提調가 되고, 제조提調 33명과 사使·부사副使·판관判官·녹사錄事를 합하여 1백 90명을 더 두었다. 같은 해 새 한양을 건설한 것에 대한 표문表文과 전문箋文을 가지고 진하사進賀使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이듬해 우의정에 올랐고, 이해 도성수축도감제都城修築都監提調를 맡았다. 1423년 8월 에는 우의정으로 예조판서 신상申商 등과 함께 벽제역碧蹄驛에서 중국 사신을 맞아 위로하였다.

사후에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으며, 시호는 익경翼景이다.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그의 묘소가 있는데, 경기도 기념물 제173호로 지정되어 있다.

그의 묘는 산의 경사면을 따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축대를 쌓았고 봉분 앞쪽은 돌을 쌓아 전체적으로 사다리꼴형이다. 이러한 봉분의 형태는 경기지역에서 고려~조선 초기에 나타나는 특이한 구조이다. 봉분 앞에는 묘비와 상석(제사지낼 때 음식을 차려 놓도록 무덤 앞에 마련해 놓은 돌), 문인석이 있다. 묘비는 재질이 대리석이며, 마모가 상당히 많이 되어 글씨의 판독이 어려운 상태다. 문인석은 봉분 앞의 양쪽에 1기씩 있는데 예관과 조복을 갖춘 모습이며, 높이가 180cm나 되어 제법 큰 편이다.

김인찬金仁贊[63]

그의 사당과 허묘가 화성에 자리하고 있다.

그의 선조들은 경기도 양평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무신으로, 양근 김씨楊根金氏 시조이다. 본관은 양근楊根이나 경주 김씨에서 분파되었다고 하고 김녕金寧 김씨에서 분적分籍되었다는 설도 있다. 자는 의지義之이며, 호는 의암毅菴이다. 경주김씨 족보에 의하면 그는 1336년(충숙왕 5)에 함경도 북청에서 출생하였다. 1392년(태조 1) 태조 이성계李成桂가 등극한 해에 졸하였다.

경주 김씨 파보에 의하면 그의 고조는 전라도관찰사 문제文齊이고, 증조는 고려 때 목사 일성鎰成이며, 할아버지는 도승지 화녕도상원수 천익天益이다. 아버지는 전서典書 존일存一이고, 어머니는 해주 오씨이다. 아버지가 1376년(우왕 2)에 북청천호北靑千戶이었던 점으로 보아 북청지방의 토호이었던 것으로 추정해 볼 수도 있다. 대표적인 후손들로는 아들 귀룡貴龍이 의금부사義禁府事를 지냈고, 그의 셋째 아들 김검룡金儉龍은 제주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세거지를 이루었다고 한다. 그 뒤 후손인 이견以堅이 좌리공신佐理功臣이 되어 익성군益城君에 봉해졌다.

『태조실록』에 의하면 1383년 이성계가 동북면에서 돌아오던 중 안변에 이르니, '비둘기 두 마리가 밭 한가운데의 뽕나무에 모여 앉아 있어서 태조가 이 두 마리를 쏘았는데 한 번에 비둘기 두 마리가 동시에 떨어졌다고 한다. 마침 이때 길 가에서 두 사람이 김을 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한충韓忠이란 인물이고, 한 사람은 김인찬金仁贊이었다. 두 인물은 동시에 이 광경을 목격하고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잘도 쏩니다. 도령都領의 활솜씨여!"라고 하였다.

63) 김성태 편저, 『익화군 김인찬 : 조선개국의 길을 닦은 영걸』, 백산자료원, 2015.

무재武才가 뛰어났으며, 1388년 이성계를 따라 위화도에서 회군한 뒤 1390년(공양왕 2) 밀직부사密直副使가 되고, 1392년에는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올랐다. 조선 개국 후 중추원사中樞院使 · 의흥친군위동지절제사義興親軍衛同知節制使로서 태조의 친병을 통솔하는 책임을 맡았으나 정도전 등의 모함으로 옥에 갇히고, 후계를 노리던 이방원의 오해로 결국 옥에서 급사하였다.

그의 졸기에는 '임금이 조회를 3일 동안 폐하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를 증직贈職하고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예장禮葬하게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어 태종의 총애 대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의 사후 개국공신 위차가 정해졌으며, 곧 이어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포상규정이 정해질 때 "중추원사中樞院使였던 그는 지금 그 몸은 죽었지마는 배극렴裵克廉 등이 전하를 추대할 때에 마음을 같이하여 추대하였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매우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일등 공신'의 칭호를 내리고 그 포상褒賞의 은전恩典을 한결같이 배극렴의 예와 같이 하소서."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개국공신 일등이 녹훈되었고, 정총鄭摠 · 오몽을吳蒙乙 등과 함께 각각 전지 1백 50결, 노비 15구가 내려졌다.

그의 졸기에는 "본관이 양근인데 무재武才가 있었다고 한다. 이성계를 잠저潛邸 때부터 좇아 시위侍衛의 공로가 있었으며, 조선이 개국될 때에 당하여 임금을 추대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는 조선 개국공신 1등으로 익화군益和君에 추봉되고, 문하시랑찬성사門下侍郎贊成事에 추증되었다. 시호는 충민忠愍이다."라고 기록되어있다.

한편, 그의 묘소는 실전失傳되었지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이천리에 제단 및 묘비를 설단設壇한 뒤 다시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에 묘소를 이장 복

원하고 묘제 봉향을 하며, 신도비를 건립, 익화사益和祠를 창건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의 후손들은 양평군 강상면의 대감마을이 그의 출생지로 추측하고 대감마을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바로 그의 관직명 때문이라는 설을 따르고 있다.

그리고 1812년(순조 12)에는 경북 의성군 안평면 하평리에 그의 유덕을 추모하기 위해 이곡서원尼谷書院을 창건하였고, 의성군 비안면으로 이건하였다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의 서원철폐령으로 인해 훼철되었다. 그 뒤 1923년 현 위치에 다시 설치하여 근성서원芹城書院으로 이름을 고쳤다.

이방의李芳毅

이방의는 사후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사곡리 백암동 해좌 언덕에 장사지냈고, 정종 사후 정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후일 묘소는 풍덕군 동면 백암리白巖里 해좌로 이장되었다. 부인 삼한국대부인 철원최씨의 묘는 경기도 파주군 천현면 삼방리(현, 파주시 법원읍)에 있다.

1360년(공민왕 9)에 태어나서 1404년(태종 4)에 졸하였다. 조선 전기의 왕자이다. 이름은 방의芳毅이고, 태조 이성계李成桂의 셋째아들이다. 어머니는 신의왕후 한씨神懿王后 韓氏이다. 이방과李芳果(뒤의 정종)의 아우이며, 이방원李芳遠(뒤의 태종)의 형이다. 부인은 지간성군사知杆城郡事 최인두의 딸로 삼한국대부인 철원최씨鐵原崔氏이다. 아들은 익평부원군益平府院君 이석근李石根이고, 딸은 총제摠制 김한金閑에게 시집을 갔다.

1392년 태조가 즉위하여 조선이 개창되자 이듬해 익안군益安君에 봉해지고,

그뒤 익안대군益安大君에 진봉되었다. 1398년(태조 7) 12월에 이방원 · 이방간李芳幹과 함께 개국공신 1등에 추록追錄되어 노비 30구와 200결의 공신전을 받았으며, 각閣을 만들어 얼굴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게 하였다.

이어 이보다 앞서 같은 해 8월에 정도전鄭道傳의 난이 일어났을 때 동생 이방원을 보좌하여 이해 9월에 개국공신 1등에 봉해지고 200결의 공신전을 이미 받았으며, 같은 달에 익안공益安公으로 중군절제사中軍節制使가 되었다.

이 때 이방간은 좌군절제사左軍節制使, 이방과는 우군절제사가 되어 정도전 일파가 장악했던 병권을 회수하여 세 왕자가 병권을 분장하였다. 1399년(정종 1)에 종친과 훈신勳臣으로 하여금 제도諸道의 군사를 나누어 관장하게 하였는데, 그는 특히 경기도와 충청도의 지방군을 관장하였다. 반면, 이방원은 강원도와 동북면을, 이방간은 풍해도와 서북면의 병권을 각각 관장하였다.

1400년 2월에 방간 · 박포朴苞의 모반사건이 일어났을 때 몸이 아파 집에 있다가 사건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동생인 이방간의 모반을 개탄하면서 절제사직을 사임하여 이방원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태종이 즉위하자 대군大軍이 되었으며, 1401년(태종 1) 중국제도인 공公 · 후侯 · 백伯의 봉호를 참람하게 쓸 수 없다하여 각각 부원대군府院大君 · 부원군府院君 · 군君으로 개봉改封됨에 따라 그도 익안공益安公에서 익안부원대군으로 개칭되었다.

그 뒤 두문불출하다가 1404년(태종 4) 45세를 일기로 세상을 마쳤다. 그의 졸기에 의하면 성품이 온후하고 화미華美한 것을 일삼지 아니하였고, 손님이 이르면 술자리를 베풀어 문득 취하여도 시사時事는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만년에 병으로 두문불출하였는데, 동생인 왕(태종)이 자주 그 집에 거둥하여 연회宴會를 베풀어 위로함이 심히 후하였다. 그가 졸하자 왕이 친림하여 전奠을 베풀고

배례拜禮를 행하였다. 또한 아버지 이성계도 상왕으로서 부의와 거마車馬를 보내어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

『숙종실록』에는 풍덕豊德에 그의 묘소가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더 자세히는 경기도 개풍군 흥교면 사곡리 백암동 해좌 언덕에 있었다고 전한다. 1421년(세종 3)에 태조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태조 이성계의 왕자 가운데에서 가장 야심이 적어서 아우 이방간과 이방원의 왕위계승 싸움에 중립을 지키고, 평소에 시사時事를 말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 정종의 묘정에 배향되고, 마한공馬韓公에 추봉되었다. 그가 쓴 '충효전가忠孝傳家'의 유훈은 지금도 후손들이 받들고 있다.

또한, 2018년 현재 충청남도 논산시 연산면 화악리의 원훈각元勳閣에 영정을 모시고 있는데, 충남문화재자료 329호로 지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경기도 여주에 있었는데, 1958년 종가가 이곳으로 이주하면서 종중에서 수장, 관리하고 있다. 초상화는 의자에 앉아 있는 전신의 모습인데, 비단 바탕에 채색을 하여 섬세한 화필로 그려놓았다. 머리에 사모를 쓰고 관복을 입고 있으며, 두 손은 소매 안으로 마주 잡아 보이지 않는다. 1734년(영조 10) 화공 장만득이 그렸다고 전하며, 1746년(영조 22)에 영조가 직접 초상화를 보고 글도 써주고, 그의 11대손 이정희李鼎熙를 소견한 다음 초사初仕의 관직을 제수하라고 하고, 또 관원을 보내어 치제하였다. 시호는 안양安襄이다.

조선개국 2등공신

윤호尹虎

개국공신 조선개국 2등공신이 되어 지금의 파평군坡平君에 봉해졌으며 본관도 파평이다. 생년은 미상이고 1393년(태조 2)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자는 중문仲文이다. 아버지는 윤해尹侅이다.

1373년(공민왕 22) 판사判事로 재직 시에 왕과 내기 바둑에 져서 고시古詩를 읊게 되었다. 그 시는 당나라 이신李紳의 「독이사전시讀李斯傳詩」이었는데, 그것은 "남몰래 속이는 것도 아니되는데, 밝은 데에서 속이면 마땅히 죄를 주어야 할 것이다. 한 사람의 손[手]을 가지고는 천하의 눈을 가리기 어렵다."라는 내용이었다. 공민왕은 시의 내용이 자기 자신을 풍자한 것이라 여겨 그를 멀리하고 뒤에는 양광도도순문사楊廣道都巡問使로 보냈다.

1375년(우왕 1) 이인임李仁任 탄핵사건에 연루되어 유배되고, 1381년 계림부윤鷄林府尹으로 왜구를 소탕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385년 문하평리門下評理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그 뒤 1388년 요동정벌 때는 이성계李成桂 휘하의 조전원수助戰元帥로 활약하였다.

1390년(공양왕 2) 위화도회군과 공양왕 옹립의 공으로 회군공신에 책록되

고, 1392년 문화찬성사門下贊成事가 되었는데, 왕이 그의 사제私第로 옮겼다. 이 해 조선이 건국되자 개국공신 2등에 추록되었는데, 공신도감功臣都監에서 포상 규정을 정하였는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판삼사사判三司事 윤호尹虎 등 11인은 공신들이 천명을 도와 나라를 세우는 즈음에 모의에 참예하여 전하를 추대했으니, 진실로 성상의 교서에 이른 바 그 공이 또한 크다는 것과 같습니다. 마땅히 '이등공신二等功臣'의 칭호를 내리고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기록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아버지 · 어머니 · 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하며,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을 주고, 전지 몇 결, 노비 몇 구, 구사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주고, 처음 입사함을 허락하고, 적장嫡長은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하고, 자손은 정안政案(관리의 임명과 파면 등을 기록하는 장부) 내에 개국 이등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비록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이 영구한 세대에까지 미치게 할 것입니다."

파평군坡平君에 봉하여지고 판삼사사判三司事에 올랐으며, 이듬해 성절사聖節使로 명나라에 가던 도중 금암역金巖驛에서 병사하였다. 그는 혁명革命할 초기에 협찬協贊 추대推戴한 공로가 있었는데, 왕의 명을 받아 명나라 서울에 조회하게 되매, 병이 있었는데도 사양하지 아니하고 병을 참고서 가는 도중에 졸하였다. 왕은 판중추원사 남은南誾에게 명하여 그의 빈소殯所에 치전致奠하게 하였다. 근검하고 출장입상出將入相(나가서는 장수의 역할을 하고 들어와서는 재상의 역할을 수행하는 문무를 겸함)의 공이 있었다. 문하우시중門下右侍中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정후靖厚이다.

박포朴苞

그의 허묘와 신도비가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에 있으며 본관이 죽산이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그의 가반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유모가 간난아이인 그의 아들 박종의朴宗義를 품고 용인 근삼리 내수곡으로 탈출하여 그곳에 세거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용인에 세거하게 되었다.

박포朴苞(? ~1400)는 고려말의 무신으로 호는 호곡壺谷, 본관은 죽산이다. 1392년 조선이 개국시기에 배극렴과 조준 정도전 등이 국새를 받들고 이성계의 저택에 갈 때 참여하여 개국공신의 반열에 올랐다. 그는 윤호, 이민도, 조영규, 조반 조온 등과 함께 개국공신 2등에 책봉되어 대장군大將軍이 되고, 이듬해 사헌중승司憲中丞을 거쳐 황주목사黃州牧使로 나갔다.

또 지중추원사 의흥삼군부 우군동지절제사로 올랐다.

1398년(태조 7) 제1차 왕자의 난때 방원芳遠의 조전절제사助戰節制使로 전공을 세워, 죽성군竹城君에 봉해지고 중추부 지사知事가 되었다.

그런데 이 후 논공행상에서 박포는 정사공신 2등으로 책봉되었는데 이무李茂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책봉된 것에 불만을 품고 이를 비방했다가 도리어 죽주竹州에 유배되었다.

정도전을 제거하고 정권을 쥔 이방원은 둘째형 방과를 정종으로 왕위에 앉히고 전권을 장악해 나갔다. 박포는 얼마뒤에 죽주에서 소환되었으나 이에 앙심을 품던 중, 태조의 4남 방간芳幹과 5남 방원 사이의 왕위 계승을 둘러싼 반목을 기화로 방간을 충동질하였다. 제1차 왕자의 난에 함께 참여하여 활약한 동복형 방간芳幹도 이방원에 못지 않은 정권욕을 갖고 있었다. 정종의 후사後嗣가 없

는 상황에서 왕권에 야심을 품은 이방간은 공신책정에 불만을 품은 박포와 접근하게 되었다.

박포는 방간을 부추겨 1400년 1월 골육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제2차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었다. 방간과 방원의 군대가 개경 시내에서 전투를 벌이며 대립하였다. 이 때 공신 중 박포와 장사길張思吉만이 방간을 따르고, 그 나머지는 모두 방원芳遠을 좇았다. 방간은 패하자 토산兎山으로 귀양을 가고, 박포는 방간을 꾀어 난을 일으킨 죄목으로 이산尼山에 유배된 뒤 참수되었다.

제1차 왕자의 난을 정도전의 난이라고도 하며 이에 대해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간의 난, 또는 박포의 난이라고도 한다. 이 난이 평정되자 정종定宗은 방원을 세제世弟로 삼았고, 같은 해 11월에 드디어 방원에게 양위讓位하였다.

제2차 왕자의 난은 왕위 계승을 둘러싼 왕자들 간의 싸움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세력관계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고, 사회적인 영향력도 거의 없었다. 결국 제2차 왕자의 난은 이방원의 왕위 계승을 촉진하고, 태종 때의 왕권 강화 기반을 조성한 일련의 제도개혁을 가능하게 한 촉진제가 되었다.

제2차 왕자의 난으로 그의 가반이 멸문지화를 당할 때 유모가 간난아이인 그의 아들 박종의朴宗義를 품고 용인 근삼리 내수곡으로 탈출하여 그곳에 세거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용인에 세거하게 되었다.

박포의 묘소는 어디인지 알 수 없게 되어 유허지였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근창리 산3번지에 허묘를 썼다.

홍길민洪吉旼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산24번지에 연천군 향토유적 제22호로 지정된 그의 묘소가 자리하며 본관은 남양이다.

그는 1353년(공민왕 2)에 태어나 1407년(태종 7)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으로 자는 경문敬文이다. 할아버지는 홍유洪瑜이고, 아버지는 검교중추원부사檢校中樞院副使 홍보현洪普賢이다.

문음으로 출사하여 전법정랑典法正郎에 이르고, 1376년(우왕 2) 식년문과에 동진사同進士로 급제하여 강릉도안렴사江陵道按廉使가 되어 지방의 호강豪强한 무리들을 억제함으로써 장령掌令이 되었다. 1390년(공양왕 2) 우사의대부右司議大夫가 되었으나, 정몽주鄭夢周가 우상에 임명되자 한미한 가문의 출신으로서 언관을 축출하고 전제田制를 문란케 한 장본인이라 하여 고신告身에 서경署經을 거부하다가 파직되었다.

1392년 이성계李成桂를 추대하여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좌부승지에 임명되고, 개국공신 2등에 책훈되어 추성협찬개국공신推誠協贊開國功臣의 훈호를 받았다. 사실 그는 처음에는 조선 건국에 반대해 당시 개풍의 두문동에 은거하던 72명의 충신들과 함께 절의를 지켰으나, 거듭된 이성계의 설득에 사신으로 중국에 들어가 조선 건국을 추인받고 돌아와 그 공으로 개국공신이 됐다고도 한다.

1394년 풍해도도관찰출척사가 되고, 이듬해 도관찰사都觀察使로서 서해도에 흉년이 들자 왕에게 금주禁酒하기를 청하여 시행하였고, 또한 왕으로 하여금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명하여 각 도에 공문을 보내서 술을 금하게 하도록 하였다. 1396년 우도관찰사로 나아가 있을 때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벼슬에 물

러났다. 1401년(태종 1) 한양으로의 환도할 것을 건의하였고, 언로를 개방할 것을 진언하였다.

두 번이나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 임명되고, 관계를 자헌대부資憲大夫로 올려 남양군南陽君으로 봉해졌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그는 대대로 귀현貴顯하고 거부鉅富여서 노비가 천 여 명이나 되었으나, 성품이 단정하고 밝아서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을 일삼지 않았다고 한다.

그의 묘는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판부리 고릉동 산24에 소재하고 있다. 묘는 사각형의 봉분으로 직경 400cm, 높이 180cm이며 밑부분에 네모난 호석護石을 둘렀다. 석물로는 묘비墓碑, 문인석文人石 3기, 상석床石 등이 있다. 묘의 왼쪽에 있는 1기의 문인석은 높이 178cm인데 마모가 심하며 오른쪽의 높이 174cm, 167cm의 문인석 2기 역시 파손이 심하다. 묘비는 묘 가운데 위치하며 앞면과 뒷면에 비문이 있고 옥개석은 왼쪽이 파손되어 오른쪽만 남아 있다. 연천군 향토유적 제222호이다.

한편, 그의 후손에게 지어준 정자인 함월당涵月堂은 경북 봉화군 법전면 소천리法田面 召川里 평촌平村마을에 소재하는 정자로서 비지정 문화재인데, 내부구조가 특이하다. 정자의 구조는 정면3칸, 측면2칸의 팔작지붕 건물로서, 정면에는 계자난간이 설치되어 있다.

조견趙狷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에는 조선 개국공신인 조견의 묘가 있다. 성남시

향토유적 제3호이다. 묘표, 문인석, 석등 등 석물이 잘 보존된 무덤으로 여말선초의 묘제 양식을 잘 보여준다. 한편 그를 배향하는 사우로는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 정절사旌節祠와 의정부시 민락동 송산사松山祠(경기도 기념물 제42호)가 있다.

조견은(1351~1425) 고려 충정왕 5년에 태어나 세종 7년까지 살았던 고려 말 조선 초의 문신이다. 본관은 평양. 초명은 조윤趙胤. 자는 종견從犬, 호는 송산松山. 아버지는 판도판서 조덕유趙德裕이다. 어머니는 오의吳懿의 딸이다. 이성계를 도와 조선 개국의 큰 역할을 한 영의정부사 조준趙浚의 동생이다.

어릴 때 출가하여 승려가 되어 여러 사찰의 주지를 역임하다가 30세가 넘어서 환속하여 승직僧職 경력으로 인하여 좌윤左尹에 서용되었으며, 고려 말에는 안렴사按廉使를 지냈다.

1392년(태조 1) 상장군으로 이성계李成桂 추대에 참여하여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평양군에 봉해졌다. 1394년에는 경상도도절제사, 1397년 지중추원사를 지내고, 1400년(정종 2) 삼사우복야三司右僕射를 거쳐 1402년(태종 2) 도총제都摠制 재직 중에 사은사의 명을 받았으나, 사행이 위험하다는 소문을 듣고 병을 칭하여 이를 사퇴하였다. 이에 사헌부의 탄핵을 받고 직첩을 몰수당한 뒤 축산도丑山島에 유배되었다가 곧 사면되었다.

1403년 좌군도총제가 되고 평성군平城君에 봉해졌으며, 1407년 충청도도절제사 겸 수군도절제사기 되었다. 1410년 봉안사奉安使가 되어 태조 진영眞影을 완산부完山府에 봉안하였고 1415년 신정을 하례하기위해 명에 사신으로 다녀왔다. 1419년(세종 1)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에 보임되고, 평성군으로 봉해지고 1421년 71세로 평성부원군에 올랐다.

이상의 내용이 조선왕조실록(태조실록~세종실록)에 기재된 조견의 관직활동의 이력이다.

세종실록의 그의 졸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성품은 다음과 같다. "조견은 타고난 성품이 굳세고 곧으나, 다른 특이한 기능이 없고, 그 형 준의 힘에 얹혀 훈맹勳盟에 참예함을 얻고, 네 임금을 내리 섬겨 지위가 1품에까지 이르렀다. 젊어서 중이 되어 여러 사원寺院의 주지를 역임하였다가, 나이 30이 지나서야 머리를 기르고 승직僧職으로 인하여 처음에 좌윤左尹에 임명되었다. 전일에 중이 되었던 것을 부끄럽게 여기어, 남들의 말이 조금이라도 거기에 미치면 곧 노하였다. 집의 살림이 부요하였고 죽을 때의 나이 75세이었다. 세 아들이 있으니, 조수산趙壽山 · 조석산趙石山 · 조철산趙鐵山이었다.

그런데 국조인물고[64]에는 위와는 다른 기록이 있어 흥미롭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公의 초휘初諱는 윤胤이다. 고려조의 거경巨卿 정숙공貞肅公 조인규의 증손으로 본관은 평양이다. 공은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효도하고 웃어른을 공경하며, 학문에 힘쓰고 예를 닦았다. 포은 정몽주공과 친하게 사귀었는데, 장성하여서는 정공鄭公의 추천으로 화관직華貫職을 역임하였고, 경악經幄에 출입하며 벼슬이 지신사知申事에 이르렀다.

고려 말에 정치가 쇠퇴하여 나랏일이 날로 어지러워 갈 때 형인 조준이 모반에 참여할 뜻이 있음을 알고는 일찍이 눈물을 머금고 말하기를, "우리 가문은 나라에서 대대로 지체 높은 처지가 아닙니까? 존망을 나라와 함께 할 뿐입니다. 아울러 달가達可(정몽주)는 나라의 주석柱石이니 일언 일사一言一事도 그와 다른 길

64) 국조인물고 권 36, 蔭仕

을 찾는다면, 이는 나랏일을 방해하고 나라의 멸망을 재촉하는 일입니다." 하였다. 그 말이 매우 격절激切하므로 조준은 동생의 뜻을 바꿀 수 없음을 알고는, 일부러 조견을 영남에 안렴사按廉使로 내보냈다. 그 뒤로 조견은 더 이상 내직에 있지 못하였다. 임기가 차서 돌아오기 전에 고려의 국운國運이 마침내 다하였으므로 공은 통곡하며 황황히 두류산頭流山으로 은거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태조 이성계가 그 절개를 가상히 여기고 재능을 아끼어서 호조전서에 명하여 불렀는데, 사직하고 받지 않으며 답하기를, "송산松山에서 고사리를 캐먹는 것이 소원이요, 성인聖人의 백성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였다. 이어 이름을 견狷으로, 자字를 종견從犬으로 고쳤는데, 이는 나라는 망하였는데 구차히 목숨만 살아있으니 개와 같고, 또한 개도 옛 주인을 연모하는 의리가 있음을 취한 것이었다 는 내용이다.

후에 두류산에서 청계산으로 옮겼는데, 이곳에서 때로 높이 올라 탄식도 하고 때론 계곡에서 시를 읊기도 하였다. 매번 가장 높은 석봉石峰에 올라 송경松京을 멀리 바라보며 통곡하였는데, 조견이 통곡할 때 검은 구름이 송악松岳에서 청계산까지 쭉 뻗치니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기면서, 다들 공의 충성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라 하며, 그 봉우리를 '망경대望京臺'라 불렀다 한다.

또 태조가 한양에 도읍을 정하고 조준과 함께 청계산에 행차하여 조견을 나오도록 권하였다. 이때 조준이 "몇 년 동안 서로 만나 보지 못했는데, 형제간의 그리운 정이 어찌 사무치지 않겠느냐?" 하니, 조견은 "나라가 깨지고 집안이 망하였으니, 부모도 없고 임금도 없는데, 형제를 어찌 알겠습니까?" 하였다. 조준이 말하기를, "그대의 이름이 이미 개국 공신의 명단에 들었는데, 어찌 '무군無君'이라 하는가?" 하니, 공이 답하기를, "그 공신 명단의 제 이름 밑에 서명이 있습니

까?" 하였다. 조준이 한참을 멍해 있다가 말하기를, "내 어찌 그대를 더럽히려고 했겠느냐? 우리 형제가 여섯이나 세상에 남아 서로 의지할 사람은 우리 두 사람 뿐인데, 차마 내 눈 앞에서 화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겠느냐? 그대가 '견狷'으로 이름을 바꾸었다기에 추훈追勳에다 그 이름을 써 넣었으니, 이로써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였다.

또 경계하기를, "내 자손들은 다시는 과거 공부를 하지 말고, 고려조를 대대로 섬긴 은혜에 보답하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묘비에 '고려 안렴사高麗按廉使'라 쓰고 '조선 개국 공신 평성 부원군平城府院君'이라 새기지 말라." 하였다 한다.

앞에서 본 1425년(세종 7) 5월 3일자 『세종실록』 평성부원군 조견의 졸기에는 "조견이 죽자 조회를 쉬고, 임금이 부조를 하였으며 관청에서 장사를 치러 주었다. 시호를 평간平簡이라 하니, 다스려서 잘못이 없는 것이 평平이요, 화평하고 온순하여 시비가 없는 것이 간簡이다."라고 하였다 하였으며, 『국조인물고』에서는, 세종이 부음을 듣고 몹시 슬퍼하며, 둔촌遁村 이집李集의 무덤 근처에 장사지내도록 명하였다. 둔촌 역시 고려조의 충신으로 세상에서 은거하여 절조를 지킨 이로 공과 그 진퇴進退가 대체로 비슷하였기 때문이었다 라고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조인물고의 기록과 왕조실록의 기록의 차이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는 더 연구를 해보아야 할 부분이다. 고려말 두문동 72인의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는 실제 조선왕조에 벼슬한 기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절의를 지킨 인물로 기록된 사람들이 여러명 있음을 볼수 있다.[65]이에 대한 실제 사실 확인과 왜 그런 기술이 나왔는지에 대한 심층적이 연구가 필요하다.

---

65) 국조인물고 권36 음사蔭仕

사후에 공조판서에 증직되었다. 시호는 평간平簡이고, 평양군平壤君과 평성부원군平城府院君에 봉해졌다.

한편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에도 조견의 사우祠宇가 있다. 공주시에 사우가 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전하지 않으나, 후손들에 의하면 1921년 충청남도 아산시 신창에서 공주시 우성면 보흥리로 후손들이 옮겨오면서 사우도 함께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3등공신

김균金稛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에 있는 개국공신 김균의 묘는 경기도기념물 제105호로 지정되어 있다. 묘역은 곡담으로 둘러져 있고 봉분은 앞부분에 장대석으로 호석護石을 쌓아 놓았다. 봉분 앞에는 상석과 향로석이 있고, 그 앞에 장명등長明燈이 있다. 상석과 장명등을 중심으로 좌우에는 문인석 2쌍, 석양石羊과 망주석이 1쌍씩 배치되어 있다. 석물 중 상석 · 향로석 · 장명등은 근래에 새로 설치한 것이다.

상석의 왼쪽에는 묘비가 있으며, 묘역 앞 약 80m 지점에는 1905년 건립한 신도비神道碑가 있다. 신도비의 비문은 송병선宋秉璿[66]이 찬撰하고 윤용구尹用求[67]가 글을 쓰고 김영한金寗漢이 전액篆額을 썼다. 이 신도비문에 의하면, 묘역이 실전失傳되었다가 이 묘역이 있던 고을 유수留守로 온 후손 김사목金思穆이 수소문

66) 송병선(1836~1905) 한말의 학자, 애국지사. 1905년 음력 12월 30일 일제가 국권을 강탈당한 데 대한 통분으로, 황제와 국민과 유생들에게 유서를 남겨 놓고 세 차례에 걸쳐 다량의 독약을 마시고 자결하였다. 議政에 추증되었다.

67) 윤용규(1853~1939) 문신 · 서화가. 본관은 해평海平. 자는 주빈周賓, 호는 석촌石村, 문과에 등제하여 벼슬이 예조 · 이조판서에 이르렀다.

하여 찾았다고 하며, 현재 묘역의 건립시기는 18세기 후반으로 추정된다.

비의 전면에는 '조선개국공신계림군김공균지묘朝鮮開國功臣鷄林君金公稛之墓' 라는 명문이 쓰여져 있다.

김균金稛(1341 ~ 1398)의 본관은 경주이고, 증조부는 예빈경禮賓卿 김수金粹, 조부는 예의판서禮儀判書 김기연金起淵이며, 아버지는 지문하부사知門下府使 김지윤金智允이다. 이른바 세족으로서의 위세를 가진 가문으로서 1360년 공민왕 때 성균시에 합격하였으나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다가 근시近侍에 소속되어 조준과 친구가 되었는데, 조준이 국정을 맡으매, 여러 번 옮겨 전법 판서에 이르렀다.

조선이 개국한 뒤 태조를 추대한 공으로 익대개국공신翊戴開國功臣 3등에 책록되어 계림군鷄林君에 봉해졌고, 벼슬은 중추원부사를 거쳐 좌찬성에 이르렀다.

가족들이 조선개국과정에 참여하여 아우 김은金檼, 당숙 김의金義 등이 개국원종공신이 되었다. 장인도 개국원종공신 밀직부사 권현權鉉으로 통혼에 있어서도 태조가 각별히 우대한 노은盧訔 · 문계종文繼宗 · 이정간李貞幹 등의 공신가에서 딸을 맞아들여 공신집단으로서의 탄탄한 기반을 다져 나갔다. 시호는 제숙齊肅이다. 아들은 김맹성金孟誠 · 김중성金仲誠 · 김계성金季誠이다. 맏아들 김맹성은 중추원 사中樞院使 로서 시호는 희경僖敬이다.

이직李稷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그의 묘소와 신도비와 함께 자리하고 있다.

이직李稷은 1362년(공민왕 11)에 태어나서 1431년(세종 13)에 졸하였다. 조

선 전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성주星州이고, 자는 우정虞庭이며, 호는 형재亨齋이다. 증조는 정당문학政堂文學 이조년李兆年이고, 할아버지는 검교시중檢校侍中 이포李褒이며, 아버지는 문하평리門下評理 이인민李仁敏이다. 흥안군 이제李濟의 사촌형이므로 이인임李仁任의 조카였으니, 고려 말 가장 막강한 권문세가 출신인 셈이다.

따라서 그는 학문을 등한시해도 출세에 지장이 없을 정도였지만, 성리학을 공부하여 1377년(우왕 3)에 불과 16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경순부주부慶順府注簿에 보직될 정도로 문재文才가 뛰어났다.그 뒤 사헌부지평 · 성균사예成均館司藝 · 전교부령典校副令 · 종부영宗簿令 · 밀직사우부대언密直司右副代言 등을 거쳐, 공양왕 때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을 역임하였다.

전 지신사知申事로서 1392년에 이성계李成桂 추대에 참여해 개국공신 3등이 되고, 성산군星山君에 봉해졌다. 이듬해 부모의 상을 당하여 사직했다가 중추원도승지中樞院都承旨로 기복起伏되었다. 이어 진왕부秦王府의 사람이 소 무역을 위해 의주에 도착하자 이들에게 회답할 자문을 지었다. 1393년 왕명으로 도승지로서 해도海島로 유배된 공양왕의 친족들을 육지로 옮겨 완산完山 · 상주尙州 · 영해寧海에 나누어 거처하게 하여 생업을 안정시키도록 하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해에 안렴사按廉使를 폐지하고 관찰출척사觀察黜陟使를 회복시켰는데, 중추원학사中樞院學士가 되었다. 중추원학사로 사은사謝恩使가 되어 그전대로 조빙朝聘하기를 청하는 표문表文을 가지고 명나라에 가다가 백탑白塔에 이르렀으나 중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돌아왔다. 정도전 · 하윤 등 10인과 함께 우리나라 역대 현인賢人들의 비록秘錄을 두루 상고하여 요점을 뽑아 바치라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어 영삼사사領三司事 권중화權仲和 등이 바친『비록촬요秘錄撮要』를 왕에게 하륜河崙과 함께 하여금 진강進講하였다. 음양감산정도감陰陽算定都監을 설치하였는데, 몇몇 서운 관원과 함께 지리와 도참圖讖에 관한 여러 책을 모아 참고하여 교정하는 역할을 하였다. 왕이 한양으로 천도하려 할 때 그는 다음과 같은 논의를 피력하였다. "도읍을 옮기고 나라를 세우는 곳에 대하여 지리책을 상고해 보니, 대개 말하기를, '만갈래의 물과 천봉千峰의 산이 한 곳으로 향한 큰 산과 큰 물이 있는 곳에 왕도와 궁궐을 정할 수 있는 땅이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산의 기맥이 모이고 조운이 통하는 곳을 말한 것입니다. 또 이르기를, '지방 천리로써 임금이 된 사람은 도읍을 4방 5백 리로 하고, 지방 5백 리로 임금이 된 자는 도읍을 4방 각 50리로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4방四方 도로의 거리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말한 것이고, 우리나라 비록에도 '삼각산 남쪽으로 하라.' 했고, '한강漢江에 임하라.' 했으며, 또, '무산毋山이라.' 했으니, 이곳을 들어서 말한 것입니다. 대저 터를 잡아서 도읍을 옮기는 것은 지극히 중요한 일로서 한두 사람의 소견으로 정할 것이 아니며, 반드시 천명에 순응하고 인심을 따른 뒤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전書典』에 말하기를, '거북점도 따르고 시초점도 따르며 공경公卿과 사대부도 따르고 서민도 따라야 한다.' 했으니,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읍을 새로 옮기고 안 옮김은 때와 운수가 있는 것이니, 신이 어찌 쉽게 의논하겠습니까? 전하께서 천도하려는 것은 천심天心에서 나오고 또 인심의 향하는 바를 살피시니, 곧 하늘에 순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무악毋岳의 명당은 신도 역시 좁다고 생각합니다."

신도궁궐조성도감新都宮闕造成都監을 설치하였는데, 중추원학사로서 판사判事에 임명되었고, 정도전 등과 함께 한양의 종묘 · 사직 · 궁궐 · 시장 등의 터

를 정하려 할 때 이를 살피는 데 참여하였다. 순군만호巡軍萬戶로서 정도전 · 존준 등을 비판한 변중량을 국문하였고, 밀직 제학으로 명황제의 선유宣諭에 사은謝恩하는 표문을 가지고 사은사 정사로 중국 남경에 갔다가 이듬해인 1395년에 돌아왔다.

1397년(태조 6) 대사헌을 역임하고, 이듬해는 훈구勳舊 · 기로耆老와 서운書雲 · 전의典醫 등 겸임兼任 할 사람을 제외한 검교檢校는 없앨 것을 주장하였다. 이어 첨서簽書 가 되어 내온內醞을 받들어 중국 사신의 행차를 위로하였고, 곧 이어 성산군星山君에 봉하여졌다. 1399년(정종 1) 서북면도순문사 겸 평양윤西北面都巡問使 兼平壤尹 성석린成石璘을 대신해서 역이하였으며, 곧 이어 지문하부사知門下府事가 되었다.

이듬 해 제2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李芳遠(뒤의 태종)을 도와 1401년(태종 1)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이 되고, 사은사로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가 되었다. 1402년 예문관대제학을 거쳐, 왕명으로 주자소鑄字所를 설치하고, 제조提調가 되어 동활자인 계미자癸未字를 만드는 데 참여하였으며, 판사평부사判司評府事가 되어 사직소를 올렸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듬해 천변재이天變災異로 하윤 · 성석린 등과 사직을 요청하여 직을 그만두었다. 1405년 육조의 관제가 정해지자 처음으로 이조판서가 되었고, 이조판서로서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이 세워지자 제조提調가 되었고, 광연루廣延樓가 지어졌을 때 감역제조監役提調가 되었다.

1407년 동북면도순문찰리사東北面都巡問察里使 · 영흥부윤永興府尹이 되고, 이어 찬성사로서 대사헌을 겸임하였다. 1408년 다시 이조판서로 판의용순금사사判義勇巡禁司事를 겸임하고, 이어 산릉사山陵使가 되어 산릉의 참초제斬草祭와 개

토제(開土祭)를 행하였다.

1410년 광주廣州의 일장성日長城을 수축修築할 가부可否를 살펴보았고, 태조부묘도감太祖祔廟都監을 설치할 때 제조提調가 되었다. 이어 천릉도감제조遷陵都監提調로서 덕릉德陵 · 안릉安陵 등을 함흥으로 옮겼다.

이듬해는 이조판서가 되고, 승문원제조를 역임하였으며, 개거도감開渠都監을 설치하여 제조가 되었다. 1412년 병으로 사직을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고,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이듬해는 다시 행랑의 역사役事를 다시 시작하였을 때 그는 지의정부사 이응李膺, 공조판서 박자청朴子靑 등과 함께 그 일을 영솔하였다. 즉, 경복궁의 남쪽부터 종묘 앞까지 좌우 행랑 모두 881간間, 종묘의 남로南路에 층루層樓 5간을 세웠고, 또 청운교靑雲橋의 서종루西鍾樓 2층 5간을 순금사巡禁司의 남쪽과 광통교廣通橋의 북쪽으로 옮겼으며, 또한 용산강龍山江에 군자고軍資庫와 서강西江에 풍저창豐儲倉을 새로 지었는데, 역정役丁이 2,141명, 승군僧軍이 500명이었다. 이때 전 판사判事 이간李暕 등 22인이 그 역사를 감독하였다.

이어 동북면도체찰사東北面都體察使로 나아가 축성築城 공사를 맡았으나 겨울 추위로 파하라는 왕의 명으로 그만두었다.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로 도제조都提調가 되었고, 1414년 판의정부사가 되었으며, 곧 이어 우의정에 승진되어 진하사進賀使로서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황희黃喜와 함께 충녕대군忠寧大君(뒤의 세종)의 세자책봉을 반대하다 성주에 안치되었다. 그러나 1422년(세종 4) 풀려 나와 직첩과 공신녹권을 되돌려 받은 뒤 과전科田도 되돌려 받게 되었다. 1424년 드디어 영의정에 올랐으며, 같은 해 하등극사賀登極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왔다.

1426년 좌의정으로 전직했다가 이듬해 사직하였으나 서원부원군으로 왕의 부름에는 항상 차여하였다. 이해 상정소詳定所 제조提調로서 『육전六典』 5권과 『등록謄錄』 1권을 편찬하였다. 그 뒤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왕의 부름에 자문을 그치지 않았으며, 1431년에 졸하였다.

조선 건국 초기에는 명나라에 4차례나 왕래하면서 외교적인 수완을 발휘하였고, 각종 제도를 마련하거나 한성 도성都城 건축과 개보수, 동북 성곽 구축 등과 같은 토목공사에서도 재능을 발휘한 능력 있는 관료였다. 또한 하륜河崙과는 사촌 동서지간이며, 그의 장녀는 과부가 된 뒤 태종에게 출가하였고, 차녀는 태종비 원경왕후元敬王后 동생 민무휼閔無恤에게 출가하였다.

민무회 · 민무휼 형제의 옥으로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내려갔고, 양녕대군 폐위에 반대하다가 8년간 유배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당시 태종이 왕권강화를 위해 민씨 형제들을 비롯하여 외척이나 훈구척신, 권신들의 힘을 약화시키려할 때 벌어진 일이다. 태종이 충녕대군(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왕으로 물러앉은 1422년에 과부가 된 그의 장녀를 후궁으로 삼고 그를 불러들여 직첩과 공신녹권을 돌려주었는데, 이는 태종이 왕권강화 및 정권안정책의 일환으로 벌인 일련의 사건들임을 추측할 수 있다.

태종이 그를 다시 복권시킨 것은 그를 회유시켜 아들 세종 대에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배려한 측면도 있다. 즉 자신이 벌인 일들은 자신이 마무리 지어야 아들 세종이 성군이 되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았던 것이다. 당시 그가 유배에서 풀려난 것은 딸 덕분이라고 하여 그의 죄를 다시 청하는 상소가 줄을 이었으나, 태종은 오히려 그를 두둔하였으며, 세종은 1424년에 영의정領議政에 제수하는 등 그를 중용하였다.

고려가 망하자 고려 유신들은 절의를 지키며 초야에 묻혀 망국의 한과 새 왕조에 가담한 자들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던졌다. 이에 새 왕조에 가담한 이들은 자기 합리화와 정당성을 작품으로 나타내었다. 다음의 그의 대표작 「오로시烏鷺詩」는 그러한 당시의 심정을 읊은 것이라고 전해진다.

"까마귀 검다 하여 백로야 웃지 마라
겉이 검다고 속까지 검을소냐
겉 희고 속 검은 이는 너뿐인가 하노라"

그는 고려 유신의 한 사람으로 새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벼슬을 하였다. 두 왕조를 섬긴 자신을 '까마귀'에 비유한 것은 "충신은 불사이군不事二君(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이라는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처신이 바른 것만은 아님을 고백하고자 하였고, 속마저 검은 것은 아니라고 함으로써 자신의 양심은 부끄럽지 않음도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성주의 안봉서원安峰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형재시집亨齋詩集』이 남아 전한다. 이 시집은 1618년(광해군 10) 7대손 이흥인李興仁이 간행하고, 뒤에 후손 이응협李應協이 중간하였다. 조선 초기 유학자의 문학관과 의식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연세대학교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시호는 문경文景이다. 그의 묘소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선유동에 신도비와 함께 자리하고 있으며, 묘소 앞에는 「오로시」 시비詩碑가 있다.

오사충吳思忠

조선 개국 공신 중에서 경기좌도 관찰사로 나가서 맡은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한 인물이 있다. 그는 바로 영성군 오사충吳思忠이다.

오사충의 선대先代는 원래 연일현延日縣에 살았는데, 뒤에 영원진寧遠鎭으로 이사하였다. 본관은 화순和順이다. 초명은 오사정吳思正이며, 호는 수암守菴이다. 아버지 오순吳洵은 장원 급제하여 간의 대부諫議大夫로 벼슬을 끝마쳤다.

오사충(1327년~ 1406년)은 1355년(공민왕 4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감찰 규정, 헌납, 사헌부 집의司憲府執義를 거치면서 간관諫官으로 활동하였다.

이성계의 위화도회군이후 신진세력이 구시대 적폐를 개혁하려는 상소를 적극적으로 올렸다. 오사충은 고려말 사전개혁을 비롯한 다방면의 구악舊惡을 논핵하는 데에 앞장섰다. 그는 이색李穡과 동년배[68]의 인물이지만, 공민왕대부터 우왕대까지의 약 30년에 걸친 기간의 활동에 대해서는 헌납, 집의를 거쳤다는 것 외에는 전혀 알려진 것이 없다. 『고려사』의 그의 열전에는 1389년(창왕원년) 좌사의 대부左司議大夫로서 사전私田의 폐단을 논하는 상소를 비롯하여 3건의 상소문만 수록되어 있다. 즉 그의 활동은 위화도회군 이후의 행적만이 들어나는데, 그는 우왕시대 이인임의 정권 농단을 탄핵하여 그를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그의 집을 연못으로 만들고 가산을 몰수하도록 하였다. 사인舍人 조박趙璞 등과 함께 상소하여 우왕과 창왕을 폐하여 서인으로 만들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색 ·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한 것을 탄핵하였다. 그의 〈졸기〉에는 오사충의 탄핵 상소는 내용이 과감하고 철저하여 간쟁을 맡은 신하로서의 면모가 있었고, 법을 지키고

68) 이색은 1328년생, 오사충은 1327년생임

흔들리지 아니하였는데 늙을수록 더욱 건강하였다고 기록했다.

이와 같은 과격한 상소로 인하여 한때 관직을 삭탈당하였으나, 다시 복직되어 대사성을 거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다. 1392년(태조 1) 정몽주가 이성계 일파를 몰아내려 할 때 함께 삭직되어 유배되었으나, 정몽주가 살해되자 풀려나와 좌상시左常侍가 되었다.

조선 건국후에 호조전서를 제수하고, 익대 개국 공신翊戴開國功臣의 호號를 받았다. 1394년에 중추원 부사中樞院副使에 오르고, 교주交州 강릉도 관찰사, 1396년에 정당문학으로 올랐다가 경기좌도 관찰사로 나갔다.

그의 공정한 처사는 지방관으로 나가서도 변치 않았다. 교주 강릉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 정도전이 천거한 지춘주사 신방우가 세력을 믿고 마음대로 자리를 떠나므로 오사충이 이를 조사하여 나무라니, 정도전이 그렇게 하지 말도록 부탁하였다. 오사충은 도리어 정도전이 사사로이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에 대해 공격하면서 죄인을 다스렸다.

또 남은이 일찍이 삼척만호로서 불공정하게 벼슬을 준 자가 많았는데, 이를 조사하자 역시 남은이 이를 중지하도록 부탁하였으나 들어주지 않았다. 경기좌도 관찰사로 나갔을 때는 임기가 다되어 교체될 때쯤 거실巨室의 가노가 양가집 처녀를 강간한 사건이 일어났다. 그 주인이 사건을 늦춰 달라고 부탁했으나, 오사충은 내가 이일을 처리하지 않으면, 뒤에 오는 사람이 반드시 이를 석방할 것이라 하고 빨리 법대로 처리하였다.

1404년에 판사평부사判司平府事로서 영성부원군寧城府院君에 봉封해졌다. 80세에 졸卒하였다. 왕은 철조輟朝하고 예장禮葬하여 장사를 치르게 하였다. 시호諡號는 공희恭僖이다.

오사충 사후에 "입각도형 입비기공立閣圖形 立碑紀功"하라는 태조의 명에 따라 부조묘不祧廟의 전사판은 세종 때 경기도 양주에 세워졌다. 이후 전란을 여러 차례 거치면서 소실되어 화순오씨 종중에서는 화순오씨의 부조묘를 모충사慕忠祠라 하여 2001년 10월 전라북도 고창군 대산면 매산리 581-8에 새로 건축하였다.

조영무趙英茂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광동리 광복동에는 개국공신 조영무의 묘소와 신도비 재실등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 양주군 백석면 연곡리 산25-1번지에 그의 별묘가 있다. 별묘의 묘비명은 영조 때의 노론 문신 효정공 이민보李敏輔[69]가 지었다. 신도비는 15대손인 선공감가감역 조용환趙鏞煥이 지었고, 글씨는 이조판서인 석촌 윤용구尹用求가 썼다. 별묘 옆에는 1990년 후손들이 뜻을 모아 제단을 쌓고 세운 시조 조지수의 시조단비始祖壇碑가 있다. 시조인 조지수와 바로 위 선대의 비석까지 함께 있으며 1986년 양주시 향토유적 제12호로 지정되었다.

조영무(?~1414년)의 가계家系는 중국에서 귀화한 조지수趙之壽로부터 시작한다. 함경도 영흥에서 살다가 이성계의 막하에 들어가게 되었다. 할아버지는 조순후趙珣厚이고, 아버지는 조세진趙世珍이다. 개국공신 1등 조인옥趙仁沃과 개국공신 2등 조온趙溫이 모두 일족이다. 그들의 출세에 힘입어 한양을 본관으로

69) 이민보(1720년~ 1799년):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백눌伯訥, 호는 풍서豐墅 또는 상와常窩. 부제학 이단상李端相의 증손이며, 할아버지는 이조참판 이희조李喜朝이다. 시호는 효정孝貞이며. 공조판서, 형조판서, 판돈녕부사를 지냈다. 저서로 풍서집, 충역변忠逆辨이 있다.

하게 되었다. 세종때 조영무의 아들 조서趙敍가 죽자 그의 졸기에 한양사람이라 기록하였다.

조영무의 자는 건야乾也, 호는 퇴촌, 휴암이다. 1392년(공양왕 4) 이방원李芳遠의 명으로 조영규趙英珪 · 고여高呂 · 이부李敷 등과 함께 정몽주鄭夢周를 격살하는데에 참여하였다.

그 해 이성계를 추대, 조선 개국에 공을 세우고 판전중시사判殿中寺事에 올라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으며, 한산백漢山伯에 봉했졌다.

1394년(태조 3) 상의중추원사商議中樞院事로서 강계등처도병마사江界等處都兵馬使를 겸임하고, 1397년 충청도도절제사가 되었다. 당시 정도전 등은 사병혁파를 주장했는데 조영무는 사병혁파 주장에 크게 반발하였다. 이듬해 제1차 왕자의 난 때, 이방원을 도와 정사공신定社功臣 1등에 봉해졌다. 그해 9월 이방원을 도왔으나 논공행상에 불만을 품은 박포朴苞 등의 불평불만 발언을 판중추判中樞 김로金輅로부터 전달받고 이방원에게 알려, 정탁鄭擢을 청주淸州에 귀양보내고, 박포를 죽주竹州에 귀양보내게 했다. 1400년(정종 2) 도독중외제군사도진무都督中外諸軍事都鎭撫로 병권을 장악, 제2차 왕자의 난에도 이방원을 도와 좌명공신佐命功臣 1등에 봉해졌다.

태조 이성계는 제1차 왕자의 난 이후 크게 상심하여 함흥지역으로 가서 지내면서 태종의 행동에 불만스런 입장을 표명하였다. 태조의 계비 신덕왕후 강씨神德王后康氏의 친척인 조사의趙思義는 1393년(태조 2)에 형조의랑이 되고, 그 뒤 순군巡軍을 거쳐 1398년 첨절제사를 거쳐 안변부사가 된 인물이다. 제1차 왕자의 난에 불만을 품고 있던 그는 신덕왕후와 왕세자 방석芳碩의 원수를 갚고, 태조에게 충성을 바친다는 구실로 태종에게 반기를 들었다. 1402년(태종 2)에 11월에

일어난 조사의趙思義의 난은 다분히 태조 이성계의 불편한 심기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이 때 조영무는 이방원의 편에서 동북면도통사로서 조사의의 난을 진압하는데 진두지휘하고 있었다. 이성계는 그가 아끼던 조영무의 행동을 배은망덕으로 보고 크게 개탄했다. 조사의의 난은 어찌보면 조영무 · 이무李茂 등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고도 보기도 한다.

조영무는 이후 이방원의 특별한 총애를 받아 판중추원사 · 의흥삼군부중군동지절제사義興三軍府中軍同知節制使를 거쳐 참찬문하부사에 승진하였다. 그 뒤 판삼군부사判三軍府事 · 권행의정부사權行議政府事 · 판승추부사判承樞府事를 거쳐 영승추부사領承樞府事로 병조전서를 겸임하였다. 1404년(태종4년)에는 판승추부사로서 좌차를 정1품인 영승추부사와 같게 정하였다.

1405년 우정승에 올랐으며, 이듬해 판이병조사判吏兵曹事를 겸직한 뒤 1408년 부원군에 진봉되었다. 조선초기에 무신으로서 정승에 오른 것은 매우 드문 일이다. 1409년 훈련관도제조訓鍊觀都提調를 지내고, 영삼군부사領三軍府事가 되었다.

조영무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태종은 직접 그 집에 거둥하여 문병하려 하였고, 그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도하면서 5일 동안 철조하자고 하륜에게 제안할 정도로 총애하는 신하였다. 태종은 조영무를 한漢나라 곽광霍光이나 당唐나라 위징魏徵에 비견할 정도였다. 졸기에는 "조영무는 질실質實 하고 바른 소리를 좋아하고 정사에 임하여 사정私情이 없었으므로 임금에게 중히 여기는 바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었다. 시호는 충무忠武이다.

후일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의 지명유래는 그의 아호 퇴촌에서 따서 지은

것이다.

조영무의 시문을 모아 3권 1책으로 1943년 후손들이 편집, 간행한 『퇴촌문집』이 있다.

이부李敷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구동산에 그의 무덤이 있으며, 그의 위패를 모신 사우祠宇가 연천군 왕징면 무등리에 흥원사興原祠이다. 이 사우祠宇는 1680년(숙종 6)에 창건되었으나 6.25 때 전소되었고, 현재 전하는 사우는 1985년 문중에서 중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353년(공민왕 3)에 태어나 1422년(세종 4)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무신이다 · 본관 공주公州 이고, 호는 일파一派이다.

조영규趙英珪의 부하로서 1392년 7월 이방원李芳遠의 지시를 받고, 조영규 · 조영무趙英茂 · 고려高呂 등과 함께 정몽주鄭夢周를 추격하여 선죽교에서 살해하였다. 그 뒤 배극렴裵克廉 · 조준趙浚 · 남은南誾 등을 따라 이성계李成桂의 사저로 찾아가 왕으로 추대하는 데 가담하였다. 이 공으로 개국 3등 공신에 책립되고 흥원군興原君에 봉하여졌다.

태조 등극 이전에 판봉상시사判奉常寺事 등을 역임하고, 1397년 상장군上將軍이 되었으나 1399년 박사후朴思厚가 증여贈與한 노비를 받은 일로 논죄되었다.

1402년(태종 2)에는 총제摠制가 되어 태종이 부병府兵을 외갑사外甲士로 삼고자 할 때 한장수韓長壽 · 민무구閔無咎 등과 함께 외갑사 500명을 나누어 다스리게

되었다. 외갑사를 지휘하는 등 건국 초기의 군사업무에 깊이 관여하였다. 1417년에는 흥원군興原君에 봉해졌으며, 귀암사龜岩寺의 노비奴婢 문제로 의금부에 투옥되기도 하였다. 시호는 강양剛襄이다.

함부림咸傅霖

1980년대 서울 고덕지구에서 이장한 무덤이 현재 이천시 호법면 안평1리에 자리한다.

함부림咸傅霖은 1360년(공민왕 9)에 태어나 1410(태종 10)년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본관은 강릉江陵이고, 자는 윤물潤物이며, 호는 난계蘭溪이다. 시호는 정평定平이다.

아버지는 검교중추원학사檢校中樞院學士 함승경咸承慶이다. 자식으로는 함우공咸禹功 · 함우치咸禹治 두 아들이 있다. 어려서부터 문장이 뛰어났으며, 1385년(우왕 11) 문과에 급제해 예문검열藝文檢閱을 거쳐 좌정언左正言으로 승진하였다. 1389년 공양왕이 즉위하자 헌납으로 재직 중 정지鄭地 · 이림李琳 · 왕안덕王安德 · 우인열禹仁烈 · 우홍수禹洪壽 등 구신들을 이를 연관시켜 탄핵하는 데 동조하다가 왕의 미움을 받아 춘주지사春州知事로 좌천되었으나 다시 부름을 받아 형조정랑이 되었다. 이때 중방의 무신들이 문신을 멸시하자 이에 항거하다가 파직되었다.

1392년(공양왕 4) 정몽주鄭夢周가 살해된 뒤 이성계李成桂가 실권을 잡자 병조정랑 겸 도평의사사경력사도사都評議使司經歷司都事에 복직되었다. 그 해 이성

계李成桂 추대에 참여해 개국 3등공신에 책록되었다. 그해 개성소윤開城小尹으로 경상 · 전라 · 양광도楊廣道 등에 보내어 수령守令과 그곳 민정을 보살피는 명을 받았다. 1394년 예조의랑禮曹議郎으로 고려 왕씨王氏 일족을 처리하기 위해 삼척에 파견되었다.

이듬해 판교서감사判校書監事로 강원도로 나가 장생전長生殿의 재목을 감독하는 직무를 수행하였다. 1396년 우보덕右輔德이 되어 서연書筵에서 세자를 강하였는데, 세자가 창기娼妓를 궁궐에 들인 것을 직간하여 세자도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해 성균관대사성으로 의주로 파견되어 김약항을 교유하는 임금의 뜻을 확고히 전달하였고, 성균관 시원試員이 되었다.

1397년 좌산기상시左散騎常侍로서 상서소윤尙瑞少尹을 겸하였다. 이해 아버지 상을 당하여 복이 끝나자 명성군溟城君에 봉해졌다. 1402년(태종 2) 충청도관찰출척사忠淸道都觀察黜陟士로 기복되고起復되고, 이듬해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을 거쳐,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이 되면서 동원군東原君으로 개봉改封되었으나 병으로 잠시 사직하였다. 다시 불려나와 이해에 동북면도순문사東北面都巡撫使가 되었으며, 이듬 해는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 겸 사헌부 대사헌을 역임하였으나, 과거 행실에 대해 탄핵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는 태종으로부터 곧 직무를 계속하라는 명을 받는 신임을 얻고 있었다. 그는 사직하기를 청하였으나 윤허되지 않았다.

이해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하여 제조提調가 되었으나 곧 폐지됨에 따라 경기관찰사로 나아갔다. 1406년에는 계림부윤雞林府尹이었는데, 사간원에서 관찰사가 될만한 인물로 상소되어 경상도관찰출척사로 나아갔다. 다음 해 다시 참지의정부사로서 명나라가 안남을 평정한 사실에 대한 하례사로 다녀왔

다. 1408년 참지의정부사를 역임하고, 풍해도도관찰사豐海道都觀察使로 나아갔으며, 이듬해 형조판서가 되었다.

그해 명나라에서 군사를 요청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충청도에 순찰사로 파견되었다가 중앙으로 돌아와 다시 형조판서가 되었다. 1410년 파직된 뒤 얼마 뒤 졸하였다.

1405년에는 앞서 1398년(태조 7)의 제1차 왕자의 난 때 정도전鄭道傳과 함께 왕자 방석芳碩을 세자로 옹립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은 일이 있으나 큰 화를 입지는 않았다. 그는 강직하여 지키는 바가 있고, 입조立朝하여 과감하게 말하고 이치吏治에 민첩하여 가는 곳마다 직책을 잘 수행하였다. 일찍이 경기,충청도, 경상도, · 전라도, 황해도의 도관찰출척사와 동북면도순문찰리사 등을 역임하였는데, 청렴결백한 것으로 자임自任하여 감사監司의 위엄을 떨쳤으며, 일찍이 굽히거나 흔들리지 않았으니 부내部內가 두려워하고 복종하였다.

현재 함부림공신세계단자咸傅霖功臣世系單子가 전하는데, 경북 안동시 하회유씨 충효당에 소장되어 있다. 그는 특히 한시漢詩를 잘 지었는데 그의 시 〈법주사〉, 〈차청심루운次淸心樓韻〉등이 전한다. 그 중 7언절구의 시 〈청심루운〉은 유명하다. 또한 포은선생행장圃隱先生行狀을 짓기도 하였다. 시의 주제인 청심루는 경기 여주 관아 안에 있던 정자로 일반 백성들이 출입할 수 없었던 곳이다. 그러나 남한강 제일의 절경을 자랑하던 곳으로 이곡, 이색, 정몽주, 김구용, 정추, 김종직, 최숙정, 서거정, 이황, 유성룡, 송시열 등 약 40여 명의 시인묵객들의 시판詩板이 걸려 있던 곳이나 1945년 8월 22일 군수 관사의 화재로 인해 소실되었다.

또한, 1634년(인조 12)에 지방유림의 공의로 정몽주鄭夢周, 강원기康元紀와 함께 충절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전라도 김제 두곡서원杜谷書院을 창건하여 위패

를 모셨다. 선현배향과 지방교육의 일익을 담당하여오던 중 흥선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으로 1872년(고종 9)에 훼철되었다.

그의 묘는 원래 서울시 강동구 고덕중학교 운동장 부근에 있었는데, 고덕지구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하여 1982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안평리 산 105번지로 이장하였다. 묘소 입구 왼쪽에 있는 신도비는 장방형 대석에 개석을 얹었으며 비신은 화강석이다. 비문은 4면에 새겼는데, 비문의 내용은 김용한이 짓고, 글씨는 민병승閔丙承이 썼다. 전액은 심기택沈箕澤이 썼다. 세종 18년(1436)에 세운 신도비 비신의 규모는 53×150×27cm이다.

신도비 옆에 놓인 대석은 옛 묘표를 받쳤던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는 55×86×38cm이다. 바로 옆에 봉분 안에 있었던 석곽을 배치해 놓았는데, 석곽의 뚜껑도 완벽하게 남아 있어 중시된다. 석곽의 뚜껑에 '강릉함씨난계정평공묘소입구江陵咸氏蘭溪定平公墓所入口'라고 음각해 놓았는데, 석곽은 화강암인데 규모는 116×290×64cm이다. 뚜껑의 규모는 80×280×25cm이다. 묘는 원형 봉분에 활개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었다. 호석은 두르지 않았으나, 전면에 3단으로 장방형의 화강석을 쌓아 전방후원前方後圓의 형태를 갖췄다. 전방 양쪽 끝은 경사지게 치석하여 바닥면과 자연스럽게 부합하도록 하였다.

화강석의 장대석으로 배위拜位와 묘소를 구분하였고, 중앙에 상석과 혼유석, 향로석, 북석 등을 설비하였다. 상석만 옛것이며 나머지는 이장할 때 새로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그 앞에 매우 독특한 양식 장명등이 놓여 있었으나, 2개의 화강석을 쪼아서 하단부와 상단부를 구분하여 만든 다음, 일체가 되게 올려놓은 것으로 조선 초기의 석조 양식을 시사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한상경韓尙敬[70)]

1360년(공민왕 9)에 태어나서 1423년(세종 5)에 졸하였다. 그의 묘가 남양주 진접읍 금곡리에 있다. 본관은 청주淸州이고, 자는 숙경叔敬·경중敬仲이며, 호는 신재信齋이다. 충혜왕의 묘정에 배향된 우정승 한악韓渥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밀직부사를 지낸 한공의韓公義이고, 아버지는 높은 학식으로 이제현李齊賢, 목은 이색李穡과 깊이 교류하였던 판후덕부사 한수韓脩이며, 어머니는 안동 권씨로 문하부찬성사를 지낸 권적權適의 딸이다. 부인은 해주오씨로 판도판서를 지낸 오준량吳俊良의 딸로 1남 1녀를 두었다.

아들은 함길도관찰출척사를 지낸 한혜韓惠이고, 손자로는 천령현감을 지낸 한계윤韓繼胤, 이조판서를 지낸 한계미韓繼美, 좌찬성을 지낸 한계희韓繼禧, 이조판서를 지낸 한계순韓繼純 등이다. 4형제 중 3남으로 한성부윤漢城府尹을 지낸 한상환韓尙桓, 주문사로 명나라에 가서 조선이라는 국호를 결정 받았던 예문관대학사 한상질韓尙質, 호조참판을 지낸 한상덕韓尙德과 형제간이다.

가문에서는 조선 전기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계유정난癸酉靖難으로 수양대군首陽大君(뒤에 세조)을 보위에 올렸던 영의정 한명회韓明澮가 그의 종손이고, 좌의정을 지낸 덕종德宗의 국구國舅(장인)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 한확韓確, 덕종비 소혜왕후昭惠王后(인수대비), 영의정을 지낸 한치형韓致亨, 형조판서를 지낸 한형윤韓亨允 등도 직계나 방계 후손들이다.

아버지 한수는 충목왕 때 급제하여 두루 관직을 거치다 공신이 되어 청성군淸城君에 피봉되었으며, 고려 말 명필가로 이름을 날린 인물로 공민왕의 정비

70) 한익수, 『왕의 스승, 신재 한상경』, 유항사상연구원, 2010.

노국대장공주묘비의 글씨를 그가 썼다고 전한다. 한상경도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글씨를 잘 썼으며, 음직蔭職으로 관직에 나가 사선서령을 지내다가 1382년(우왕 8) 문과에 급제하여 예의좌랑 · 우정언 · 전리정랑典理正郎 · 예문응교 · 공부총랑工部摠郎 · 종부영宗簿令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392년(공양왕 4) 밀직사우부대언에 승진하였다. 이 해 이성계李成桂를 추대하는 모의에 가담하고, 보새寶璽(옥새)를 받들어 이성계에게 바쳤으며 그 공으로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었다.

조선 개국 후 1393년에는 우승지를 거쳐 중추원도승지中樞院都承旨가 되고, 같은 해 왕이 『대학연의大學衍義』를 강론케 하였다. 1395년 첨서중추원사簽書中樞院事가 되고, 같은 해 처음으로 세자부빈객世子副賓客을 두고 그에게 좌부빈객이 직책이 부여되었고, 같은 해 판사判事직을 부여받고 노비변정도감 설치의 임무를 부여받았다. 또 도평의사사사都評議使司에 승진되었으며, 충청도도관찰사가 되어 1396년(태조 5)에는 서원군西原君에 봉하여졌다. 1399년(정종 1) 다시 경기좌도도관찰사에 보직되어 경기 지역의 총 책임자로서 그 임무를 다하였다. 이듬해 그는 전서典書가 되어 임금이 세자와 백관을 거느리고 덕수궁德壽宮에 조알하고, 옥책玉冊과 금보金寶를 받들어 존호尊號를 올렸는데, 봉숭封崇하는 예禮에 집사執事로 참여한 공으로 단초 각각 1필을 하사받았다.

같은 해 『신편집성마의방우의방新編集成馬醫方牛醫方』이라는 1권으로 된 책이 『향약제생집성방鄕藥濟生集成方』과 함께 간행되었는데, 전의소감典醫少監 · 지제생원사知濟生院事 방사량方士良(당시의 의관)의 서문에 의하면 '좌정승 조준과 우정승 김사형이 권중화와 한상경에게 명하여 지은 책'이라 전한다.

이 책은 송나라와 원나라 때의 마의방, 우의방서와 동인들의 경험방經驗方을

참작하여 수집한 고려시대의 수의학獸醫學의 전통을 이어 온 전문의방서이다. 1399년 강원도에서 처음 간행된 뒤 전주, 의주, 제주 등 각지에서 중간되었으며, 1634년 (인조 12)에 훈련도감활자의 소활자로 인출하기도 하였다.

1402년(태종 2) 명나라 사신 병부주사兵部主事 단목지端木智가 감생監生 율견栗堅과 수의獸醫 주계周繼 등을 거느리고 왔을 때 그는 접반사接伴使로 나아가 그들을 맞았다. 같은 해 중군총제中軍摠制를 역임하고, 풍해도도관찰사豊海道都觀察使로 나아가 태상왕太上王(태조 이성계)에게 연향宴享을 올렸다. 1405년에는 공조판서가 되었는데, 이해 태종이 송도松都에서 한양으로 환도하려는 의논에 참여하였다. 이듬해는 지의정부사知議政府事로 대사헌大司憲을 겸하였다.

이어 그는 대사헌으로서 몇몇 관료들과 함께 시무십사時務十事를 올렸는데, 그 내용을 다음과 같다. 첫째, 환과고독鰥寡孤獨 가운데 무고無告하여 살 곳을 잃은 자들을 한성부 · 유후사 · 각 도의 관찰사로 하여금 추고推考하여 구휼하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적어서 계문啓聞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맹자孟子』에 '사람마다 그 어버이를 친어버이로 여기고, 그 어른을 어른으로 여기게 되면 천하가 태평하여진다.'고 한 말을 인용하여 경중과 외방의 효자 · 순손順孫 · 의부義夫 · 절부節婦를 살펴서 포상함으로써 풍속을 가다듬게 하여야 한다. 셋째, 오부 학당五部學堂의 교수敎授 · 훈도관訓導官에 대한 지원이 주州 · 군郡의 향교만도 못하므로 전토와 노비를 주어야 한다.

넷째, 절도竊盜한 절도로 사유赦宥를 하더라도 태장笞杖에 그치고 방면하지 말고 장물贓物을 다 징수한 뒤에야 옥獄에서 놓아 주어야 한다. 다섯째, 마을 사람의 역사役使는 길가에 사는 사람이 자신들의 앞길을 소제掃除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의 역사에 그들을 동원하여 시키는 일을 모두 금지하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경기京畿와 외방外方에서 농번기에 함부로 사냥하는 자를 엄하게 금禁하여야 한다.

일곱째, 양계兩界에서 매[鷹子]를 진상進上할 때에는 도순문사都巡問使 이외에는 모두 금단禁斷하게 하고, 고을의 수령과 단련사團練使 등이 사사로이 매를 키워 백성에게 폐를 끼치므로 이를 엄금여야 한다.

여덟째, 지방 수령守令은 모든 부역賦役하는 일을 서리에게 이문移文하지 말고, 또 전지 답험踏驗과 군자軍資를 납세納稅 때는 관찰사나 수령이 직접 감고監考를 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는 엄하게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여야 한다.

아홉째, 주州·군郡의 각 이방里方 별감別監이 관문官門을 출입 시 차사差使를 지응支應하는 일 등은 한 마을 집집마다 한 달 씩 체대遞代하고, 월말마다 그 이름을 기록하여 감사監司에게 바치는 것을 항식恒式을 삼게 하여야 한다

열째, 주州·군郡의 늠고廩庫에서 주는 전조田租가 부족하므로 그 경내 진황지陳荒地 가운데 경작할 만한 땅을 택하여 보충토록 허락하고, 각 고을의 둔전은 수를 정하여 범람하지 않도록 하며 어긴 자는 청렴여부로 논죄論罪하게 한다.

같은 해 대사헌으로 죄인 이저李佇에게 왕이 고신을 돌려주려 하자 그의 탄핵을 강력히 주장하다가 받아들이지 않자 사직을 청하기도 하였다. 그 뒤 다시 복귀하여 판승녕부사判承寧府事가 되고, 1407년 세자의 혼례를 위해 납징사納徵使가 되었다. 이어 명나라 사신 한첩목아韓帖木兒가 관향貫鄕인 전라도 김제金堤에 갈 때 반행伴行하는 큰 임무를 맡기도 하였다

이듬해 태조 이성계가 서거하자 그는 국장國葬에서 재도감판사齋都監判事로서 역할을 하였다. 이어 형조참의刑曹參議 윤규尹珪 등 7인과 함께 『묘법연화경妙

法蓮花經』 편찬에 참여하였다. 1409년에는 경연관經筵官이 되었고, 이어서 서연書筵에 나아가 세자를 가르칠 것을 명받았으며, 곧 좌부빈객左副賓客이 되었다. 이듬해 명나라의 북벌계획의 성공을 진하進賀하는 진하사로 북경에 다녀와서 명황제가 올량합을 토벌하겠다는 뜻을 아뢰었다.

1411년에 원단圓壇의 제사를 한결 같이 예제禮制에 의하기를 청하여 이를 관철시켰으며, 정도전 · 남은 등을 용서할 것을 개국공신들과 함께 청하였으며, 같은 해 승문원제조를 역임한 뒤 곧 이어 호조판서로 세자시강원좌빈객世子侍講院左賓客이 되었다.

1412년 저화楮貨를 한성부 한 곳에서 만들어 그 질과 규격을 통일하도록 하였고, 백성들이 저화로 군자곡軍資穀 4천석을 바꿔가도록 하는 정책을 폈다. 같은 해 경회루慶會樓 기記를 영의정부사 하륜河崙이 짓고, 호조판서인 그가 글을 썼으며, 돈화문敦化門 누각의 종명鐘銘도 예문관제학禮文館提學 변계량卞季良이 짓고, 그가 글을 썼다. 이해 대사헌이 되었다.

1413년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이 되고, 당시 세자빈객이 되었으나 세자문제로 서연이 잠시 중단되었으나 이를 수습하는 책무를 띠고 서연書筵에 나아갔다가 곧 이어 이조판서가 되었다. 그는 1414년 노비변정도감奴婢辨定都監을 설치하여 제조가 되었다. 이해 이조판서로서 양부兩府와 간원諫院의 행차 때에 붉은 옷을 입고 갈도喝道하던 정리丁吏라는 관리를 혁파할 것을 건의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1415년 이조판서로 서원군西原君에 봉하여졌고, 1616년 지관사知館事가 되어 영춘추관사領春秋館事 하륜과 동지관사同知館事 변계량卞季良 등과 함께 『고려사』를 개수改修하는 데 참여하였으나 하륜의 서거로 완성하지 못하였다. 같은 해

우의정에 올랐고, 이어서 강무講武할 지역을 왕에게 올렸다.

1417년 안무사按撫使 김인우가 울릉도(당시 지명 ; 우산 무릉도)에서 귀환하여 복명하자 태종이 우의정이었던 그에게 울릉도 주민들을 본토로 옮길 것인지 그대로 둘 것인지 의논하게 하였을 때 그는 육조의 대신들과 대간들을 소집하여 어전회의를 열어 의논하였다. 이 때 그를 포함한 몇몇 관료 등 대다수가 주민을 불러내지 말고 오곡五穀과 농기農器를 주어 생업을 안정시키고, 관리를 파견하여 보호하는 동시에 세금을 거두자고 하였으나, 공조판서 황희黃喜는 주민 이주를 주장하였다. 그런데, 태종이 황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울릉도에 주민의 거주를 금지시키는 해금정책海禁政策, 이른바 울릉도 쇄출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같은 해 영예문관사領藝文館事가 되고, 경덕궁敬德宮의 정사를 보는 곳을 짓도록 의논하는 데 참여하였다. 1418년(태종 18)에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을 역임한 뒤 영의정에 이르렀고, 1418년(세종 즉위)에는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진봉되었으며, 안태사安胎使가 되었다. 평소 지병이 있었는데 벼슬에서 물러나 1423년(세종 5)에 이르러 병사하였다.

벼슬에 있을 때는 늘 청백하였고, 사람을 기용하는데 공정을 기하였으며, 생활은 검소하였다고 전해진다. 부음이 알려지자 임금이 사흘간 조회를 중지하고 관청이 장례를 도와주게 하였으며 부의를 내렸다. 왕이 시호를 문간文簡이라 정하면서 "시법諡法(시호를 정하던 법)에 부지런히 배우고 묻기를 좋아함을 문文이라 하고, 한결같은 덕으로 나태하지 않음을 간簡이라 한다."고 밝혔다.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에 의하면 그는 어릴 때부터 유희(遊戱)를 좋아하지 않았고, 식견과 도량이 정민精敏하고 몸가짐과 태도가 단정하고 공경하였다고

한다. 또한 벼슬에 나아가서는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절조를 지켜 오랫동안 전선銓選(관원을 뽑음)을 관장하면서 오직 공정하게 인물을 천거하였고, 가정에서는 검소하여 의복과 음식은 깨끗함에 만족하였다고 한다.

그의 묘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산126에 있는데, 부인 오씨吳氏와 함께 묻혀있다. 앞뒤 쌍분으로 조성된 묘역에는 앞뒤의 봉분 앞쪽으로 각각 상석이 놓여 있고 좌우에는 문인석이 한 쌍 씩 세워져 있으며 앞쪽의 봉분에는 장명등도 놓여 있다. 뒤쪽 봉분에는 묘소의 주인을 알려주는 묘표가 세워져 있는데 비석은 조선 전기 사대부의 묘소에서 흔히 보이는 연꽃봉우리 모양의 머릿돌을 지니고 있다.

뒷면에는 그와 부인의 생몰년과 비석이 세워진 시기가 적힌 음기가 새겨져 있으나 오랜 세월 마모로 인해 글씨를 알아보기는 힘들다.

이곳 청주한씨 선영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6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의 묘역이 아니라 손자로 이조판서와 판중추부사를 지낸 한계순의 묘역으로 등록되어 있다. 아마도 이것은 보이는 것처럼 그의 묘역이 이장이 되는 과정에서 원형을 크게 잃어버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묘소 아래쪽에는 이수와 귀부를 갖춘 그의 신도비가 세워져 있다. 현재 세워져 있는 신도비는 원래의 것이 아니라 1984년 후손들이 새롭게 만든 것인데 원래의 것은 광릉에서 이장을 해오는 과정에서 뗏목이 가라앉아 물에 빠져버렸다고 한다. 그리고 그의 영정을 모신 사당과 신도비는 묘역 반대편 마을 안에 있는다. 그의 사당에는 영정의 모사품이 있고, 진품 영정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원본 영정은 그가 개국공신이라 왕명에 의하여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중모한 작품도 원본에 충실한 것이라 조선 초기 공신도상功臣圖像 형

식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작품이라 생각된다.

민여익閔汝翼

1360년(공민왕 9)에 태어나서 1431년(세종 13)에 졸하였다. 고려 말 조선 초기의 문신이다. 본관은 여흥驪興이고, 자는 보지輔之이며, 대제학첨의정승大提學僉議政丞 민지閔漬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민상정閔祥正이고, 아버지는 여흥군驪興君 민현閔玹이며, 어머니는 대호군大護軍 염세충廉世忠의 딸이다. 부인은 현풍 곽씨 유수留守 곽윤명郭允明의 딸이다.

1380년(우왕 6) 문과에 급제한 뒤 후덕부승厚德府丞이 되고, 성균사예成均司藝에 올랐으나 부친상을 당하여 잠시 관직에서 물러났다. 상을 치른 뒤 복귀하여 여러 직책을 수행하다가 조반趙胖 사건 이후 수시중守侍中으로 정방의 제조를 맡아 인사권을 쥔 이성계李成桂의 신임을 얻어 군부경력軍簿經歷으로 발탁되었다. 이어 예조의랑 · 병조의랑 · 우간의右諫議 등을 차례로 역임하였다. 1392년(태조 1) 이성계李成桂의 조선 개국을 도와 개국공신 3등에 책록되고, 전결田結과 노비를 받았다.

1393년 당시 우간의右諫議로서 내시 이만李萬과 세자빈 유씨柳氏 사건에 대해서 간하다가 태조의 노여움을 사 순군巡軍에 하옥되어 정희계鄭熙啓 · 남은南誾 등의 국문을 받았으나 공신이었던 관계로 관직만 박탈되었다. 같은 해 다시 중추원우부승지中樞院右副承旨를 거쳐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396년 도승지로 대사성 함부림咸傅林과 함께 성균시원成均試員이 되었다. 같은 해 12월 사헌부대사헌

으로 임명되었다.

이듬해 정월 태조의 생질인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 조견趙狷이 왜구를 토벌하는 데 실패한 것과 그 당시 대사헌으로서 조견을 탄핵하지 못한 한성윤漢城尹 · 신효창申孝昌 등을 함께 탄핵하려 하였으나 조견이 조준趙浚의 동생이고 또한 공신이었던 관계로 왕의 신임이 두터워 실패하였다. 그는 왕이 그 전에 조견을 탄핵하지 못한 것을 핑계 삼은 것이 화근이 되어 투옥되었으나 남은 등의 비호로 풀려났다. 이 사건은 당시 개국공신들 사이에서도 알력이 일어나기 시작하였음을 엿볼 수가 있다.

이해 여흥군驪興君으로 봉해지고, 자헌대부資憲大夫에 올랐으며, 1398년 전라도도관찰사全羅道都觀察使로 나아갔으나 어머니 병이 위중함에 잠시 그만두었다. 1402년(태종 2) 10월에는 좌군총제左軍摠制가 되었다. 그뒤 1408년 10월에는 영안군寧安君 이양우李良祐를 정사로 한 사은사謝恩使에 부사副使로 명나라에 다녀왔는데, 이때 한성윤漢城尹 공부孔俯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아 도가道家의 초사법醮祀法을 배워오게 하였다.

같은 해에 참지의정부사參知議政府事에 제수되었고, 1409년 사은사 영안군 이양우 등과 함께 명나라에 진헌한 처녀와 동행한 가족들이 각각 명나라에서 관작을 제수 받은 사실을 보고하였다. 같은 해에 충청도관찰사로 나아갔다.

1412년 2월 성절사聖節使로 다시 명나라 갈 때 판사역원사判事譯院事 이자영李子瑛이 자문咨文을 싸가지고 함께 갔는데, 제복祭服과 약재藥材를 사기 위함이었다. 이듬해 8월 경성수보도감京城修補都監을 설치하여 도성을 전체를 수리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하려 할 때 제조提調가 되었다. 1414년 노비변정도감제조로 노비송사 문제의 오결誤決로 탄핵을 받았으나 풀려났다.

이듬해 관제를 개혁하고 난 뒤 세자우빈객世子右賓客이 되어 당시 세자였던 양녕대군讓寧大君을 지근에서 보필하였는데, 태종의 명으로 세자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는 책무를 은밀히 맡았다. 1416년에는 공조판서를 거쳐, 의정부참찬議政府參贊을 역임하였다. 1418년(태종 18) 황희黃喜의 뒤를 이어 판한성부사判漢城府事가 되었으며, 곧 이어 예조판서로 제수되었다.

같은 해에 명나라 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평양에 파견되어 그들을 위로하는 책무를 수행하였고, 그 뒤에도 영접사迎接使로 여러 차례 평양에 파견되어 명나라 사신들을 위로하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이해에 상왕上王(태조)과 왕대비의 존호를 올리는 예에 독보관讀寶官으로 참여하였다. 1419년(세종 1)에는 판우군도총제부사判右軍都摠制府事를 역임하고 이어 호조판서가 되었다.

1420년(세종 2) 황주黃州에서 선온을 받들고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였고, 왕이 하사하는 술을 받들고 평양에 가서 또 다시 그들을 위로하는 책무를 수행하였다.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으로 진봉되고, 이듬해 원경왕후元敬王后가 서거하자 수릉관守陵官이 되었다. 이 해 가뭄이 심하여 여러 날에 걸쳐서 기우제를 지내게 하였는데, 그는 종묘에서, 이조판서 맹사성은 소격전에서, 검교 한성부윤 최덕의는 경회루 못가에서, 우의정 이원은 원구에서 진행하였는데, 다음날 비가 와서 기우제를 중지하였다.

1424년(세종 6) 원경왕후 능을 3년 동안 모신 일로 세종이 연회를 열어 그를 위로하였고, 얼마 뒤 종친들이 이어서 그를 위로하는 연회를 베풀었다. 1426년에는 그 공으로 대광보국大匡輔國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으로 진봉進封되었다. 1429년에는 왕이 나이 많은 대신들을 5일에 한 번 씩 상참常參하라는 명을 받아 참여하였다. 이해에 궤장几杖이 하사되었다. 1431년 5월 6일 관아에 나왔다가 갑자기

병으로 졸하였다. 그가 졸하자 사제賜祭하는 교서에는

“운運을 도와 나라를 열게 하였으니 진실로 세상에 드문 수훈殊勳이며, 덕을 높이고 공을 기록함은 곧 국가의 법전法典이다. 사모함이 능히 처음부터 끝까지 돈독하여야 하며, 예禮는 마땅히 슬픔에나 영화에나 두루 갖추어야 할 것이다. 오직 경(민여익 지칭)은 단정한 자품과 온아溫雅한 도량度量으로써 저를 낮추고 남을 높이어 분수를 지켰고, 부지런하고도 검소하여 겉치레가 없었다. 더욱이 학문이 전일專一하고 정밀하며, 덕업德業이 높고 넓어 성조聖祖(태조 이성계) 를 잠저潛邸에서 만나, 오랫동안 군무의 추기를 맡았다.

전조前朝가 위란危亂할 때는 실로 우리 집이 용흥龍興하는 날이었다. 여러 사람이 모두 힘을 다하여 추대推戴할 제 경도 마음을 합하여 도와서, 능히 그 공을 이룩하고 대명을 받게 하였다. 인민을 도탄塗炭에서 구제하였고, 산하山河가 다하도록 변하지 않기를 맹세하였다. 아름다운 명예가 일찍이 드러났으며, 좋은 계책을 모두 바쳐서 거듭 중요한 임명을 받았고, 두루 좋은 벼슬을 지냈다. 그러함으로써 소고昭考(태종)께서는 부어주시는 은혜가 높았고, 과인은 의뢰하는 소망이 깊었다.

이에 산릉山陵을 수호하여 공경하고 삼가므로 진실로 나의 효도하는 생각을 돕게 하였었다. 벼슬과 품계를 올려서 포양褒揚하고 높인들 어찌 경의 위대한 공적에 따르리오. 참으로 4세世의 원로元老이며 백료百僚의 의표儀表였다. 어찌하여 조회에 참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부음訃音을 듣게 되는고. 지난 일을 미루어 생각하면 자꾸만 슬퍼지는구나. 이미 은혜로써 시호를 내렸고, 이에 예관을 보내어 전을 드리노니, 아아, 늙은 영걸이 이미 갔도다. 옛 공덕의 잊기 어려

움을 슬퍼하고, 은총恩寵을 이에 더하여 정혼貞魂의 밝음을 위로하노라."하였다.[71)]

그의 성품은 항상 온아溫雅하였고 근신謹愼하게 몸가짐을 하였으며 산업産業을 경영經營하지 않았다. 항상 자손들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죽거든 불사佛事를 베풀지 말고 전奠도 풍성豊盛하게 할 것을 기필하지 말 것이며 정결淨潔하게 하는 데 힘 써야 한다. 염斂을 할 때에는 단의單衣를 사용할 것이며 습襲을 할 때에는 오중五重을 넘기지 말며 염할 때에는 십중十重을 넘기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약 이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의 자손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였다고 한다.

그가 졸하자 조정에서는 사흘 동안 조회를 철폐하고 사람을 보내 조문하고 부의를 내렸다. 시호諡號는 양경良敬 혹은 경정景定이라 하였는데, 마음씨가 부드럽고 무던하며 음악을 좋아함을 양良이라 하고, 일찍 일어나서 일에 이바지함을 경敬이라 한다. 그의 묘나 신도비 및 사당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그가 여천군驪川君에 봉군되고 여천부원군驪川府院君에 진봉된 사실에서 현재 경기도 여주를 세거지로 한 관향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한편, 보물 제1282호로 지정된 「최유련개국원종공신녹권崔有漣開國原從功臣錄券」 권말에 그의 직함과 수결이 기재되어 있다.

고혜령 전 국사편찬위원회 편사부장

강병수 전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정책실장

---

71) 『세종실록』, 세종 13년 7월 19일 신사조辛巳條

| 참고문헌 |

인터넷 정보

국사편찬위원회 DB(조선왕조실록, 고려사, 고려사절요, 우리역사넷)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e뮤지엄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탈

문헌

『고려사高麗史』

『고려사절요高麗史節要』

『태조실록太祖實錄』

『정종실록定宗實錄』

『태종실록太宗實錄』

『세종실록世宗實錄』

『영조실록英祖實錄』

『용비어천가』

『국조방목國朝榜目』

『국조보감國朝寶鑑』

『국조인물고國朝人物考』

『국조인물지國朝人物志』

『근역서화징槿域書畵徵』

『대동기문大東奇聞』

『동문선東文選』

『선원계보璿源系譜』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

『해동잡록海東雜錄』

『용재총화慵齋叢話』

『호보號譜』

도서와 논문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문화재총람-도지정편2』, 2017.

국사편찬위원회, 『신편 한국사』 19. 22. 1993.

김광철, 「고려후기 도평의사사 연구」 『한국중세사연구』 5, 1998.

김광철, 『고려후기세족층연구』, 동아대출판부, 1991.

김용선 편,『고려묘지명집성』, 한림대출판부, 2001.

박천식, 「무진회군공신의 책봉전말과 그 성격」 『전북사학』3, 1979.

박천식, 『건국공신연구』(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85)

박천식, 『조선건국의 정치세력 연구』,전북대학교출판부, 1984.

이상백, 『이조건국(李朝建國)의 연구(硏究)』, 을유문화사, 1949.

정두희, 「조선초기 삼공신 연구」 『역사학보』75 · 76, 1977.

정두희, 「조선초기 삼공신연구」 『역사학보』75 · 76합집,1977.

홍영의, 「고려말 신흥유신의 추이와 분기」 『역사와현실』15, 1995.

4부

대한민국 건국훈장 수훈자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인가? 이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쟁취한 독립인가? 그러나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이제 더 소란할 필요는 없다. 개인들의 편차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현재 대한민국 보훈처에서 시행하는 있는 상훈법에 따르는 것이 가장 보편적이라고 본다. 현재 건국훈장 수여대상은 시기적으로 의병에서 무장독립운동을 포함한 국내외 독립운동에 대하여 이념적 편향성을 넘어 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가 정한 건국훈장의 등급은 5단계로 대한민국장, 대통령장, 독립장, 애국장, 애족장이다. 1949년 4월 27일에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던 '건국공로훈장령'이 1963년 12월 14일에 각종 상훈 관계 법령을 통합한 '상훈법'으로 바뀌면서 폐지되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2017년 1월까지 독립유공자로 건국훈장 수여자는 대한민국장 30명, 대통령장 93명, 독립장 806명, 애국장 3,886명, 애족장 5,016명 등 9,831명이고, 건국포장 1,037명, 대통령표창 2,445명 등을 포함하면 총 13,313명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어떤 인물의 공헌이 더 값지고 그렇지 않은가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가에서 구분한 분류이므로 독립유공자의 상훈 순서로 대한민국의 공헌도를 자리 매김할 수밖에 없는 것도 한계이다. 근대에 들어 서구열강의 서세동점 현상은 수도권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의병으로 시작한 근대의 저항 운동은 3 · 1운동, 독립운동 등으로 이어지는데, 여기에 참여한 경기도민들은 신분의 고하 없이 전 지역에서 대한민국 독립이자 건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정서상으로는 모든 분들을 전부 수록 대상으로 하여야겠지만, 부득이 독립장 이상의 상훈을 수여 받은 인물들 가운데 경기도와 연관이 있는 분들만을 정

리하여 79인을 수록 대상으로 하였다. 기준 설정은 현재의 경기도와 관련된 경우로 한정하였다. 필자의 부주의로 누락이 되거나 오기가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들을 분류하면 무장독립운가, 애국계몽가, 언론인, 정치인 등 활동의 성격이나 분야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이 된다. 경기도와 관련된 인물들로 수록자 만을 제1장의 〈표4〉를 참고하기 바란다.

가평의 인물

조병세趙秉世

본적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면이다. 1827년 6월 2일 홍천현감을 지낸 아버지 조유순趙有淳과 어머니 대구서씨 사이에서 태어나 1905년 12월 1일 을사늑약에 반대하는 유소遺疏와 글을 남기고 약을 마시고 殉死하였다.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조선 말기의 문신 · 순국 열사로 본관은 양주楊州. 자는 치현穉顯, 호는 산재山齋이다. 고종조에 영의정을 역임한 조두순趙斗淳은 큰아버지이다.시호는 충정忠正이다.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의리가 밝았으며, 불의를 보고는 참지 못하는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1852년철종 3 사마시에 합격하여 음관蔭官으로 참봉을 지내다가 1859년(철종 10)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이 되고 1864년(고종 1) 실록청도청낭청으로서 ≪철종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1866년 대왕대비 조씨가 수렴청정을 거두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이 강화되며 이천부사伊川府使, 영광군수 등 외직으로 물러나 중앙관계에서 멀어지기도 하였다. 지방의 수령으로 재직하면서도 강직한 성품으로 부정부패를 없애고 서민들의 생활을 따

뜻하게 감싸주던 선생이었지만 1873년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의 친정이 시작되면서는 다시 중앙의 정계로 복귀하여 1874년 함경도암행어사, 1877년 대사헌을 거쳐 의주부윤, 다시 대사헌, 1887년 공조판서를 거쳐 이듬해 예조 · 이조의 판서, 1889년 한성부판윤을 지내고 곧이어 우의정에 올랐다. 1893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이듬해 동학농민운동 · 청일전쟁 · 갑오개혁 등 큰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고, 일제의 침략이 심화되면서 정계를 떠나 가평으로 은퇴하였다. 뒤에 다시 중추원의장中樞院議長과 의정부의정議政府議政을 역임하고 국왕의 고문인 특진관特進官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주로 가평에 은퇴하고 있으면서, 1896년 폐정개혁을 요구하는 시무時務 19조를 상소하였다. 그 뒤 1898년 재상에 임명되었으나 사퇴하였으며, 1900년 다시 입궐하여 국정 개혁을 건의하였다. 1905년 11월 일제에 의해 강제로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신병을 무릅쓰고 상경하여 "나라가 이미 망하였으니 나는 대대로 국록을 먹던 신하로서 나라와 함께 죽음이 마땅하다."고 고종에게 상소를 올렸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에 26일 참정參政 심상훈沈相薰, 시종무관장侍從武官長 민영환閔泳煥, 이근명 등과 함께 백관을 인솔하고, 입궐하여 정청庭請의 소두疏頭로서 을사늑약의 무효, 5적신의 처형, 새로 충량忠良한 인재를 뽑아서 외부대신에 임명하고, 각국 공사와 협의하여 5조약을 파기할 것 등을 연명으로 상소하였으나 거절당하였다. 이에 백관들을 이끌고 대한문大漢門 앞으로 나아가 계속해서 을사조약의 파기와 매국5적을 처단할 것을 요구하는 강경한 상소를 여러 차례 올리고 항쟁을 계속하다가 일본 헌병에 강제 연행되었다. 그 뒤 곧 가평 시골집에 추방되었으나 30일 다시 상경하였다. 표훈원에 되돌아와 유소遺疏와 일본공사 및 각국 공사에게 보내는 유서를 남기고 상소하였다. 1905년 12월 1일 오후 또다시 일본군이 가마에 태워서 강제추방하자

가마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두었던 극약을 꺼내어 마시고, 집안의 조카 민희民熙의 집에 당도 하였을때 는 이미 그의 용태가 위독한 지경이었고 바로 죽었다. 국민에게 고하는 유서에서 전국 동포가 국권회복운동에 분발할 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각국공사에게 보낸 유서에서 여러 나라가 공동협의하여 한국 독립의 회복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그의 자결은 전국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국민들이 국권회복운동에 분발하는데 큰 자극과 격려를 주었다. 묘소는 시흥시 조남동 방화마을 뒷산에 있다가 대전현충원으로 이장하였다.

『고종실록高宗實錄』

『고종기사高宗紀事』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

『해학유서海鶴遺書』

『한국통사韓國痛史』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조병세」(신석호, 『근대한국인물백인선』, 신동아부록, 1970.1.)

강윤희姜允熙

본적은 경기도 가평군加平郡 외서면外西面 대성리이다. 1868년 11월 11일 태어나

1909년 한말 의병으로 활동하다가 붙잡혀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1996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강선집姜善集으로도 불렸다.1905년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자 전국 각지에서는 조약의 무효를 주장하는 상소와 자결 순국함으로써 이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려는 투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때 서울에 설치된 유약소儒約所에 참여하여 김동필金東弼 · 경현수慶賢洙 등과 함께 조약에 협조한 을사5적의 처단과 조약의 파기를 주장하며, 각국의 공사들에게 이 조약의 부당함을 알리는 등의 활동을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의병에 가담할 것을 계획하고 기회를 모색하다가 1907년 10월 이인영李麟榮 의병장을 주축으로 결성된 관동창의진關東倡義陣의 부장으로 항일활동을 전개하였다.

강원도 원주原州에서 이은찬李殷瓚 · 이구재李九載 등의 추대로 관동창의진을 결성한 이인영 의병장은 종래 분산적으로 활동하던 의병진을 결집하여 서울진공작전을 전개할 것을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전국 각지의 의병진에 격문을 보내어 11월을 기해 경기도 양주에 집결하도록 하였다. 이어 전국의 대표적인 의병진을 묶어 13도창의대진소十三道倡義大陣所를 결성하였다.

마침내 군사장 허위許蔿가 이끄는 선발대가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공하여 서울탈환을 위한 격전을 벌였으나 후속부대가 제때에 도착하지 못함으로써 후퇴하고 말았다. 그후 이인영 의병장이 붙잡혀 순국하자 그는 독자적으로 의진을 편성하여 강원도 화천군 · 양구군 등지에서 부일배를 처단하고 일본군과 교전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러나 1909년 5월 일본군에 붙잡혀 경성지방재판소 춘천지부에서 교수형을 받고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騎驢隨筆』

『大韓季年史』

신숙申肅

본적은 경기도 가평읍 읍내리이다.1885년 12월 29일 에서 태어나 1967년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천도교인으로 본관은 평산平山으로 석범錫範의 아들로 태어났다. 아명은 연길連吉이고, 12살에는 태봉泰鳳, 21세에는 태련泰鍊으로 바꾸었다. 신숙申肅이란 이름은 1920년 4월 국외로 탈출하면서부터 사용하였다. 호는 강재剛齋 · 시정是丁 · 치정癡丁 등이 있다. 후에 천도교 포교사업에 전념하면서 이름을 숙肅에서 태치泰癡로 바꾸었다

가평지역의 학자로서 이름이 높았던 이규봉에게 수학하였다. 1901년 북면 사무소 약정約正, 군서기 등을 지내다가 19세 되던 1903년 4월 강원도 양구군 청송리의 의병장 최도환崔道煥의 둘째 딸 최백경崔百卿과 혼인하였다. 이해 동학東學에 입도하고 1905년 상경하여 국민신보기자와 탁지부 인쇄국 교정원을 지냈다. 1905년 「국민신보 國民新報」기자로 활동하면서 김남수金南壽 등과 같이 용산에 4년제의 문창학교文昌學校를 설립하고 교감을 맡아 육영사업에 진력하면서 애국단체를 찾아가 강연을 하는 등 구국활동을 전개하였다. 1912년 1월 천도교 종

학강습소宗學講習所 간사, 1914년 대구교구장에 임명되고 중국 봉천성 장백현 교구에 들어가 활동하기도하였다. 1917년 중앙대종사中央大宗司 종법원宗法員이 되고, 1919년 3 · 1운동 때 김영륜金永倫과 같이 독립선언서를 교정하고 인쇄를 담당하였고 3 · 1운동 직후 선생은 의친왕 이강李剛 · 김가진金嘉鎭 · 전협全協 등이 조직한 대동단大同團에 가입하였다가 종로경찰서에 구금되기도하였다. 1920년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천도교의 대표적 인물의 파견을 요청했을 때 선임되어, 신상태申相泰와 함께 서울을 출발하여 압록강을 건너 만주로 망명하였다. 비밀연락장소인 삼산상회三山商會에서 박승환朴承煥 · 한명하韓明河 · 홍종하洪鍾夏 등을 만나 이들의 주선으로 중국인 집에 은신하는 동안 상해에서 온 장경순張敬順의 안내로 영국인이 경영하는 상선을 타고 상해에 도착했다. 이곳에서 임정요인인 안창호安昌浩 등과 독립운동 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였으며, 박재혁朴在赫을 국내에 파견하여 부산경찰서에 폭탄을 투척하도록 하였다.상해에서 천도교를 전파하는 한편, 『천도교의 실사實事』를 간행하였다. 1921년 4월 국내외 8개단체 대표들의 군사통일회의가 북경北京에서 개최되었을 때 의장이 되었다.1923년 1월 그 동안 추진해오던 국민대표회의가 각지의 독립운동 단체 대표 140여 명이 모여 상해에서 개최되었을 때 국민대표회의 주최 순국선현추모행사 준비위원과 회규기초위원으로 선출되어 활약하였다. 그리고 1월 31일 오후 상해 삼일당에서 개최한 국민대표회의 개막식에서 선생은 안창호 · 김마리아 등과 함께 연설하였으며, 의정기초위원에 선임되었다. 또한 3월 1일 개최된 3 · 1운동 기념식에서는 여운형과 함께 기념사를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임시정부를 후원하기 위해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하는 데도 조력하였다. 1924년에는 만주 교하蛟河의 농촌에 정착하여 이름을 숙肅에서 태치泰癡로 고치고 천도교 납법강종리원拉法講

宗理院을 설립하여 학생 지도와 농촌계몽 및 교리 전파에 전력을 기울였다. 1926년 10월에는 중동선빈현 이도하자中東線賓縣二道河子의 삼청궁농장三淸宮農場으로 옮기고, 1927년 2월에는 송봉산松峰山의 개간농장으로 이주하여 신창학교新彰學校를 설립하고 교장이 되었다. 그리고 빈현賓縣과 쌍성현雙城縣지방의 한인농장을 연합하여 쌍빈지방雙賓地方 자치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으며, 1925년부터 북만주일대에서 홍진洪震 등과 민족유일당운동을 전개하고, 1927년 2월 송봉산松峰山의 개간농장으로 이주하여 신창학교新彰學校를 설립하였다. 신민부新民府의 요청으로 정의 · 신민 · 참의 3부 통합회의에 신민부 대표로 참석하기도 하였다. 1930년에는 북만에서 홍진洪震 · 이청천李靑天 등과 한국독립당을 조직하고 동당 총무위원장 · 문화부장 등으로 활약하였고, 1931년에는 동북사변이 일어나자 한국독립군의 참모장으로 쌍성현 공략에 참전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1933년 한국독립당이 편성한 한국독립군의 참모장으로서 남경 · 상해 등지에 파견되어 국민당정부와 군사적으로 긴밀한 협력을 강구하였다. 1935년 노모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동삼성東三省으로 오던 중 영구營口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혔으나 이듬해 3월 보석으로 풀려났다. 1945년 하얼빈에서 오광선吳光鮮 등과 같이 재만동지회在滿同志會를 조직, 위원장으로 추대되었다. 이해에 조직된 길림 한국인회의 위원장에 당선, 피난민의 구제와 귀국의 알선 등으로 교포의 권익보호에 진력하였다. 1947년 입법의원이 되고, 이듬해 4월에는 남북협상을 위하여 김구 · 김규식과 함께 평양에도 다녀왔다. 1949년 1월 천도교 도사道師로 선임되어 교화운동 차원으로 조직된 만화회 위원장이 되었다.

1958년 보국연맹과 천도교 청년회를 발전적 차원에서 해산하고, 동학회 중앙본부 위원장으로 취임하였 다가 동학당준비위원회 대표지도위원이 되었다.

그 후 서상일 · 김성수 · 조헌식 · 김성숙 · 안호상등과 더불어 민주혁신당을 조직하고 중앙위장에 취임하여 자유당 독재정권에 대항하다가 정계에서 은퇴한 후 민권수호 국민총연맹 대표지도위원이 되고 광복동지회를 창립 부회장으로 있다가 1967년 11월 22일 서울 가회동 자택에서 83세를 일기로 별세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한민족광복투쟁사』(이현희, 정음문화사, 1990)

『임정과 이동녕연구』(이현희, 일주각, 1989)

『독립유공자공훈록』 4 · 5(국가보훈처, 1987 · 1988)

『3 · 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현희, 동방도서, 1987)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 4~8(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1976)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나의 일생』(신숙, 일신사, 1959)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후원회, 1956)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동아일보東亞日報』

『朝鮮獨立運動』 Ⅱ(金正明 編, 原書房, 1967)

『朝鮮民族運動年鑑』(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第二課編, 東文社書店, 1946)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部, 1934)

이충응李忠應

본적은 경기도 가평군 군내면 승안리이다. 1856(철종 7) 6월 3일 태어나 1896년 6월 15일 의병활동을 하다가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과 단발령이 연속해 일어나자 이에 분개하여 가평에서 신재가申在嘉와 함께 거의擧義하여 의병장으로 활약하였다.곧이어 1896년 1월 20일에는 이소응李昭應이 이끄는 춘천의병春川義兵에 합류하여 그 아장亞將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같은해 2월 28일 가평 보납산寶納山 전투에서 관군과 일진일퇴를 거듭하다가 일기불순과 훈련부족으로 패해 가평 북면北面으로 일시 이동하였다. 이어 4월에는 춘천으로 진군하던 경군京軍을 공격, 20여 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전리품을 노획하였으며, 6월 15일에는 180여 명의 의병을 이끌고 가평 공략에 나서 군청을 기습하였으나 역부족으로 실패한 후 곧이어 벌어진 낭천狼川 전투에서 전사 순국하였다.

『昭義新編』(김화식, 백삼규, 김형, 1902, 목판본)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9(국가보훈처, 1991)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신문』(1896.7.8)

고양의 인물

이필주李弼柱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왕십리 569 출신이다. 현주소는 서울 정동 34 이다. 수원군 남양에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1869년 11월 9일 태어나 1932년 4월 24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으로 기독교인이다. 선천적인 무인 기질로서 20세에 한말韓末 군대에 입대, 단시일에 승진하여 장교로서 8년간 복무하였다. 1907년(융희 1) 한일신협약韓日新協約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군대생활을 청산하고, 남대문에 있는 상동尙洞 예배당의 전덕기全德基 목사를 중심으로 한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에 가입하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1910년 일제에 의해 주권이 완전 상실되자, 통분하여 일주일간 단식하고 두문불출하였다. 그 후 종로 청년회관(Y.M.C.A)의 초대 체육교사로 재직하다가 상동 공옥소학교尙洞攻玉小學校 체육교사로 취임하여, 애국정신과 광복의 큰 뜻을 청소년에게 가르쳤다.

그후 신학교神學校를 졸업하고 목사가 되어 정동교회貞洞敎會에서 목자생활을 하며 조국독립에 대한 이상을 품고 이상재李商在 · 현 순玄楯 등과 자주 만나 친분을 두터이 하였다.

1919년 2월 27일 자기의 집에서 이인환李寅煥 · 박희도朴熙道 · 이갑성李甲成 · 함태영咸泰永 · 김창준金昌俊 · 신석구申錫九 · 오화영 · 최성모 · 박동완 등의 기독교측 대표들과 만나 함태영이 최린崔麟으로부터 가져온 독립선언서와 기타 서류의 초안을 회람하고, 기독교측의 민족대표로 독립운동에 적극 가담하기로 하였다.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만나 최종적으로 독립운동 전개에 따른 계획을 검토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孫秉熙 등과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서울의 여러 교회에서 종교활동과 육영사업에 힘쓰다가, 말년에는 수원 남양교회南陽敎會를 맡아보면서 신사참배神社參拜를 거부하는 등 일제에 항거하다가 1932년 병사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삼 · 일운동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김익상金益相

경기도 고양 출신이다. 1895(고종 32)에 출생하였으며 몰년은 알려져 있지 않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평양 숭실학교를 졸업한 뒤 기독교학교의 교사로 근무하다가 서울로 올라와 광성연초공사廣城煙草公司의 기계 감독으로 근무하였다.

1920년 만주 봉천奉天으로 전근된 것을 기회로 비행사가 되기 위해 비행 학교가 있는 중국 광둥[廣東]으로 갔다. 그러나 중국 내전으로 인해 학교가 폐교되었으므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상해로 돌아왔다. 상해에서 전차 회사의 전차 감독이 되어 잠시 일을 보다가 항일 운동에 몸바칠 것을 결심하고 북경으로 가서 독립운동 단체인 의열단義烈團에 입단하였다. 1921년 단장 김원봉金元鳳으로부터 총독 암살 밀령을 받고 국내로 들어와 전기 수리공으로 변장하고 9월 12일 총독부에 잠입하여 2층 비서과(총독실로 오인)와 회계과장실에 폭탄을 던졌다. 비서과에 던진 폭탄은 불발이었으나 회계과장실에 던진 폭탄은 폭발하였다. 총독부가 폭발로 인해 혼란 상태에 빠진 틈을 이용하여 현장을 빠져 나와 평양을 거쳐 중국으로 무사히 탈출하였다.

1922년 일본의 전 육군대신이며 육군 대장인 다나카[田中義一]가 필리핀을 거쳐 상해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입수한 의열단으로부터 다나카 암살이라는 임무를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동지 오성륜吳成崙(본명 李正龍)과 같이 치밀한 계획을 세워 1차 저격은 오성륜이 담당하고, 만약 실패할 경우를 대비하여 2차 저격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거사 당일인 3월 28일 선편으로 황푸탄[黃浦灘]에 도착한 다나카가 배에서

내려오자, 준비하고 있던 오성륜이 다나카를 향하여 권총을 발사하였으나, 발사 순간 신혼여행차 상해에 오던 영국 여인이 다나카의 앞을 막아섬으로써, 총탄은 영국 여인에게 명중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이 때 계획에 따라 달아나는 다나카를 향하여 폭탄을 투척하였으나, 폭탄마저 불발하여 거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재빨리 현장을 탈출하려고 할 때 중국 경찰이 추격해 오자 공포를 쏘며 주장로[九江路]를 지나 쓰촨로[四川路]로 달아났으나, 즉사한 영국 여인의 남편이 쏜 권총에 맞고 쓰러져 붙잡히고 말았다.

4월 1일 상해 일본 총영사관에서 예심을 마치고 5월 3일 일본 나가사키[長崎]로 압송되어 9월 25일 나가사키지방재판소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으나, 검사의 공소로 공소원控訴院에서 사형이 언도되었다.

그 뒤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누차 감형되어 21년의 옥고를 치루었다. 귀향하였으나 일본 형사에게 연행된 뒤 소식이 없었고, 암살당하였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인용함)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朝鮮獨立運動暗殺史』(森川哲郎, 三一書房, 1976)

김석진金奭鎭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이다. 1843년 1월21일 태어나 1910년 9월 8일 일제의 조선강점에 항의하며 자결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본관은 안동安東이며 자는 경소景召, 호는 오천梧泉으로 출생 시 본래 이름은 태진泰鎭이다. 김상헌金尙憲의 후손으로 1843년 경기도 광주에서 생부 낙균樂均과 남원윤씨南原尹氏 사이에서 태어났다. 생부의 족형인 김도균金道均과 연일정씨 사이에 후사가 없자 그 아들로 들어가 후사를 이었다.

1860년 정시문과庭試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고 그 후 종친부宗親府의 관직을 거쳐 사과司果 전적典籍을 역임하고 지평持平 장령掌令 사성司成 사간司諫 등 청요직淸要職을 두루 거친 뒤 한성부 좌 우윤, 호조 이조 형조 공조의 참판, 형조판서, 광주부유수廣州府留守 통어사統禦使 등을 지내었다. 1896년에 특진관特進官에 이어 비서원경秘書院卿 장례원경掌禮院卿 귀족원경貴族院卿 등을 역임하였다. 1895년 명성황후 시해사건 등 일제의 침략에 통분하여 경기도 양평군 강상면으로 낙향하여 사안당思安堂을 짓고 와신상담하며 은거하였다. 1901년에 판돈녕부사判敦寧府事가 되었다. 1905년 11월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소위 「을사늑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침탈하자 즉각 이에 대한 반대투쟁을 전개하여 일제침략을 규탄하고 「을사늑약」의 파기와 을사5적의 처형을 요구하는 한편 "협박에 의한 조약은 공법상 폐기가 가능하니 외부대신을 불러 여러 외국 공사에게 성명을 내고, 매국 역도들을 죽여서 국헌을 바로잡고 인민을 생지옥에서 구하라"는 강경한 상소를 올렸다. 이어 "매국노들과 한 하늘로 머리를 들고 다닐

수도 없는데 하물며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한 줄에 설 수 없으니 의효전향관懿孝殿享官의 직을 물러나겠다고 하였다.당시 향관의 줄에 오적의 한 사람인 이지용李址鎔이 있었기 때문이었다.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여 나라가 망하자 일제가 주는 작위爵位를 거절했을 뿐 아니라 1910년 9월 8일 일제의 병탄에 항의하여 독약을 마시고 서울 오현에 있는 조부모 묘소의 재실인 창녕위궁재사昌寧尉宮齋舍에서 음독 자결하였다.

『고종실록高宗實錄』
『일성록日省錄』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 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출판부, 1971)
『朝鮮貴族列傳』(大村友之丞 編, 1910)

김수민金秀敏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 화도면이며 장단군 북면 솔랑리에 살았다. 1867년 태어나 1909년 12월 17일 의병장으로 활약하다가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한말 의병장으로 수민守民 · 수민洙敏이라는 이름으로도 활동하였다. 잔반殘

班출신으로 농업에 종사하였는데 어려서부터 무예武藝에 능하였다. 의병장으로 활약할 때 뛰어난 사격술을 가지고 있었으며, 전술에도 능하여 군사운용을 잘하여 지에 출몰하면서 기습적으로 일본군을 공격하고 화약과 탄약을 직접 제조하여 의병부대 전투력을 상승시켰다.

잔반 출신으로 일찍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여 특히 제2차 동학농민전쟁에서 적극적으로 농민군에 참여하여 국왕을 위협하고 국권을 침탈하고 있던 일본을 상대로 싸웠으며, 의병은 이라헌 반일투쟁의 연속성상에 있었던 것이다.

1907년 고종퇴위 · 군대해산 등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일어나자 농민을 조직화하여 항일운동세력으로 발전시킬 것을 결심하고, 8월 고향인 장단군 북면北面 솔랑리率浪里에서 인근의 산포수와 농민들을 중심으로 의병을 모집하였다. 이에 연천의 유생이면서 농업에 종사하던 전복규全福奎를 좌익장으로 하는 300여 명의 의병부대를 출범시켰다. 그리고 스스로 대장이 되어 개성군 대흥산大興山 창고에 보관중이던 관군의 대포 30문과 소포 150문을 빼앗아 병력을 강화시켰다.

이어 덕음동德蔭洞을 거점으로 군량을 비축하고 보부상褓負商을 모집하여 원근의 적정을 탐색하도록 하였으며, 산악전투에서 의병을 보호할 수 있도록 복장을 송백松柏의 위장색으로 염색하도록 하였다. 군용품의 충당에 있어서도 부호의 양곡과 의복을 징발하여 충당하였으며, 절대로 어려운 농민들로부터 징발하는 경우는 없었다. 부대이동에 있어서도 농민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것을 엄금함으로써 농민들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의병부대는 주로 향리인 장단 · 마전 등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1907년 10월 27일 김수민은 700명의 의병부대원을 이끌고 장단군 고랑포高浪浦를 습격

하여 일제의 헌병분파소 등을 불태웠다. 이후 예성강禮成江의 창릉포昌陵浦를 공격하고 이곳의 여각 주인 윤상정尹相廷에게 군자금 명목으로 곡식 수출 대금 300냥을 11월 15일까지 의병부대에 바치도록 하였으며, 이 일대에 방곡령을 선포하였다. 또한 석포席浦 철도 가교를 불태우고 개성을 네 방면에서 포위 공격할 것이라고 군사적 위세를 과시하였다.마전군 강동면으로 이동하면서 일본군과 교전하면서도 계속해서 의병모집활동을 전개하여 1907년 11월 900여명으로 늘어났다. 11월 27일 개성開城수비대와 격전을 벌였고, 열은동悅隱洞 일대에서 농민들을 재규합하여. 12월 부하 100명을 이끌고 이인영李麟榮 부대와 합병하고 이인영 · 이은찬李殷贊 등과 같이 장단 · 마전麻田 등 각지에서 세력을 떨쳤으며, 황주 · 해주 · 서흥 등지의 일본군 수비대와 여러 차례의 교전을 전개하였다. 이때 전체 의진을 20명에서 30명 정도의 인원으로 유격대를 편성한 뒤 1908년 4월 16일 구화장九化場 헌병분견소를 기습 공격하여 일본군 헌병을 살해하고 완전 점령하였으며, 다량의 병기와 탄약을 탈취하였다.

이 병기와 탄약으로 무장을 재정비한 뒤 장단 · 풍덕豊德 일대에서 맹위를 떨치다가 본래의 근거지에서 점차 남하하였다. 그리하여 1908년 10월 상순에는 강화도를 기습 공격하여 일본인을 처단한 뒤 강화도를 회복하였다. 이에 놀란 일제는 용산의 일본군 보병 제13연대 1소대 30명을 강화도로 급파하여 10월 30일 강화에 상륙시켰다. 이때 정족산鼎足山 전등사傳燈寺에 웅거하고 있던 약 100명의 의병들은 접근해 오는 일본군과 1주야에 걸쳐 격전을 벌여 이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일제는 전열을 가다듬고 재차 전등사로 돌격하였으나 그의 의병부대를 찾을 수 없었다. 일제는 이 기회에 강화도 의병들을 소탕시킬 목적으로 대수색 작전을 전개하였다. 그들은 개성 수비대의 30명, 용산 주차駐箚 일

본군 보병부대의 장졸 70명, 해주海州 수비대의 장졸 34명, 연안延安 수비대의 장졸 7명 등을 동원하여 3일 동안 의병 소탕전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유격대원들은 정두동亭頭洞에 매복해 있다가 지척지간까지 접근, 적군에게 집중 사격을 가하여 7명 중 4명을 사살하고 서북방으로 후퇴하였다.

1909년 2월 적성積城에서 그리고 3월에 강원도 · 충청도 · 황해도 일대에서 연기우延基羽 · 하상태河相兌 · 이진룡李鎭龍 · 한정만韓貞萬 · 이인순李仁淳 · 정용대鄭用大 등과 연합하여 활약하였다. 그 뒤 적극적인 항일전을 기도할 목적으로 서울에 들어가 인력거꾼을 가장하며 적정을 탐지하다가 일제에 붙잡혀 순국하였다. 화약과 탄약까지 제조할 줄 아는 의병장으로 유명하며, 용감하고 전술에도 능하였다.

그는 서울의 정세를 살피고자 의병부대를 동생이자 선봉장이었던 김백수金白洙에게 맡기고 다시 서울로 잠입하였다. 인력거꾼으로 위장하고 서울에 잠입한 김수민은 북부北部 제동齊洞에 거주하면서 적정敵情을 살피었다. 그 과정에서 경성구세군京城救世軍에 가입하였다고도 한다.

그러나 김수민의 서울 잠입은 일제에 의해 포착되었다. 일본군은 이전에 서울에 잠입했던 김수민을 체포하려다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서울 곳곳에 밀정 등 비밀 정탐객을 심어놓고 감시의 눈을 번뜩이고 있었다. 더욱이 경시청과 헌병대사령부가 경쟁하듯이 정탐객을 변장시켜 김수민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체포된 후 헌병대사령부에서 취조를 받으며 모진 고문 속에서도 "나를 죽일지 살릴지 빨리 결정할 것이고, 나에 대하여 장황하게 질문하여도 답할 것이 없다"고 하며 끝까지 동료 의병을 보호하며 일본군의 고문을 이겨내고 있었다. 그러나 일제는 소위 내란죄라고 하여 교수형에 처하고 마침내 12월 7일 교수형

을 당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독립운동지혈사(韓國獨立運動之血史)』(박은식, 1920)
「의병전」(윤병석, 『한국근대사료론』, 일주각, 1979)

오영선吳永善

본적은 경기도 고양군 한지면 이태원 435 이다 1886년 4월13일 태어나 1939년 3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죽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가족으로는 어머니와 두 남동생이 있었다. 호는 석농石農이고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총리를 지낸 이동휘의 둘째 사위이다.

어려서 배재학당에 들어가 신학문을 배웠다. 대한제국의 육군무관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일제가 1907년 8월 군대를 강제 해산시키면서 무관학교도 사실상 폐지되어 그는 대한제국 장교의 꿈을 접어야 했다. 이후 그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나 도쿄물리학교(현 도쿄이과대학)에 입학했으나 배일사상이 문제가 되어 퇴학 처분을 받았다. 영선은 당시 이동휘가 세운 개성 읍내 사립 보창학교

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비밀 결사였던 신민회新民會에 가입하여 국권회복운동에 참가했다. 1909년 그는 이동휘의 초빙을 받아 캐나다 선교회 그리어슨(Robert Grierson) 선교사 세운 함경북도 성진군 협신중학교의 교사로 활동했다. 그는 이런 활동을 통해 국권회복에 앞장섰던 '이동휘의 교육생'이 되었다.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강제 병합하자 이동휘는 그해 말에서 1911년 1월 사이에 '이동휘의 교육생'이라고 불렸던 계봉우, 김하석, 정창빈, 장기영 등 30여 명을 기독교 포교를 명분으로 대거 북간도로 망명하였다

1914년 12월 이동휘와 함께 길림성吉林省 동녕현東寧縣 나자구羅子溝에 대전학교大甸學校(일명 東林武官學校)를 설립하고 교관으로 재직하면서 독립군 양성에 힘썼다. 그러나 학교는 설립된 지 1년도 안된 1915년 말경 간도 일본영사관의 압박을 받은 중국 당국이 학교 폐쇄 조치를 내려 문을 닫아야만 했다. 대전학교가 폐쇄되자 1917년 1월 이동휘와 함께 훈춘의 대황구大荒溝로 가서 양하구, 김도연 등과 협의하여 대전학교의 교육이념을 계승한 북일중학교를 설립하여 교사로 근무했고 그와 함께 온 학생들도 다시 교육을 받게 되었다. 1917년 2월 러시아혁명을 계기로 러시아 한인사회에서 항일활동이 활발해지던 1918년 남공선, 김립, 장기영 등과 함께 연해주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교육계몽과 무관양성을 위해 노력했고 그가 교육한 많은 학생들이 이후 간도와 연해주에서의 항일무장 투쟁을 이끌었다.

1920년 연해주에서의 활동을 정리하고 이동휘가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있던 상해로 왔다. 1920년 2월 임시의정원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되었고, 9월 20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국무원 비서장에 임명되어 국무총리의 활동을 보좌했다. 1921년 1월 국무총리를 그만두고 상해를 떠났다. 이에 따라 2월 오영선도

국무원 비서장에서 면직되었다.

1923년 10월 상해上海 거주 한인독립운동가들이 조직한 교민단僑民團의 의원으로서 교민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였으며 동년 상해에서 국민대표회國民代表會가 설립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 옹호파와 국민대표회의 개조파에서 헌법기초위원憲法起草委員으로 활동하였다. 1924년 상해 교민단의사회僑民團議事會의 학무위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무총장을 지냈다. 1925년 중국 동삼성 소재 항일독립운동단체의 분규를 수습 · 조정하고, 대한적십자회大韓赤十字會의 총재 직무대행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1926년 임정경제후원회 발기준비회원회 위원, 상해 대한미국임시정부의 신임시약헌新臨時約憲이 공포되어 개각된 김구金九 국무령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무위원에 선임되었다. 1927년 외무부장에 임명되고, 1928년 군무부장으로 활약하며 민족유일당 건설을 위해 힘썼으나 장개석이 일으킨 '반공쿠데타' 이후 급격히 바뀐 중국 정세와 함께 끝내 독립운동 내부의 분열을 극복하지 못하여 1929년 10월 상해촉성회가 해산성명을 발표함으로써 사실상 막을 내렸다. 1931년 11월 제23회 임시의정원에서 경기도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병 때문에 회의 참석이 불가능하여 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후 오영선은 상해에서 병으로 요양하다가 1939년 3월 10일 사망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3 · 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현희, 동방도서, 1987)

『한국독립운동사자료』1(국사편찬위원회, 1973)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8 · 13(국사편찬위원회, 1969 · 1973)

『한국독립운동사』2 · 3(국사편찬위원회, 1966)

『高等警察要史』(慶尙北道警察局, 1934)

『朝鮮民族運動年鑑』(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1932)

나중소羅仲昭

경기도 고양출신이다. 본관은 나주羅州이며 아명雅名은 봉길奉吉이다. 별명은 나비장군이며 자는 영훈泳薰, 호는 포석抛石이다. 생몰연대는 1867(고종 3)~1928이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무과 출신자로 여겨지며 대한제국의 무관학교에서 수학하였다. 연성학교에서 육군 정위로 복무하였으며 1907년 9월 군대해산 후 일본육군사관학교에 선발되어 국비유학생으로 유학하였다.

1908년 귀국하였으며 1910년 국권이 일제에게 침탈당하자 만주로 망명하여 항일투쟁에 나섰다. 만주 망명 이전에는 나영훈羅泳薰을 이름으로 사용한 것이 『고종실록高宗實錄』 및 「나영훈 이력서」등에서 보이나 망명 이후에 비로소 나중소羅仲昭로 개명한 것으로 여겨진다.

1919년 서일徐一 · 김좌진金佐鎭 · 현천묵玄天默 · 이범석李範奭 등과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조직하였으며, 독립군 양성을 위하여 왕청현汪淸縣에 설립된 사관양성소 교성대장敎成隊長을 맡아 무장항일투쟁의 실력을 길렀다.

1920년에 일본군 19사단과 21사단이 북로군정서를 목표로 양협작전을 전개한다는 정보에 따라 임전조직의 단행으로 참모장에 취임하였다.

같은 해 10월 하순(21~26일) 대소 10여 회의 청산리대첩에서 참모장으로 총사령관 김좌진과 함께 사상 유례 없는 대승을 거두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1920년 겨울, 대한독립군단의 일원으로 노령露領에 들어갔다가 소련의 기만을 예견하고 김좌진과 함께 북만주 영안寧安으로 돌아와 애국지사들을 규합하여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고 참모부 위원장을 맡아 무장항일투쟁의 구체적 계획을 작성하였다.

한편, 목릉현穆陵縣 소추풍小秋風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여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는 데에 힘썼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에서 인용함)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독립운동사』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3)

『한국독립운동사』3(국사편찬위원회, 1967)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광주의 인물

신익희申翼熙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초월면 서하리 사마루社村이다. 1894(고종 31) 6월 9일 태어나 1956년 5월 5일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호남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소론계 명문가 출신으로 태어났으며 본관은 평산平山이다. 아버지는 문희공파 후손 신단申檀이고 그의 넷째 부인 동래 정씨 경랑敬娘 사이에서 둘째로 태어났다.

큰형 신규희의 문하에서 수학하여 7살때에 사서삼경을 모두 독파했다. 7~8세때에 삼국지연의와 수호전 등을 읽다가 열 살 이후에는 반계수록, 연려실기술 등의 서적을 독파하였다고한다. 1905년 형 신규희의 추천으로 광주 남한산성의 소학교에 입학했다.

1908년 한성관립외국어학교 영어과를 입학하여 1910년 졸업한 뒤 1911년 혼인한 뒤 1912년 일본 와세다대학 정경학부에 입학하여 학우회를 조직하여 학

지광學之光을 발간하며, 조국광복을 고취하면서 윤홍섭, 장덕수 등과 단지斷指로서 조국 독립운동에 주력할 것을 맹서盟誓하고 조직을 확대하였으며 1916년 와세다대학교 정경학부를 졸업하고 귀국하여 보성법률상업학교(고려대전신)에 비교헌법, 국제공법, 재정학등을 강의하였다.

1918년 최린 · 송진우 등과 독립운동을 논의하였다. 1919년 김시학金時學 · 윤치호尹致昊 · 이상재 · 남강 이승훈李昇薰 등과 함께 함께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봉기할 것 등을 협의하였으며, 국내 동지들의 특파로 독립운동을 계획하던 상해방면의 독립운동 지사들과 연락하기 위해 상해上海로 파견되었다. 1919년 돌아와 김시학金時學, 윤치호尹致昊, 이상재李商在, 이승훈李昇薰 등과 모여 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민중봉기할 것 등을 결의하고 3 · 1운동 때는 해외와의 연락 임무를 맡았다.

3.1운동 직후 3월 2일 일경의 체포를 피하기 위해 그는 상주 복장을 하고 경성에 도착하였다. 3 · 1운동 중 독립운동자에 대한 검거열풍 속에서 등사판을 빌려다가 독립선언서를 인쇄하여 시내에 배포하였다.

1919년 3월 다시 중국 상해로 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에 참여하여, 26년간의 망명생활을 시작하였다. 그곳에서 대한민국임시헌법을 기초하고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초대 대의원과 초대 내무차관을 지냈으며, 그뒤 내무총장 · 법무총장 · 문교부장 · 외무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고, 국무원 비서실장과 의정원 부의장을 겸임하였다. 1927년 중국 정부요청으로 국민군중장에 위촉받고 남경정부 심계원 고문으로 위촉받았으며, 도와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여 임시정부 재정에 도움을 주고 한중합작전선韓中合作戰線을 도모하였다다. 1933년 김규식, 김원봉 등과 같이 대일전선 통일 동맹을 결성하여 대일항전을 전개하기도하였으

며 1937년 김인철과 조선민족투쟁동맹을 결성하여 중국 각지에서 항일抗日 독립운동을 전개 지도하였다.

1942년 6월에 임시정부에서는 외교연구위원회外交硏究委員會를 설치하기로 하고, 23일에 외교위원회 규정을 공포하여 외교 전반에 관한 문제를 연구, 제공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는 장건상張建相 · 이현수李顯洙 · 이연호李然浩와 함께 연구 위원으로 선임되어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으며, 이듬해 2월에는 박찬익朴贊翊 · 최동오崔東旿 · 김성숙金星淑 · 유림柳林을 연구위원으로 임명하여 그 진용을 보강하니 여기서 중대시국에 임시정부의 외교활동도 비로소 그 체제를 갖추게 되었으며, 이때 그는 부회장에 임명되었다.

1943년 4월부터는 새로이 대한민국 잠행관제暫行官制가 실시됨과 함께 정부 행정부의 한 부처로 선전부가 새로 설치를 보게 되니 여기서 선전 업무는 좀더 강력히 집행할 수 있었다. 즉 이때 새로 설치된 선전부에는 총무 · 편집 · 발행의 3과와 함께 선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일체의 선전 사업과 각종 선전 지도를 총할하여 행하게 되었는데, 초대 선전부장에 김규식金奎植이 선임되었으며, 그는 조소앙趙素昻 · 엄항섭嚴恒燮 · 유림柳林 등과 함께 선전계획 수립, 선전진행 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선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즉 그는 임시정부의 초창기부터 시작하여 내무차관, 내무총장, 국무원 비서장, 법무총장, 내무 · 외무 · 문교부장 등을 두루 역임하였으며, 조국이 광복될 때까지 끈질기게 항일 독립투쟁을 계속하였다. 1944년 좌우합작 연립내각을 수립함과 동시에 임시정부 내무부장에 다시 취임하여 대일 항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는 중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한국청년들에 의한 군대조직을 시도해 보기도 하고, 중국혁명군과 연결하여 한중합작에 의한 군사행동의 실현을 추진해 보기도 했지만 소

기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해방 후 1945년 임정요인 자격으로 귀국하여 대한독립촉성국민회를 만들어 부회장을 맡았으며, 1946년 대한민국 건국 후에 필요한 인재 양성을 위하여 국민대학교를 창건하고, 행정연구반을 구성하여 건국후 시행할 행정자료를 수집게하였으며 제8대 대한체육회 회장에 추대되었고, 12월에는 조선과도입법의원에 당선되었다. 1947년 입법의원회 의장에 피선되어 대한민국 헌법과 건국에 필요한 법률을 기초하고 제정하는데 주력하였다.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께 경기도 광주에서 무투표로 당선되어 제헌국회에 진출하고, 대통령으로 뽑힌 초대 국회의장 이승만李承晩의 뒤를 이어 국회의장이 되었다. 그뒤 1947년 대한국민당을 결성하여 대표최고위원이 되었으며, 1950년 한국민주당과 합당, 개편된 민주국민당의 위원장으로 뽑혔다. 그는 권력의 연장을 위하여 영구집권을 획책하던 이승만으로부터 민심이 떠나자, 1956년 야당의 대통령후보로 출마하였다. 그해 5월 2일 한강백사장에서 열린 그의 유세에는 많은 인파가 모여 그의 국민적 기대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사흘 뒤인 5월 5일 호남지방에서의 유세를 위하여 전주로 가던 중 기차 안에서 심장마비로 죽었다. 국민장으로 장례가 치러졌으며 서울 우이동에 안장되었다. 광주시 초월읍 서하리에는 그의 생가가 남아있는데 1925년 을축년 대홍수때 파손된 것을 200미터가량 옮겨 다시 지은 집으로 6 · 25때 사랑채가 폭격으로 파괴되었으나 개축하였고 1994년에 안채를 보수하였다. 경기도 기념물 제134호로 지정되었다.

『申翼熙』(新聞學會, 1956)

『申翼熙先生의 一代記』(金夕影, 早稻田大學同窓會出版部, 1956)

『(해공)신익희 연구』(이현희 · 정경환 · 오영섭, 삼화출판사, 2007)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이종훈李鍾勳

본적은 경기도 광주 실촌면 유사리이다. 1856년 3월 2일 태어나1931년 5월 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동학농민전쟁 당시 북접 지도자로 활동하였고, 3.1독립선언 민족대표 33인 중 최고령자이다. 이후 손병희선생의 천도교 창건 시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고려혁명당의 고문으로 활동하며 민족독립운동에 헌신하였다.

25살쯤에 동학에 입도하여 1894년 척왜斥倭를 기치로 동학농민전쟁의 2차 봉기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동학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경기, 충청, 강원을 망라한 20여개가 넘는 포를 지휘하며, 논산에서 남접 지도자 전봉준과 합류, 남북접 연합군을 만들어 동학군의 대본영을 설치하였다. 하지만 남북접 연합군은 이후 병영군과 정부군의 습격을 받아 접전을 벌였으나 패하고 충청도를 배회하며 은거 생활에 들어갔다.

1897년 손병희가 제3대 동학교주에 되자 천도교 중앙총부의 고위 간부가 되고 1898년 6월 천도교 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이 서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자, 옥리를 매수하여 시신을 빼내어 경기도 광주에서 장례를 치르는 대담함을

보였다. 1910년대에 들어와서는 대종사장에 이어 도사실 최고직인 장로에 임명되었다. 1919년 천도교는 조직적으로 3.1운동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대표 중 천도교인은 모두 15명이었다. 이들은 천도교를 이끄는 핵심간부들로 모두 동학농민전쟁, 갑진개화운동, 대한협회 혹은 일본 유학생 단체의 간부로 활약한 정치 경력을 가진 인물들이었다. 손병희는 천도교 기관의 총대표로, 권병덕은 천도교중앙총부 대표로, 최린 은 보성학교 대표로, 이종일 은 천도교월보사 대표로 참여했다. 그리고 홍병기와 도사 권동진, 오세창, 양한묵, 임예환, 홍기조, 나용환, 나인협, 김완규, 박준승 등이 서명에 참여했다.

중앙교단의 장로였던 그는 2월 25일 권동진과 오세창을 만난 자리에서 독립 선언 참가 제의를 받고 수락했다.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의 민족대표 중 선생이 최고령자였다. 3.1독립선언 이후 체포된 선생은 재판정에서 그는 판사가 "조선 독립에 대해 크게 갈망하고 있으며 한일병합에 극렬히 반대하였냐"고 묻자, "조선 민족으로 어찌 그 마음이 없겠소"라며 당당히 응수했고, "독립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선민족이 자유를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독립하려고 하였다"고 대답하였다 한다.

한편 1920년대 초반 문화운동과 계급운동의 여파로 사회전반에 민주주의, 특히 자유와 평등을 구가하는 시대풍조가 확산되면서 천도교 내에서도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 '독재에서 중의로', '차별에서 평등으로'의 방향 전환을 촉구하는 본격적인 혁신의 바람이 불었다.

그는 천도교 내 혁신파를 지지하며 1926년 고려혁명당에서 활동하였다. 고려혁명당은 1926년 4월 5일 중국 길림에서 만주의 정의부 계열과 국내의 천도교 혁신파, 형평사가 연합하여 결성한 민족유일당운동의 선구격인 통일전선체

였다. 고려혁명당이 국내외 조직의 연합, 합작을 통해 지향한 것은 만주를 중심으로 무장투쟁을 전개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모색하는 민족유일당이었다. 고려혁명당의 고문을 맡아 활동하였다. 하지만 1926년 12월 고려혁명당사건이 터져 혁신파 간부 대부분이 투옥되고 천도교 혁신을 주장하는 최동희마저 1927년 1월 상해에서 폐병으로 사망함으로써 고려혁명당 내에서 혁신파의 위상은 완전히 무력화되고 말았다.

출옥 후 천도교 원로로서 혁신 운동을 지지하고 도왔지만, 최린, 이종린 등 새로이 부상한 천도교 지도자들이 보수 전선을 형성하고 자신이 출교의 치욕을 겪게 되자, 결국 그들에게 굴복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의 위상을 무시할 수 없는 천도교 주류 세력은 그에게 오세창, 권동진, 나용환, 오영창, 홍병기 등과 함께 장로로 대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도교 원로로서의 그의 위상에는 적지 않은 손상이 갔고, 점차 비주류의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삼일운동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유공자 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구연영具然英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 73이 본적이다. 1864년 6월 20일 태어나 1907년 7월 16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어려서 한학漢學을 수학하고 한때 정부관리로 재직하였으나 기울어가는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관직을 사임하였다. 그후 일제의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와 단발령 공포에 격분, 일제를 이땅에서 구축하기 위해 1895년 11월 16일 이른 아침에 한강을 건너 17일에 이천군에 들러 화포군도영장火砲軍都領將 방춘식方春植을 불러들여 포군명부를 가져다 놓고 포군 백여 명을 징발하였다.

그후 그는 2개 대의 포군을 거느리고 양근楊根 · 지평 두 고을로 떠났다. 1895년 12월 31일 김하락金河洛 · 조성학趙性學 · 김태원金泰元 등과 함께 거의擧義하여 경기도 이천利川에서 이천수창의소利川首倡義所를 결성하였다. 구연영이 양근陽根 · 지평砥平에서 300여명, 조성학이 광주산성에서 300여명의 군사를 모집하였으며 인근 지역의 민중들이 이에 자발적으로 호응하여 농민과 관포수官砲手를 중심으로 900여명의 군사를 규합하였다. 따라서 이천수창의소는 경기도 연합의진의 성격을 띠었으며, 전투적이고 대규모적인 조직편제를 갖추었는데 창의대장에 민승천閔承天, 각군도지휘各軍都指揮에 김하락이 선임되었고 그는 중군장中軍將을 맡았다.

동 의진은 1896년 1월 백현魄峴에서 일본군을 섬멸하였는데, 백현전투는 을미의병 사상 최초의 대규모 승리였을 뿐 아니라 의병봉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한 쾌거였다. 이어 2월 이현梨峴에서 일본군과 접전을 폈으며 전

열을 재정비하여 2천여 명으로 군세軍勢를 증강한 후 심진원沈鎭元의 광주의진廣州義陣, 이석용李錫容의 양근의진陽根義陣과 함께 남한산성의진南漢山城義陣을 형성하여 남한산성을 공략, 입성하였다.

이들은 산성을 방어하는 한편 서울진공을 통해 일제를 몰아내기로 하고 이를 위해 우선 수원水原을 점령하고 주변의 의진과 연합하여 서울진공계획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일제의 사주를 받은 관군의 공격으로 1896년 3월 남한산성이 함락됨으로 인해 계획이 좌절되었다.

이에 따라 동 의진은 경북 의성義城으로 이동하여 재기를 도모하였으나 그는 동년 4월 의진과 결별하고 이천으로 돌아왔다. 이후 그는 1897년 기독교에 입문하여 1898년 서울 상동교회尙洞敎會에서 웹엣청년회를 조직,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1902년에는 전도사로서 이천을 중심으로 포교활동에 전념하였다. 1907년 정미의병이 일어나자 그는 장춘명張春明 · 한창섭韓昌燮 · 차화춘車化春 등 수십명의 동지와 함께 구국회救國會를 조직하고 신도대회를 통해 매국단체 일진회一進會를 성토하며 항일투쟁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구국계몽활동을 폈다. 또한 이천 · 여주驪州 · 광주廣州 일대를 순회하며 상인들의 철시투쟁을 유도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던 중 1907년 7월 16일 일본군 수비대에 의해 구국회 지도자들이 피체될 때 피살 · 순국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이희승李熙昇

경기도 광주군 의곡면 포일리(현 의왕시 포일동)에서 출생하여 경기도 개풍군과 시흥군에서 유년기를 보낸적이 있다. 1896년 6월 9일 태어나 1989년 11월 27일 사망하였다. 서울 종로구 동숭동 25의 1번지에서 살았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03년부터 5년간 사숙에서 한문을 수학하였고, 1908년 이정옥李貞玉과 혼인한 다음 곧 상경하여 관립 한성외국어학교 영어부에 입학하였으나, 1910년 경술국치로 이 학교가 폐교되어 3년만에 졸업하였다.

이어 1911년 9월까지 경성고등보통학교에서 수학하고 1912년부터 1913년까지 양정의숙養正義塾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1914년 사립 신풍학교新豊學校 교원으로 취임하고, 한편으로 1915년 사립 중동학교 야간부에 다녔으며, 이어 1918년 사립 중앙학교 4년을 졸업하였다.

같은해 경성직뉴주식회사京城織紐株式會社에 서기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19년부터 4년 반 동안 경성방직주식회사에 근무하였다.

1923년 전문학교 입학 검정 시험에 합격하여, 1925년 연희전문학교 수물과數物科를 졸업하고 이어 1927년 경성제국대학 예과를 수료한 다음, 1930년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 조선어학 및 문학과를 졸업하였다.

같은 해 조선어학회에 입회하여 간사(이사)와 간사장(대표간사) 등을 역임하면서 이 회에서 추진하고 있던 '한글맞춤법통일안'을 1933년에, '표준어사정標準語查定'을 1937년에 완성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1942년 10월 1일 조선어학회사건으로 검거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

흥형무소에서 1945년 8월 17일까지 3년 동안 복역하였다.

1945년 8 · 15광복 후에는 서울대학교의 교수와 한글학회 이사를 역임하면서 국어국문 연구에 큰 업적을 남겼다.

『일석선생의 학문세계』(강신항, 현정회, 1990)

「일석이희승박사연보」(국어학회,『국어학』14, 1985)

김교헌金敎獻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언주면 역삼리55(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이다. 경기도 수원군 구포리에서 1867년 7월5일 부친 김창희와 모친 풍양 조씨 사이에서 장남으로 태어나 1923년 11월 18일 대종교 본사 수도실에서 순국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본관은 경주. 자는 백유伯猷, 호는 무원茂園. 당명은 보화普和, 뒤에 이름을 헌獻이라고도 하였다. 아버지는 공조판서 창희昌熙이며, 어머니는 풍양조씨豊陽趙氏로 판관을 지낸 희필熙弼의 딸이다. 독립운동가 · 대종교 제2대 교주를 지냈다.

18세가 되던 해인 1885년 정시문과 병과에 급제하여 병조참의 · 예조참의 · 대사성 등을 역임하였다. 1898년 독립협회에서 계몽운동에 참여하였으며, 독립협회 지도자 17명이 구속되자 대표위원으로 선정, 만민공동회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1903년 『문헌비고』 편집위원을 지내고, 이어 『신단민사神檀民史』

를 저술하여 민족의식을 고취시켰다.

1898년부터 독립협회에서 간부진들이 고종과 내각을 대상으로 개혁내각 수립과 의회개설운동을 요구하다가 구속되자, 독립협회의 대표위원으로 민중 계몽에 앞장섰다.

1906년 동래부사에 임명되어 부산으로 내려갔다. 여기서 통감부의 비호 아래 일본인들이 한인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침탈과 만행을 자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민족의식을 자각한 선생은 일본인들의 횡포를 제지하다가 친일파 송병준의 모함을 받고 해직되었다.

그뒤 비밀단체인 신민회新民會 회원과 교우 관계를 맺었으며, 조선광문회朝鮮光文會에 들어가 고전간행사업에 참가하였다. 1909년 규장각부제학으로서『국조보감』감인위원監印委員을 지내기도 하였다.일찍이 민족의 기원과 민족사의 연구에 뜻이 깊어, 대종교가 중광重光된 해부터 교인이 되어 각종 문헌을 섭렵, 교敎의 역사를 정립하였다. 한편, 영계靈戒를 받고 총본사總本司의 부전무副典務 · 경리부장이 되고, 도사교위리都司敎委理 · 남도본사전리南道本司典理 · 총본사전강總本司典講을 역임하였다.

조선총독부가 1915년 10월 포고규칙을 발표하고 대종교를 독립운동단체로 규정하여 탄압을 가하자 1916년 9월 대종교 제2대 도사교都司敎가 되고, 1917년 일본의 탄압을 피해 총본사를 동만주 화룡현和龍縣으로 옮기고 교세 확장을 통한 항일무장투쟁 역량을 강화하고자 46개의 시교당을 각 지역에 설치하여 독립운동 강화와 동포들에 대한 독립정신교육에 전념하였다. 1918년 12월 대종교 교주로서 대종교 주요 인사와 해외에서 활동하는 독립운동가와 함께 뜻을 모아 〈대한독립선언서〉를 작성하여 무오독립선언서에 주동적 역할을 하였다. 이

를 통해서 세계 각국에 '한일합방'은 무효임을 선언하고, 향후 수립될 국가는 자주 · 독립적인 민주공화제에 기반을 둘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같은해 대종교 교인이 중심이되어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조직하고, 총재에 서일徐一을 임명하는 등 적극적인 무력투쟁을 전개하여, 1920년 청산리전투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였다. 그뒤 일본군의 탄압을 피해 총본사를 영안현寧安縣으로 옮겨 선도포교사업宣道布教事業을 통한 항일구국투쟁에 진력하다가 사망했다. 저서로 『신단민사』 · 『단기실기檀記實記』 · 『홍암신형조천기弘巖神兄朝天記』 등이 있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대종교중광60년사』(대종교편수위원회, 대종교총본사, 1971)

『독립협회연구』(신용하, 일조각, 1976)

「대종교의 독립운동에 관한 연구」(박영석,『사총』21 · 22합집, 1977)

김범이金範伊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지곡리池谷里이다. 1884년 태어나 의병활동을 하였으나 몰년을 알려지있지 않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07년 어윤성魚允成 의병부대에 가담하여 같은 해 11월 13일 경 의병 수십명과 광주 송파진의 객주집에서 군자금 30원을 거두었다. 1907년 12월 5일 경에

는 최모崔某 의병부대와 연계하여 조선을 침략한 일본인 경찰과 일본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가하여 일제의 조선 침략을 응징하는 한편 군자금과 군수품을 확보하기로 하고, 무장한 동료 의병 약 100명과 함께 서울 외곽의 뚝섬을 공격하여 순사파출소를 습격하여 모포 · 시계 · 총기 · 비품 등을 빼앗고 일본인 이즈모[出雲口太郎]의집을 습격하여 처단하고 군자금을 거두었다. 항일의병투쟁을 계속하다가 일제에 의해 붙잡혀 1909년 10월 2일 경성지방재판소를 거쳐, 1909년 11월 15일 경성공소원에서 징역 15년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 12(국가보훈처, 1996)

이명하李命夏

본적은 경기도 광주군 대왕면 궁촌리이다. 1878년1월23일 이인협李寅協의 아글로 태어나 1921년 3월 3일 일본경찰과교전을 벌이다가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조선시대 전통사대부가의 후손으로 자는 우문又文. 호는 몽학夢鶴이고 초명은 계윤桂允이다. 의병장으로 활약한 유인석柳麟錫의 문인이다.

9세 때 충북 제천으로 이사해 유인석 문하의 선생으로부터 한학과 시국을 보는 눈을 배웠다. 그 후 마을 유지인 정씨 집안의 딸 정운이鄭雲伊와 결혼하였

고 20살이 되었을 때 서울에 올라가 백부 이인규李寅奎의 양자로 들어가면서 성균관에 입학했다. 근대 교육기관으로 변신 중이던 성균관에서 한학과 신식학문을 수학하여 신구학문을 겸비하고 근대적 민족의식을 습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 제천군 주사로 봉직하며 국민 계몽을 위해 황학수 · 구연학 · 김진태 등 유지들과 동명학교를 세워 교육계몽운동을 폈다.하지만 1905년 을사늑약과 1907년 정미7조약이 강제 체결되어 국권이 훼손되고 일제의 내정간섭이 심화되자 과감히 관직을 박차고 나왔다. 쓰러져가는 국권을 바로 잡고, 국망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의병운동에 투신한 것이다.

유인석의 문하로 문경에서 거의한 이강년 의병진에 참여하여 소모장으로 활동하면서 일본 군경과 무장투쟁을 벌이고, 친일관리들을 숙청하여 민족의기를 드높였다. 나아가 이강년 의병장과 함께 1907년 말 13도창의군을 결성하여 서울진공전을 전개하는데 힘을 보탰다. 이후 이강년 의병장의 지시로 각지로 다니며 의병운동의 발흥을 촉구하다가 일경에 피체되어 옥고를 치렀다.

연해주에 있던 스승 유인석이 국내 진공을 위해 1910년 6월 21일(음 5월 15일) 13도의군十三道義軍을 조직하고 도총재都總裁로 추대되어 국내 진공 작전을 실시하려는 것에 맞춰서 총 42명의 동지들과 연합하여 의병과 해산 군인들을 모으는 「통문」을 작성 배포하여 의병거의를 재촉하고 아울러 병력을 모집하는 일을 추진했다. 그리고 황해도 서남 일대에서 활동하던 이진룡 의병장을 찾아가 경의선 계정역의 철도를 봉쇄하고 일본군열차를 습격하여 적의 보급선을 차단하는 등 50여차례에 걸친 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일본군이1911년 9월 하순부터 11월 초순까지 대대적인 의병탄압을 자행해 이진룡 부대원 250여 명이 희생되자 이진룡은 만주 서간도지역으로 망명하였다. 이 때 이명하도 망명을 결심

하고 유인석 등 지인들이 있는 남만주지역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일제에 대항하는데 좋은 조건이 구비된 지역인 평정산平頂山 난천자暖泉子 고려구高麗溝, 보락보진普樂堡鎭, 관전현寬甸縣 청기산진靑倚山鎭, 관전현 우모오牛毛塢 · 홍통구弘通溝 · 향로구香爐溝 · 하로하下露河 · 합니하哈泥河 등 여러 지역을 다니며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가운데 국내에서 3 · 1운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간도 지역에서도 1919년 3, 4월을 전후하여 만세운동이 각 지역에서 일어났다. 의병세력들은 효과적인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이들 대중의 힘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고, 이들 대중을 움직이고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통합된 독립운동단체의 조직이 필요함을 느끼게 되었다.

따라서 1919년 4월 15일 각 지역에 산재해 있던 보약사 · 농무계 · 향약계 · 포수단 등의 대표 및 다른 의병계열의 인사 등 560여 명이 자신들의 단체를 해체하고 유하현 삼원보 서구 대화사大花斜에다 본부를 두는 대한독립단을 창단하였다. 대한독립단은 의병을 기간으로 하며 한국으로부터 계속해서 건너오는 많은 청년들을 받아들여 남만주 제1사단이라는 무장조직을 갖추었다. 이 사단은 본부와 4개의 중대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19년 8월 중순에 이르면 이미 병력이 1,500명이나 되었다. 이때 그는 삼도구에 있던 제3중대에 배속되게 되었다. 남만주 제1사단 소속의 각 중대 병력은 수시로 자신들이 주둔하는 곳을 떠나 압록강을 건너 한국 영내로 들어가 일본 군경의 주재소를 습격하고 친일분자들을 처분했다. 이명하 의사 또한 여러 차례 중대장인 백송암白松菴을 따라 국내로 진입하여 일본 군경과 전투를 벌여 많은 전과를 올렸다.

그는 박초식朴初植 등 일부 대한독립단원과 함께 1920년 5월 의주에서 결성된 보합단과 연계하여 용천, 의주, 선천 등지에서 군자금을 모집하였고 일제의

행정기관을 파괴하고 밀정을 숙청하는 등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활동 도중 일군의 공격을 받아 보합단원 다수가 희생되거나 체포되었고 이명하는 간신히 탈출하여 거점을 중국 안동으로 옮겼다. 안동지역은 당시 한인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친숙한곳이어서 이명하를 비롯한 대원들에게는 굶주림과무기를 해결해 주고 일본군의 동태를 파악하며 대처하는데 유리한 곳이었다.

1921년 3월 2일에는 안동현 삼도구만(현 중국 요녕성 단동시 振安區)에 와서 군수품 등을 마련하던 중 일본영사관 분관의 한 관원경찰을 암살하였다. 이때 일경에 발각되어 의주대안의 안동현 삼도구만 부근으로 밀려가 대치하게 되었고 물샐 틈 없이 포위한 일본 경찰들과 하루 밤낮을 교전하다가 순국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통진, 김포의 인물

유명규劉明奎

경기도 통진군 출신이다. 생년은 알 수 없고 1907년 9월 6일 사망하였다. 이명은 유명계劉明啓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07년 8월 군대해산령이 내려지자 8월 1일부터 원주 진위대의 반대 의거가 있었고, 이어 8월 9일에는 진위 제1대대(본부는 수원) 강화 분견소 병사들도 해산을 거부하고 봉기하였다.

진위대 하사를 역임한 바 있는 유명규는 강화 진위 분견대 부교副校 지홍윤池弘允과 함께 주민 약 5백 명의 호응을 얻어 사졸 50명과 함께 소대장 부위 민완식閔完植과 참위 민영락閔泳洛에게로 달려가 무기를 내어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들이 거절하자 사졸들과 주민들은 무기고로 달려가 돌로 무기고를 파괴한 후 무기를 탈취하였다. 민완식이 그들을 만류하자, "소대장을 죽여라"하고 외치면서 달려들어 해치려 하는 바람에 민완식과 민영락은 도주해 버렸다. 이리하여 강화 진위 분견대 병사들은 위관급을 완전 축출하고, 이날 오후 6시 사병 50명이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 봉기하였다. 진위대 사졸들과 군중들은 먼저 순사 주재소를 습격하여 순사를 쓰러뜨린 후 이어서 군아軍衙로 달려가 친일 군수이며 일진회의 총무인 정경수鄭景洙를 처단하고 강화성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급보에 접한 일군 사령관은 진위 제1대대의 해산 임무를 띤 진위대 일인 교관 고쿠라小倉 대위에게 보병 1개 소대와 기관총 2문을 주어 이를 진압케 하였다. 10일 오후 4시 이들 일군이 갑곶동甲串洞으로 상륙하려 할 때 봉기한 진위병 사졸 50명은 갑곶동 동쪽 벽에 매복해 있다가 이들에게 일제 사격을 가하여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강화부 동문쪽으로 후퇴하였다.

이때 봉기한 병사들에게 많은 군중들이 호응, 합세하여 그 수가 1백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들은 성벽에 의지하여 굳게 성을 방위하였다. 이날 전투에서 일군은 전사 6명 부상자 5명의 손해를 입었다. 일군 사령관은 10일에 다시 2개 중대에 기관총 2문, 공병 1소대의 증원군을 파견하였으나, 11일 진위 봉기군은 이미 이 곳을 철수한 후 해주海州 · 통진通津 등 해서海西로 이동하여 지방 의병 부대와 합류한 다음이었다. 그리고 다른 일부의 강화 봉기 진위병들은 전라북도 오천군鰲川郡 녹도鹿島로 들어가 일군 3명, 순사 1명, 일인 2명을 총살하여 그 곳을 점령할 수 있었다. 강화 진위 분견대 봉기에 있어서 주동적 역할을 담당한 유명규는 그 후 9월 6일 통진에서 일군에게 체포되었는데 계속 항거하다가 총살 순국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김경운金景云

경기도 통진군 출신이다. 1861년경 태어나 1908년 12월 9일 사망하였다. 이명은 김윤서金允西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박래병朴來秉 의진에 가담하여 경기도 통진·고양高陽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905년 11월 「을사늑약乙巳勒約」으로 일제에 의해 자주적 외교권이 박탈되고, 이듬해 1월 통감부統監府가 설치되어 국왕의 통치권이 현저하게 손상되는 국망의 상황이 도래하였다. 이렇게 되자 우리 민족은 본격적인 반일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게 된다. 당시 그것은 크게 두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하나는 장기적인 실력양성운동과 다른 하나는 즉각적인 무력투쟁인 의병운동으로 전개되었다. 특히 그것은 1907년 7월 「정미7조약丁未7條約」에 따른 군대해산으로 해산군인들이 대거 의병대열에 참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국민전쟁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이같은 시기인 1907년 8월 박래병은 의병을 일으켜 대일 무력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수백 명의 의병들을 이끌고 경기도 포천抱川·음죽陰竹·이천利川·광주廣州·가평加平 등지에서 활동하다가 양주楊州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였다. 김경운은 경시청 감옥에 복역 중 1907년 9월 18일 서울 수표교 부근 외역장을 탈출하여 경기도 광릉 내에 근거지를 두고 있던 박래병 의진에 가담함으로써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박래병 의진에서 종군하면서 일본군 수비대와 교전하는 한편, 같은 해 12월 경기도 통진·고양 일대에서 군자금품 수합활동을 하였다. 특히 그는 통진군에서 엽전 2,300냥과 군수품, 그리고 고양군에서 군자금과 군수

품으로 수합하였다.

나아가 그는 이 시기 박래병 의병장의 지휘 아래 경기도 통진 · 고양 일대의 선등사先登寺 · 석지원石池原 · 송래기松來基 등지에서 일본군 수비대와 3차례 교전하는 등 대일 무력투쟁에도 참전하였다. 그러다가 체포되어 1908년 11월 6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이 확정되어 형 집행으로 순국하였다.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 제1집, (국가보훈처)

시흥의 인물

박시창朴始昌

본적은 경기도 시흥始興이다. 1903년 11월 백암白巖 박은식朴殷植의 장남으로 출생하여 1986년 6월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독립운동가이며 군인이다. 본관은 밀양密陽. 아버지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제2대대통령을 지낸 박은식朴殷植이다. 1911년 4월 어머니상을 당한 뒤 그해 5월 아버지가 오랜 계획 끝에 국경을 탈출하여 만주 서간도로 망명하자 주로 누님 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1916년 서울 오성학교五星學校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찾아 해삼위海蔘威로 건너갔다 1919년 3월 3 · 1운동 소식을 접하고 그해 9월말 아버지와 함께 하얼빈을 거쳐 상해上海로 갔다.

1921년 10월 상해에서 사민보四民報를 발행하는데 관여하다가 1923년 남경南京 중앙대학中央大學을 다니다가 경제적 사정으로 중퇴하고 상해로 돌아와 조선인청년동맹회朝鮮人青年同盟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1925년 아버지가 서거하자 근대적인 군사교육을 받기 위해 중국 중앙육군군관학교인 황포군관학교黃

埔軍官學校 제5기 포병과砲兵科에 입교하였다.1927년 7월 황포군관학교를 졸업하고 군인의 길을 걸으면서 독립운동에도 참여하였다. 이때의 인연으로 의열단義烈團과 관계를 맺고 훗날 의열단이 주축이 된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 조선의용대朝鮮義勇隊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 상해사변上海事變이 일어나자 중국군으로 대일전에 참전하여 전공을 세웠으며, 1935년경 선생은 김구金九의 중국군관학교 입교생 모집활동에도 협력하였다. 1934년에는 김구는 만주에서 남하한 이청천李青天 등과 합작하여 중국중앙육군군관학교 낙양분교洛陽分校에 한인특별반을 설립하여 한인 군사인재를 양성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김구는 각지에 중국군관학교 입교생 모집원을 파견하였으며, 주요 지역에는 지방 연락원을 배치하였다.1937년 7월 중일전쟁 발발 이후 선생은 낙양군관학교의 교관으로 있다가 사천성四川省 중경重慶의 신병훈련처로 전임되었다. 이때 선생은 신병훈련처의 대대장으로 재직하였다.

1941년 김홍일金弘壹 · 최용덕崔用德과 함께 중국위륭군대학中國威隆軍大學 특별반에 입교하여 군사학을 공부하였다. 1943년 8월 광복군총사령부에 편입되어 고급참모로 활약하였으며, 민족혁명당에 가입하여 후보위원으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1944년 10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참모부의 참모로 임명되어 동년 12월까지 재직하였다. 1945년 8월 한국광복군 상해지대장에 임명되어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한편 한적韓籍 사병들의 귀국알선에도 전력하였다. 그러나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인정하지 않는 미군정의 정책은 중국 국민당정부에도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광복군 확군활동을 지원하던 중국 국민당정부도 1945년 12월에 접어들면서 광복군의 확군활동을 금지하였다.따라서 광복군 전원은 교민과 함께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1946년 7월 귀국 후 국군에 입

대하여 중령의 계급으로 1948년 신설 제16연대 연대장, 1949년에는 제102여단장을 역임하였다. 그후 선생은 6 · 25전쟁에 참전하였으며, 연대장, 사단장, 군단장 등을 거쳐 1959년 6월 육군 소장으로 예편하였다.1976년 제5대 광복회 회장이 되었다.

『독립유공자공훈록』5 (국가보훈처, 1988)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국회도서관, 1976)
『독립운동사』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독립사』하(김승학, 1970)
『조선독립운동』2(김정명, 1967)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1956)

이재현李在賢

본적은 경기도 시흥군 동면 안양리이다. 1917년 2월 2일 용환龍煥의 아들로 태어 1997년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19년 아버지를 따라 형 재천在天과함께 중국 상해로 이주하였다.1934년 난징南京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특별훈련반에 입대하였고 1937년에는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지하공작을 지원하기 위해 파견되었다.

일명 이해평李海平. 이재두李在斗. 1939년 10월 중경重慶에서 20여명의 대원과 함께청 한국청년전지공작대韓國青年戰地工作隊를 조직하고 공작조장으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40년 중화민국 제34군단 태행산 유격대 정훈부대에 배치되어 태행산 전투에 참여하였다. 같은 해 김동수金東洙 · 김천성金天成 등 대원 8명과 함께 일선지구인 산서성山西省 등지로 파견되어 중국 호종남胡宗南 직속의 산서山西지구 유격대와 합류, 정보 수집, 적정 탐색, 초모 공작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 중에서도 산서성山西省 장치현長治縣 소동구小東口를 본거지로 하여 노안성潞安省 및 하남성河南省 등지로 진출하여 과감한 유격전을 전개하였다.겨울에 공작대는 서안西安으로 이주하였으며, 1940년 9월 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한국청년 전지 공작대는 광복군 제5지대로 편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나월환羅月煥은 지대장으로 임명되었으며 그는 이하유李何有 · 박기성朴基成 · 김동수金東洙 등과 함께 간부로 임명되었다. 제5지대는 서안西安에 본부를 두고 총사령부를 호위하면서 장병들을 훈련하는 임무에 종사하는 동시에 하남성河南省, 하북성河北省 등지로 나가 초모 · 선전 · 정보활동을 전개하였다.1942년 광복군의 재편성에 따라 제5지대는 광복군 제2지대로 편입되었다. 1944~1945년 광복군 저12지대 한미합동 OSS(미국방성 전략정보처) 훈련에 통역 및 무선 조교를 담당하였다. 1945년 8월 광복군 국내 정진군 낙하산부대 제 2조장을 맡아 국내 침투공작 활동을 위하여 대기하던 중 광복을 맞았다.

1951년에는 한미합동 미 군사고문단 서해지구 정보대장을 지냈다.1969년 이후 에스페란토 사전 간행에 관여하였고 1985년에는 세계에스페란토협회 명예회원으로 선출되었으며 .1991년에는 제 7대 한국광복군동지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묘소는 서울 국립현충원 애국지사묘역에 있으며 .2003년 평촌 자유공원

에 동장을 건립하였다.

『안양시사』(안양시, 2007),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안성의 인물

이양섭李陽燮

본적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죽백리이다 1894년 12월 20일 태어나 1919년 안성군의 3.1운동을 주도하여 징역 10년형을 언도받고 복역하던 중, 1925년 심한 고문을 받고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1968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명여明汝라고도불렸다.

안성 3.1운동의 최정점은 원곡과 양성에서 일어난 4.1만세운동이었다. 일제는 군대를 동원해 가혹하게 진압했으며, 171명에게 징역 5개월에서 최고 12년에 달하는 실형을 선고했다. 1919년 4월 1 · 2일에 걸쳐 안성군 원곡면 · 양성면 일대에서 이유석李裕奭 · 홍창섭洪昌燮 · 이근수李根洙 · 이덕순李德順 · 최은식崔殷植 · 이희룡李熙龍 등과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1919년 4월 1일 오후 8시경 외가천리外加川里에 있던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000여 명의 만세시위군중과 독립만세를 외치고, 태극기와 횃불을 들고 일본인 면장을 끌어내어 양성면 동항리로 행진하였다.

원곡면과 양성면의 3.1운동에는 약 2,000명이 참여했는데, 이는 당시 원곡

면과 양성면 인구의 절반에 달했다. 원곡면 시위는 내가천리 이덕순李德順 · 최은식(농업), 외가천리 이근수李根洙 · 이희용李熙龍, 칠곡리 이유석李裕奭 · 홍창섭洪昌燮, 죽백리 이양섭李陽燮이 주도하였다.주모자들은 각기 자기 마을과 인근 마을 주민들의 시위운동 참여를 독려했다. 1919년 4월 1일 밤 8시 경 외가천리 · 내가천리 · 지문리 · 월곡리 · 죽백리 · 칠곡리 등지에서 손에 손에 태극기와, 등불 또는 횃불을 밝혀들고 1,000여 명이 원곡면사무소 앞으로 모였다. 횃불은 짚으로 만든 것으로, 짚을 한 발쯤 길게 이어 그 둘레에 새끼를 칭칭 돌려감아 끝부분에 석유를 찍어 불을 밝힌 것이다. 이민족이 지배한 10년동안 꺼멓게 죽어있던 원곡의 하늘을 벌겋게 상기시키며 피어올랐다.

시위대는 일제 통치기관인 주재소 · 면사무소 · 우편소를 불태우고 일본인을 몰아내 소위 '2일간의 해방'을 이뤘다.이로 인해 일제는 안성을 전국의 3대 시위지로 꼽고 대대적인 탄압을 가했다.

1919년 4월 1일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원곡면 사무소에 모여서 만세시위를 벌이고, 면장을 선두로 내세워 횃불을 들고 양성면으로 행진하였다. 이들이 양성에 도착할 무렵, 동항리東恒里에 있는 양성 경찰 주재소 앞에서 독립만세시위를 벌이고 해산하여 돌아가던, 양성면민들로 구성된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합류하게 되어 시위군중은 2천여 명으로 늘어났다. 오후 10시경 경찰 주재소 앞에 도착하자, 그는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휘두르며 독립만세를 외치고, 주재소와 숙직실을 불태워 버렸다. 다시 양성 우편소로 가서 그 곳의 기물과 건물을 파괴 · 방화하고, 일본인이 경영하는 잡화점과 일본인 고리대금업자 집을 파괴하였다. 다음은 양성면 사무소로 가서 서류와 기물을 파괴하고, 시위군중과 함께 뒷산에 올라가 독립만세를 외치고 해산하였다. 이튿날 새벽 4시에 원곡면

으로 되돌아 와서, 군중들과 함께 면사무소로 달려가 서류와 집기류를 불태워 버리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 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었다.

『3 · 1운동비사』(이병헌),1971)
『한국독립사 －하권-』(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이희룡李熙龍

본적은 경기도 안성군 원곡면 외가천리이다. 1872년 태어나 1948년 5월22일 태어나 1948년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한말의 의병. 대한제국군大韓帝國軍에 복무 중 1907년 「정미7조약」으로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의병에 가담하여 여주驪州 · 원주原州 등지에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그 후 1919년 서울에서 3 · 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안성군 일대에서 전개된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하였다. 4월 1일에는 원곡면과 양성면이 합동으로 만세운동을 벌이게 되어 대규모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이날 그는 이유석李裕奭 · 홍창섭洪昌燮 · 이덕순李德順 · 최은식崔殷植 등과 함께 주동이 되어 원곡면사무소 앞에서 1천여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만세시위를 선창하면서 시위행진하였으며

일경 주재소를 습격 방화하였다. 다음에는 우편소에 쳐들어가서 집기(什器)와 서류 등을 파손하는 한편 안성과의 통화 연락을 막기 위하여 전신주를 찍어 넘어뜨려 전화선을 단절케 하고 다시 양성면사무소로 몰려갔다. 면사무소 안으로 들어가 호적부戶籍簿를 소각하고 기물을 모조리 파괴했으며 일제 순사들을 붙잡아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게 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그는 이날의 대규모적인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일경에 붙잡혀 징역 12년형을 언도받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9(국가보훈처, 1991)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양주의 인물

강기동姜基東

경기도 장단 출신으로 알려져 있다. 1884년 3월 5일 태어나 1911년 4월 1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경기도 장단長湍 고랑포古浪浦에서 헌병보조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1907년 정미칠조약丁未七條約과 군대해산이 일제에 의하여 단행되자 뜻 있는 많은 의사들이 항일 무력 투쟁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훈련되지 않고 무기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의병들은 정규군인 관군과 일군에 의하여 속속 체포 사살 당하였다. 이때 강기동이 근무하던 장단에는 의병투쟁하다가 체포된 인물들이 다수 투옥되어 있었다. 그가 옥문을 열어 주어 많은 의병들을 구출할 수 있었으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의거의 기치를 내걸게 되었다.

그 후 그는 의병 대장이 되어 각지의 의병장들과 유기적 관계를 맺었다. 강기동의진은 주로 양주楊州, 포천抱川을 중심으로 활약하였다. 강기동은 연기우 의진과 서로 비밀 연락 아래 밀접한 연계를 갖고 활동하였다. 연기우는 군인 출신

의병장으로서 군대 해산 직전 강화도 진위대鎭衛隊에서 봉기하여 가장 장기간 투쟁한 경력의 소유자였다.

이들은 이미 현상금이 걸린 사람들로서 밀정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대를 소수 정예부대로 편성하였다. 1908년 이은찬李殷瓚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에 접하고 6월에 강기동은 남학서南鶴瑞 오수영吳壽泳 임명달任明達과 함께 격문을 띄우고 병사를 모아 대일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을 맹서 하였다.

1909년 11월 21일에는 부하 200여 명을 거느리고 포천 등지에서 일 헌병과 싸워 2명의 일헌병을 사살하였다. 한편 강기동은 양주 · 적성 · 포천 등지를 다니며 왜인 헌병들과 전투를 벌였다. 양주 일본 헌병들은 강기동에게 현상금 5백원을 걸고 체포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1910년 2월 포천에서 왜병과 접전하였다. 이 시기에 강기동 의진의 좌군인 전성서田聖瑞 휘하의 한인수韓仁秀와 김순복金順福은 포천지역에서 의병활동을 하다가 체포되어 유죄선고를 받았다.

3월 6일 강기동은 이용규 등과 더불어 영평永平으로 들어가 활약하니 일인들은 현상금을 천냥으로 올렸다. 4월 29일 강기동은 전성서와 함께 양주楊州에서 적군과 교전하였으며, 5월 16일에는 양주楊州 노원盧原에서 교전하였다. 5월 27일 서울로 잠입하려다가 체포되었으나 순사를 넘어뜨리고 피신할 수 있었다. 이 즈음 강기동은 강두필姜斗弼과 함께 병력 1백여 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강원도 일대를 넘나들었다.

이즈음 강기동은 계속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다가 그 후 북간도로 이동해 가던 중 원산의 일본음식점에서 음식을 먹고 순검에 붙잡혔는데 2월 17일에 서울로 압송되었다. 잡힐 대 그의 오른쪽 다리에는 조선국기가 있었다고 한다.

의병장으로 잡힌 강기동은 일 헌병분대에서 심문받은 다음 용산사령부로 보내졌는데 다시 군법회의 넘겨졌다. 1911년 5월에 서울 용산龍山에서 처형 순국하였다.

『매천야록(梅泉野錄)』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신창룡申昌龍

본적은 경기도 양주 고양주古楊州 장의壯儀 35-2이다. 1877년에 태어나 의병활동을 주도하다가 1909년 8월에 교수형을 당했다. 1995년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조선 말기 의병장으로 1907년(융희 1) 의병대장 최문봉崔文鳳의 지휘 아래 들어가 경기도 광주와 양주 등지에서 의병활동을 전개하였다.그는 같은 해 12월 5일 안흥실의 명령을 받고 서울 동대문 밖 뚝섬의 정황을 정찰한 후, 동지 70여 명을 인도하여 총기 · 도검 등으로 무장하고 뚝섬의 순사파출소를 습격하는 한편 순사 이덕훈李德薰 · 유영진劉永鎭을 결박하고 군도와 총기 등을 노획하였다. 또한 뚝섬에 사는 같은 해 12월 뚝섬의 순사 파출소를 습격하여 총기와 무기류

를 탈취하였다. 탈취한 병기를 사용하여 근처에 거주하던 일본인 이즈모出雲龍太郎의 집을 습격하여 그를 처단하고, 동거인 요코다橫田常四郎에게 중상을 입혀 같은 달 8일 사망케 하고, 의병자금을 거출하는 등 일본인 처단과 군자금 징수에 주력하였다. 그러다가 붙잡혀 1909년 6월 16일 경성공소원에서 교수형을 받아 순국하였다.

윤병구尹炳球

본적은 경기도 양주이다. 1877년 태어나 1949년 6월 20일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선생의 공훈을 기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03년 10월 5일,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에 정착한 선생은 목회자로서 그리고 미주사회의 중심인물로서 한인사회의 화합과 독립을 위한 외교활동에 평생을 바친 인물이었다.

미국으로 건너가기 이전, '한성사범학교'에서 헐버트의 영향으로 기독교 목회자의 길을 선택한 선생은 하와이에 이민 후 한인 동포를 대상으로 한 전도활동에 전념하는 한편 하와이의 호놀룰루에서 이곳의 예수교 감리교도인 홍승하 · 박윤섭朴允燮 · 문홍섭 · 임치성 · 임형주 · 김정극 · 안정수 · 이교담 등과 함께 신민회新民會를 조직하였다.신민회를 통해 국권회복 활동과 일부 미국인들이 하와이 일대에 있는 우리 이민 교포들을 상대로 당치도 않은 이민 경비를 받으려는 데 대하여 전면적으로 반대 투쟁을 전개, 이주 동포들의 권익 옹호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이어서 하와이 오아후섬의 에와농장에서 그는 다시 정원명 · 김성구 · 이만춘 · 김규섭 · 강영소 등 동지들을 규합하여 에와친목회를 발족시키고 정원명을 회장으로 추대하였다. 그리고 항일운동과 일본 상품 배척 및 동포들의 친목과 권익보호를 위해 힘썼다.

1905년 7월 12일, 선생은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러일강화회의에서 한국의 독립을 보장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이승만과 함께 워싱턴으로 가서 직접 청원서를 전달하고자 하였으나 이미 미국 정부는 일본과 비밀조약을 체결해 일본의 한국 식민지화를 묵인한 후였다.

1907년 8월,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에 한국특사로 활동한 이상설과 이위종이 이준 열사의 자결 후 뉴욕에 도착했을 때, 선생도 이들과 구국 외교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외교활동에 합류하여 유럽 순방외교를 떠난 후 약 6개월 후인 1908년 3월 초, 뉴욕에 돌아왔을 때에는 미주 한인사회의 중추적인 인물이 되어있었다.

이후 선생은 한인들의 단결과 민족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고 합방반대운동을 전개하였으며 각 단체의 지도자들은 군소단체의 통합운동을 전개하게 한인단체를 통합하여 1910년 2월 1일 재미 한인교포 자치단체인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발족하였다. 중앙총회 사무소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두고 각지에 지방총회와 지방회를 두었다. 이 국민회는 지방분권제인 대의원제를 택하여 각 지방에서 선출한 대표의 회의인 중앙총회에서 국민회 전체를 운영케 하였으며, 부속기관으로 경찰도 두었다. 이 당시 그는 박상하 · 정원명鄭元明과 함께 하와이 지방총회 대표로 참석하였다.1912년 11월 '대한인국민회' 제2대 중앙총회장에 당선되어 각 지방을 순방하며 한인들에게 독립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노력 하였다. 3 · 1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이를 미주 한인사회에 널리 알려 독립

운동의 열기를 북돋았다

1921년 국민회는 경비난을 겪게 되어 회장직에 있던 그는 사임하였으며 국민회는 자동적으로 해체되고 말았다. 또한 1929년부터 1936년까지 뉴욕 한인교회 목회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인유학생 지원 등 교회 밖에서까지 다양하게 활동했다. 이러한 선생의 지원으로 뉴욕한인교회 소속의 많은 인물들이 일본의 만주침략에 항의하는 적극적인 활동을 펼칠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하자, 도미 후 46년 만인 1949년 3월 돌아와 대한민국정부를 승인한 우방국 방문 친선외교 및 한미 간의 새로운 협약 작성의 중책을 맡아 밤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다 사망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9(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5)

『독립운동사』1 · 3 · 4 ·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1971 · 1972 · 1973)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1910년대 미주지역의 무장독립운동」

(윤병석, 독립기념관 개관경축 학술심포지엄, 1987.8.5)

윤인순尹仁淳

경기도 양주 남면 구암리龜岩里 출신이다. 1880년 3월1일 태어나 의병장으로 활

약하다가 1909년 3월17일 전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1907년 일제에 의하여 한국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양주에서 의진을 형성하여 양주 · 파주 · 적성 · 포천 등지에서 활약하였다.처음에는 독자적인 의진을 형성하여 의병장으로서 양주 석치石峙에서 적과 접전하였다. 1907년말 경 13도연합의진을 형성하여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서울진공작전을 폈으나 동대문밖 30리 지점에서 좌절되었다.

그뒤 허위許蔿를 대장으로 하여 임진강일대에서 잔류 의병들을 규합하여 부장으로 활약하였다. 1908년 6월 허위가 잡힌 뒤 30~40명의 소규모 의병을 인솔하고 파주 · 적성 · 양주 등지를 다니면서 일본군과 유격전을 전개하면서, 일제의 앞잡이였던 일진회원 박순옥朴舜玉 · 이봉계李鳳季 등을 처단하였다.

1909년 이은찬李殷瓚 · 정용대鄭用大 · 강기동姜基東 · 연기우延基羽 등과 연합부대를 형성하여 양주 · 파주 · 포천 · 영평 · 연천 · 삭녕 · 김천 · 배천 · 연안을 연결하는 육상과 해상 도서지방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이렇게 항전을 계속하다가 1909년 3월 17일 양주 북방 40리 지점에서 삭녕수비대와 전투 중 부하 16명과 함께 전사하였다.

『매천야록』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 별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사자료집』1 ·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1971)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조선독립운동』 I (김정명 편, 原書房, 1967)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이재윤李載允

본적은 경기도 양주 미금면 수석리이다. 1849년 4월25일 태어나 1911년 7월 13일 1911년 7월 13일 자결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865년(고종 2) 생원시에 합격하고 1877년 정시에 병과로합격하였다.

본관은 전주, 자는 성집聖執, 호는 미석渼石으로 고종高宗의 종척宗戚이며 최익현崔益鉉의 제자이다.

1877년(고종 14) 충량과에 급제하여 벼슬이 우승지에 이르렀으며, 1894년 9월 여주목사에 부임하여 12월 도목정사 때 체직되었다. 세상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그만두고 소박한 선비로 자처하였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 체결되자 매국 역적들을 참斬하자는 상소를 올렸으며 의병장이 되었다.

이듬해 스승인 최익현崔益鉉이 의병을 일으켰다가 일본군에 패해 지도智島로 귀양갔다 온 뒤 임병찬林炳瓚의 집에서 거사 계획을 꾸미며 후원을 부탁하였다. 이에 재산을 처분하여 무기를 구입하고 의병장이 되니, 이에 따른 의병이 300여 명이었다.

양주군 설악산으로 집결할 때 일본군이 급습하자 한강 상류 연안 민호리에

서 대치하다가 미금면 금곡리에서 교전하고, 다시 광주군 서부면 송파장에서 결전을 전개하였으나 군량과 무기 부족으로 패하였다.1907년 3월 항일구국운동을 목적으로 북경北京을 방문하고 원세개袁世凱로 하여금 구원병을 보내서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조선을 구해주기를 요청하였지만 "중국도 망해 가는 판에 그럴 여력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실망하여 이듬해 10월에 돌아왔다. 1910년 국권이 강탈되자 고향인 양근楊根으로 내려왔다.그러나 연일 일제 헌병의 혹심한 압박과 조사에 격분하고 이제껏 이룬 의거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 항일투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이듬해 7월 13일 나무에 목을 매어 자살을 기도하였다. 가족에게 발견되어 목숨을 건진 듯하였으나 다음날 새벽 순국하였다.

『기려수필(騎驢隨筆)』

『독립운동사』1 · 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 1976)

『독립운동사자료집』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추삼만秋三萬

본적은 경기도 양주군 이담면伊淡面 하봉암리下鳳岩里이다. 1880년에 태어나 1910년 3월 10일 순국하였다.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다가 해산군인인 황재호黃在浩가 의병을 일으켜 양주·파주坡州·가평加平·영평永平 일대에서 활동하자, 그 휘하에 들어가 동료 의병 20여 명과 함께 양주군에서 군자금 모집활동을 벌였다. 그는 같은 해 8월에 동료 의병과 함께 총검을 휴대하고 양주군내 웃산야위라는 동네에 들어가 주민으로부터 1백 냥을 모집하였다. 이어 9월에는 이재학李在學 의병부대로 옮겨 적성積城·삭녕朔寧 등지를 무대로 활동하면서 친일배들을 처단하였다. 즉 9월 8일 밤 삭녕군 남면南面 귀존리貴存里 양지동陽智洞에 거주하고 있던 일본의 밀정이자 일진회원一進會圓인 김영덕金英德을 납치하여 다음날 대문앞 뽕나무에 묶어놓고 살해하였다. 또한 같은 날 이 마을에 사는 이승녕의 집에 들어가, 그를 붙잡아 직접 처형시켰다. 그 뒤 그는 일본경찰에 붙잡혀 1909년 12월 21일 경성지방재판소에서 이른바 강도·교살죄絞殺罪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고, 교수형이 집행되어 순국하였다.

『매천야록』
『대한민국 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1971)
『양주군지』(양주군지편찬위원회, 1978)
『경기인물지』(경기인물지편찬위원회, 1991).

김규식金圭植

본적은 경기도 양주 구리면 사로리이다. 1882년 1월 15일에 태어나 1931년 3월 23일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호는 노은蘆隱, 이명異名은 서도瑞道이고 별명은 호장군虎將軍이다. 아버지는 영선永先이다.

대한제국의 장교로서 부위副尉 복무하다 1907년 한일신협약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강원도 철원에서 흩어진 군인을 규합하여 의병활동을 펼쳤다. 1908년 1월, 13도연합의병부대의 일원으로 서울진공작전에 참가, 양주와 철원을 근거지로 일본군과 싸워 큰 전과를 올렸다. 그후 노령露領에서 무기를 구입하려다 붙잡혀 옥고를 치렀으며,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하여 독립운동에 투신하였다. 1919년 8월 서일徐一·김좌진金佐鎭 등과 함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를 조직하여 처음 중대장으로 근무하며 무장항일투쟁에 앞장섰으며, 북로군정서에서 왕청현旺淸縣 십리평十里坪에 세운 단기속성사관학교인 사관연성소士官鍊成所 교관이 되어 김좌진·이범석李範奭 등과 함께 청년교육에 힘썼다. 생도들은 주로 대종교의 청년 신도와 왕청현 덕원리에 있던 명동학교明東學校 학생들이었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青山里戰鬪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였다. 이어 12월 밀산密山에서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대한독립단大韓獨立團·의군부義軍府·혈성단血誠團·대한정의군정사大韓正義軍政司·야단野團 등 여러 단체의 군대를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편성하고 총재에 서일, 부총재에 홍범도洪範圖·김좌진·조성환曺成煥이 각각 취임하였으며 그는 총사

령에 취임하여 참모총장 이장녕李章寧, 여단장 지청천池青天이하 3,500여명의 대부대를 이끌고 러시아령 자유시自由市로 갔다.이곳은 20만 명 가량의 조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볼세비키의 도움으로 무기도 공급받고 조직도 정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김규식은 이때 군대 지휘를 책임지는 총사령에 추대되었다.

그러나 사회주의자들 사이의 주도권 다툼의 와중에서 일어난 참변으로 만주에서 건너간 독립군은 커다란 타격을 받았다 1921년 6월 자유시사변自由市事變으로 무장해제를 당한 뒤 그는 다시 소만국경을 넘어 옛 근거지인 연길현延吉縣으로 돌아와 상해 대한민국임시정부와 노병회의 지원을 받아 망명군을 재편성하는 한편, 1923년 5월 고평高平 · 이범석 등과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을 조직하고 총사령관으로서 영농과 군사훈련을 강화하여 항일투쟁을 계속하였다. 고려혁명군은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제도를 실시하여 농사를 짓고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소련령으로부터 비밀리에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하고 군사훈련을 강화하였다.

1925년 김좌진 · 김혁金赫 등이 북만주에서 민족주의 대표를 망라하여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자 이에 가담하여 활동하였다. 1926년 이념理念과 사상으로 무장한 독립투쟁을 위하여 각계의 혁신적인 대표들이 모여 양기탁梁起鐸을 위원장으로 하는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이 동년 4월 5일 길림성吉林省에서 조직되자, 그 중앙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는데 조직 당시의 당원 수는 약 1천 5백여 명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항일투쟁은 2세 국민들의 교육밖에 없다고 판단하여 연수현延壽縣에 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31년 4월 주하

현珠河縣으로 가 최악崔岳 · 홍진洪震 · 신숙申肅 등을 만난 후 공산주의로 전향한 최악의 사주를 받은 공산당원에게 피살되었다.

『武裝獨立運動祕史』(채근식, 1948)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1971).

양평, 지평의 인물

여운형呂運亨

본적은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양서면楊西面 신원리新院里 묘곡妙谷이다. 1886년 5월 25일 에서 출생하여 1947년 5월 극우파 한지근韓智根에 의하여 암살되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2005년에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독립운동가 · 정치가로 본관은 함양咸陽, 아호는 몽양夢陽, 아버지는 정현鼎鉉이며, 어머니는 경주 이씨이다.

부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병현呂炳鉉의 도움으로 서울로 가서 배재학당에 입학 후 곧 사립흥화학교私立興化學校로 옮겼다가 다시 관립우체학교官立郵遞學校로 옮겼다. 1907년 미국인 선교사 곽안련郭安連(Clark,C.A.) 목사와 친분을 맺고 그의 도움을 받아사립기독광동학교私立基督光東學校를 세웠다. 1908년 부친이 사망하자 집안의 노비를 모두 불러 모아 노비문서를 모두 불태워 그들을 해방시키는 등 봉건 유습의 타파에 앞장섰다. 910년에는 강릉의 초당의숙草堂義塾에서 민족교육에 매진하기도 했다.

1911년 기독교 목회자가 되기 위해 평양의 장로교연합신학교에 입학했으

나, 1924년 중국 여행 중 생각을 바꿔 난징의 금릉대학金陵大學에서 영문학을 전공하였다.이때 항일비밀단체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고, 1916 상해 거주 동포 자녀들 교육을 위해 상해 기독교 소학교를 설립하고 1917년 정식초등학교인 인성仁成학교로 개교하였다.

1918년 상해에서 청년 동포들을 규합, 민단民團을 조직하고 광복운동의 터전을 마련하는가 하면 그해 11월 장덕수와 함께 파리강화회의에 보낼 독립청원서를 미국 대통령 특사 찰스 크레인과 상해 영자신문 사장 밀러드에게 전달하기도 하였다.

1918년 8월 터키청년당을 모방한 신한청년당新韓青年黨을 조직하고 총무로 활약했다. 마침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파리강화회의가 열리게 되자, 그는 텐진[天津]에 있던 우사尤史 김규식金奎植을 초빙하여 파리강화회의 파견대표로 파견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립문제를 크게 부각시키기 위해 거족적인 민족운동 계획을 추진했다. 그는 장덕수張德秀를 일본에 파견하여 2·8독립선언을 촉발케 했으며, 국내에 김철金徹·선우혁鮮于爀 등을 파견하여 국내 인사들과 접촉하게 하고, 자신은 간도·시베리아 방면으로 가서 만세운동의 분위기를 진작시켜 나갔다. 이러한 그의 노력은 3·1운동이 일어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는 만주와 노령 등지에서 독립운동의 중앙 기관을 상해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임시정부와 같은 거대의 조직형태보다는 당黨에 의한 결합체로서 통일적 조직형태를 강조하였다. 1919년 3월 임시정부 수립에 가담하여 외무부 차장,임시의정원 의원을 역임하였다. 그해 11월에는 동경을 방문하여 일본 고위 관료들을 상대로 한국독립을 역설하여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1920년 독립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써 소련공산당에 가입, 이듬해 모스크바

에서 열린 원동민족근로자대회遠東民族勤勞者大會에 참석하였으며, 그런데 1921년 김립金立의 노농정부 자금횡령사건으로 그는 이동휘李東輝와 결별하고, 김만겸金萬謙이 주도한 이르쿠츠크파와 고려공산당 상해지부에 참가했다. 1921년에는 중한호조사中韓互助社 결성에 참가하여 한·중 양민족의 공동 투쟁과 이해증진을 모색하였다. 한·중연대를 통한 독립운동의 방도를 강조했던 그는 국제정세의 흐름에서 한국독립운동의 나아갈 방향을 찾고자 했다. 그리고 1924년 중국국민당에 가입하여 한중상호협조를 위한 남방혁명군南方革命軍을 위하여 활동하였다. 1925년 12월에 조선공산당이 발각되면서 김찬金燦·김단야金丹治 등이 상해로 망명해 오자, 이들과 함께 1926년 1월에 조선공산당 임시상해부를 조직하였다. 이 무렵 그는 광둥[廣東]과 상해를 왕래하며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1929년 영국의 식민정책을 비난하다가 영국경찰에 체포되어 일본에 인도, 3년간 복역한 뒤 출옥하였다. 그 뒤 1933년 조선중앙일보사 사장에 취임하였으나 1936년 손기정孫基禎 선수의 일장기말소사건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났다.

1940~1942년 에 여러차례 도쿄[東京]을 방문한 바 있는 그는 일본의 패망을 확신하고 1944년 조선건국동맹朝鮮建國同盟의 지하조직을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그 위원장에 취임하여 광복에 대비하였다. 이듬해 광복이 되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 위원장이 되었고, 이어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포하여 스스로 부주석에 취임하였으며, 인민당人民黨을 결성하여 당수가 되었다. 그러나 인민당은 일부노선에는 공산당과 보조를 같이하였고, 1946년 좌우합작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좌익을 대표하여 중간적인 위치에 선 일도 있다. 이 좌우합작운동은 우익의 강력한 반탁운동과 공산당의 반대에 부딪혔는데 그는 1946년 신민당과 공산당과의 공동명의로 '좌우합작지지', '입법기관설치 반대'라는 3당합동 결

정서를 발표하고 사회노동당社會勞動黨을 조직하였다. 당시로서는 사회노동당에 대한 좌우양쪽의 공격을 받지 않을 수 없게 되어 큰 활동은 하지 못하였다.이러한 정치적 입장 때문에 그는 1947년 서울 혜화동 로터리에서 한지근韓智根이라는 청년으로부터 권총 사격을 받고 사망하였다.

『騎驢隨筆』

『心山遺稿』

『呂運亨先生鬪爭史』(李萬珪, 民主文化社, 1946)

『夢陽呂運亨』(呂運弘, 青廈閣, 1967),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조인환曺仁煥

양평楊平출신이다. 생몰년은 미상이다. 한말 의병장으로 활동하여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본관은 창녕昌寧. 1907년 정미7조약이 체결되고 이어서 한국군대가 일제에 의해 강제 해산되자 분노하여 충청도에서 농민을 규합하여 의병을 일으켰으며,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의병운동을 전개하였다. 당시 임진강 유역에는 왕회종王會鍾 · 권준權俊 · 김진묵金溱默 · 연기우延起羽 등 수많은 의병부대가 활약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경기도와 강원도 및 황해도를 오가며 일본군과 전투를 벌

이고 있었다. 조인환 부대가 거둔 대표적인 전투는 8월 4일 양근읍楊根邑을 습격하여 군청 · 세무서 · 우편물취급소 등 관청을 습격, 파괴하고 일본인 가옥을 소각시킨 사건이다. 이어 출동한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여 일본군에게 상당한 타격을 주었다. 9월 17일에는 남종면 분원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고, 이후 양주 · 파주 부근으로 부대를 이동시켰다. 그 뒤 허위許蔿가 중심이 된 13도의군의 서울진공작전이 실패한 뒤 의병진이 임진강 유역으로 이동해오고, 그 지역의 의병부대들이 서로 연합함으로써 임진강연합의병부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군표軍票를 발행하면서 군정을 베실시하며 항일전을 계속 추진하였다. 파주坡州 · 양주楊州 지방을 중심으로 임진강 일대를 근거로 수차 일본군을 습격하였으며, 양주 · 파주 · 적성積城 등 각지로 돌아다니면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그러나 1908년 허위가 영평永平에서 붙잡힌 것을 전후하여 점차 임진강연합의병은 와해되고 이후에는 각 부대단위로 독자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1(국가보훈처, 1986)
『의병들의 항쟁』(조동걸, 민족문화협회, 1980)
『독립운동사자료집』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운동사』1(국사편찬위원회, 1965)
『경기인물지』(경기인물지편찬위원회,1991)
『楊平義鄕誌』(양평의향지편찬위원회, 2000)

한봉철韓奉喆

본적은 경기도 양평군 갈산면 양근리 154이다. 1898년 3월 2일에 태어나 1936년 일본군과 교전 중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2006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명異名으로 한상우韓尙宇, 한봉철韓奉哲, 한상우韓相宇, 한진韓震, 한진韓震 등이 있다. 중등학교 시절 기독청년회에 입회하여 활동하였다. 1919년 3월 24일 경기도 양평군楊平郡 갈산면葛山面에서 독립만세운동에 참가하였으며, 양평군청과 양평우편소를 습격하는 등의 활동을 전개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0월을 받았다. 또한 1920년 6월에는 기독교계의 장로인 한덕리韓悳履의 권유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기관지 「독립신문獨立新聞」을 배포하였다가 체포되어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1925년 4월에는 혁청단革靑團 선언 강령사건으로 종로경찰서에 검속되어 수일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만주지역 유하현柳河縣 삼원보三源堡로 망명하여 신활청년회新活靑年會 회원으로 활동하였으며, 1925년 12월 길림성 반석현磐石縣에서 남만청년총동맹南滿靑年總同盟 창립에 참여하였다. 남만청년총동맹은 1925년 11월 길림성 반석현에서 결성된 사회주의 계열의 청년단체로 일반대중의 문맹을 퇴치하고 강연회와 토론회 및 신문강독회 등을 통해 청년 학생들에게 일본 제국주의에 반대하여 신사상을 보급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1929년 목릉현穆稜縣에서 조선공산당朝鮮共産黨 만주비서부滿洲秘書部 남만南滿 제1구역의 조직부장으로 청년운동 및 사회운동을 전개하였고 1933년 9월 동북인민혁명군 독립사獨立師의 결성에 참여하였으며, 1934년 11월 동북인민혁명군 제1군 제1사의 군수부장이 되었다. 만주지역에서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던

한봉철은 1936년 연길현延吉縣에서 일본군과 교전 중에 순국하였다.

「身分帳指紋原紙」(警察廳)

『東亞日報』(1921. 6. 9, 1925. 4. 24)

『朝鮮獨立運動』 第1卷(金正明, 分冊)

『한국공산주의운동사』(金俊燁 · 金昌順, 1986)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비평사,1996)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이춘영李春永

본적은 경기도 양평군 지평砥平이다. 1869년에 태어나 1896년 1월13일 의병장으로 활동하다가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자는 우삼友三, 호는 괴은槐隱, 본관은 덕수德水. 1895년 을미사변이후 의병을 일으킬 것을 결의하고, 안승우安承禹와 함께 원주原州 안창리安倉里에서 거의의 기치를 올렸다. 그는 지평현감砥平縣監인 맹영재孟英在를 포섭하려 했지만 뜻이 없자, 그의 부하중 전술 · 전략에 능숙한 김백선金伯善을 설득하여 그가 이끌고 있던 관군 4백여 명을 영입, 의병부대를 조직하고, 원주를 점령하여 수일간 주둔하였다가 제천堤川으로 가서 충주관찰사 김규식金奎軾, 단양군수 권숙權肅, 청풍군

수 서상기徐相嗜 등을 생포하였다. 이때 단양군수의 아들이 일본군 수백 명을 청하여 공격하여 왔다. 이들을 맞아 단양 장회長滙에서 접전하여 적을 크게 무찌르는 전과를 올렸다. 한편 지평현감 맹영재는 부하를 빼앗긴 것을 한하여 관찰부와 경사京司에 '이춘영 · 안승우 대역부도大逆不道'라는 10자로 보고하고 그의 부하인 이민옥李敏玉을 비밀리에 의진에 파견하여 겉으로는 의병을 가장하고 내심으로 흉계를 품어 장차 의진을 무산시키고자 하였다. 이민옥은 이춘영의 친척인 동시에 안승우의 외척이었으므로 그를 믿고 의진 내에 거두어 들였다. 그러나 그후 이춘영과 서상열徐相烈이 의병을 소모하고자 영남으로 향할 때에, 이민옥도 그들을 따라가서 암암리에 포군을 꾀어 풍기豊基에서 흩어지도록 유인하였다. 도군무都軍務 안승우가 제천에서 군사를 수습하고 이를 영솔하여 이진하고자 할 때 이민옥이 또 간계를 쓰다가 발각되었다. 안승우는 외척관계를 불구하고 이민옥을 참형에 처하였다.

이들은 충주로 이동하여 유인석柳麟錫을 대장으로 추대하고, 그가 중군장이 되어 1896년 2월 17일 충주성忠州城을 점령하였으나 다음날부터 곧바로 일본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다. 성안에 있던 의병부대는 조금도 굽히지 않고 병력을 성벽 밑에 집중 배치하고 반격을 가하여 많은 적병을 쓰러뜨렸다. 격전은 장기간 지속되었으나 오후에는 적군이 많은 사상자를 내고 가흥佳興 방면으로 달아났다. 한편 인근의 많은 의병들이 충주로 모여들고 호응 원조하여 의진의 형세는 크게 떨치게 되었다. 그는 중군장으로 성안에 있으며 각 군을 독려하고 전략을 수립하고 있었다. 2월 23일 왜적 수백 명이 달천達川까지 왔다는 급보가 들어왔을 때 이춘영은 자청하여 군사들을 거느리고 나가서 싸워 크게 이겼다. 이어 그는 군사들을 이끌고 곧바로 수안보의 일본군 병참기지로 진격하여 처절한 격

전이 전개되었다. 일본군은 당황하여 점차 퇴각하였으나, 이 전투에서 일본군의 탄환을 맞고 전사하였다. 묘소는 현재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있으며, 향토유적 제18호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의병들의 항쟁』(조동걸, 민족문화협회, 1980)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 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 1995)

안승우安承禹

본적은 경기도 지평砥平의 상동上東(현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이다. 1865년 태어나 의병장으로 1896년 6월 제천성 싸움에서 순국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대대로 유학을 공부해온 학자 집안에서 아버지 안종응安鍾應과 제천의 이름난 유학자 이민정李敏政의 딸 덕수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어려서부터 자질이 뛰어나고 매우 총명하였다. 어려서 집안에서 가학을 공부해 오던 선생은 15세부터 인근에 있던 이용강李龍崗의 서숙을 출입하며 본격적으로 공부하였다. 1885년부터는 역시 이항로의 적통을 이어받은 대학자 성재省齋 유중교柳重敎(1832~1893)

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학문의 전수 과정에서 선생은 특히 유중교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1895년 3월에 변복령變服令이 공포되어 백색의 전통 의복을 흑색의 '오랑캐 의복', 곧 양복洋服으로 바꾸어 입게 하자 이를 크게 탄식하였으며, 이어 1895년 8월에는 일본 낭인들에 의해 국모인 명성황후가 시해되고 11월에는 상투를 자르게 한 단발령이 공포되었다. 그는 이춘영과 지평의 포수 김백선金伯善이 함께 의병을 일으켜 지평 포군 4백 명을 동원하여 안창安昌(현 원주시 지정면 안창)에 집결하였다. 이에 제천의 장담에있던 그도 올라와 거의에 합세하였다.

첫번째 싸움은 단양군 장회협長淮峽에서 전개되었는데 이 전투에서 의병부대는 적에게 큰 타격을 주었다. 단양전투에서 승리한 후 그는 주천酒泉에서 100여명의 군사를 모집, 제천堤川으로 가서 유인석柳麟錫에게 대장이 되어 줄 것을 청하여 의진의 구성을 재편성하였다. 1896년 2월 15일 충주성을 함락시켰으나, 3월 2일 적의 공격이 감행되자 철군할 것을 결의하고 5일 달천을 거쳐 청풍淸風으로 들어갔으며 8일 제천에 이르렀다. 16일 가흥佳興 방면으로 총공격을 개시할 때 김백선과의 마찰로 의병들의 사기를 크게 떨어뜨리고 분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도하였다. 4월 초순부터 경군京軍이 내려와 형세는 더욱 어려워졌으나, 그대로 제천에 머무르며 5월 23일 경군과 최후의 결전이 벌였는데, 마침 비가 내리는 바람에 의병들은 화승총을 사용할 수가 없었다. 25일 그는 비장한 결심을 하고 남산에 진을 치고 본진을 지휘하며 관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였다. 전투가 벌어지자 선생은 최일선에서 직접 화약을 넣어 포군들에게 나눠주며 전투를 독려하였고 한때 세 차례나 경군을 고장림古場林 밖으로 몰아내기도 하였다. 그러나 오후 들어 비가 내리자 전황이 급격히 불리해졌다. 의병들은 우천으로 인해 화

승총을 쓸 수 없게 된 것이다. 결국, 의병들은 무용지물이 된 화승총을 버리고 돌을 던지며 대항했으며, 결국 의진은 와해되고 제천성은 함락되고 말았다. 마침내 그는 적에게 붙잡혀 전투가 한창 벌어지던 중 오른쪽 다리에 탄환을 맞아 부상을 입은 채 경군의 대장소에 끌려간 선생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강개한 어조로 우국충정의 소신을 당당히 밝히며 불의를 성토하였다.

묘소는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에 있으며, 향토유적 제19호로 지정되어 있다.

『육의사열전六義士列傳』(이정규)

『안공하사실기대략安公下沙實記大略』(박정수)

『하사안공을미창의사실下沙安公乙未倡義事實』(박정수)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자료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사편찬위원회, 1995)

여주의 인물

이인영李麟榮

본적은 여주군 북면 고곡이다. 한말의 의병장으로 1868년에 태어나 1909년 9월 21일 경성감옥에서 죽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일명 인영寅榮, 시영時榮, 준영竣榮. 정동현鄭東鉉의 문하생으로 일찍이 대성전재임大成殿齋任을 지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明成皇后가 시해되고 이어서 단발령이 내려지자, 유인석柳麟錫 · 이강년李康秊 등의 의거에 호응하여 원주에서 의병을 일으켰으나,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은둔 생활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였다. 1907년 고종이 강제 퇴위되고 군대해산이 강행되자 해산군인들이 각지의 의병에 합세하여 의병운동이 활기를 더해갔다. 이에 1907년 9월 강원도 원주 등지에서 활약하고 있던 의병장 이은찬李殷瓚과 이구재李九載가 해산병 80명이 포함된 500명의 의병을 소모한 후 이인영을 찾아와 의병대장이 되어줄 것을 청하자, 원주로 출진, 관동창의대장關東倡義大將이 되어 사방으로 격문을 보내 의병을 모집하였다. 의병 수가 수천 명에 이르자, 반역배들의 재산을 몰수하여 식량과 자금을 조

달하였다. 9월에는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고, 의병은 순수한 애국 단체이니 열강은 이를 국제법상의 전쟁 단체로 인정해 적극 도와줄 것을 바란다는 관동창의대장 이름의 격문을 서울주재 각국 영사관으로 전달하였다. 이어 횡성 · 지평 · 춘천 등지를 전전하며 의병을 모으는 데 노력하면서 평안도와 함경도를 제외한 각 도에 격문을 보내 경기도 양주로 모일 것을 촉구하였다. 11월에 격문에 호응한 각 도의 의병장들이 속속 양주로 모여들었다. 경기도의 허위許蔿, 황해도의 권중희權重熙, 충청도의 이강년, 강원도의 민긍호閔肯鎬, 경상도의 신돌석申乭石, 전라도의 문태수文泰洙(일명 泰鉉), 평안도의 방인관方仁寬, 함경도의 정봉준鄭鳳俊 등이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는 격문을 보내지 않았는데도 방인관이 평안도에서 80여 명, 정봉준이 함경도에서 70여 명을 거느리고 자진하여 참여하였다. 이 때 양주에 모인 의병 수는 약 1만여 명으로, 그 중에 근대식 무기를 가진 진위대 출신 병사와 기타 훈련받은 군인이 약 3,000명이었다. 13도 의병장들의 연합전략회의 결과 원수부 13도총대장에 추대되어, 전병력을 24진으로 하는 13도의병연합부대를 편성하였다. 의병부대는 서로 기일을 정하고 서울 동대문 밖에 모여서 대오를 정비한 뒤 일거에 서울을 공략할 작전계획을 세우고 진격을 개시하였다. 그런데 이 중대한 시기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이 전해져 문경으로 돌아가 아버지의 장례를 마쳤다. 그뒤 여러 차례 의병들이 찾아가 재기할 것을 권유했으나, 아버지의 3년상을 마친 뒤 다시 13도의 창의군을 일으켜 권토중래捲土重來의 세력으로 일본인을 소탕하겠다고 말하면서 그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뒤 노모와 두 아들을 데리고 상주군에 숨어 살다가 다시 충청북도 황간군 금계동으로 옮겼는데, 1909년 6월 7일 일본 헌병에게 잡혀 경성감옥에서 죽었다.

『梅泉野錄』

『騎驢隨筆』

『韓國獨立運動之血史』(朴殷植, 維新社, 1920)

『한국독립운동사』1(국사편찬위원회, 1965)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의병과 독립군』(윤병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7)

「의병전」(윤병석, 『한국근대사료론』, 일조각, 1979)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엄항섭嚴恒燮

본적은 경기도 여주 금사면 주록리이다. 1898년 9월 1일 승지를 지낸 부친 엄주완嚴柱完의 아들로 태어나 1962년 7월 30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독립운동가 · 정치가. 본관은 영월寧越. 호는 일파一波이다. 중국망명 당시에는 일명 예빗 · 엄이라고도 불렀다. 보성법률상업학교에서 들어가 신교육을 받던 중 거족적으로 전개된 3 · 1운동을 경험하면서 독립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하고 상해로 망명하여 임시정부에 참여하여 법무부 참사가 되었다. 그러나 학업을 계속하고자 항저우抗州에서 지장대학芝江大學에 입학하여 중국어 · 영어 · 불어 등 어학을 공부하였다. 어학을 공부한 것이 후일 그가 임시정부에서 활동하

는 데 주요한 자산이 되었다.

1922년 절강성浙江省 항주杭州에 있는 지강대학之江大學을 졸업한 후 임시의정원臨時議政院 의원과 임시정부 비서국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이때는 수립 초기 국내외에서 많은 모였던 인사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뿔뿔이 흩어진 것이다. 그는 임시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유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는 프랑스 조계의 공무국에 취직하였다. 자신이 월급을 받아 그 돈으로 임시정부 요인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또 일본영사관에서 한인들을 체포하려는 정보를 얻어내고자 하는 의도도 있었다. 그는 임시정부에 참여한 이래 줄곧 김구와 함께 활동하였다. 자신의 활동이나 역할이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지만, 김구가 활동하는 곳에는 거의 그가 있었다. 1926년 12월 김구가 국무령에 취임하여 임시정부를 활성화시킬 방안을 강구하려고 헌법을 개정할 때 헌법개정 기초위원이 되어 그 일을 담당하였다.

1927년 단일지도체제의 폐단을 극복할 수 있는 집단지도체제로의 임시정부 헌법을 개정하고, 미주동포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요청하는 선전활동을 벌였다. 1930년에는 김구와 함께 한국독립당을 창당하고 이봉창 · 윤봉길 의거 직후에는 김구의 최측근으로 한국의 독립의지를 대내외에 널리 알리는 선전활동에 앞장섰고, 김구를 수행하여 장개석과 회담함으로써 중국군관학교에 한인청년들을 훈련시킬 수 있게 하였다.

1931년 한국교민단韓國僑民團의 의경대장義警隊長으로 활동하면서 조선혁명당朝鮮革命黨을 조직하여 조직의 재무를 맡았으며, 애국단愛國團 조직에 참여하여 김 구의 주도하에 계획되어진 윤봉길尹奉吉의사의 홍구공원虹口公園의 의거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1936년부터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계속 활동하였다.

1937년 2월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韓國光復運動團體聯合會를 결성하여 항일 전선을 구축하였으며, 임정의 결산위원을 담당하였다.1940년 5월 3당 통합운동에 참여하여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하고 그 집행위원에 선임되었으며, 1941년 10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외무위원회外務委員會 위원장에 선출되었고, 이어 한 · 중문화협회韓 · 中文化協會의 한국측 이사에 선임되었다. 1944년 5월 임시정부의 선전부장 및 주석판공비서가 되어 해방될 때까지 독립운동에 헌신하다가 1945년 11월 김구金九와 함께 환국하여 계속 한국독립당 선전부장에 취임하였으며, 1946년 2월 1일 개최된 비상국민회의에서 선전위원장이 되었다. 1947년 3월 1일 국민의회 전국대표자대회의 임시정부확대강화에 따른 정무위원 개편에서도 정무위원이 되어 선전부장으로 임명되었다. 1948년 남북협상에는 4월 20일 한국독립당 대표단 5명과 함께 참가하여 전조선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에 이어 개최된 남북조선 제정당사회단체 지도자협의회, 속칭 남북요인회담에 참가한 15명의 한 사람으로 4월 30일 공동성명 기초에 참여하였다. 1949년 6월 26일 김구가 피살될 때까지 그를 보좌하다가 6 · 25전쟁 때 납북되었다. 1956년 7월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상임위원 겸 집행위원을 지냈다.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966)

『명치백년사총서』(김정명, 1966).

『포상자 공적조서』(국가보훈처 공훈전자사료관)

『북한정치사연구』 I 건당 · 건국 · 건군의 역사(김광운, 선인, 2003)

『압록강변의 겨울』(이태호, 다섯수레, 1991)

「북의 통일정책과 월 · 납북인의 통일운동(1948~1961)」
(이신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5)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일파 엄항섭 지사」(최병수, 『충북사학』10, 1998)

이은영李殷榮

본적은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이다. 1868년 4월 5일(고종 5)에 태어나 1921년에 사망하였다.

조선 말기의 의병. 여주 출신. 1908년 13도창의군十三道倡義軍을 조직한 이인영李麟榮의 동생이다. 13도창의군의 서울진공작전 때 형과 함께 참전하였다가 일군에게 패해 여주로 퇴각하였으며, 여기에서 다시 일군과 접전을 벌인 끝에 패하고 말았다. 하지만 1909년 6월 형 이인영의 피체로 의진이 해산될 때까지 의병항전을 계속하였다.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로 된 이후에도 독립을 위한 비밀결사에 가담하였다. 즉, 임병찬林炳瓚 · 이인순李寅淳 등을 중심으로 1913년 9월경 조직된 독립의군부獨立義軍部에 참여하였다. 독립의군부는 행정기관과 민권기관을 두었는데, 도道 · 군郡 · 부府 · 면面 등의 행정구역별로 관제를 조직하는 등 정연한 체계를 갖추었다. 독립의군부는 일제 내각총리대신 및 조선총독 등에게도 조국독립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보내고 격문을 작성하여 외국공관과 외국인에게 배부하는 등의 활동을 하다가 1914년 4월경 붙잡혀 고초를 겪었다. 구체적인 인선작업 중에 조직이 발각되어 붙잡혔다. 1921년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전개하

기 위하여 북간도로 가던 도중에 마적의 습격을 받아 죽었다고 전한다. 1990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의병항쟁일기』(임병찬, 한국인문과학원, 1986)
『독립운동사자료집』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국, 1934)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하여」(이상찬, 『이재룡박사환력기념 한국사학논총』, 1990)
「대한독립의군부에 대하여」(신규수, 『변태섭박사화갑기념사학논총』, 1985)

연천, 삭녕의 인물

연기우延基羽

경기도 삭령朔寧 출신이다. 생몰년은 미상이고 1910년 또는 1914년 의병장으로 활동중 전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조선 말기의 의병장. 일명 봉렬奉烈 · 기호基浩. 일찍이 군문에 들어가 강화진위대江華鎭衛隊에서 부교副校로 복무하던 중 1907년 8월 군대해산이 일제의 책동에 의하여 강행되자 통분한 나머지 거사할 것을 결심하였다. 동료 지홍윤池弘允과 함]께 제물포濟物浦에서 의거의 기치를 올리고 일제에 항거하다가 동지 김동수金東秀가 전사하고 지홍윤이 서해西海로 진출한 후 홀로 부하 60여명을 거느리고 적성積城 · 삭녕 · 철원鐵原 · 마전 · 장단 · 도산 등지로 진출하였다. 본래 군인출신인데다가 지智와 용勇을 겸비하여 싸우면 반드시 이겼으므로 적들이 감히 접근하지 못하였다. 또한, 군율이 엄정하여 민폐를 끼치는 일이 없어 도처에서 민심을 얻었으므로 지방민의 비호로 적을 크게 무찔러 많은 전과를 올릴 수 있었다. 1907년 가을 이인영李麟榮을 총대장으로 하는 13도연합의진이 형성되고 서울 진공을 감행하였을 때 그도 부하들을 거느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

지 진격하였다. 그러나 미리 약속한 다른 의병부대가 도착하지 못하였고, 또 기밀이 누설되어 적의 방비가 완비되었기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다. 1908년 2월 허위許蔿를 총대장으로 추대하고, 적성 방면에서 활약하며, 전국적인 의병연합세력의 규합을 꾀하기도 하였으나 총대장 허위가 붙잡혀 순국하자 수포로 돌아갔다. 1908년 가을 강기동姜基東 의진과 연합작전을 전개하여 포천 송우松隅, 철원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점차 일본군의 대처가 강화되어 가자 이들은 부대 구성을 소수 정예 부대로 편성하여 게릴라전으로 전환시켜 1910년까지 그 유대감을 잃지 않았다. 1909년 8월 이후 대체로 철원 · 연천漣川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그러나 1910년 2월부터 일제가 의병소탕전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점차 패색이 짙어져 갔다. 그는 삭녕에서 다시 안협安峽으로 물러났고, 4월 장단長湍에서 크게 패하고, 5월 일본군에게 사로잡혔다가 탈출하였다. 그뒤에도 활동을 계속하다가 국권상실 후 일본군에게 잡혀 순국한 것으로 전해진다. 워낙 신출귀몰하였기 때문에 일제의 기록에도 활동설과 사망설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梅泉野錄』

『大韓季年史』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운동사』(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독립운동사자료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義兵傳」(윤병석, 『한국근대사료론론』, 일조각, 1979)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1997).

왕회종王會鍾

본적은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이다. 1879년 11월 23일태어나 1925년 1월 8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아버지 왕재만과 어머니 우봉이씨 사이에 서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자는 광일光逸, 호는 두암斗菴이다.

한말의 의병장으로 본명은 영종榮鍾. 18세에 서당을 운영하다 21세때 숭의전 참봉에 임명되어 근무하던 중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연천에서 의병을 일으켜 500여 명의 의병을 지휘하며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여 금성 · 토산 등지에서 승리를 거두고 북으로 진격하여 혜산진惠山鎭까지 올라갔다. 이어 1907년 정미7조약丁未七條約으로 군대해산이 강행되자 조인환曺仁煥 · 권준權俊 · 김진묵 등과 함께 약 천명의 의병을 이끌고 경기도 양주楊州 · 파주坡州 · 적성積城 일대에서 활약하였다. 10월에는 경원가도의 동부로 진격하여 춘천春川 · 낭천狼川 · 양구楊口 등지에서 활약하였다. 1908년13도 연합의진의 총대장 이인영李麟榮이 문경으로 돌아간 후 허위許蔿를 총대장으로 추대하여 임진강 일대로 집결하자, 이에 합류하여 폭넓은 연합의진에 편입되어 활동 무대를 넓히게 되었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중국 혁명당과의 제휴룰 모색하는 한편 전국적인 규모의 연합 의진을 계획하였다. 그러나 6월 11일 총대장 허 위가 체포되어 10월에 순국하자 임진강 일대에서 활약하던 연합 의진은 다시 독자적인 의진 구성으로 흩어져 갔다. 그후 만주로 망명하여 청년교육에 힘쓰다가 의병 운동 중에 당한 부상이 악화되어 죽었다.

『독립운동사자료집』 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 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독립운동사』 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조선독립운동』 Ⅱ(김정명 편, 원서방, 1967)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조시원趙時元

본적은 경기도 연천군 남면 황방리篁芳里 116이다. 1904년 10월23일 태어나 1982년 7월 18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아버지 조정규趙禎奎와 모친 박필양朴必陽 사이에서 7남매 중 6남으로 출생하였다. 본명은 용원鏞元, 호는 호일胡逸, 시원時元은 별명이었는데, 독립운동기에 통명通名으로 사용하여 본명 같이 불렸다.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조소앙의 동생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관보官報〉와 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전람轉覽 사건에 연루되자 1920년 16살에 중국 상해로 망명하였다.상해남방대학 부속 중학교上海南方大學 附屬 中學校와 부속 고급高級중학교를 졸업하고 다시 상해 남방대학 역사사회학과에 진학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는데 있어 이론적 무장을 하였다.

만주로 가서 조선혁명군 총사령 양세봉梁世奉장군과 협의하여 함께 동만청년동맹東滿青年同盟을 조직하고 이를 지도하여 무장 항일운동을 전개하였고,《중국대공보中國大公報》《시민일보市民日報》 기자 등 직책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1929년에 선생은 북경에서 항일비밀운동단체인 다물단多勿團에 가담하여 이규준李圭俊 · 이해천李海天 등과 같이 상해, 천진天津, 북경 등지에서 친일주구배 등의 숙청공작을 전개하기도하였다.

1928년 상해에서 한인청년동맹 상해지부 집행위원회 정치 · 문화부 및 선전조직부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1930년에는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결성하였다. 1935년에는 조소앙 · 홍 진 등과 함께 월간잡지《진광震光》을 발행하여 항일의식을 높였다. 1939년 10월 3일에는 임시의정원 경기도 의원에 선출되어 광복시까지 의정활동에 참여하여 항일활동에 전념하였다. 1940년 5월에는 3당 통합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한국독립당을 창당하여 그 중앙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1940년 9월 17일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광복군 총사령부 부관으로 임명되었으며 총사령부가 중경重慶에서 서안西安으로 옮겨짐에 따라 서안으로 가서 부관처장 대리로 복무하였다. 또한 임시정부 선전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하기도 하였다. 1941년에는 전시하에 급격히 소요되는 간부의 대량 양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군사교육기관인 중국 중앙전시간부훈련제4단 특과총대학원대 한청반(中央戰時幹部訓練 第四團 特科總大學員隊韓青班)에서 안일청安一清 · 한유한韓悠韓 · 송호성宋虎聲 등과 함께 군사 교관으로서 전술, 역사, 정신교육을 담당하며 민족정신 앙양에 진력하였다. 1943년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군법 실장軍法室長에 피임되어 항일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광복군 정령正領으로 복무하였다.

『한국독립운동사』(문일민, 애국동지원호회, 1956)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국사편찬위원회, 1967)

『한국독립운동사』(국사편찬위원회. 1971)

『 독립운동사』(국가보훈처, 1971)

『독립운동사자료집』(국가보훈처, 1971).

조용하趙鏞夏

본적은 경기도 연천군 남면 황방리篁芳里 116이다. 1882년 태어나 1937년 사망하였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아버지 조정규趙禎奎와 모친 박필양朴必陽 사이에서 7남매 중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조소앙趙素昻의 형이다.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독립유공자 · 외교관. 호는 구심求心. 양주 출신. 정규禎奎의 아들이며, 소앙素昻의 형이다. 1901년 대한제국 주독駐獨 · 주프랑스 공사관 참사관參事官을 역임하다가 1903년 귀국, 경기도 죽산 · 이천 · 마전의 3개군의 군수를 지냈다.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북경北京으로 망명, 경학사耕學社에 참가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13년 도미渡美하여 박용만朴容萬과 같이 하와이에서 조선독립단朝鮮獨立團을 조직하였으며, 1920년 7월 하와이 지방총회에서 지단장에 선출되어 기관지 "태평양시사"를 발행하는 등 활동하였다. 그는 또한 친동생인

상해임시정부 외무총장 조소앙趙素昂과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외교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였다. 1932년 4월 그는 조소앙으로부터 중한동맹회中韓同盟會 조직의 선언 및 입회용지의 송달을 받고 하와이 재류 동지를 권유하여 가입시켰으며, 임시정부와 유대를 갖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동년 10월에는 보다 본격적인 활동을 위하여 미국 기선 프레지던트 후우버호를 타고 상해로 가던 도중 고베[神戶]에 기항하였다가 이 정보를 입수한 일본경찰에게 붙잡혀, 1933년 1월 서울로 압송되어 2년 6월의 옥고를 치렀다. 그는 너무나 검소하여 재미在美 20여년간 넥타이 한 개만을 사용하였다고 한다. 출옥 후 옥고의 여독으로 죽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京城地方法院判決文」

조인제趙仁濟

본적은 경기도 연천군 남면 황방리篁芳里 116이다. 1918년 1월 30일 태어나 1997년 11월 30일 사망하였다.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받았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활약한 아버지는 조소앙趙素昂과 어머니는 오영선 사이에서 3남으로 태어났다.일찍이 조부모를 모시고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중국 사천성 중경에서 동구東丘대학을 졸업하였다. 1935년에 중국 중앙군관학교 낙양洛陽 분교에서 정치 훈련과 전술 및 내무, 교양관계의 학과를 수료하였다. 1938

년 5월에는 중국 중앙군 제45사대위로 임명되어 복무하였다. 1940년 9월에 한국광복군이 창설됨에 따라 광복군에 입대하였으며, 11월에 광복군 총사령부가 중경重慶에서 서안西安으로 이동됨에 따라 서안西安에서 총사령부 부관으로 임명되어 복무하였다. 1941년 2월에는 광복군 제1지대의 간부로 임명되어 임지인 산서성山西省 방면으로 전진하였다. 먼저 추림현秋林縣 극란파克難坡에 주둔하고 있는 산서성 주석이며 중국군 제2전구 사령장관인 염석산閻錫山에게 광복군 전방공작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총사령부 공문을 전달하여 긴밀한 연락을 취하면서 산서성山西省 북부 대동大同을 중심으로 하여 적 점령 하에 있는 태원太原, 석가장石家莊, 임분臨汾 등의 주요 도시에 거주하는 한국 교포를 대상으로 초모, 선전, 첩보공작을 전개하는 한편 중국 유격대와 협조하여 유격전에 가담하기도 하였다. 1942년 10월에는 다시 총사령부에 복귀하여 서무과에 근무하였으며, 1943년 8월에는 광복군 총사령부 인사과장에 임명되었다. 이후 광복시까지 광복군 참령參領으로 총사령부에 계속 복무하였다. .

『한국광복군연구』(한시준, 일주각, 1994)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한상도, 문학과 지성사, 1994)

『자료한국독립운동』(추헌수, 연세대학교출판부, 1975)

『대한국민임시정부원문서』(국회도서관, 1974)

『독립운동사』6(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용인의 인물

김경운金敬云

경기도 용인군 수여면 김량장 145번지 출신이다. 1879년 3월 13일에 태어났으나 몰년은 미상이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9년에 대통령표창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28일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수여면水餘面 금양장리金良場里에서 임원호任元鎬와 함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김경운은 주민들에게 만세시위 운동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모두 용인군청 앞으로 가서 조선독립만세를 부를 것을 제안하였다. 주민의 동의를 얻은 후 장날을 이용하여 주민 약 300명과 함께 미리 만들어 놓은 태극기를 흔들며 용인군청 앞에서 독립만세를 소리 높여 불렀다. 김경운은 이날의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가 일경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13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判決文」(京城地方法院 : 1919. 5. 13)

『독립운동사』제2권(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69~170면

여준呂準

본적은 경기도 용인군龍仁郡 원삼면遠三面 죽능리竹陵里이다. 1860년 태어나 1932년 사망하였다.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애국계몽운동가로 호는 시당時堂. 본명은 조현祖鉉이다. 한말 애국계몽운동가로 활동하다가 1910년 이후 만주로 건너가 민족교육사업과 무장독립단체 활동 등 항일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향리에서 한학을 익히고 성년이 되어 서울에서 신학문을 섭렵하며 1896년 성균관 직원으로 근무하였다.1905년 을사늑약으로 일제의 침략이 본격화되자, 선생은 이상설, 정순만, 이동녕 등과 함께 민중의 애국사상고취를 위한 교육계몽의 필요성을 깨닫고 민족교육활동을 통한 구국운동을 계획하였다. 1906년 이상설李相卨 · 정순만鄭淳萬 등과 함께 북간도 용정龍井에 서전서숙瑞甸書塾을 설립하여 교포 자녀들에게 항일민족교육을 실시하였다. 1907년 4월 고종의 명을 받고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는 밀사 이준李儁을 안내하여 간도에서 이상설李相卨을 만나게 하였다. 이상설의 뒤를 이어 서전서숙의 제2대 숙장이 되었으나 감시와 방해가 심해지고 재정난이 겹치자 3개반 74명을 단기 속성과정으로 졸업시키고 1907년 9월경 폐교하였다. 이후 국내로 돌아와 비밀결사 신민회에 가입하여 활동하며 오산학교의 교원으로 있으면서 1908년 용인 원삼면 죽릉리에서 삼악학교를 세워 신교육을 통한 구국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1910년 일제의 강점 이후 탄압으로 국내에서의 활동이 어렵게 되자 가족을 이끌고 서간도로 망명하여 1912년 간도에서 부민단扶民團을 조직하여 동포들의 자활과 교육에 나섰고, 독립군 양성을 위해 설립된 신흥무관학교에서 이탁李鐸등과 함께 신흥학교 유지회를 조직하여 독립군 양성을 위해 노력

하였다.1913년 신흥학교의 교장이 되어 교감 윤기섭尹琦燮, 학감 이광조李光祖등과 함께 학교의 발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였다. 1918년 2월 3 · 1운동에 앞서 정안립鄭安立 · 박성태朴性泰 · 박찬익朴贊翊 · 정신鄭信 · 유동열柳東說 · 신팔균申八均 · 김동삼金東三 · 손일민孫逸民 · 김동평金東平 · 김좌진金佐鎭 · 서일徐一 등 국외 애국지사 39인과 함께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1919년 3월 박찬익 등과 함께 길림吉林에서 길림 군사독판부를 조직하여 단장으로서 대일항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한편, 서로군정서의 부독판으로서 독판 이상룡李相龍과 함께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20년 12월 4일 대한민국임시정부 간서총판부間西總辦府를 설치하여 총판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1921년 5월 이탁李卓 · 김동삼 · 곽문郭文 · 이진산李震山 등과 함께 효과적인 항일투쟁을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개조改造를 요구하기도 하였다. 1922년에는 액목현 황지강자額穆縣潢池崗子에 검성중학儉成中學을 설립하여 교장으로서 인재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1930년 1월 상해上海로 가서 김구金九 · 이동녕 · 안창호安昌浩 · 이탁李拓 · 지청천池青天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을 결성하여 삼균주의三均主義를 표방하는 강력한 항일투쟁을 전개하였다. 1931년 만주사변滿州事變이 발발하자 장백산長白山에 은거하다가 죽었다.

『高等警察要史』(慶北警察部,1934)

『武裝獨立運動秘史』(蔡根植,1947)

『明治百年史叢書』(金正明, 1966)

『용인군지』(용인군,1990).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

오광선吳光鮮

본적은 용인군 원삼면 죽능리 어현於峴이다. 1896년 5월 14일 에서 의병장 오인수吳寅秀와 어머니 이씨 사이에서 맏아들로 태어나 1967년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1915년 만주로가 초명 오성묵을 버리고 '조선의 광복을 되찾겠다'는 뜻을 넣어 오광선吳光鮮으로 이름을 바꿨다.

11세 때 부친이 의병장으로 활약하던 끝에 의병 토벌대장 송변준의 아들 송종헌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동안 여준呂準선생이 설립한 삼악三岳소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한 후 서울로 올라와 청년학원에 입학하였다.그러나 그가 3학년이 되었을 때 이 학교는 강제 폐교되자 은사 장지영張志映 선생의 도움으로 1915년 만주로 망명하였다.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를 졸업하고 동교 교관을 역임하였다. 이어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 제1대대 중대장, 별동대장을 거쳐 경비대장으로 활약하였다. 1920년 국민회군國民會軍의 홍범도洪範圖, 서로군정서西路軍政署의 지청천池青天, 북로군정서의 김좌진金佐鎭 등이 밀산密山에서 만주 독립군을 통일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조직하였을 때, 중대장에 임명되었다. 1930년 한족회와 생육사生育社를 모체로 한 한국독립당이 결성되면서, 일제의 만주 침략에 대비하여 한국독립군이 편성되자, 의용군 중대장으로서 총사령 장관 지청천, 부사령 장관 남대관南大觀, 참모관 신숙申肅 등과 함께 적극적인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하였다. 1931년 12월 사령관 지청천을 수행하고 중국 호로군 사령관 정초丁超를 방문하여 한 · 중 연합군을 구성하였으며, 연합군은 1933년 7월초 수분하 대전자綏芬河

大甸子에서 일본군 대부대를 궤멸시키는 대승을 거두었다. 1935년 동북항일한중연합군 대대장에 임명되었고, 1937년에는 중국 낙양중앙군관학교 교관이 되어 독립군 양성에 많은 노력을 하였다. 1940년 1월 북경北京에서 일본경찰에 붙잡혀 신의주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재차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였다. 8·15광복으로 귀국한 뒤에는 국군에 입대하여 육군 대령으로 임관되었으며 육군 준장으로 예편하였다. 이와 같이 그는 만주로 망명한 뒤 각 독립군 단체의 주요 역할을 담당하면서 독립군 활동과 후진 양성에 진력하였으며, 광복 후에는 국군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武裝獨立運動秘史』(채근식, 1948),
『대한민국독립유공자공훈록』(국가보훈처, 2008)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독립운동사』 4·5·6·7(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1975)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독립군의 전투」(신재홍, 『민족운동총서』 4, 민족문화협회, 1980)

오의선吳義善

본적은 경기도 용인龍仁군 원삼면 죽릉리 669번지이다. 1889년 12월 8일에 태어

나 1931년 5월 6일 옥사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8세 때 종로청년학원 4년을 수료하고 21세 때 사립 대동법률전문학교를 졸업했다. 25세 때 동경 정측영어학교에 입학했으나 2년만에 중퇴하고 귀국하였다. 그는 1919년 독립운동에 투신할 것을 결정하고 상해로 간 것으로 추정된다.

동년 4월 13일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 의정원 경기도 대표 신석우申錫雨 등 4명과 같이 초대 의원이 되어 입법활동을 통하여 임정의 진로를 모색하였다. 임시의정원법에 의해 손정도孫貞道를 임시의정원 의장으로 뽑고 나서 그는 홍 진 등과 같이 청원법률심사위원회 위원 이춘숙 등과 같이 의정원 세칙제정위원회 위원으로 각기 선출되어 입법부의 업무를 주도적으로 처리하였다.

같은 해 6월에 제5차 임시의정원회의에서 각 상임위원회(모두 9개 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였는데 그는 예산결산위원장에 선임되었다. 특히 1919년 5월 2일 제4회 회의에서는 임시의정원 의장이 재정문제 타결을 위한 의견을 타진할 때 내외 공채公債의 발부, 의연금 수합, 세금의 징수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확보, 운영케 하되,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면 강제규정을 두자고 강경한 입장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1919년 7월에 조직된 대한적십자회의 상의원常議員에 선출되어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 시대일보時代日報 기자 등으로 근무하면서 직접 군자금을 모집하였다고 하며,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공산당의 주류였던 화요파에 관계하였고 정우회 상무집행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 · 2차 조선공산당에 참가한 후 피신하였다가 다가 1931년 3월에 일경에 체포되어 동년 4월에 경성지방법원에

서 징역 3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동년 5월 7일 옥중에서 43세를 일기로 옥사 순국하였다.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 3 · 4 · 9 · 1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 1984)
『고등경찰요사高等警察要史』(경상북도경찰부, 1934)

이한응李漢應

본적은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화산리이다. 1874년 10월 30일 태어나 1905년 5월 1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충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892년에 육영공원育英公院을 졸업하고 1897년에 한성부주사漢城府主事가 되었다가 1899년에 관립영어학교의 교관이 되었다. 1901년 3월에 영국 벨지움 양국주차공사관英白兩國駐箚公使館의 3등 참서관에 임명되어 런던에 부임했으며 1904년에 서리공사署理公使로 승진하였다.

일제는 1904년 2월 10일 러 · 일전쟁을 도발하면서 일본군을 한국에 불법 상륙시키어 2월 23일 「제1차 한 일의정서」를 강제 체결해서 한국을 일제의 전쟁에 동원하도록 강요하였다.

8월 22일에는 외국인고문에 관한 협정을 강제 체결하여 12월 27일 친일미

국인 스티븐스를 외교고문에 임명했으며, 1905년 4월 5일에는 일본이 한국의 외교를 대리해 준다는 구실로 주청국駐淸國 한국공사관을 철수시켰다.

5월초에는 주영국 한국공사관, 7월에는 주미국 한국공사관을 철수시켰다. 그는 주영국 한국공사관을 철수시킨다는 통보를 받자 일제에게 국권이 빼앗긴데 통분하여 이를 항의하고, 런던의 각국 공사들에게 한 · 일관계와 한국이 아직 독립국가임을 설득하고자 했으나 주영한국공사관의 활동은 이미 외교권이 없다고 불응하였다. 이에 국민과 조정에 경종을 울려 주기 위해서 유서를 남기고 1905년 5월 12일 런던에서 자결 순국하였다.

그는 유서에서 "슬프다, 나라는 주권을 상실했고 국민은 평등을 잃었으니 무릇 외교교섭 관계도 치욕을 헤아릴 수 없게 되었다. 진실로 혈기가 왕성한 사람으로 어찌 참고 견딜 수 있겠는가. 슬프다, 종사宗社가 장차 없어질 것이고 민족은 장차 노예로 될 것이니, 구차히 살려면 욕됨이 더욱 심할 것이다. 어찌 죽는 것 보다 나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그의 자결은 『대한매일신보大韓每日申報』 등 국내 민족 언론기관에 상세히 보도되어 일제침략에 반대하는 민족운동을 격발시키는데 큰 자극을 주었다. 또한 그의 자결은 일제의 국권 박탈에 대한 최초의 〈자결〉이었으며, 관록을 먹은 관리들이 일제 침략에 대하여 죽음으로써 대항할 것을 촉구한 것이기도 하였다.

박은식朴殷植은 그의 『한국통사韓國通史』에서 이한응의 자결에 대하여 쓰기를, "이한응의 죽음은 즉 우리 민족이 최근에 있어서 보인 첫 번째의 혈광血光이다. 대개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의 신성한 가르침으로 예의를 숭상하고 충렬忠烈의 혈기가 역사에 끊어지지 아니했다. 진실로 이러한 것이 없었다면 어찌 4천년간의 국맥(國脈)을 지킬 수 있었겠는가. …… 광무 9년 5월에 이한응의 시신屍

身)이 해외에서 돌아왔는데 국치國恥를 참지 못해서 순절했으니 참으로 존경하고 고귀한 일로 국맥을 재현했으며, 계속해서 민영환閔泳煥 조병세趙秉世가 순국하여 충의의 기운이 크게 격앙된 것이다. 이러한 정신들이 우리 민족정신에 배어든 것이니, 그러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금수나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기려수필騎驢隨筆』
『순국열사이한응선생유사』(손세창, 문예홍보사, 1957)
『한국통사韓國痛史』(박은식, 대동편역국, 1915)
『朝鮮民族運動年鑑』(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第二課編, 東文社書店, 1946)

정철화鄭哲和

경기도 용인군 모현면 능원리 72 출신이다. 1878년 2월 7일 태어나 1943년 10월 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0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07년 광무황제光武皇帝의 강제퇴위와 한국군의 강제해산을 계기로 유생의 신분으로 거의擧義하여 서울진공작전의 군사장軍師長 허위許爲 휘하의 관서 창의군關西倡義軍 방인관方仁寬 부대에 들어가 비서秘書로서 의병 14명을 이끌고 경기도 여주군 이모산二毛山에서 일군과 교전하였다.

또 안성군安城郡 죽산면竹山面 칠장사七長寺에서 30여명의 소규모 의병부대를 편성하여 안성 · 충주忠州 · 청주淸州 등지에서 일군과 교전하여 많은 전과를 거두었으나 일군의 반격에 밀려 서울 외곽에서 은거하던 중 1907년 9월 30일 일경에 피체되어 유형流刑 15년을 언도받았다.

그 뒤 1913년 9월 임병찬林炳瓚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의 일원으로 국권회복을 위해 일제 내각총리대신 · 조선총독 등에게 국권반환요구서國權返還要求書를 보내려는 계획을 세우고 군자금 모금운동을 벌이다 1914년 4월 다시 일경에 체포되었다.

1915년 5월 1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강도 및 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13년형을 언도받아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같은해 7월 23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기각되어 옥고를 치렀다. 그 뒤 1932년 중국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지내다가 1941년 환국하였다고 한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9(국가보훈처, 1991)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이천의 인물

김원조金遠祚

경기도 이천시 율면 총곡리 출신이다. 1884년 6월 5일에 태어나 1922년 4월 1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3 · 1독립운동 때 이천에서 만세운동에 참가한 뒤 만주로 망명하였다. 만주 군정부軍政府의 연락기관을 서울에 설치하기 위한 군자금 모집활동을 하다가 1920년 12월 28일에 체포되어 예심 2년 끝에 10년 형을 언도받았다. 서대문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41세의 나이에 감옥에서 사망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매일신보每日新報』

『독립신문獨立新聞』

유택수柳澤秀

원래 서울출신으로 경기도 이천시 읍내면 중리 237번지에서 살았다. 1900년 출생으로 1929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이천 읍내에서 한학자로서 서당 훈장을 하던 유창육柳昌陸의 둘째 아들로서 동생 유남수柳滴秀와 함께 참의부參議府 국내 특파원 이수흥李壽興을 도와 무장항일 활동을 하였다. 가족으로는 부모와 큰누님 그리고 큰어머니 등 여섯이었다.

몸이 날래서 범처럼 날라다녔다고 동네에 소문이 자자하였다. 1925년 말부터 이천자동차부에서 일하다가 1926년 5월 이수흥이 일 요인암살 및 군자금 모집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들어오자 동소문파출소 습격, 2개월후인 동년 9월 10일 이수흥을 도와 경기도 안성에서 부호 박승륙朴承六으로부터 군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다가 불응하자 그의 아들 박태병朴泰秉 등을 사살하였다. 또한 동년 10월 20일에는 이수흥이 이천의 현방리玄方里 주재소등을 습격한 뒤에는 동생과 함께 그를 도피시켜 주었다.

동년 10월 25일에 그는 서울 수은동授恩洞 전당포를 습격하고 군자금을 모집하려고 하다가 주인을 사살하기도 하였다. 서울 · 경기 일원의 이러한 4대사건으로 수천명의 일경이 동원되어 계엄상태가 3개월 계속되었으나 용의주도하게 피신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26년 11월 마침내 일경에 체포되었으며, 수년간의 옥고 끝에 1928년 12월 2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어 1929년 2월 27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순국하였다.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大韓民國獨立運動功勳史』(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동아일보』(1926. 11. 17. 호외, 1928. 6. 29, 1929. 2. 28)

이수흥李壽興

경기도 이천 읍내면 창전리 224 출신이다. 1905년 출생으로 1929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아버지 이일영은 옛날 최현익 의병부대에서 부하로 활약하였고 이수흥은 6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다. 서울 어의동공립보통학교를 다니고 15세 되는 해에 이천군 영원암에서 2년간 승려생활을 한뒤 17세 되던 해에 서울로 올라왔다. 대화정에서 일본인이 운영하던 안등사진통신사에 고용되어 일하던 중 주인의 조선사람 차별에 분개하여 자유를 찾는 데는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옳다고 굳게 다짐하고 19세가 되던 해에 서울을 출발하여 걸어서 만주 관전현에 이르렀다.

만주에서 김좌진金佐鎭이 사관양성을 목적으로 길림성吉林省에 세운 신명新明학교를 졸업하였다. 1923년 7월경에는 대한통의부에 가입하여 활동하였으며, 대한통의부가 의군부로 확대 개편되자 의군부 총재 채상덕蔡相德의 부하로서 무장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그후 임시정부 직할의 육군주만참의부陸軍駐滿參議府에 가담한 그는 1925년 새총독이 시찰여행을 하고 있을 때 압록강에서 총독에

게 수류탄을 던지기도 하였으나 성사되지는 못했다. 한편 그는 주만참의부 제2중대 특무정사特務正士에 임명되어 1926년 5월에 모젤권총 1정과 동 실탄 147발, 부로닝 구식 권총 1정과 동 실탄 29발을 휴대하고 총독 및 일제 고관을 주살하기 위하여 국내로 들어왔다.

그는 먼저 군자금이 필요했으므로, 동년 7월 6일 황해도 평산군 안성면 발참리에 사는 김상렬金相烈을 찾아가 요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다시 경기도 이천군 읍내면 중리에 사는 유택수柳澤秀의 집으로 가던 도중 동월 10일 서울 동소문東小門파출소를 습격하여 보초근무중인 일경 도꾸나가德永勝次를 저격하여 중상을 입혔다.

동년 9월 9일에는 안성安城에서 유택수와 함께 군자금 요청을 거절하는 부호 박승육朴承六의 아들 박태병朴泰秉을 사살하였다. 그리고 10월 20일에는 경기도 이천군 현방玄方 경찰주재소를 습격한 후 다시 백사柏沙면사무소를 습격하여 면서기 송천의宋天義를 사살하였다. 그후 새로운 계획을 위하여 변장하고 서울로 피신하였다. 동년 10월 25일에는 동지 유택수柳澤秀로 하여금 서울 수은동授恩洞에 있는 전당포를 습격하여 주인을 쏘아 죽이게 하였다.

그러나 10월 20일 경에 부친이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득이 수원水原으로 내려가 장례를 치루었다. 이때 이천경찰서장 하기河岐는 범인의 신장이 불과 5척이라는 말을 듣고 관내에 거주하는 신장이 5척되는 사람을 모조리 조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일경 3천여명이 동원된 삼엄한 계엄상태의 3개월 동안, 4대사건을 신출귀몰한 수법으로 흔적도 없이 수행하던 그는 유택수와 함께 11월 6일 체포되어 3년의 예심 끝에 1928년 7월 10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을 언도받고 1929년 2월 교수형으로 순국하였다.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

전덕기全德基

경기도 이천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활동하였다. 1875년 12월 8일 태어나 1914년 3월 2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권회복운동에 끼친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896년 독립협회獨立協會에 가입하여 1898년에 만민공동회萬民共同會 운동에서는 간부급으로 활약하였다.

독립협회 해산 후에는 기독교에 더욱 정진하여 상동교회尙洞敎會 목사가 되어, 공옥학교共玉學校와 상동 청년학원靑年學院을 설립해서 교육계몽운동에 종사하였다.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해서 소위 「을사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상동교회에 동지들을 모으고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1906년 이 준 박정동朴晶東과 함께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를 설립하여 국권회복을 위한 교육구국 운동을 전개하였다.

1907년에는 이준을 헤이그 밀사로 파견하는데 배후 역할을 하였다. 헤이그 밀사 파견의 계획은 이 준 · 전덕기 · 이회영李會榮 등이 1907년 6~7월에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만국평화회의가 개최된다는 『대한매일신보』의 양기탁의 전갈을 받고 상동교회 뒷방에서 준비되어 고종의 윤허를 받고 추진된 것이었다.

1907년 4월에는 양기탁梁起鐸 · 안창호安昌浩 · 이회영李會榮 등과 함께 국권회복을 위한 비밀결사인 신민회新民會 창립의 핵심인사로 활동했으며 신민회의 간부급 회원이 되었다.

신민회는 1905년 을사보호늑약이 체결된 뒤 조직된 일종의 비공개 비밀결사이다. 이들은 비밀리에 국내외의 애국지사들을 망라하여 조직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의병운동'을 책동하여 무력으로 왜구의 침략에 저항하고자 하였다. 또한 학교를 세우고 신문잡지를 간행한 것도 이들의 주된 활동내용이었다. 나아가 이들은 청년회 · 농공회 등을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주입하고 애국사상을 고취하였다.

1911년(신해) 10월 신민회사건이 발생하였다. 신민회는 혁명적 비밀결사로 전덕기全德基 · 이동녕李東寧 · 안창호 등 전국의 우수한 인재들이 총망라되어 조직되었다. 일본은 신민회원들이 조선총독 데라우치寺內正毅를 암살하려했다는 누명으로 120여 명을 체포하였는데 이는 한국혁명의 싹을 근본적으로 자르려는 속셈이었다. 일제의 잔혹한 고문으로 심문 도중에 늑막염으로 쓰러져서 불기소되기는 했으나 석방 후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병으로 신음하다가 1914년에 결국 일제의 고문의 여독으로 서거하게 되었다.

『백범일지白凡逸志』

『대한계년사大韓季年史』상

『일제하감리교회삼대성좌』(송길섭, 성광문화사, 1982)

『상동교회구십년사』(상동교회, 1980)

진위, 평택의 인물

안재홍安在鴻

경기도 진위군(현 평택시) 고덕면 두릉리 646번지 출신이다. 서울 평동 75의 6에서 생활하였다. 1891년 12월 30일 태어나 1965년 3월 1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가족으로는 1936년 당시 부인 이정순과 2남 1녀가 있었다. 20세에 경성기독교청년회학관 3년을 수업하고 1914년 7월 와세다대학교 정치경제과를 졸업하였다. 1912년 일본 동경東京에 거주하던 한국인 유학생을 중심으로 조선유학생朝鮮留學生 학우회學友會를 조직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는데 힘썼다. 1913년 1월 대학에 재학중 중국 상해上海로 건너가 독립단체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였다.

1915년 중앙학교 학감을, 1917년 경성기독교청년회학관 부관장을 역임하였다. 1919년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大韓民國臨時政府의 지령에 따라 서울에서 청년들을 규합하여 청년외교단青年外交團을 조직하고 총무를 담당하여 활동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9월 27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언도받고 옥고

를 치렀다.

1927년 1월 조선일보朝鮮日報의 주필로 재직하고 있을 때 신간회新幹會의 총무간사에 임명되어 강령을 작성하고 발표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였고, 각 지방의 창립총회를 지원하기 위하여 강연 등을 실시하면서 언론을 통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1928년 12월 전남 광주光州에서 학생운동이 일어나자 당시 좌 · 우 협동체인 신간회와 협동하여 조선일보 부사장직에 있으면서 조선민중대회朝鮮民衆大會를 열고 일제의 민족차별 정책을 규탄하다가 체포되어 1930년 1월 1일 기소유예되었다.

1937년 5월 남경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 학생모집 운동으로 체포되어 경성지방법원에 회부되고 1938년 5월 4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치안유지법으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다. 1939년 3월에는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

1942년 12월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에서 착수한 조선어사전편찬사업에 연관되어 함경남도 홍원洪原 경찰서에 수감되어 옥고를 치르던 중 광복을 맞이하였다. 광복후 미군정청 군정장관, 민의원 의원 등으로 건국사업에 이바지하다가 한국전쟁 당시 북에 납치되었다. 북에서 재북평화통일협의회에서 활동하였다.

『민세 안재홍 심층연구』(한국학중앙연구원, 황금알, 2005)

『한국현대인물사론韓國現代人物史論』(송건호, 한길사, 1984)

『민세안재홍선집民世安在鴻選集』 Ⅰ · Ⅱ(안재홍선집간행회 편, 지식산업사, 1981)

『한민족의 기본진로』(안세홍, 조양사, 1949)

『조선상고사감』(상 · 하)(안세홍, 민우사, 1947)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안세홍, 민우사, 1945)

『朝鮮民族獨立運動史』(坪江汕二, 巖南堂書店, 1966)

이규선李圭璇

경기도 진위군 북면 봉남 282 출신이다. 1895년 6월 21일 태어나 1955년 8월 21일 사망하였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려 2006년에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경기도 수원군水原郡 성호면城湖面(현 오산시) 오산烏山 시장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다. 성호면에서는 1919년 3월 29일 오산 장날 오후 5시 경부터 오산시장에서 300여 명이 만세시위를 전개하였다. 이들은 오산시장과 면사무소, 오산경찰관주재소 등지에서 태극기를 흔들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주재소 순사가 주민 수명을 체포하자 시위대는 격렬하게 항의하여 이들을 석방시켰다. 이규선은 3월 29일 오후 7시 30분 경 성호면사무소에 가서 면장의 독립만세운동 참가를 촉구하고, 이후 면사무소와 우편소를 파괴하였다.

시위 후 체포된 이규선은 1919년 11월 6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소요, 기물 훼손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1920년 9월 1일 출옥하였다.

「경성지방법원 판결문」(1919년)

원심창元心昌

경기도 진위군 서면 안정리 175번지 출신이다. 중국 상해에서 활동하였다. 1906년 12월 1일 태어나 1971년 7월 4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고향에서 3 · 1독립운동에 참가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1920년 동지 박열朴烈 등과 함께 흑우회黑友會에 가입하여 1924년 8월 무정부주의無政府主義 최초의 노동조합인 동흥노동조합東興勞動組合에 가입하여 항일운동을 전개하였다.

1925년 9월 북경 · 상해 등지에서 무정부주의 운동에 진력하였으며 1926년 5월 기관지 ≪흑우黑友≫를 발행하기도 하였다. 1927년 2월 흑풍회黑風會를, 1928년에는 흑우연맹黑友聯盟을 조직하였다. 1929년 4월 동경유학생학우회東京留學生學友會 폭력사건으로 징역 3월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렀으며 출옥후 중국으로 건너가 1931년 6월 흑색공포단黑色恐怖團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였다.

1932년 11월 천진 일본영사관 일군병사日軍兵舍를 폭파하는데 모의하였으며 1933년 3월 1일 항일선전문을 등사하여 상해의 동포들에게 배포하여 항일정신을 고취하였다. 동년 3월 흑색공포단의 동지들과 회합하여 유길명有吉明 주중駐中 일본공사가 장개석蔣介石 총통의 만주포기 및 열하지방熱河地方 대일부저항對日不抵抗을 책동하는 음모를 폭로 · 저지하는 대책을 모의하고 이강훈李康勳 · 백정기白貞基 등과 유길명을 처단할 목적으로 대기하던 중 현장에서 3명 모두 피체되었다. 1933년 11월 24일 일본 장기재판소長崎裁判所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고 1945년 징역 20년으로 변경되어 12년 6개월의 복역을 마치고 출옥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이 조국 어디로 갈 것인가』(정화암, 자유문고, 1982)

『항일독립운동사』(이강훈, 정음사, 1974)

「장기지방재판소판결문長崎地方裁判所判決文」

파주, 적성, 교하, 장단의 인물

조소앙趙素昂

본적은 경기도 교하군(현 파주군) 월롱면이다. 1887년 4월 30일 아버지 조정규趙禎奎와 어머니 박필양朴必陽 사이에서 6남 1녀 중 차남으로 출생하여 6 · 25전쟁 중 납북되어 1957년 평양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한다. 정부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89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본명은 용은鏞殷, 자는 경중敬仲, 아호는 소앙이다. 독립유공자 · 정치사상가로 본관은 함안咸安이다.

6세부터 통정대부인 할아버지 성룡成龍으로부터 한문을 수학, 1902년 성균관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신채호申采浩 등과 이하영李夏榮 등의 매국음모를 막기 위하여 성토문을 만들어 항의하였다. 1904년 성균관을 수료하고, 황실유학생에 선발되어 일본 동경부립제1중학에 들어갔다. 1906년 동경유학생 친목단체인 공수학회共修學會를 조직, 회보를 발간하면서 주필로 활동하였다. 같은해 메이지대학明治大學 법학부에 입학하였으며, 1909년 동경에 있는 조선인의 각 단체

를 통합한 대한흥학회大韓興學會를 창립하여 회지 『대한흥학회보』의 주필이 되었다. 경술국치 때는 『한일합방 성토문』을 작성하고 비상대회 소집을 꾀하려다 발각되어 고초를 겪었다. 1911년 조선유학생친목회를 창립하고 회장이 되었다. 1912년 대학을 졸업, 귀국하여 경신학교 · 양정의숙 · 대동법률전문학교에서 교편을 잡다가 1913년 중국에 망명하여 신규식申圭植 · 박은식朴殷植 등과 동제사同濟社를 박달학원博達學院으로 개편한 뒤 중국혁명가들과 함께 항일단체 대동당大同黨을 조직하였다. 1915년 구국종교로서 민족의 대동단결과 정신적 유도를 목적으로 육성교六聖教를 제창하기도하였다. 그리고 『주권불멸론主權不滅論』 · 『민권민유론民權民有論』의 취지를 1917년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국제사회당대회에 한국문제의 의제로 제출하여 세계를 놀라게 하였다. 1919년 이른봄 만주 길림吉林에서 무장항쟁노선이 집약된 대한독립선언서를 기초하여 공표케 하였는데, 그 이념과 사상은 이후 2 · 8독립선언서, 3 · 1독립선언서에서도 그대로 계승되어 반영되었다. 같은 해 4월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헌장과 임시의정원법을 기초하였는데, 이 헌장은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이라 할 수 있다. 1919년 3 · 1민족항쟁에 즈음하여 대한독립의군부大韓獨立義軍府를 조직, 부주석으로 선출되고, 한성정부漢城政府 교통부장에 추대되었다. 4월 상해에서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민주공화제헌법의 기초를 비롯한 임시정부의 국체와 정체의 이론정립 및 임시정부의 대외홍보 전반에 걸쳐 주역으로 활약하였다. 즉, 임시정부헌법 · 의정원법議政院法의 기초위원과 심사위원을 거쳐 초대 국무원 비서장을 역임한 뒤 국무위원에 선임되었다.

아울러 외교를 통한 독립운동에 힘쓰고, 임시정부에서 국무원 비서장 · 외무부장, 임시의정원의장 등을 역임하고, 한국독립당의 창당위원장 및 부위원장

등 핵심간부로서 활동하였다. 다른 한편으로는 임시정부의 사상적 분열과 지도 이념의 혼돈을 극복하기 위해 1920년대 후반 삼균주의 사상을 창안하여 독립운동자의 대동단결 이념 및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으로 정립하였다.

특히 삼균주의에 입각하여 광복 이후의 국가건설 계획인 대한민국건국강령을 기초하여 공표케 하였다. 환국한 뒤에는 김구와 함께 임시정부의 정통성 고수를 주장하면서 삼균주의청년동맹과 삼균주의학생동맹을 결성하여 이에 기초한 국가건설운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외교면에서 괄목할 성과를 올렸으며. 만국평화회의 대표단 지원을 비롯하여 만국사회당대회와 국제사회당집행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프랑스에서 스위스로, 또 네덜란드로 다니면서 한국의 자주독립과 그 당위성을 역설하였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 지도층 인사들과의 폭넓은 교유로 영국 하원에도 한국문제를 정식 제기하도록 활약하였다. 또, 파리에서 철학자 베르그송(Bergson,H.)과 만나고, 런던에서 인도의 타고르(Tagore,R.)와도 만났다. 유럽 순방에 이어 1921년 국제사회당대표단으로 러시아 각지를 시찰한 뒤 모스크바를 경유, 5월 북경北京에 와서 공산주의 비판인 『만주리선언滿洲里宣言』을 발표하고 상해로 돌아와 이듬해 임시정부 외무총장 · 의정원의장이 되고, 세계한인동맹회장에 취임하는 한편, 김상옥金相玉을 국내에 밀파하여 의거하도록 하였다. 1927년 11월 국내에서 민족유일전선으로 조직된 신간회新幹會의 활동과 때를 맞추어 중국 상해에서 한국유일독립당韓國唯一獨立黨 촉성회를 이동녕李東寧 · 안창호安昌浩 · 홍진洪震 · 이시영李始榮 · 김구金九 등과 함께 결성하고 상임위원으로 선임되었다 1929년 이동녕李東寧 · 이시영李始榮 · 김구金九 · 안창호安昌浩 등과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을 창당, 독

자적 이념체계인 삼균주의三均主義에 입각한 정강 · 정책의 『태극기 민족혁명론』을 제창하였는데, 삼균주의는 정치 · 경제 · 교육의 균등을 골자로 한다. 한국독립당의 대외선전 및 임시정부의 이론전개와 외교문제를 거의 전담하였다. 1934년 삼균주의를 국시로 한 『대한민국임시정부건국강령』을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채택하게 하였다. 1937년 한국광복운동단체연합회를 결성, 1940년 한국독립당 부위원장으로서 창당선언에서 삼균주의를 다시 확립하고, 1942년 한중문화협회를 창설하여 중국 외교부장 쑨코孫科와 손잡고 김규식과 공동 부회장으로 활약하였다. 1943년 한국독립당 집행위원장, 1945년에는 충칭重慶 임시정부 외무부장이 되었다. 1945년 2월 28일 임시정부 외무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당시 임시정부에서는 임시의정원에 대하여 대독선전 동의요구안對獨宣戰同意要求案을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결의하게 되어 임시정부에서는 독일에 대하여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으며 동년 3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개최되는 연합국회의聯合國會議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대표가 참석할 수 있도록 정식요청하고 재미교포인 윤병구尹炳球외 8명을 선임하였다.

광복을 맞아 12월 1일 임시정부요인 2진으로 환국, 1946년 비상국민회의를 조직하여 그 의장이 되어 김구 주석과 함께 임시정부의 정통성 고수를 주장하였다. 비상국민회의가 국민회의로 개편되고 한국민족대표자대회와 통합을 이룰 때 다시 의장에 선출되었으며, 또한 반탁투쟁위원회 부위원장과 삼균주의청년동맹위원장에도 추대되었다. 1948년 4월 남북협상차 평양에 다녀왔고, 12월 방응모方應謨 · 백홍균白泓均 · 조시원趙時元 등과 사회당을 결성하고 당수가 되었다. 1950년 5 · 30총선에 서울 성북구에서 출마하여 전국최고득표자가 되어 제2대 국회에 진출하였으나, 6 · 25전쟁으로 서울에서 납북되어 1957년 평양에

서 사망한 것으로 전하여진다. 저서로는 『한국문원韓國文苑』(1932), 『소앙집素昂集』·『유방집遺芳集』(1983)이 있으며, 1970년 삼균학회에서 『소앙문집』 상·하권을 간행하였다.

『한국 현대사 인물연구』2(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백산서당, 1999)

『삼균주의연구논집』1~18(삼균학회, 1983~1998)

『조소앙』(강만길, 한길사, 1982)

『조소앙선생문집』(삼균학회, 횃불사, 1979)

『조소앙연구』(홍선희, 태극문화사, 1975)

「납북 제헌·2대 국회의원 현황」(『한겨레』, 2000.12.22.)

윤기섭尹琦燮

경기도 장단군 동도면 사야시리沙也是里 1157번지 출생이다. 호는 완운蜿雲이며 이명은 윤중규 윤중교尹仲珪이다. 중국 상해·중경 등지에서 주로 활약하였다. 1887년 4월 4일 출생하여 1959년 2월 2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89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보성전문학교를 졸업한 뒤 한동안 평북 정주의 오산학교五山學校 교사로 재직했다. 1908년 안창호安昌浩 등과 청년학우회를 조직해 활동하다가 중국 만주 동삼성東三省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新興武官學校의 교장으로서 독립군을 양

성하는데 진력을 다하였다.

1912년 부민단扶民團이 조직되자 이에 가입하였으며, 1919년 4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요청에 따라 부민단의 대표로 임시정부에 파견하였다. 1920년 상해에서 육군무관학교陸軍武官學校 교관과, 임시정부군무부臨時政府軍務部, 임시편집위원장臨時編輯委員長, 상해거류민단上海居留民團 본구역의 위원 등을 맡아 활동하였다.

1921년 5월 중한국민호조사총사中韓國民互助社總社를 조직하는데 참여하였다. 1921년 11월 임시의정원 의원 25명과 연서로 독립청원을 태평양회의太平洋會議에 참석하는 각국의 대표들에게 발송하였다. 1923년 5월 임시의정원 회의에서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을 옹호하는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상해에서 조직된 협성회協成會의 단장으로 단원 150명과 임시정부를 옹호하는데 앞장섰다. 1924년 2월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피선되어 독립운동의 추진책을 강구하였고, 1926년 12월에는 임시정부의 국무원國務員에 선임되어 1935년까지 군무장軍務長등으로 활약하였다. 1927년 3월 한국의 독립을 위한 혁명을 완수한다는 목적하에 한국국민당韓國國民黨 조직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1932년 4월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의 대표로 한국대일전선통일동맹韓國對日戰線統一同盟의 결성에 참여하였다. 1934년 2월 한국혁명당 대표로 민족단체의 합류를 추진하여 1935년 7월에 민족혁명당民族革命黨을 결성하였고, 1936년 2월에는 민족혁명당의 당보부책임자로 임명되어 활동하였다. 1943년 3월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무부차장에 임명되어 독립운동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해방이 되자 1946년 2월 귀국하여 민족혁명당 중앙집행위원으로 당기관지인 『앞길』의 사장이 되었고, 같은 달 좌익세력의 연합체인 민주주의민족전선(민

전) 부의장 및 상임위원을 지냈다. 1946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조선민족혁명당 대표로 관선의원에 선출되어 부의장을 지냈고, 1948년 국학대학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1950년 한국전쟁 때 납북되었고, 1956년 7월안재홍(安在鴻) 등 납북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재북평화통일촉진협의회 집행위원에 선임되었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8 (국가보훈처, 1990)

『독립운동사』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조선연감』(조선통신사, 1948)

「윤기섭의 대한민국임시의정원 참여와 활동」(이재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39, 2011)

박영준朴英俊

경기도 파주 출신이다. 1915년 11월 1일 태어나 2000년 3월 2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38년에 한국독립당과 한국국민당이 통합되고 미국에 있는 대한독립단, 동지회, 국민회, 부인애국단, 단합회 등을 통합하여 한국광복진선韓國光復陣線을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외곽단체로서 항일독립운동에 앞장서게 되었다.

이때 그는 한국광복진선 청년공작대에 가담하여 항일연극과 강연, 합창, 그리고 전단을 배포하는 등 반일사상의 고취와 함께 초모공작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일본 군대에 있던 한국인 병사들의 마음을 움직여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이 되도록 하는데 큰 동기를 부여하였다.

1939년 11월 중경重慶에서 임정의 인재양성계획에 따라 중국중앙군관학교 특별훈련반 교통과에 입교하였으며, 1941년 12월에 중국중앙군관학교 제17기를 졸업하였다.

중앙군관학교에 재학 중이던 1940년에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자 그는 광복군 제3지대에 배속되어 지대장인 김학규金學奎 수하에서 간부로 활동하였다. 이들은 일본군에 강제로 징집되어 참전한 한국사병들을 모으고자 진력하여 다수 학병과 지원병 및 징집병을 포섭하고 이들을 훈련시켜 중경重慶의 총사령부로 보내어 임시정부 및 한국광복군에 배치케 하였던 것이다.

1942년 4월부터는 상위上尉로 중경重慶에 있는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서무과에 배속되어 근무하였으며, 1943년 1월에는 임정 한인청년회 문화부장으로, 그리고 동년 8월에는 총사령부 서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1944년 6월에는 이시영李始榮 재무장으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임정 재무부 이재과장理財科長으로 근무하였다.

1945년 3월부터는 광복군 제3지대 제1구대장 겸 제3지대 훈련총대장으로 활약하였으며, 8월에는 개봉지구開封地區로 파견되어 그 곳에서 광복활동을 전개하였다.

박찬익朴贊翊

경기도 파주 주내면 파주리 출신이다. 이명은 박남파朴南坡이다. 1884년 1월 2일 태어나 1949년 3월 9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04년 관립 상공학교商工學校에 재학 중 국권회복을 위하여 수차 계획하다가 발각되어 퇴학당하였다. 1907년 초에 비밀결사 신민회新民會에 가입 활동하였다.

그 뒤 1908년 4월 다시 관립공업전습소官立工業專習所에 입학하여 1910년에 졸업하였다. 이때 나라를 일제에 강점 당하자 동지 박승익朴勝益 등 10여 명과 같이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으나 역부족, 그해 겨울 만주 용정龍井으로 망명하였다. 북간도에서 이상설李相卨 · 백순白純 등의 지도로 독립투쟁을 계획하는 일방 대종교 도사교都司教 나철羅喆의 권유로 대종교에 입교, 교인으로 활동하였다.

1912년에는 중국 관헌의 지원을 얻어 화룡현和龍縣 삼도구三道溝 청파동靑坡洞에 한국인학교를 설치하고 애국과 자립 사상을 고취하였다. 동시에 대종교의 정교正教직을 맡아보면서 포교하였다.

그후 상해로 건너가 손 문孫文을 따라 중국의 신해혁명辛亥革命에 참가하여 만청滿淸정부를 타도한 신규식申圭植과 함께 1912년 7월에 동제사同濟社를 조직하여 박은식朴殷植을 총재로 추대하였으며, 신채호申采浩 김규식金奎植 이광李光 등과 함께 독립운동의 중심기구로 발전시켜 나갔다.

1918년 11월에는 만주 길림吉林에서 김교헌金教獻 김동삼金東三 조소앙趙素昻 이동녕李東寧 등 39인이 '대한독립선언'을 발표하였는데 그도 39인 중 1인으

로 서명하였다.

1919년 3 · 1독립운동이 일어나자 다시 상해로 갔으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참여하여, 임시의정원 의원에 선출되었다. 같은 해 4월 23일 서울의 국민대회에서 한성 임시정부가 조직되었을 때는 박은식 · 신채호 · 손정도孫貞道 · 조성환曺成煥 등과 함께 평정관評政官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1921년 7월에는 임시정부 외무부 외사국장外事局長 겸 외무차장 대리로 외교임무를 실질적으로 전담하였으며 주로 대중국 외교에 주력하였다.

이후 임시정부를 뒷받침하는 대중對中외교를 계속하였으며, 1930년에는 한국국민당 조직에 참여하고, 동년 12월에는 대한독립당 대표로 남경南京정부에 파견되기도 하였다.

윤봉길의 홍구공원 의거 후 임시정부를 안전하게 이동시키기 위하여 중국정부와 교섭하여 많은 지원을 받았으며, 1932년 6월에는 다시 상해로 잠입하여 일제 앞잡이를 처단하는 등 부단한 활동을 벌여 옥관빈玉觀彬과 상해 한인韓人친우회 위원장으로 일경의 밀정 노릇을 하던 유인발柳寅發 등을 저격 처단하는 계획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1934년에는 한국독립당 남경지부의 간부로 활동하였으며, 중앙군관학교와 낙양군관학교에 독립군 간부 양성과정을 설치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였다.

1939년에는 다시 임시의정원 의원으로 활동하다가 1940년 임정이 중경重慶으로 옮긴 뒤에는 법무부장, 국무위원으로 임명되어 광복시까지 임시정부의 중책을 역임하였다. 한편 1942년 10월에는 김규식金奎植 · 신익희申翼熙 · 김성숙金星淑 · 김원봉金元鳳 · 엄항섭嚴恒燮 등과 함께 한중문화협회의 한국측 이사로 선임되어 한 · 중친선에 기여하였으며, 1943년 5월에는 김구金九 · 홍진洪震 · 유

동열柳東說 · 조소앙趙素昻 · 이청천李青天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의 중앙집행위원에 선출되기도 하였다.

8 15 광복 후에는 임시정부 주화대표단장駐華代表團長으로 교포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

『항일독립운동연구』(신재홍, 신서원, 1998)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남파박찬익전』(을유문화사, 1990)

『3 · 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현희, 동방도서, 1987)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 3 · 4 · 5 · 6 · 12 · 별집(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198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 신재홍, 한국민족운동연구소, 1971)

『朝鮮民族運動年鑑』(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第二課編, 東文社書店, 1946)

반하경潘夏慶

경기도 파주 출신이다. 1910년에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고종 때의 내시內侍로서 승전색承傳色을 지내다가, 1905년 일제가 무력으로 고종과 대신들을 위협하여 「을사조약」을 체결하고 국권을 박탈하자 이에 항의

하여 사임하고 경기도 파주坡州군 교하交河면에 은거하였다.

1910년 8월 일제가 한국을 병탄하여 나라가 망하자 통분을 누르지 못하고 "내시와 외관이 천함과 귀함이 다르기는 하지만 나 역시 임금의 은혜를 받아 수십년을 살아왔다. 그러나 임금이 하정하였으니 내 어찌 감히 따뜻한 방에서 죽을 수 있겠는가"라는 유서를 남기고 대로에서 할복 자결하였다.

『기려수필(騎驢隨筆)』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한국독립운동사』 1(국사편찬위원회, 1971)

안원규安元奎

경기도 파주 출신이다. 1900년대 초 하와이로 이주하였다. 1878년에 태어나 1947년 5월 2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대한제국 말기 노동이민으로 하와이로 건너가서 1906년 3월 하와이 오하우지방의 와이파후 농장에서 공동회共同會를 조직하고 회장으로 선임되어 동포들의 자치생활을 지도하였다. 그 후 1907년 9월 하와이 각 지방에 분립되었던 24개 단체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대표자 30명이 호놀룰루에서 합동발기대회

를 개최하자 동 대회에 참석하여 한인합성협회韓人合成協會를 조직하고, 부회장으로 선임되어 조국의 국권 회복과 한인동포들의 안녕 보장, 민족교육 장려를 위해 헌신하였다.

그 후 1908년 11월 미 본토의 공립협회共立協會와 통합하여 미주 전역의 유일한 한인민족운동단체를 조직하기 위한 발기인 모임에 한인합성협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여 1909년 2월 대한인국민회大韓人國民會를 창립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동년 7월 대한인국민회 하와이 지방총회 부회장을 역임한 데 이어 1910년 4월에는 동회同會의 총회장으로 선임되어 하와이 지방총회를 이끌었다. 그러던 중 1910년 7월 일제의 한국 강점이 현실화되자, 하와이 각 지방 대표자들을 호놀룰루에 소집시켜 대동공진단大同共進團을 조직하고 재무로 선임되어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와 연서로 일본 왕에게 일제의 한국 강점을 강력히 반대하는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국권회복을 위해 각 지방에 독립군양성소를 설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 6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의 연무부演武部 사업을 후원하기 위해 박종수朴種洙와 함께 하와이 오아후 가할루 지방에 있던 약 1,500에이커의 파인애플 농장을 기부하여 박용만朴容萬을 단장으로 하는 대조선국민군단大朝鮮國民軍團의 창립을 적극 후원하였다. 그러나 1915년부터 하와이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하던 이승만이 1921년 3월 하와이 국민회를 해산시키고 1922년 3월 상해 임시정부의 임시거류민단령臨時居留民團令에 의하여 하와이 대한인교민단大韓人僑民團을 조직하자, 부회장으로 선출되어 하와이 각지에 지부를 설치하고 분열된 한인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후 1933년 1월 하와이 대한인교민단을 해체하고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를 재건하여 분열된 한인사회를 수습하게 되자, 1936년 1월 부회장으로 선출된 그는 국민부담금제도를 통해 국민회의 채무를 청산하는 한편, 혈성금제도血誠金制度를 실시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경상비를 조달하였다.

1940년 9월 북미 대한인국민회에서는 미주와 하와이 각 단체 대표자들이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시국대책을 강구할 것을 하와이 대한인국민회와 동지회에 제의하였다. 이에 따라 1941년 4월 20일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미국내 각 한인단체 대표들이 모여 해외한족대회海外韓族大會를 개최하자,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대표로 참석한 그는 동 대회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선언문과 해외한족대회 결의안을 작성하는 한편, 독립전선 통일문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봉대奉戴문제, 대미외교기관對美外交機關의 설치문제, 군사운동에 관한 문제, 미국 국방공작 후원문제, 연합기관 설치문제, 독립금 수봉문제 등을 결의하였다.

이 결의에 따라 동년 8월 미주내 모든 단체들을 통합한 재미한족연합위원회在美韓族聯合委員會가 조직되고 하와이 호놀룰루에 재미한족연합위원회 의사부議事部가 설치되자, 의사부 위원으로 선임되어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후원과 외교 및 선전사업을 추진하였다.

한편, 1943년 9월 이승만 계열의 동지회가 재미한족연합위원회를 탈퇴한 후 1944년 6월 독자적으로 외교위원부를 설치하여 활동하자 재미한족연합위원회도 별도의 외교사무소外交事務所를 개설하고 외교사무를 전개하였다. 이와 같은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민국임시정부에서 동년 11월 주미외교위원부駐美外交委員部 위원을 새로이 선임하자, 외교위원으로 선출되어 활동을 전개하였다. 1945년 1월 하와이 대한인국민회 총회장에 당선된 데 이어 이듬해인 1946년 1월에도 재차 총회장에 당선되는 등 40여 년간 조국의 독립과 하와이 한인사회

를 위해 헌신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 12 · 13권(국가보훈처, 1996)

정태진丁泰鎭

경기도 파주군 금촌리 출신이다. 1904년 7월 25일 태어나 1952년 11월 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인정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연희전문학교 문과를 졸업하고, 1927년 미국에 건너가 우스터대학 철학과를 거쳐 콜럼비아대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31년 귀국하여 함흥 영생여자고등보통학교永生女子高等普通學校의 교사로 있으면서 학생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했으며, 1941년 6월 조선어학회의 조선어사전편찬 전임위원으로 활약하였다.

1942년 10월에 일제가 한국민족을 탄압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한국어 말살정책을 강화하고 한글학자들과 한글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조선어학회朝鮮語學會사건'으로 체포되어 함경남도 홍원경찰서와 함흥경찰서에서 일제의 잔혹한 고문과 악형을 받았다. 1945년 1월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언도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8 · 15광복을 맞아 출옥하였다.1952년 「우리말 큰사전」속간을 위해 서울에서 편찬사업에 진력하다가 귀향 도중 교통사고로 서거하였다.

정용대鄭用大

경기도 적성군 남면 경신동 출신이다. 1882년 2월 28일 태어나 1910년 1월 11일 사망하였다. 이명은 정용대鄭容大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의병이 되기 전에 동장으로 근무하면서 아동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었다.

그의 가계는 조부 때부터 배일사상을 지니고 있었다. 그의 조부와 부는 동학당의 우두머리로서 행동하였는데 조부는 청일전쟁 시 일본군에게 살해당하고 부 역시 병사하였다. 이러한 가족의 분위기에서 그는 조상들의 뜻을 이어 가고자 굳게 다짐하였다.

그리하여 작년 봄에 윤인순尹仁淳과 모의하여 그의 서기로 약 2개월 활동하고 이은찬과 회동하여 이은찬을 창의원수로, 윤인순은 우장右將, 자신은 좌장左將이 되어 의병활동을 시작하였다. 특히 이은찬李殷贊 의진과의 연합 전략이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1908년 2월 27일 이은찬 의진과 함께 양주군 석적면石積面에서, 그리고 3월 2일 회암면에서 일본 헌병 및 경찰대와 교전하였다.

그러나 이은찬이 의병운동의 확대를 모색하기 위하여 상경하던 길에 용산역에서 일본 경찰관에게 체포된 후 다소 전세가 약화되기도 하였다. 그리고 윤인순 의진과의 연합 전선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6월 8일 부평군 내면을 습격하였으나 주재 순사 3명 및 수비대 13명의 공격을 받아 의병 4명이 생포되었고 무기 9정을 빼앗기고 패퇴하였다. 이때 정용대 의진의 타격은 상당히 컸다.

1908년 4월 23일 부하 이종근李宗根외 18명으로 하여금 통진군 대파면大坡

面의 심진사沈進士 집에 가서 그 지역의 동장들을 일제히 불러서 총을 사올 비용을 염출해 줄 것을 요청하여 5일 후에 대금 1만 5천냥을 거두어 거사 자금에 보태었다.

그리고 4월 24일 대파면에 거주하는 부위 김순좌金順佐에게서 군도 1자루, 양릉면 곡촌谷村 한韓 모에게서 군도 2자루, 교하군 민閔판서에게서 양총 7자루 · 탄환 9백 발 그리고 고을 사람에게서 군도 4자루를 거두어 전력을 보완하였으며 고을 사람 조운원趙云遠 등과 미리 기맥을 통하여 헌병 · 순사의 동정을 탐지하여 보고케 하였다. 이상의 사건에 깊은 관계를 가진 이종근은 1908년 10월에 유형 5년형을 받게 되었다.

부하 신관수申寬秀는 4월 12일 통진군 수곡리水谷里의 김화안金和安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 10원을 조달하였고, 5월 20일경 교하군 문발리文發里의 민영도閔永道의 집에 들어가 총기 2자루와 탄환 1백 발을 조달하였다.

1909년 3월 15일 신관수 · 박만안朴萬安 외 5명은 풍덕군 사동리仕洞里 이장 김연의金演義집에 들어가 50원을 모금하여 군자금으로 썼으며, 5월 12일경 풍덕군 남촌리南村里 이장 강신규姜信奎의 집에 들어가 군자금을 요구하였으나 불응하자 그의 창고를 불태워 창고 안의 벼 8섬을 소각하였다.

6월 9일경 경기도 강화군 고도高島 해안에서 군자금 조달을 위한 활약을 하였으며, 연안읍내에 거주하는 최성섭崔聖燮 등에게 현미 1백 50부대를 받아 군량미로 썼다.

이상의 사건으로 인하여 신관수는 1908년 7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정용대는 백영현白永賢과 김현기金顯基 등에게도 군자금 조달의 임무를 부여하였다. 먼저 백영현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08년 12월 20일경

양주군 동면 강동薑洞을 거점으로 하고 백석면리白石面里에 거주하는 송범석宋範錫 집에 가서 군자금 6천원을, 그리고 광석면리廣石面里에 거주하는 이계운李季雲의 집에서 5천냥을 조달하였다.

1909년 6월초에 동지 30~40명과 함께 양주군 대지리大池里 변유삼邊留三에게 2차례에 걸쳐 3천 냥을 거두었다. 한편 김현기는 백영현과 함께 활약하기도 하면서 1909년 4월에 양주군 백석면 신지리莘池里에서 1천 1백 냥을 모금하였다. 이상의 일로 체포된 백영현과 김현기는 1909년 8월에 징역 5년형을 언도받았다. 그밖에 이학선李學善은 1908년 2월부터 정용대의 부하로 활약한 것이 소위 내란죄에 해당한다 하여 유형 5년형을, 그리고 이치옥李致玉은 소위 강도 · 살인죄로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3월 윤인순이 사망하고 이은찬 역시 체포되자 정용대는 스스로 원수가 되어 의병장으로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경기도 일대에서 활약하던 정용대는 경기도 일대의 의병소탕전을 전개한 일본 토벌대에 의하여 체포되어 1909년 10월 28일 경성지방 재판소에서 교수형을 선고받고 1910년 순국하였다.

순국 시 그는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누세의 욕을 당하고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짐은 천추의 한이라 여기고 그 태도가 평소와 같이 태연했다고 한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대한민국독립운동공훈사』(김후경, 광복출판사, 1983)

『독립운동사자료집』별집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4)

『독립운동사』1(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

「京城地方裁判所判決文」

권준權俊

경기도 적성 출신으로 생몰년 미상이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95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의병장으로 경기 북부지방에서 활약하였다. 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하고 대한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일제는 1904년 러시아와의 전쟁 도발 직후 곧바로 우리 정부를 강박하여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케 하고, 나아가 같은 해 8월 「한일협약」을 강제하여 고문정치를 실시하였다.

이어 1905년 전쟁에서 승리하자마자 「을사륵약乙巳勒約」을 체결하는 한편 통감부를 설치하여 그들의 지배정책을 가속화시켰다. 더 나아가 1907년 헤이그 특사사건을 빌미로 광무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고 곧바로 군대해산을 강행하여 우리 민족의 무력을 박탈하였다. 이러한 위기에 전국 각처에서는 의병이 속속 봉기하여 일본군과 친일주구들을 처단함으로써 국권회복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때 경기도 서북부의 양주楊州 · 파주坡州 · 적성 등지에서 의병활동이 활발하였다. 권 준은 1907년 9월 강원도 방면에서 들어와 양평楊平에서 활약하던 조인환曺仁煥 의병장 및 적성 출신으로 마전 · 삭령에서 봉기한 왕회종王會鍾 · 김진묵金溱默 등과 더불어 경기도 적성 · 파주 등 주로 임진강 유역에서 약 300여 명의 의병부대를 거느리고 활약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2)

『조선의용군』(현용순 · 이정식 · 한홍구편, 항전별곡, 1986)

『약산若山과 의열단義烈團』(박태원, 백양당, 1947)

「임시정부관계문서臨時政府關係文書」(대한민국임시정부)

포천의 인물

최익현崔益鉉

경기도 포천군 신북면 가채리 출생이다. 1833년 12월 5일 태어나 1907년 1월 1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62년에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하였다.

아버지 최대(崔岱)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어머니는 경주 이씨(慶州李氏)이며, 부인은 청주 한씨(淸州韓氏)이다.

9세 때인 1841년 김기현(金琦鉉)의 문하에서 유학의 기초를 공부했으며, 11세 때인 1843년 경기도 양근[양평]으로 이주하여 14세 때부터 당시 대유학자인 화서(華西) 이항로(李恒老)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최익현은 이때 성리학의 기본을 익혔으며, 애국과 호국 정신을 배워 훗날 '위정척사' 사상의 근간을 마련하였다. 특히 이항로는 최익현이 15세 되던 해 그의 인품을 격려하기 위해 '면암(勉庵)'이라는 글을 써서 주었는데, 이것이 아호(雅號)가 되었다.

20세 때 청주 한씨를 부인으로 맞았고, 22세 때에는 다시 고향인 가채리로

돌아와 과거 준비에 몰두하였다. 그리고 23세 때인 1855년 3월 별시 문과에 병과(丙科) 11등으로 급제하여 승무원 부정자로 관직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의 정치사상은 화서 계열의 위정척사(衛正斥邪)이었으며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로서, 이는 1868년의 시폐4조(時弊四條)의 상소와 1873년의 오조상소(五條上疏)에 잘 나타나 있다. 그 결과 대원군(大院君)을 하야(下野) 시킬 수 있었으나, 그 역시 유배당하여 제주도와 흑산도에서 귀양살이를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 후로는 관직에 오르지 않았지만 1895년 명성황후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상소를 통한 항일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하였다.

이미 1875년 개항(開港)에 반대하여 이른바 "지부복궐 척화의소(持斧伏闕 斥和議疏)"를 상소한 바 있지만 1906년까지 30편의 상소를 올려 시종일관(始終一貫) 위정척사 사상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다.

사상이 바뀔 것을 우려하여 관직생활을 끝까지 거부하였다. 심지어 면암의 상소에 의해 결정적으로 실각의 계기가 마련되었던 대원군이 1894년 재집권하게 되었을 때, 개항에 대하여 같은 견해를 표명한 면암을 공조판서(工曹判書)에 제수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1895년 6월 상소를 올려서 일본의 내정간섭을 규탄하고 개화의 모순을 지적하였는데 이 때문에 감금되기도 하였다. 1896년 명성황후 시해와 단발령을 계기로 의병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자 정부에서는 그들에게 영향력이 큰 면암을 선유대원(宣諭大員)으로 임명하였으나, 면암은 응하지 않았다.

1904년 노일전쟁(露日戰爭)이 일어나자 고종이 다시 의정부 찬정, 궁내부 특진관으로 불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해 12월 날로 기울어 가는 국운(國運)을 좌시할 수 없어 고종을 알현하고 오조수차(五條袖箚)를 상주(上奏)하였다. 그

러나 일제에 의해 2차례나 감금된 상태에서 드디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었다. 이에 항의하여 민영환閔泳煥이 자결하자, 면암은 을사 5적을 토멸하는 동시에 허위 조약을 거부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74세인 1906년 2월 면암은 가묘家廟에 하직을 고하고 호남으로 떠나 의병을 일으킬 계획을 하였다. 처음에 상경하여 일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일인들의 방해로 상경하지 못하였다.

그의 의병활동은 태인泰仁과 순창淳昌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은거지인 포천을 탈출하여 태인에 이른 것이 1906년 3월 24일, 거유 면암의 부름에 호응한 인물들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기우만奇宇萬과도 만나 거사를 상의하기도 하고 각지에 격문을 보내어 궐기를 촉구하였다. 그리고 문인들을 중심으로 동맹록同盟錄을 만들게 하니 4월 10일 현재 113명에 이르렀다.

4월 13일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의병 궐기를 시작하여 태인읍을 접수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수비케 하였다. 14일에는 정읍井邑으로 진군하고 내장사內藏寺에 유진留陣하니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많은 포수들이 호응하여 의진은 300여 명으로 늘어났다.

15일 구암사龜巖寺를 거쳐 16일 순창읍으로 들어갔다. 17일 곡성谷城읍에 진주하였다가 순창으로 회군하였다. 그러는 동안 의병부대는 600여 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 전주의 관찰사 한진창韓鎭昌과 순창 군수 이건용李建鎔이 일본군을 거느리고 습격해 왔다.

20일 새벽 관찰사 이도재李道宰가 의병을 해산하라는 황제의 칙지勅旨와 고시문을 보내왔다. 이 때 이미 옥과玉果와 금산錦山에 관군과 일본군들이 출병하고 포위망을 형성하여 사면으로 공격하여 왔다. 21일 새벽 면암과 호위 유생 12

인이 남았고, 관군이 사면으로 포위해 들어왔다. 이때 이들은 체포되었다. 22일 심문이 있었고, 23일 전주 진위대 김희진金熙鎭과 일병에 의하여 압송되었다. 면암과 임병찬은 가마에 타고 나머지 11인은 줄지어 묶여 서울로 압송되었다.

서울에 있는 일군 사령부에 갇혀 6월 26일 형을 받게 되었다. 면암은 감금 3년, 임병찬은 감금 2년형을 받고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 7월 9일 대마도에 도착하니 이미 홍주洪州의진에서 체포된 80명중 9인이 유배되어 와 있었다. 여기에서 면암을 비롯한 11인은 시를 지어 우국지정과 불우한 처지를 달랬다. 면암은 이 시기에 수 십 편의 시를 남겼으며 일인 경비대장에게 심한 모욕을 받은 후 면암은 단식으로 자진하고자 하였다. 함께 유배된 의사들이 울면서 식사를 권하는 바람에 마침내 단식은 중단되었다. 그러나 74세의 노령으로 거친 의병생활과 감금 유배 그리고 단식 등으로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 때문에 병을 얻은지 1개월만에 유배지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때가 1907년 1월 1일이었다. 면암의 유해가 부산에 도착하자 애국시민들은 철시撤市를 했고 남녀노소가 유해 앞에서 통곡을 했다. 상여가 마련되어 정산定山 본가로 운구하는 데 가는 곳마다 노제路祭로 전송하고 울부짖는 민중들 때문에 하루에 10리밖에 운구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상주尙州에서 새재鳥嶺로 가는 길을 택할 수 없어서 김천金泉으로 나와 열차로 운구하였다.

『면암집勉菴集』

『매천야록梅泉野錄』

『한국통사韓國痛史』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 1(국가보훈처, 1986)
『한말의 민족사상』(홍순창, 탐구당, 1975)
『의병운동사』(김의환, 박영사, 1974)
「면암 최익현의 생애와 사상」(홍순창, 『하정서정덕교수회갑기념회학술논총』, 1970)

박동완朴東完

경기도 포천 출신이다. 1885년 12월 27년 태어나 1941년 2월 2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사람이다. 한성외국어학교漢城外國語學校에서 수학한 후, 감리교 정동제일교회의 전도사로 근무하는 한편 기독교신보사基督敎申報社 서기로 전도와 독립사상의 고취에 힘썼다.

1919년 2월 중앙 기독교 청년회 간사로 있던 박희도朴熙道로부터 독립운동계획을 듣고 찬동하여, 27일에는 이인환李寅煥 · 함태영咸台永 · 박희도 · 오화영吳華英 · 등과 함께 정동교회貞洞敎會 내에 있는 이필주李弼柱의 집에 모여 천도교측에서 작성한 독립선언서에 민족대표로서 서명하였다.

이튿날인 28일 밤에는 재동齋洞 손병희孫秉熙의 집에서 다른 민족대표들과 만나 독립선언에 따른 최종협의를 하였다. 3월 1일 오후 2시경 인사동仁寺洞의 태화관泰華館에 손병희 등과 함께 민족대표로 참석하여,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삼창을 외친 뒤 출동한 일본경찰에 의하여 경시청총감부警視廳總監部에 구금되었다가,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과 출판법 위반 혐의로 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조선 중앙기독교청년회朝鮮中央基督教青年會 소년부 위원장 · 신간회新幹會 상임간사 등을 역임하였다. 1927년 12월, 중국 동삼성에 거주하는 백만 재만동포들이 중국 관헌들로부터 귀화를 강요당하며 박해받는 일이 벌어지자 각 사회단체의 주요인사들이 상설기관으로 재만동포옹호동맹在滿同胞擁護同盟을 설립하였는데 선생은 중앙상무집행위원으로 임명되어 1928년 1월 만주의 봉천성과 길림성 일대를 돌며 재만동포의 상황을 조사하고 돌아왔다.

그후 1928년 중반 미주 오아후섬의 한인기독교회 초대 담임목사로 부임하여 그 곳에서 약 12년간 목회를 하였고 교회 부설 한글학교를 확장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까지 두루 가르치며 교포2세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또한 국내의 흥업구락부興業俱樂部와 비밀연락을 취하며 독립운동을 계속하다가 1941년 병사했다.

『한국감리교 인물사전』(기독교대한감리회, 2002)

『3 · 1운동 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박동완의 국내민족운동」

(황민호, 『한국독립운동사연구』 33,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09)

「3 · 1운동과 기독교」(김형석, 『한국기독교와 민족운동』, 보성, 1986)

이규채李圭彩

본적은 경기도 포천군 가산면 방축리 484번지이다. 1884년 6월 7일 태어나 1947년 3월2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5세부터 25세까지 포천군에서 한문을 배웠다. 경성에 와서 계동桂洞의 현채玄采선생에게 사사하며 3년간 글씨 연구를 한 이래 서예가로서 생활하고 있었다.

1934년 체포될 당시 신문조서 기록에는 가족관계가 부인 이씨와 2남이 있었고 모친과 위로 형이 둘, 아우가 한명, 누이가 1명 본적지에 거주하고 있었다.

1923년 경성을 출발하여 상해, 항주 방면을 구경 겸 친척이 되는 이시영을 방문하여 상해에서의 조선독립운동의 정세를 시찰하고, 다음 1924년 2월 상해를 출발하여 본적지로 돌아왔다.

관할 주재소원의 비상한 주목을 받았으므로 다시 이번에는 진정한 조선독립운동을 할 심산으로 1924년 3월 중순경 경성을 출발하여 기차로 안동, 봉천을 경유하여 천진으로 가서, 그 곳에서 선편으로 상해로 갔다.

먼 일가인 이시영이 당시 그 곳에 있는 한국임시정부의 재무총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프랑스조계 그의 집에서 기거했다. 동년 4월 하순 조선독립을 유일한 목적으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이 되어 회의에 출석하여 김구, 윤기섭, 조완구, 여운형 등 30여명과 함께 한국임시정부의 확대 강화와 목적 수행을 위하여 협의했다. 당시 대통령 이승만이 미국에 거주하여 임시정부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그를 정권停權하기로 결의하

고, 후임에 박은식朴殷植을 추천하였다. 임시정부 임시의정원의 충청도 의원으로 피선되어 활동하다가 그 이듬해인 1925년에 사임하였다.

1930년에는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에 가입하여 정치부 위원 겸 군사부 참모장에 선임되어 활동하였다.

한국독립당韓國獨立黨은 1930년 7월 26일에 한족자치연합회를 모체로 하여 임시정부를 지원키 위한 목적으로 홍진洪震 · 신숙申肅 · 남대관南大觀 · 이청천李靑天 등이 중심이 되어 창설하였다.

1932년에 그는 한국독립당의 총무위원장總務委員長에 피선되었으며, 본부를 만주滿洲에서 북경北京으로 옮기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고, 본부를 옮김에 따라 한국독립당군은 해체하게 되었다.

1933년에는 중국 길림吉林 육군 제3군 상교참모上校參謀가 되어 활약하였으며, 그 이듬해에는 남경南京에 본부를 두고 있던 한국혁명당韓國革命黨과 한국독립당이 제휴하여 신한독립당新韓獨立黨을 조직하게 되자 그는 감찰위원장監察委員長으로 피선되어 활동하였다.

1934년 11월 1일에 중국 상해上海 영국조계에서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징역 10년형을 받고 경성형무소京城刑務所에서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독립운동사』4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화성, 수원의 인물

문상익文相翊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510번지 출신이다. 1893년 7월 3일 태어나 1960년 10월 1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홍면옥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송산면의 서기로 3월 26일부터 동면 사강리沙江里의 면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홍면옥 등과 함께 만세시위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1천여 명의 군중이 송산면 뒷산에 모여 전개한 대대적인 독립만세운동에도 참여하였는데, 이 때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野口]가 출동하여 이를 해산시키려 했으나, 군중들은 듣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일경은 주동자 홍면옥 외에 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다. 그러나 홍면옥이 갑자기 일어서며 독립만세를 외치자,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노구치

는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면옥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홍면옥이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면서 자기에게 발포한 순사를 죽이라고 외치는 광경을 본 시위군중들의 분노가 일시에 폭발하였다.

이에 노구치는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 때 그는 일경을 죽이라고 외치며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 · 김명제金命濟 · 김교창金敎昌 · 왕광연王光演 · 김용준金容俊 등과 추격하여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이규선李奎善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송산면 중송리 365 출신이다. 이명은 이귀선李貴善이다. 1885년 5월 5일 태어나 1941년 9월 1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일대에서, 홍면옥 · 왕광연王光演 · 문상익文相翊 · 홍명선洪明善 · 김교창金敎昌 등이 주동하여 일

으킨 독립만세시위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오후 5시경 송산면 사무소에 모인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내걸고 독립만세를 외쳤다. 다시 3월 28일 오후에 송산면 뒷산에 모인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대대적인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野口]가 제지하려 했으나, 시위군중은 더욱 기세를 올리며 홍 면 등 수십명이 면사무소로 달려가, 면장과 면서기에게 독립만세 부를 것을 강요하였다.

오후 3시경 뒤따라 온 노구치가 홍면옥 등을 강제로 주재소로 연행하려 하여, 시위군중과 충돌하게 되었다. 사태의 위급함을 느낀 순사부장이 권총으로 홍면옥을 쏘자,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시위군중은 일시에 격노하여 일경에게 달려들었다. 순사부장은 사태가 불리해지자 자전거를 타고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였다.

이 때 그는 왕광연 · 홍명선 · 김교창 · 문상익 · 홍남후洪南厚 · 김명제金命濟 · 민용운閔龍雲 · 정군필鄭君弼 등 20여 명과 함께 순사부장을 추격하여, 미처 주재소에 도착하지 못한 일경을 노상에서 포위하여, 돌과 곤봉으로 살해하고 일제의 눈을 피하여 만주滿洲로 망명하였다.

1923년부터 1928년까지 임시정부의 밀령을 받고, 3차에 걸쳐 입국하여 군자금 모금에 힘쓰다가, 1928년 8월 사리원沙里院에서 체포되어 10일간 구류처분을 받았다.

1931년 1월 다시 대대적인 군자금 모금 운동을 벌이다가 체포되었으며, 경성복심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던 중, 옥중에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경성복심법원판결문(京城覆審法院判決文)」
「치안국지문상(治安局指紋狀)」

이순모李順模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장안면 수촌리 69 출신이다. 현주소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 163-90 이다. 1893년 2월 25일 태어나 1975년 5월 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 · 차병한車炳漢 · 차인범車仁範 등과 화성군 장안長安 · 우정雨汀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이날 산에 올라갔다 돌아오는 길에 김평순金平順으로부터 당일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계획하였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날의 만세운동을 계획했던 차희식 등은 인근 동리인들에게 몽둥이를 가

지고 장안면 사무소로 집합하라고 연락하고 면장 김현묵金賢默도 같이 참여하도록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연락을 받은 그는 즉시 장안면 사무소로 달려가 200여 명의 군중의 선두에서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면사무소를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군중이 점차 1천여 명으로 증가하자, 그는 시위군중을 가까운 쌍봉산雙峰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어서 2천여 명으로 늘어난 군중을 차인범 등과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달려가 앞장서서 유리창을 부수고 집기류를 파기하였다.

그는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같은 면내인 화수리花樹里에 있는 경찰관 주재소로 달려가 투석하고, 주재소를 불태워 버리려고 주재소 뒤편에다 불을 질렀다. 이 때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가 총을 쏘면서 뛰쳐나오자, 차희식·차인범·장소진張韶鎭·장제덕張濟德 등의 동지와 함께 추격하여 붙잡아 격살시켜 버리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살인·방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장소진張韶鎭

경기도 수원시(현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76 출신이다. 1886년 9월 26일 태어나 1920년 8월 20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차병한車炳漢·차인범車仁範 등의 동지와 함께 화성군 장안면長安面·우정면雨汀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4월 3일 자기 동네 주곡리珠谷里 광장에 갔다가, 차희식으로부터 만세시위운동 계획을 전해듣고 적극 참여하기로 하였다. 이날 독립만세운동을 계획했던 차희식 등은 이미 다른 동네 사람들에게도 모두 몽둥이를 가지고 장안면 사무소로 모일 것을 연락하고, 면장 김현묵金賢默에게도 동참할 것을 권유하여 승낙을 받았다. 연락을 받은 그는 석포리石浦里에 살고 있던 이영쇠李永釗에게 이 계획을 전하고 즉시 장안면 사무소로 달려갔다. 당시 면사무소에서는 면장이 200여 명의 군중앞에서 독립만세운동에 대한 취지를 역설하고 있었다. 연설이 끝나자 그는 군중의 선두에 서서 돌을 던지고 몽둥이로 면사무소를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점차 군중이 1천여 명으로 늘어나자 이들을 인근의 쌍봉산雙峰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다. 이어서 그는 차인범 등의 동지와 함께 2천여 명으로 불어난 군중을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달려가 면사무소 건물과 집기·공문서를 부수었다.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같은 면내인 화수리花樹里에 있는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하여 투석하고 불을 질렀다. 이 때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가 총을 쏘면서 도망치자 차희식·차인범·이순모李順模·장제덕張濟德 등의 동지와 함께 추격하여 붙잡아 격살하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

개하였다. 그러나 체포되어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 방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서대문 감옥에서 복역 중 병보석으로 풀려났으나, 모진 고문의 후유증으로 1924년 11월에 순국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차병혁車炳赫

경기도 수원시(현 화성시) 장안면 석포리 537 출신이다. 1889년 12월 11일 태어나 1967년 2월 4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 · 차병한車炳漢 · 차인범車仁範 등의 동지와 함께 화성군 장안長安 · 우정雨汀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전해 듣고 4월 3일 아침 일찍 석포리石浦里 이장인 차병한 · 차희식과 함께 이영쇠李永釗 등에게 장안면 사무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되어 있으니 인근 주민들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모이도록 연락을 취하게 하였다.

한편 자신은 오전 10시 30분 경 차병한과 함께 어은리漁隱里에 있는 장안면 사무소로 가서 면장 김현묵金賢默에게 동참할 것을 강권하였다. 200여 명의 만세시위 군중이 면사무소에 모이자 김현묵이 독립만세 운동에 대한 취지를 연설하였고 그는 곧 선두에 서서 투석과 몽둥이로 면사무소 건물을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점차 군중이 1천여 명으로 늘어나자 차병한 · 이영쇠 등과 함께 이들을 인근의 쌍봉산雙峯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이어서 차인범 등과 함께 2천여 명으로 늘어난 만세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가서 그 곳의 건물 · 집기류 · 공문서를 파기하고 계속적으로 화수리花.樹里에 있는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는 등 격렬한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 방화와 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다년간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3(국가보훈처, 1987)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차희식車喜植

경기도 수원시(현 화성시) 우정면 주곡리 81 출신이다. 이명은 차봉습車鳳習이다.

1884년 12월 17일 태어나 1938년 11월 8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 · 차병한車炳漢 · 차인범車仁範 등의 동지와 함께 화성군 장안면長安面 · 우정면雨汀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3월 1일 이후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시위가 전개되고 있는 사실을 전해 듣고, 차병한 · 차병한과 함께 이영쇠李永釗 등에게 장안면 사무소에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기로 한 계획을 알려서, 인근 주민들에게 몽둥이를 가지고 면사무소로 모이도록 연락하는 한편, 자신은 장제덕張濟德 · 장소진張韶鎭과 함께 석포리石浦里 주민들에게 참여하도록 홍보하였다.

군중 200여 명이 모인 장안면 사무소에서 선두에 서서 투석과 몽둥이로 면사무소 건물을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점차 군중이 1천여 명으로 늘어나자, 다시 이들은 인근의 쌍봉산雙峯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하였으며, 이어서 차병혁 · 차인범車仁範과 함께 2천여 명으로 불어난 만세시위군중을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가서 그 곳의 건물을 파괴하고 집기류와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다시 석포리 이장 차병한의 제의로 화수리花樹里에 있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고 방화하였다. 이 때 주재소 안에 있던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가 권총을 발사하며 도망가자, 차인범 · 정서송鄭庶松 · 이순모李順模 · 장제덕張濟德 · 장소진張韶鎭 등과 함께 추격하여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 방화와 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형을 언도받고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하던 중 9년 2개월만에 출옥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3(국가보훈처, 1987)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홍원식洪元植

경기도 수원시(현 화성시) 향남면 제암리 사람이다. 1877년 10월 13일 태어나 1919년 4월 15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4월 5일 향남면 발안鄉南面 發安 장날을 이용하여 안상용安相容 · 안진순安珍淳 · 안봉순安鳳淳 · 김덕용金德用 · 강태성姜太成 등과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하였다.

그는 한말韓末의 군인으로서 1907년(융희 1)의 군대해산에 반대하여 일본군과 직접 대결하다가 부상하여, 고향인 제암리로 내려와 김성열金聖烈 · 안종후安鍾厚 등과 함께 구국동지회救國同志會를 조직하여 활약하였다. 이 때 이 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파견된 일본 헌병 두명을 타살하고 피신생활을 하던 중 3 · 1운동을 맞았다.

그는 4월 5일 1천여 명의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앞세우고 장터를 행진하였는데, 마침내 일본 경찰과 충돌하여 그들의 무차별 발포로 3명이 부상하였다. 이에 분노한 시위군중은 투석으로 대항하여 일본인 순사부장이 돌에 맞아 죽고, 많은 일본인 거주자들도 부상하였다.

이렇게 되자, 보복하기 위하여 경찰과 헌병이 대량으로 증파되어 닥치는 대로 체포하고 고문하였다. 그 후에도 제암리 일대는 일제의 삼엄한 감시를 받게 되었다.

4월 15일 오후 2시경 아리타有田俊夫라는 일본군 중위가 인솔한 20여 명의 군경이 제암리에 도착하여, 민간인들에게 알릴 일이 있다고 속여 기독교基督教 · 천도교天道教인 약 30명을 제암리 교회에 모이게 하였다.

이에 그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부인과 함께 교회안으로 들어갔다. 이에 아리타는 출입문과 창문을 잠그게 하고 집중사격을 명령하였다. 이같은 만행으로 23명이 현장에서 죽고, 이어 일본군경은 고주리高舟里로 달려가 6명을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는데, 일본군은 그들의 학살만행 현장을 은폐시키기 위하여 교회에 불을 지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때 그도 일제의 만행으로 그의 부인과 함께 현장에서 순국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삼일운동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3 · 1운동」(김진봉, 『교양국사총서』31, 1977)

홍준옥洪埈玉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리 출신이다. 1888년 7월 25일 태어나 1945

년 12월 7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그의 형 홍면옥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사강리沙江里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6일 송산면 사무소에서 200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과 함께 태극기를 게양하고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형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이날 오후 송산면 뒷산에서 1천여 명의 군중이 모여 대대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였는데, 이 때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고노(野口廣三)가 출동하여 이를 제지하려 했으나, 군중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독립만세를 외쳤다. 그러자 노구치는 주동자 홍면옥 외 2명을 체포하여 꿇어 앉혀 놓았는데, 갑자기 홍면옥이 일어서서 독립만세를 외치자, 야구광삼이 권총을 발사하여 총알이 홍 면의 어깨를 관통하였다.

이 때 그는 형을 업고서 면사무소로 가서 응급조치를 하며 형에게 발포한 일본인 순사를 죽이라고 부르짖었다.

당시 면사무소 서기였던 문상익文相翊이 뛰쳐나가서 그 순사를 죽이라고 외치자, 사태의 위급함을 느껴 자전거를 타고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주하는 순사를 추격했다. 그도 즉시 뛰어나와 형의 장인 김명제金命濟와 왕광연王光演 · 김교창金敎昌 등과 일경을 추격하여 미처 주재소에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를 도로에서 포위하여 투석으로 격살시키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김세환金世煥

경기도 수원군 남수리 242 출신이다. 1889년 11월 18일 태어나 1945년 9월 26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3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보성중학교普成中學校를 졸업한 후 일본 중앙대학으로 유학하여 새로운 학문을 배운 후 다시 귀국하여 수원 상업회의소水原商業會議所에 근무하다가, 교육사업에 종사하기로 결심하고 사직한 후 삼일여학교 교사로 재직하였다.

그는 3 · 1운동 때 기독교 측 대표로 민족대표 48인 중 한명이었으며 1919년 2월 11일 서울 당주동唐珠洞의 박희도朴熙道로부터 거족적인 독립만세운동에 관한 계획을 듣고 이에 적극 가담하기로 결심하였다.

21일에는 이갑성李甲成의 집에서 독립선언의 방법으로 천도교측과 연합하는 문제에 대해 토의하기 위한 기독교측 대표들의 철야회합에 참가하였다. 이때 그는 이 문제를 이인환李寅煥과 함태영咸台永에게 일임하고 지방의 동지 규합을 위해 22일 서울을 출발하여, 충청남도와 고향인 수원 · 이천利川지역에서 활동하였다. 24일 일단 서울로 올라와서 결과를 보고한 후, 다시 지방으로 내려가

동지 규합에 온 힘을 기울였다.

3월 1일 민족대표들이 일경에 체포되었고, 그도 주도급 인물로 3월 13일 체포되었다. 그는 여러 차례에 걸친 재판 끝에 다음 해 10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무죄로 석방되었다. 출감한 뒤에도 교육사업을 위하여 재산가인 홍사훈洪思勳을 설득하여, 수원 상업학교를 설립하여 2세 교육을 통한 계속적인 독립운동을 전개하다가, 조국의 광복과 함께 자신이 건립한 수원 상업학교 사택에서 57세를 일기로 운명하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3 · 1운동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김혁金赫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태장면 매탄리 504 출신이다. 현주소는 중국 길림성 초사현 석두하자 이다. 이명은 김학소金學韶, 김오석金五石, 김혁金爀 등이다. 1875년 10월 16일 태어나 1939년 4월 23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2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대한제국 육군정위正尉로 근무하던 중 1907년 8월 군대가 해산되자 비분하여 항일투쟁을 결심하고 고향으로 내려갔다. 1919년 3 · 1독립만세시위에 참가

한 후 일경의 눈을 피하여 만주로 망명하였다.

1920년에 산업의 진흥과 아울러 무력투쟁을 계획하여 백두산 아래 화룡현和龍縣에 자리잡은 대종교 총본사大倧教總本司와 백두산 동북쪽인 왕청현汪淸縣에 있던 북로군정서北路軍政署 등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무장항일 투쟁을 하던 흥업단興業團의 부단장으로서 활동하였다.

한편 1920년 봄 유우석柳佑錫과 함께 무송현撫松縣으로부터 와서 북로군정서에 참가하여 대일 항쟁에 전념하였다. 또한 1922년 8월 30일에 환인현 남구 마권자桓仁縣南區馬圈子에서 서로군정서, 대한독립단, 한교회韓僑會, 대한광복단군영, 대한정의군영, 대한광복군총영, 평북독판부대표 및 통군부 대표 등 8개단체 대표 71명이 참석하여 조직된 통의부統義府의 군사부감으로 선출되어 군사부장 양규열梁圭烈, 사령장 김창환金昌煥 등과 함께 항일투쟁에 적극 참여하였다.

1921년에는 일본군에게 쫓겨 노령지역으로 갔다가 자유시自由市 참변을 겪은 후 1924년 초에 북만지역으로 돌아와 현천묵玄天默을 총재로 하는 대한독립군정서를 조직하고 참모로서 활동하였다. 1925년에는 김좌진金佐鎭과 함께 북만 영안현北滿寧安縣에서 재야혁명가들을 모집하여 전북로군정서 정신에 입각한 신민부新民府를 조직하였다. 동년 3월 10일에는 발해의 고지故地인 영안의 성내城內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중앙집행위원장에 임명되어 재만동포의 안정과 대일항쟁을 위해 진력하였다.

또한 신민부에서 군인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목릉현 소추풍穆陵縣小秋風에 성동사관학교城東士官學校를 설립하자 교장에 임명되어 군인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1927년 2월에는 중동선 석두하자中東線 石頭河子에서 일경에게 체포되어 1929년 6월 14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을 받고 옥고를 치렀다.

왕광연王光演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송산면 사강 523 출신이다. 이명은 왕국신王國臣이다. 출생은 미상이며 1951년 12월 24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77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하였다.

1919년 3월 26일부터 3월 28일까지 홍면옥洪冕玉 등이 계획하여 전개한 화성군 송산면松山面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그는 3월 26일부터 송산면 사강리沙江里의 면사무소에서 태극기를 게양하고 1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사강 장날인 28일에도 홍면옥 등과 함께 독립만세운동에 참여하였다.

그는 이날 잠깐 외출하였다가 정오 경에 돌아와 홍종업洪鍾業의 집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1천여 명의 독립만세 시위군중이 모여 있던 뒷산으로부터 총성이 들렸다.

이 때 그는 남양南陽 사람으로부터 일본인 순사부장 노구치 고조(野口廣三)의 해산명령에 굴하지 않고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던 홍면옥이 어깨에 관통상을 입었다는 것을 전해 들었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갔는데, 이미 노구치는 노한 군중이 두려워 사강리 주재소 방향으로 도망하고 난 뒤였다.

그는 홍면옥의 동생 홍준옥洪준玉 · 김명제金命濟 · 문상익文相翊 · 김교창金教昌 · 김용준金容俊 등과 함께 추적하여 주재소에 미처 도착하지 못한 노구치를 도로에서 포위하였다.

이 때 이태순李泰順이 발로 자전거를 차서 넘어뜨리자, 왕광연은 그를 죽이라고 외치고 뛰어서 도망치는 그의 머리를 몽둥이로 쳐서 넘어뜨리고 투석으로

살해하는 등, 격렬하게 독립만세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7월 5일 고등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운동사자료집』 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정서송鄭庶松

경기도 수원군(현 화성시) 장안면 사랑리 175이다. 현주소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66이다. 이명은 정서성鄭瑞聖이다. 1897년 1월 3일 태어나 1966년 11월 11일 사망하였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1968년에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하였다.

1919년 4월 3일 차희식車喜植 · 차병한車炳漢 · 차인범車仁範 등의 동지와 함께 화성군 장안長安 · 우정雨汀면 일대의 독립만세운동을 지휘하였다.

그는 계획대로 200여 명의 군중과 함께 장안면 사무소로 갔는데 면장 김현묵金賢默의 연설이 끝나자, 군중의 선두에 서서 투석과 몽둥이로 면사무소를 부수고 공문서를 파기하였다. 군중이 1천여 명으로 늘어나자 차병한 · 이영쇠李永釗 등과 함께 군중을 인근의 쌍봉산雙峰山으로 인솔하여 그 곳에서 독립만세를 외치게 했다.

이어서 차인범 등과 함께 2천여 명으로 불어난 군중을 인솔하여 우정면 사무소로 달려가 면사무소 건물과 집기와 공문서를 때려부수었다. 다시 군중을 인솔하여 같은 면내인 화수리花樹里에 있던 경찰 주재소를 습격하여 돌을 던지고 불을 질렀다.

이 때 주재소 안에서 일본인 순사 가와바다川端豊太郎가 권총을 발사하며 도망치자, 차희식 · 차인범 · 이순모李順模 · 장제덕張濟德 · 장소진張韶鎭 등과 함께 추격하여 격살하는 등 격렬하게 만세시위운동을 전개하다가 체포되어, 1920년 12월 9일 경성복심법원에서 소위 소요 · 살인 · 방화 및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국가보훈처, 1997)

『독립유공자공훈록』2(국가보훈처, 1986)

『독립운동사자료집』5(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2)

『독립운동사』 2(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원호회, 1956)

이달호 전 수원박물관장

정진각 안산지역사연구소장

| 참고문헌 |

인터넷 정보

공훈전자사료관(http://e-gonghun.mpva.go.kr)
독립기념관(http://sajeok.i815.or.kr)

기본도서

『3 · 1독립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성』(이현희, 동방도서, 1987)
『경기도 재외동포 항일운동가』(김인덕 · 성주현, 경기문화재단, 2018)
『경기도 항일독립운동 문화유산 실태조사 보고서(전2권)』(경기도, 2017)
『경기도 항일독립운동사』(경기도, 1995)
『경기인물지』(경기인물지편찬위원회, 1991).
『고등경찰요사』(慶尙北道警察局, 1934)
『기려수필』
『대한계년사』
『대한민국독립유공인물록 : 1949-2008년도포상자 』(국가보훈처, 2008)
『대한민국임시정부사』(이현희, 집문당, 1982)
『독립운동사』1-10(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0-1978)
『독립운동사자료집』1-14집, 별집1-3(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197—1978)
『매천야록梅泉野錄』
『무장독립운동비사』(채근식, 대한민국공보처, 1949)
『삼 · 일운동비사』(이병헌, 시사시보사, 1959)
『의병과 독립군』(윤병석, 세종대왕기념사업회,1977)
『의병항쟁일기』(임병찬, 한국인문과학원, 1986)
『일제침략하한국36년사』1-12(국사편찬위원회, 1966-1978)
『(자료)한국독립운동』1-3, 4(상)4(하) (추헌수, 연세대학교출판부, 1971-1975)
『조선독립운동』1-5(金正明 編, 原書房, 1966-1967)
『조선독립운동암살사』(森川哲郎, 三一書房, 1976)
『조선민족운동년감』(在上海日本總領事館警察部 第二課編, 東文社書店, 1946)
『한국광복군연구』(한시준, 일조각, 1994)

『한국독립사』(김승학, 독립문화사, 1965)
『한국독립운동과 중국군관학교』(한상도, 문학과 지성사, 1994)
『한국독립운동사』(애국동지후원회, 1956)
『한국독립운동사』1-17 (국사편찬위원회, 1965-1988)
『한국독립운동사자료』1-30(국사편찬위원회, 1973-1995)
『한국민족운동사료: 중국편』(국회도서관, 1976)
『한국독립운동지혈사』(박은식, 1920)
『한민족광복투쟁사』(이현희, 정음문화사, 1990)
『항일독립운동사』(이강훈, 정음사, 1974)

색인

ㄱ

가평의 인물 228
강궁진 88
강기동 281
강윤희 230
강화 위씨 109
강화 이씨 110
개경 왕씨 44
개경왕씨 52
견권 101
고양의 인물 237
광주의 인물 251
구연영 258
권준 360
기훤 74
김경운 270, 320
김교헌 261
김규식 291
김균 193
김범이 263
김사형 137
김석진 241
김세환 382
김수민 242
김원조 330
김익상 239
김인찬 177
김칠 65
김혁 383

ㄴ

나중소 249
남양 방씨 64
남양 홍씨 62
남은 166
남재 171
능달 75

ㄷ

단림 106

ㅁ

마난 104
문상익 370
민여익 218

ㅂ

박기오 73
박동완 366
박시창 272
박영준 348
박찬익 350
박포 184
반하경 352
방계홍 64
법경대사 경유 117
법인국사 탄문 120
부평 이씨 111

ㅅ

서목 77
성달 106
수안 윤씨 110
수원 김씨 65
수주 최씨 67
시흥 강씨 88
시흥의 인물 272
신숙 232
신익희 251
신창룡 283

ㅇ

안성의 인물 277
안성 이씨 91
안승우 302
안원규 353
안재홍 337
양근 함씨 57
양주의 인물 281
양천 허씨 113
양평, 지평의 인물 294
엄항섭 307
여운형 294
여주의 인물 305
여준 321
연기우 312
연천, 삭녕의 인물 312
염상 85
염형명 82

영평 마씨 104
오광선 323
오사충 201
오영선 246
오의선 324
왕건 46
왕광연 385
왕규 57
왕륭 44
왕만세 50
왕식렴 48
왕신 49
왕함윤 51
왕회종 314
왕희순 51
요오화상 순지 116
용인의 인물 320
용인 이씨 70
원심창 340
위수여 109
위숙왕후 한씨 60
유명규 268
유천궁 54
유택수 331
윤기섭 346
윤병구 284
윤봉 110
윤신달 79
윤인순 286
윤호 182
의안대군 이화 152
의안백 이화 개국공신녹권 154
이규선 339, 371
이규채 368
이길권 70
이달 106
이대평 110
이명하 264
이방의 179
이부 206
이수흥 332
이순모 373
이양섭 277
이은영 310
이인영 305
이재윤 288
이재현 274
이종훈 255
이중선 91
이지란 158
이직 194
이천 서씨 77
이천의 인물 330
이춘영 300
이충응 236
이필주 237
이한응 326
이희룡 279

이희목 111
이희승 260
인천지역 109
임팔급 94
조인제 318
조인환 297
조준 128
죽산 박씨 73
진위, 평택의 인물 337

ㅈ

장단 한씨 60
장사길 169
장소진 375
전덕기 334
정도전 140
정서송 386
정용대 357
정주 류씨 55
정주 유씨 54
정철화 328
정탁 174
정태진 356
정희계 155
조견 187
조맹 97
조병세 228
조소앙 342
조시원 315
조영무 203
조용하 317

ㅊ

차병혁 376
차희식 377
천녕 견씨 101
최사위 67
최승규 67
최익현 362
추삼만 289

ㅌ

통진, 김포의 인물 268

ㅍ

파주 염씨 82

파주, 적성, 교하, 장단의 인물 342

파평 윤씨 79

평택 임씨 94

포천의 인물 362

풍양 조씨 97

ㅎ

한봉철 299

한상경 211

함부림 207

허선문 113

혜거국사 지회 119

홍길민 186

홍원식 379

홍은열 62

홍준옥 380

화성, 수원의 인물 370

경기그레이트북스 ⓮
건국의 주역, 경기 인물

초판 1쇄 발행 2018년 12월 18일

발 행 처 경기문화재단
(1648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로 178)
기　　획 경기문화재연구원 경기학연구센터
집　　필 고혜령, 이재범, 이달호, 정진각, 강병수, 김혜완, 박한남
편　　집 경인엠앤비 주식회사 (전화 031-231-5522)
인　　쇄 경인엠앤비 주식회사

ISBN 978-89-91580-36-7 04900
978-89-91580-33-6 (세트)

- 이 책의 저작권은 경기문화재단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에 대해 경기문화재단의 허가 없이 어떠한 형태로든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